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때 : 2020년 5월 8일(금)

○곳 : 한글학회 누리집(온라인 개최)

주최: **한글 학회**

후원: 한글재단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차 례•

[주제 발표]

이 기갑 : 방언의 어휘화와 문법화	5
---------------------------	---

[방언 분야/ 연구 발표]

장 승익 : 황해도 출신 북한이탈주민 발화의 음운론적 특징	21
백 은아 · 이 진병 : 말뭉치 구축을 위한 북한어 구술 발화 조사와 전사의 몇 문제	35
홍 미주 : 카카오톡 대화방의 음운변이에 대한 연구 —대구 지역 화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대상으로—	53
신 우봉 :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77

[지명 분야/ 연구 발표]

박 용식 : 서부 경남 지역(산청, 진주, 사천)에서의 ‘산’을 가리키는 후부지명소 분포	99
서 형국 : 한국어 지명 탐구 방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 기반의 고유명 탐구 사례를 중심으로—	113
한 주희 :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명어의 의의	139

[일반/ 연구 발표]

이 금영 : 동춘당 송준길가 연간의 부사 연구	161
김 건희 : 역대 문법 교과서의 ‘-음, -기’ 명사화 —명사형 어미와 명사절/체언절을 중심으로—	179
곽 은희 : 불필요한 외국어 줄이기 방안을 위한 고유어 연구	203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주제 발표

방언의 어휘화와 문법화

이 기갑

목포대학교 교수

kiglee@mokpo.ac.kr

1. 문법과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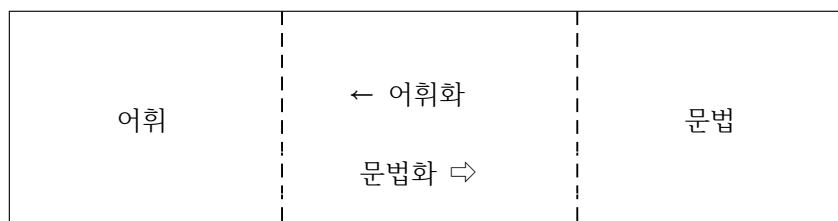
1.1. 언어는 크게 문법과 어휘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문법은 문장의 형식적 틀을 구성하고, 어휘는 그 틀 안에 의미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문법과 어휘는 역사적으로 늘 변화한다. 있던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어휘의 경우 문물의 발전과 더불어 이전에는 유용했던 물건이나 개념이 쓸모없게 되면, 그에 따른 다양한 낱말들이 사라지게 된다(예: 우물물을 ‘깁다’). 또한 새로운 문물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물건 이름이나 개념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예: 수돗물을 ‘받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문법 요소들도 마찬가지다. 15세기 우리말에 쓰였던 다양한 문법 형태소들(조사, 씨끝 등) 가운데 어떤 것은 오늘날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15세기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법 형태소가 탄생하기도 한다.

1.2. 문법 형태가 계속 사라지기만 한다면 나중에는 더 이상 문법 형태들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쪽에서 사라지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롭게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법 형태의 출현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선 문법 형태들의 통합적 관계가 변하여 새로운 문법 형태로 바

뛰는 수가 있다. ‘어 잇-’이 ‘-었-’과 같은 과거시제 표지로 변하거나, ‘-게 흥엿-’이 ‘-졌-’과 같은 추정의 안맺음씨끝으로 변화하는 예가 그런 경우이다. 이를 ‘재구조화’(reanalysis)라 한다. 반면 어휘가 변하여 문법 형태가 되는 수가 있다. 조사 ‘부터’는 동사 ‘붙-’의 활용형 ‘붙어’에서 온 것이다. 이처럼 어휘적인 의미가 문법적 의미로 바뀌는 것을 ‘문법화’(grammaticalization)라 한다. 문법화는 어휘적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본질로 하지만, 거기에는 형태적 차원의 재구조화가 동반되는 수가 많다. 한국어처럼 첨가어인 경우, 수많은 문법 형태들은 이러한 문법화 과정을 거쳐 생겨난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법 형태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질 수 있고, 그 자리를 다시 어휘부에서 문법화한 새로운 문법 형태가 메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언어 내부의 어휘부는 문법의 빈자리를 채워 주는 재료 창고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어휘부에서는 끊임없이 문법화를 통해 새로운 문법 형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비록 사라지는 문법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언어의 문법 형태의 수는 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1.3. 문법화와 반대 방향의 변화를 ‘어휘화’(lexicalization)라 한다. 어휘화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문법 형태가 변화하여 어휘적 요소로 바뀌는 것을 어휘화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문법화에 비해 그 수가 미미하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휘화에 기대어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지는 예는 극히 적기 때문이다. 새로운 어휘는 기존 어휘의 합성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접사에 의한 파생의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휘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합성과 파생이 아닌 제 삼의 방식에 의한 어휘 형성의 예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1.4. 우리는 한 언어 안에서 일어나는 문법화와 어휘화의 관계를 아래 그림처럼 표시할 수 있다. 화살표의 방향은 변화의 방향이며 화살표의 크기는 변화를 겪는 양(quantity)의 크기이다.



〈그림 1〉 어휘화와 문법화

1.5. 방언은 언어 변화의 양상을 반영한다. 언어 변화의 속도나 그 내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그 결과로 상이한 방언이 생겨나는 것이다. 문법화와 어휘화는 모두 통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 양상 역시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방언 문법의 차이는 문법화에 따른 차이일 수 있고, 방언 어휘의 차이 역시 어휘화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래에서 서남방언에 나타난 어휘화와 문법화의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 어휘화/문법화라는 통시적 현상이 방언 분화에 미치는 양상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2. 어휘화

2.1. 방언의 어휘화는 주로 ‘명사+조사’ 구성에서 나타나는데, 조사의 문법적 의미가 퇴색하면서 선행 명사의 의미만이 남게 되는 변화이다. 예를 들어 중세어에서 사람 의문사는 ‘누’였다. 여기에 의문조사 ‘고’가 결합된 ‘누고’가 모음의 상승을 겪어 오늘날의 ‘누구’로 바뀐 것이다. ‘누구’라는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졌지만 그 의미는 ‘누’와 같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 ‘고’의 문법적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와 비슷한 어휘화가 서남방언에서도 찾아진다.

2.2. 우선 대명사 ‘머시기’를 들 수 있다. ‘머시기’는 서남방언에서 ‘거시기’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거시기’는 대명사와 감탄사의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두 용법 모두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할 때 쓰인다. 아래 예의 ㄱ은 대명사, ㄴ은 감탄사로 쓰인 경우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예이다.

(1)

- ㄱ. 자네도 기억하지? 우리 동창, 거시기 말이야, 키가 제일 크고 늘 웃던 친구.
- ㄴ. 저, 거시기, 죄송합니다만, 제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서남방언의 ‘머시기’도 ‘거시기’와 마찬가지로 대명사와 담화표지(감탄사)의 두 가지 용법을 갖는다. 아래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추출한 예이다.

(2)

- ㄱ. 여그서 한 몇 년을 살면 내가 그 머시기를 해원풀이를 해 주마.(해남 구비)
- ㄴ. 그랑께 머시기가, 호랭이랄 높이 ‘여시아. 뚜께비이 새끼 저 한—’ 그라고 인자 동구리가 내려와서 봉께, 벌러 봉께 한나도 없어, 떡이 다 빠져 불고.(해남 구비)

- ㄷ. 즈그(=저희) 머시기 저 아버지 그랑께 머리든 것이드락 해.(해남 구비)
- ㄹ. 누룩을, 저 발을 머시기 뻬(=뵤)을 물어갖고 고축을 파내고 거그다가 보리를 갈아갖고 거그서 누룩을 해서 술이 그렇게 추하다고 그라드라요.(해남 구비)
- ㅁ. 인자 머시기 그 빼딱(=뻬다귀) 모도 머리 있는 것을 다 거그다 묻어서 장사를 시켰드라우.(해남 구비)

예 (2)에서 ‘머시기’는 역행대용의 대명사로 쓰였다. 얼른 생각나지 않아 우선 ‘머시기’로 격의 자리를 차지하는 placeholder 역할을 하고, 이어서 그 대명사가 지시하는 명사가 뒤따르는 구성이다. ㄱ과 ㄴ의 경우는 동일한 격조사가 결합된 명사구가 잇달아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역행대용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ㄷ은 ‘즈그’ 뒤에 오는 ‘머시기’가 ‘즈그’의 수식을 받는 대명사임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그 지시명사는 ‘아버지의 머리’라는 사실을 후행 발화를 통해 알 수 있다. ㄹ과 ㅁ은 ‘머시기’ 직후에 지시명사가 오는 예로서 ‘머시기’가 역행대용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은 대명사라기보다는 담화표지로 해석될 만한 경우이다.

(3)

- ㄱ. 나는 얻어묵도 잘 못하고 실지는 인자 이빨도 없고, 다 빠져 불고 없고 이랑께 머시기 저, 얻어묵도 못하고 서럽게 살고 있다고 나를 잔 죽여 주지 마라고 인자 그러면 도련님을 따라 갈란다고 그라고 하드라우.(해남 구비)
- ㄴ. 아 이것 참말로 두 번이나 뚜께비를 안 줄라고 인자 늘 흘려서 인자 그렇게 했는디 아니 머시기 저 어찌게 거짓말할 수도 없고, 변명을 할 수가 없어.(해남 구비)
- ㄷ. 올라오면 인자 막 머시기 막 형형하고 물라고 달라들면 몽뎡이가 필요 있는 것이요? 그양 다 들어내 불고 내빼고 내빼고.(해남 구비)

위의 예 (3)은 말할이가 뒤에 올 말을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한 말(filler)로 쓰인 경우이다. 이때는 대명사가 아닌 담화표지로 보아야 한다. 예 ㄱ과 ㄴ에서는 다른 담화표지 ‘저’나 ‘아니’와 함께 쓰이고 있어 이때의 ‘머시기’가 담화표지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종의 담화표지들이 함께 쓰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ㄷ은 ‘형형하고’를 대신하는 대용어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담화표지로 해석하였다.

어떻든 서남방언에서 이러한 담화적 기능을 하는 ‘머시기’는 중세어의 사물 대명사 ‘므스’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므스기’에서 온 것인데, ‘므스기’의 모음이 바뀌어 생

거난 ‘머시기’에서는 더 이상 주격조사 ‘이’의 기능을 찾을 수 없다. 오늘날 서남방언에서 ‘프스기’는 하나의 낱말로써 기원적인 ‘이’는 완전히 통합되어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낱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서남방언의 ‘머시기’에 유추되어 ‘거시기’와 같은 낱말도 만들어졌다. ‘거시기’는 지시대명사 ‘그’에 ‘시기’가 합성된 것인데, ‘시기’는 ‘머시기’로부터 따 온 것이다. 실제로 서남방언에서 ‘거시기’와 ‘머시기’는 그 용법이 완전히 같아서 모두 대명사나 담화표지로 쓰인다.

2.3. 서남방언에서 ‘남’(=타인)은 ‘넙’이나 ‘놈’으로 쓰이는데, 이때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넙의’나 ‘놈의’가 ‘너무’나 ‘노무’로 발음되면서 따로 독자적인 명사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놈이 다 안다.’라고도 하고 ‘노무가 다 안다’라고도 할 수 있다. ‘너무’나 ‘노무’는 당연히 관형격 조사 ‘의’의 문법적 의미가 퇴색하여 선행 명사에 형태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생겨난 새로운 낱말이다. 그러나 관형격 조사 ‘의’의 문법적 의미가 퇴색한다는 것은 결과일 뿐이며 실제 과정은 의미의 문제라기보다 형태적 재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놈의 집’과 같은 구성의 음성 실현형은 ‘노무집’일 텐데, 이 구성을 ‘명사+명사’의 구성으로 재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무’에 포함된 관형격 조사 ‘의’의 의미가 퇴색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분석은 아마도 ‘놈’이나 ‘넙’이 일 음절 낱말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분석이 동일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재분석이 다른 낱말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형격 조사가 퇴색된 또 다른 예로 전남 완도 지역에서 쓰이는 ‘동승에’(=손아래 올케)를 들 수 있다. 손아래 올케는 전남의 내륙지방에서는 ‘동상아덕’이라 하고, 손위 올케는 ‘오라부덕’이라 한다. ‘동상아덕’과 ‘오라부덕’은 각각 ‘동생의 덕’, ‘오라비의 덕’과 같은 구성에서 발달한 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상아덕’과 ‘오라부덕’에 나타나는 형태 ‘아’와 ‘우’는 각각 관형격 조사 ‘의’인 셈이다. 이러한 전남의 내륙형과 비교할 때 완도의 ‘동승에’는 뒤따르는 명사 ‘덕’(=덕)이 없이 ‘명사 +관형격조사’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구조만으로 손아래 올케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승에’의 ‘에’는 더 이상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동승에’ 전체가 손아래 올케라는 의미를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머시기’나 ‘노무’와 달리 선행 명사의 의미와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완도와 가까운 진도에서는 손아래 올케를 ‘동승에지섬’이라 한다. 여기서 ‘지섬’은 ‘짓엄’이며 ‘짓’은 ‘집’의 관형형 ‘값’의 변이형이다. 따라서 ‘지섬’은 의미상으로 ‘집어미’일 것이며, 표준어 ‘지어미’에 그대로 대응되는 말이다. 그렇다면 ‘동승에지섬’은 ‘동생의 지어미’라는 뜻이 될 것이다. 아마도 완도의 ‘동승에’는 ‘동승에지섬’과 같은 낱말에서 후행 요소인 ‘지섬’이 탈락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2.4. 처격 조사 ‘에’는 공간이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 뒤에 붙는다. 이때 ‘위, 아래, 옆, 밑, 앞, 뒤, 곁, 안, 밖...’과 같이 일정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특정의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명사는 서남방언에서 일반적으로 처격 조사 ‘에’를 붙여 표현한다. ‘앞이 무겁다’보다는 ‘앞에가 무겁다’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아래에 몇 예를 제시하였다.

(4)

- ㄱ. 책상을 옆에를 들어라.
- ㄴ. 밑에를 잡어.
- ㄷ. 옥에가 널봉께 좋아.
- ㄹ. 애기가 엄마 절에를 통 안 떠나.
- ㅁ. 그란디 곁광(=명절 때 죽은 사람이 먹도록 마당에나 집 앞에 차려 놓은 음식상) 곁어가 부루먼 아 못 묵는다고 또 앉었네 거가, 우리 어메가 절에만큼 가서.(신안)

위의 예에서 ‘옆에, 밑에, 옥에, 절에’는 표준어의 ‘옆, 밑, 위, 곁’에 대응하는 말이므로 여기서 처격 조사 ‘에’가 의미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없다. 조사 ‘에’의 처격 표시 기능은 사라지고 선행하는 위치 명사의 의미 안에 포섭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처격 조사 ‘에’의 의미가 퇴색한 것은 위치 명사와 처격 조사와의 결합 빈도가 지극히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 마치 물건처럼 낱말의 의미도 약화되거나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

비슷한 변화가 ‘샘’(泉)에서도 찾아진다. ‘샘’은 전남에서 ‘세암’, ‘샘’, ‘샘에’ 등의 세 가지 어형이 쓰인다. 여기서 ‘샘에’는 물론 ‘샘’에 처격 조사 ‘에’가 결합된 것이다. ‘샘’이 공간 명사이기 때문에 일상 언어생활에서 처격 조사 ‘에’와의 결합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샘에’가 하나의 낱말로 굳어진 것이다. 그 결과 처격 조사 ‘에’의 의미는 퇴색하여 그 의미는 선행 명사 ‘샘’과 동일하게 된다.

2.5. 전남의 목포나 무안에 가까운 섬 지역(압해도, 임자도 등)에서는 인칭대명사로서 ‘이삼네’, ‘그삼네’, ‘저삼네’, ‘누삼네’ 등을 사용한다. 이들 대명사에 포함된 ‘삼네’는 ‘사람네’의 축약형이다. 따라서 ‘이삼네’는 원래 ‘이 사람네’와 같은 표현에서 축약된 것으로서 표준어의 ‘이’와 같은 대명사의 구실을 한다. ‘누삼네’는 의문사 ‘누’에 ‘사람네’가 합성된 말인데 역시 의문대명사 ‘누구’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누삼네 어메’는 ‘아무개 엄마’의 뜻을 갖는다. ‘그삼네’는 ‘그’와 같기 때문에 ‘그삼네가 꼬치를 물린다고.’는 ‘그 사람이 고추를 말린다고’의 뜻이 된다.

2.6. 이상에서 우리는 서남방언에서 발견되는 어휘화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명사에 결합한 격조사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새로운 낱말로 탄생한 경우들이었다. 이때 격조사는 주격, 관형격, 처격 등이었다. 목적격, 공동격, 비교격, 주제 보조사나 기타 보조사의 경우는 이러한 어휘화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마도 문법성이 강한 조사일수록 의미의 퇴색이라는 의미 변화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처격 조사 ‘에가(서)’의 문법화

3.1. 동사 ‘가-’에 이음씨끝 ‘-어서’가 결합된 ‘가서’는 인과관계와 계기적 상황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해석에 따라 통사적 제약도 달라진다. 인과관계의 경우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는 달라야 하지만, 계기적 상황을 나타낼 때에는 주어가 같아야 한다.

(5)

- ㄱ. 철수가 미국에 가서 모두들 서운해 했다.(인과관계)
- ㄴ. 철수가 미국에 힘들게 가서 박사학위도 어렵사리 받았다.(계기적 상황)

‘가서’의 주어를 A, 이동의 목적지를 G, 후행절의 사태를 P라 한다면, ‘가서’는 언제나 ‘A가 G에 가서 P’와 같은 구성을 형성한다. ‘가서’가 인과관계를 나타낼 경우 G는 뒤따르는 사태 P가 일어나는 공간일 필요는 없다. 반면 계기적인 사태를 나타낼 경우 G는 뒤따르는 사태 P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해석된다. 예 (5ㄱ)에서 목적지인 ‘미국’은 후행절 ‘서운해 한’ 사태가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과 무관하지만, (5ㄴ)에서는 후행절 ‘박사학위를 어렵사리 받은’ 사태가 발생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서’가 계기적 사태를 나타낼 경우, ‘가서’의 목적지와 후행절 사태의 공간이 일치하는 것은 ‘가서’의 의미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남방언에 나타나는 계기적인 ‘가서’의 경우를 살펴도록 하자.

(6)

- ㄱ. 김정승이 하로는 이정승네 집에 가서 노다가 집이를 옹께,(함평 구비)
- ㄴ. 그래 삼형제 똑같이 갖고 나가서 삼거리질(=삼거리)에 가서 갈리라(=헤어지라)고 그랬거든.(함평 구비)
- ㄷ. 산에 가서 백 일 산제를 모시고 잉태를 해 아들을 낳단 말이어.(함평 구비)
- ㄹ. 군수가 가마이 대문 옆에 가서, “절구야!”하고 부릉께 아 매미만 헌 것이 불

어 있어.(함평 구비)

ㄱ. 그놈을 갖고 가서는 그 앞에 주막에 가서 술을 양썸 먹어 버렸네.(함평 구비)

ㄴ. 그래 인자 요놈이 마래(=마루) 밑에 가서 가만이 봉께 흘치매를 입고 앉엿응게,(함평 구비)

예 (6)의 ‘가서’는 모두 계기성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6)ㄱ-ㄴ은 ‘가서’ 뒤에 자동사가 왔고 ㄷ-ㄴ은 타동사가 왔다. 그러나 ‘가서’에서 이동의 의미가 분명하게 인식되는 점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가서’가 포함된 선행절과 이후의 후행절은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두 사태를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점에서 표준어와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3.2. 아래의 예 (7)은 (6)과 달리 ‘가서’의 이동 의미가 전혀 인식되지 않는 경우이다.

(7)

ㄱ. 동헌을 뜯고 보면 동헌 대들보 밑에가서 크나큰 지네가 있단 말이어.(함평 구비)

ㄴ. 옛날에 한 마을에가서 어이 장자 김씨가 한 분 지시고(=계시고) 그 밑엿집 이가서 박씨 아조 곤란한 이가 지시는데(=계시는데),(함평 구비)

ㄷ. 그러자 마참(=마침) 유제(=이웃)에가서 부자 흘엄씨가 살아.(함평 구비)

ㄹ. 사람이라 허는 것은 한 번 죽으면 부모 뱃속에가서 열 달을 허면 열기를 받았기 땀으로 말이어, 전부 그것이 저 거시기 퇴화되어 버리고 모른답니다.(함평 구비)

ㅁ. 넥타이 밑에가서 시래미(=‘이’의 일본어 sirami)란 놈 두 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함평 구비)

ㅂ. 그러다가 멧 달이 지난 뒤에 물을 질러가지고 물동우를 이고 이렇게 오는데 마로(=마루)에가서 행감 따악 치고 앉었으니(=앉았으니)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던 말이어.(함평 구비)

(7)이 (6)과 다른 점은 첫째, ‘가서’의 주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계기성의 ‘가서’ 구문에서 후행절의 주어는 선행절의 주어와 일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그렇다면 (7)의 ‘가서’의 주어도 후행절의 주어와 같아야 할 텐데 (7)의 각 문장에서 후행절의 주어로써 ‘가서’의 주어를 상정하면 비문이 되거나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둘째, (7)의 ‘가서’에서 ‘가-’는 결코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가서’의 후행절 주어로써 ‘가서’의 주어를 상정할 경우 비문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서’는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하였거나 매우 약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서’는 의미적으로 이동의 사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단순히 장소를 나타내는 표지의 일부로 기능하게 되었다. ‘A가 G에 가서 P’의 구성에서 이동의 목적지(goal)로 해석되었던 A는 ‘가서’의 의미 퇴색으로 인해 장소(location)로 해석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가서’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면 ‘가서’는 더 이상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에 가서’와 같은 통사적 구성은 ‘에가서’라는 하나의 조사로 재구조화 될 수밖에 없다. ‘가’의 의미 퇴색과 형태적 재구조화의 과정을 겪은 ‘에 가서’가 결국 처격 조사 ‘에가서’로 문법화 되기에 이른 것이다(이태영 1984, 이기갑 1987, 이기갑 1998:75-76, 이기갑 2003:70-71).

그런데 이러한 문법화는 ‘가서’ 뒤에 오는 후행절의 서술어가 자동사일 때만 가능하다. (6)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올 수 있었으나 (7)에서는 오직 자동사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에 가서’의 문법화는 ‘가서’가 인과관계가 아닌 계기성을 나타낼 경우에 한하여 일어난다. 계기성의 ‘가서’는 두 절의 주어가 일치하고, ‘가서’의 목적지가 후행절 사태의 발생 공간이라는 의미적 특징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의미 통사적 특징이 ‘가서’의 의미 약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서’의 문법화는 ‘가서’를 수식하는 성분이 없는 구성인 ‘에 가서’에서만 일어난다. 수식 성분이 오게 되면 ‘가서’의 이동 의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의미의 약화나 퇴색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식 성분의 존재 때문에 형태적 재구조화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3.3. 문법화를 겪은 처격 조사 ‘에가서’는 ‘서’가 탈락하여 ‘에가’의 형태로 쓰이는 수가 많다. 문법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형태적 축약의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에가서’와 ‘에가’가 혼용되어 쓰이므로 형태의 동결이라는 문법화의 일반적 특성과는 어긋나는 점이 있기는 하다. 아래 예 (8)은 ‘에가’를 보여 주고 있는데, ‘에가서’로 바꾸어도 의미는 동일하므로 ‘에가서’와 ‘에가’가 혼용되는 예라 할 수 있다. (8)의 ㄱ-ㅅ은 존재동사 ‘있-’이 쓰인 경우이고, ㅅ-ㅇ은 ‘들었-’이 쓰였지만 의미상으로는 ‘들어 있-’으로 해석되므로 이 역시 존재동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8)의 ‘에가’는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8)

- ㄱ. 이로운 것은 술밭에가/술밭에가서 있다.(함평 구비)
- ㄴ. 모르겠습니다만 바위에가/바위에가서 말 발태죽(=발자국)은 있습니다.(함평 구비)
- ㄷ. 할아버지서부터서 아들 손жат님 전부 한 가정에가/가정에가서 전부 있지 안 했어요잉?(함평 구비)
- ㄹ. 웃집이 장자는 저렇게 마당에가/마당에가서 노적 비늘이 수십 개고 창고에

는 창고마다 나락이 그득 차고 그랬는디.(함평 구비)

- ㄱ. 이 동네 앞에가/앞에가서 주갱이들(지명)이라고 있습니다.(함평 구비)
- ㄴ. 칫간(=변소) 잿속 아무 암디 편에가/편에가서 있습니다.(함평 구비)
- ㄷ. 내 손에가/손에가서 멋이 들었소?(함평 구비)
- ㄹ. 이 속에가/속에가서 니 종우(=종이)가 들었냐 안 들었냐?(함평 구비)

아래 예 (9)의 ‘에가’ 역시 처격 조사로 쓰인 경우인데, 서술어가 ‘있-’이 아닌 경우 들로서, 서술어는 모두 자동사이다. (9ㄱ)은 ‘막을 치고’처럼 ‘에가’의 후행 서술어가 타동사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막을 치고’는 뒤에 오는 ‘살든 겹디다’를 수식하는 말이므로 ‘에가’의 뒤에 오는 진정한 서술어는 자동사인 ‘살-’이다. 만약 서술어가 타동사 구성인 ‘막을 치고’라면 ‘에가’가 아닌 ‘에다’가 와야 한다. 이러한 자동사 앞의 ‘에가’는 처격 조사 ‘에’와 완전한 등가의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에가’와 ‘에가서’는 의미 차이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9)

- ㄱ. 그놈을 읽고 있는디, 방에가/방에가서 물이 점점 차올라.(함평 구비)
- ㄴ. 목에가/목에가서 밥이 걸려서 인자 어른들도 밥이 안 넘어가.(함평 구비)
- ㄷ. 장도가 가심에가/가심에가서 백허서 죽었는디 잡을 수가 없어.(함평 구비)
- ㄹ. 여천꼴 뒤에가/뒤에가서 즉 말헌다치면 한씨가 안 사냐(=살잖니)?(함평 구비)
- ㄱ. 그 강변(江邊)에가/강변에가서 막을 치고 막을 치고 우타리(=울타리)도 없이 이렇고 살든 겹디다.(함평 구비)
- ㄴ. 담 안에서 널을 뛰다 담너메가/담너메가서 빠졌구야.(함평 구비)
- ㄷ. 선생님이 거식해 갖고 과부 자는 방에가/방에가서 이불 밑이가/밑이가서 들어 누어 붙었어.(함평 구비)

아래 예 (10)은 후행절의 서술어가 ‘암-’(=앉-)이나 ‘엎지-’(=엎드리-)인 경우이다. 이때도 ‘에가’는 모두 앉거나 엎드린 장소를 나타낼 뿐, 앉거나 엎드리기 위해 특정의 장소로 이동하는 의미는 전혀 없다. 그래서 (10ㄱ)의 ‘마루에가’는 ‘마루에 가서’와 같은 사태로 인식되지 않고 단지 ‘마루에’의 의미로만 인식될 뿐이다. (10ㄴ)과 (10ㄷ)도 마찬가지다. (10ㄹ)과 (10ㄱ)은 매우 흥미롭다. (10ㄹ)인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캄캄헌디 구멍 속에가 인자 암었다 말이어’의 경우, 선행 표현인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가 있기 때문에 후행 표현인 ‘구멍 속에가’는 결코 ‘구멍 속에 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그 결과 ‘구멍 속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0ㄱ)도 똑같은 해석 절차를 겪어야 한다. 이런 경우의 ‘에가’가 이동의 결

과인 목적지의 장소를 나타낼 뿐이며 이동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에가’는 통사적 구성 ‘에 가’가 의미의 퇴색과 재구조화를 겪어 문법화가 완료된 처격 조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에가’ 대신 ‘에가서’를 쓰면 중의성이 발생한다. ‘에가’처럼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특정의 목적지로 이동하는 의미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앉다’류의 동작성이 있는 자동사의 경우 ‘에 가서’는 아직까지 ‘가서’의 이동 의미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에 가서 → 에가’의 형태 변화는 ‘장소/목적지’의 중의적인 해석을 ‘장소’의 단일한 해석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 해석의 단일화는 문법화가 더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즉 형태의 축약은 문법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10)

- ㄱ. 그 마루에가/마루에가서/마루가 떠억 앉아서,(함평 구비)
- ㄴ. 아랫목에가/아랫목에가서/아랫목가 짹 좌정하고 앉었소그려.(함평 구비)
- ㄷ. 도골이가 즈기(=저희) 아부지 앞에가/앞에가서/앞가 따악 꿇고 엎져서(=엎드려서) 하는 말이,(함평 구비)
- ㄹ. 그런데 밀어 넣어분디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캄캄헌디 구멍 속에가/속에가서/속가 인자 앉었단 말이여.(함평 구비)
- ㅁ. 그래 웃방으로 가 웃방에가/웃방에가서/웃방가 딱 쪼그리고 쪼끔 있으니가 백발노인 어른이 섯이 들어와.(함평 구비)

3.4. ‘에가’는 더 나아가 ‘에’의 탈락을 겪어 ‘가’만으로 쓰이기도 한다. 위의 예 (10)에서 ‘가’로 대체한 예들이 모두 정문을 형성하는 것이 이를 보여 준다. ‘에가서 → 에가 → 가’와 같은 일련의 형태적 축약은 문법화의 진행 방향을 보여 준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형태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에 따라 동사 ‘가’의 의미는 퇴색되어 문법화의 정도가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예 (11ㄱ)과 (11ㄴ)에서는 ‘가서’의 이동 의미가 인식되지만 (11ㄷ)에서는 전혀 인식되지 않음으로써 문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에가 → 가’는 모든 명사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 ‘뒤’, ‘속’, ‘목’ 등의 일 음절 낱말 뒤에서는 ‘에’ 탈락이 어렵다. 그러나 ‘아부지 앞’, ‘구멍 속’처럼 앞에 수식어가 올 경우에는 ‘아부지 앞가’, ‘구멍 속가’처럼 가능한데 이러한 ‘에’ 탈락의 제약은 ‘에서 → 서’에서도 찾아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 → 집서’는 어색하지만 ‘우리 집에서 → 우리 집서’는 가능하다.

(11)

- ㄱ. 마당에 가서 놀아라.

- ㄴ. 마당에 가 놀아라.
- ㄷ. 마당가 놀아라.

3.5. ‘에가’와 평행되게 유정 명사의 경우에는 ‘한테가’가 쓰이는데 문법화의 양상은 ‘에가’와 완전히 같다. (12口)에는 두 개의 ‘한테가’가 나타나는데, ‘나한테가’의 ‘한테가’는 문법화된 것임이 분명하나 ‘아무개한테가’의 것은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한테가’ 뒤의 서술어가 타동사라는 사실이 문법화를 의심하게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한테 가’와 같은 통사적 구성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테가’는 ‘에가’와 달리 ‘한테가’ 탈락하여 ‘가’만으로 쓰일 수는 없다. 그래서 (12)의 ‘한테가’를 ‘가’로 바꾸면 모두 비문이 된다. 의미상으로 유표인 유정물을 나타내는 표지인 ‘한테’는 무정물 표지인 ‘에’에 비해 탈락이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12)

- ㄱ. 난참(=나중)에 군수한테가/*군수가 아들이 하나 생겼는디.(신안 구비)
- ㄴ. 조대감한테가/*조대감가 붙었던 말여.(장성 구비)
- ㄷ. 과연 내 자식이 못둔 죄로 이런 사망이 났으니 살려 달라고 빌어, 아버지가 신거무한테가/*신거무가.(장성 구비)
- ㄹ. 아 그 집 주인한테가/*주인가 아다리(=‘당침’의 일본어)가 되었어.(화순 구비)
- ㅁ. 나한테가/*나가 시방 돈 없응께, 재 너머에 아무개한테 가 아 돈을 좀 내가 그러드라고 돈을 해서 갖다 쓰소.(장성 구비)
- ㅂ. 틀림없이 마누래가 느그(=너희) 씨아제(=시동생)한테가/*씨아제가 맘이 있다.(보성 구비)
- ㅅ. 요것이 틀림없이 내 동생한테가/*내 동생가 마음을 두고 한 가지 것이라도 더 해 준갑다.(보성 구비)

3.6. 처격 조사 ‘에가(서)’의 문법화는 ‘가서’ 뒤에 오는 서술어가 자동사일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법화의 결과인 ‘에가(서)’는 장소의 표지로만 쓰일 뿐 목적지의 방향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 결과 예 (13)의 비문성은 모두 쉽게 설명된다. ‘에가’의 선행 명사가 모두 목적지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 표시인 ‘에가서’의 기능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13)의 ㄱ과 ㄴ처럼 모두 자동사이기는 하지만 목적지로 해석되어 비문이 된 것이다. (13)의 ㄷ과 ㄹ은 타동사가 오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비문이 된다. 이 경우는 ‘에가’가 아닌 ‘에다’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에가’와 ‘에다’의 기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에가’는 자동사의 장소 표지, ‘에다’는 타동사 목적어의 목적지 표시가 그 주된 기능인 것이다.

(13)

- ㄱ. 철수는 학교에/*학교에가 다닌다.
- ㄴ. 철수는 여기에/*여기에가 잘 안 온다.
- ㄷ. 철수는 고향에/*고향에가/고향에다 선물을 보냈다.
- ㄹ. 철수는 벽에/*벽에가/벽에다 그림을 붙였다.

3.7. ‘에 가서’의 구성이 처격 조사 ‘에가서’로 문법화 되는 변화는 주로 서남방언에서 일어났다. 물론 다른 방언에서도 동사 ‘가’의 의미가 약화되는 수가 있기는 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14)의 예가 그런 경우이다.

(14)

- ㄱ. 검사 결과는 내일에 가서야 나온대.
- ㄴ. 이 부분에 가서는 특히 현악기의 선율에 주의해야 한다.

(14)의 ‘가서’는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곳에 이르다’로 해석되는 경우인데, 계기적으로 해석되는 이 ‘가서’의 주체를 상정하기 어려워 원래의 이동 의미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서’의 의미 약화가 있더라도 표준어에서는 ‘에가서’와 같은 처격 조사로의 문법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형태 ‘에’와 ‘서’가 개별적으로는 탈락이 가능하지만 이 두 형태가 모두 탈락하기는 쉽지 않아서 형태적 재구조화도 일어나기 어렵다. 똑같은 구성이 왜 표준어에서는 문법화 되지 않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용 빈도의 차이가 한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미의 약화 정도도 문법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쨌든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똑같은 구성이 쓰이더라도 이 구성이 재구조화되어 한 낱말로 문법화 되는 것은 방언에 따라 달리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참고 문헌〉

- 유 영대·이 기갑·이 종주(1998). 『호남의 언어와 문화』. 백산서당.
이 기갑(1987). 전남 방언의 토씨 체계. 『국어국문학연구』(장태진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삼영사.
이 기갑(1998). 호남방언 문법의 이해. 유 영대/이 기갑/이 종주(1998)에 실림. 11-174. 백산서당.
이 기갑(2003). 『국어방언문법』. 태학사.
이 기갑(2011). 『전남 영광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이 기갑(2015). 『국어담화문법』. 태학사.

이 태영(1984). 동사 「가다」의 문법화에 대하여-특수조사 「가(서)」의 설정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92, 421-440. 국어국문학회.

방언 분야/ 연구 발표

황해도 출신 북한이탈주민 발화의 음운론적 특징 / 장 승익

말뭉치 구축을 위한 북한어 구술 발화 조사와 전사의 몇 문제 / 백 은아 · 이 진병

카카오톡 대화방의 음운변이에 대한 연구

—대구 지역 화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대상으로— / 홍 미주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 신 우봉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방언 분야/ 연구 발표

황해도 출신 북한이탈주민 발화의 음운론적 특징

장 승익

전북대학교 강사
namoo119@gmail.com

1. 서론

본 연구의 목표는 황해도 방언을 모방언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화자의 발화를 분석하여 그 음운론적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단 이후 황해도 방언의 조사 및 연구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다음 몇 가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¹⁾

먼저,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피란민을 조사, 연구하는 방법이 있다. 김 영배(1981), 곽 충구(1994), 정 원수(2002), 장 승익(2018)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나, 거주 지역 혹은 거주 기간 등에 따라 해당 지역 방언과의 간섭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²⁾ 다음으로 중국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황해도 출신 동포를 대

1) 물론 황 대화(2007)과 같이 황해도 지역을 직접 조사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황해도 출신 정착 마을인 완주 정농 마을을 조사한 장 승익(2018: 1-3)에서는 이 마을 화자들이 사용하는 방언의 현재 모습이, 기본적으로 황해도 방언에 기초하여, 대략 다음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1) 전북 방언의 간섭, 2)표준어의 간섭, 3)사용 언어의 내적인 변화의 가능성. 그러나 이 논문은 이들 요인 사이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단순한 결과만을 제시한 한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최 소연(2018)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연구는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황해도 출신 자료 제공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방식도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 언어와의 간섭 문제는 여전한 걸림돌이다. 세 번째 방법은 북한이탈주민을 조사하는 것이다. 강 순경(1999)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앞선 두 대상에 비해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현재 사용되는 방언을 가장 가깝게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황해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자료 제공인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현대 황해도 방언으로 간주한다. 현대 황해도 방언 자료는 기존 황해도 방언 관련 선행 연구 성과들과의 대비를 통해 황해도 방언의 변이와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가령 황 대화(2007)의 자료 제공인은 분단 이전에 언어 습득이 완료되었고, 본 연구의 자료제공인은 분단 이후에 언어 습득이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황 대화(2007)과 본 연구의 대비는 황해도 방언이 분단 이후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황해도 방언이 각각 처한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서로 다른 방언권 안에서 나타나는 황해도 방언의 차이는 1차적으로 각각의 방언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⁴⁾

본 연구의 자료 제공인 401(약호)은 1945년에 황해도 안악(은천)에서 출생한 여성이다. 2011년에 남측으로 전입하여 현재 전북 전주에 거주하고 있다. 조사는 자료 제공인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구술 발화 방식으로 이루졌으며, 발화 주제는 주로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아무런 유대 관계가 없는 본 연구자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코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평소 자료 제공인과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이 조사를 진행하였다.⁵⁾ 조사는 2019년 9월에 2차례에 걸쳐 자료 제공인의 집에서 약 5시간 실시하였다.⁶⁾ 이렇게 확보한 음성 자료는 ELAN5.9⁷⁾로 전사하였으며, 약 26,000 어절 가

계를 지닌다.

3)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는데, 황해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 그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황해도 출신은 2.7%에 불과하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0: 72~73).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전통적인 방언 연구에서 말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 제공인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4) 강 순경(1999)에 따르면 현대 황해도 방언은 분단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방언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 제공인도 평안도 방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영배(1981)은 서울경기 방언, 장 승익(2018)은 전북 방언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5) 조사자는 함북 출신 40대 여성이다.

6) 조사에 사용한 녹음기는 Sony PCM-D10이다.

7) ELAN (Version 5.9) [Computer software]. (2020). Nijmegen: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The Language Archive. Retrieved from <https://archive.mpi.nl/tla/elan>

량이다.

2장에서는 본 자료에 나타나는 음운 목록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본 자료에서 확인된 음운 현상을 정리하였는데, 국어의 일반적인 모습과 유사한 것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2. 음운 목록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19개의 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두 위치에서는 17개(/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ㆁ/, /ㅅ/, /ㅆ/, /ㅎ/, /ㅈ/, /ㅊ/, /ㅍ/, /ㅌ/), 비어두 음절 초에서는 위 17개에 더해 /ㄹ/이 확인되었다.⁸⁾ 그리고 음절 말에서는 7개(/ㅂ/, /ㄷ/, /ㄱ/, /ㅁ/, /ㄴ/, /ㅇ/, /ㄹ/)의 자음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어의 일반적인 모습과 유사하다. 다만, /ㅈ/의 경우, 국어의 여타 방언에서 경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과 달리 본 자료에서는 치조음으로 실현된다는 차이가 있다.

단순 모음은 /ㅣ/, /ㅐ/, /ㅓ/, /ㅡ/, /ㅑ/, /ㅓ/, /ㅕ/, /ㅗ/, 총 8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부 방언과 대비할 때, 전설 원순 모음(/ㅑ/, /ㅓ/)이 없는 것이며, 기존 황해도 방언 연구(한영순 1967, 김영배 1981, 황대화 2007 등)에서 제시된 9모음 중에서 /ㅓ/가 제외된 것이다. 본 자료에서 /ㅑ/는 상향 이중 모음([wi])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러 하향 이중 모음([uj])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1ㄱ).⁹⁾ 그리고 /ㅓ/는 주로 [e]로 실현되었다(1ㄴ).¹⁰⁾ 이것은 /ㅓ/를 음소로 인정한 김영배(1981)와 차이를 보인다.¹¹⁾

(1)

ㄱ. 위[上]: [wi]~[uj], 뒤[後]: [twi]~[tuj]

ㄴ. 헛가루(헛가루), 세(쇠), 테짜(퇴짜), 교혜(교회), 에루(외로), 데다(되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상반된 것이라기 보다는 황해도 방언의 단순 모음이 점차 단순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김영배(1981)와 본 연구의 자료 제공인의 나이는 최소 20년 이상 차이를 보인다.¹²⁾ 이는 단지 세대

8) 다만 ‘라진(羅津), 록음병’과 같이 어두 위치에서 ‘ㄹ’이 실현되는 경우도 소수 확인되었다.

9) 소수이기는 하나 활음이 탈락한 경우도 나타난다. 디집어(뒤집어), 우에(위에).

10) ‘교회, 석회’ 그리고 움라우트 실현형인 ‘쫓기다(쫓개다), 쫓일(쫓일)’과 같은 단어에서 /ㅓ/가 [ø]로 실현되는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다.

11) 김 영배(1981)에서도 황해도 방언의 /ㅓ/가 [we]로 실현되는 등 안정되지 못한 음소임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안약’ 화자의 경우에는 모두 [ø]로 제시되어 있다.

12) 김 영배(1981)에 따르면, 조사는 1980년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가장 젊은 나이는 55세였다.

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을 기점으로 한 황해도 방언의 변화로도 볼 수 있다. 강 순경(1999)을 보면, 1990년대 후반 탈북한 30~40대 황해도 화자는 평안도 방언에 동화된 모습을 보이며, 그결과 단순 모음이 5개로 줄어드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분단 이전에 9개의 단순 모음을 가지고 있던 황해도 방언은, 분단 이후 평안도 방언의 영향을 받아 점차 단순화되어 가고 있으며, 본 자료는 그 중간 단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한편, 활음은 /j/, /w/ 2개가 확인되는데, 이중 /j/는 핵모음 뒤에 위치하여 하향 이중 모음을 형성하기도 한다.

(2) [uj](위), [tuj](뒤), [səj](셋), [nəj](넷), [soraj](소래), [kamaj](가마)

3. 음운 현상

3.1. 고모음화

고모음화는 중모음인 /ㅔ/, /ㅚ/, /ㅟ/가 각각 그에 대응하는 고모음 /ㅣ/, /ㅡ/, /ㅓ/로 변하는 현상이다. 먼저, /ㅚ/ > /ㅡ/를 살펴본다.

(3)

ㄱ. 느~네[四], 근느다~건너다, 읊다~없다, 은다~얼다

ㄴ. 거짓말, 서[三], 점심, 넣다, 서다, 썰다

/ㅚ/ > /ㅡ/는 중부 방언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며, 그 실현 환경은 어두 위치 장음이다(백 두현 1997, 김 정태 2004, 김 아름 2008 등). 본 자료에서도 (3ㄱ)과 같이 어두 장음의 환경에서 고모음화가 일어나는 예가 확인되기는 하나 고모음화 비실현형도 함께 나타나며, 출현 빈도로 보면 비실현형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3ㄴ)과 같이 장음을 가진 단어인데도 고모음화가 실현된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본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두 장음 이외의 환경에서도 고모음화가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었다.

13) 그러나 황 대화(2007)에서는 황해도 방언에 여전히 9모음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는 황 대화(2007)의 자료 제공인이 분단 이전에 언어 습득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장 승익 2019).

(4)

- ㄱ. 곳(것), 그기(거기), 느(너, 你), 늠어지다(넘어지다), 느무(너무), 묵다(먹다), 스다(서다), 서해안(스해안), 으똥다(어똥다), 즈기(저기), 흘출(철철), 흐락(허락)
- ㄴ. 다숫(다섯), 여숫(여섯), 벼숫(벼섯), 아즈씨(아저씨), 무습다(무섭다), 무굽다(무겁다),
이룽게(이렇게), 저룽게(저렇게)
- ㄷ. 에스~이스(에서), 부툼(부터); -드니(더니), -으(-어), -문~문(-면)

(4ㄱ)은 어두 장음의 환경이 아닌데도 고모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4ㄴ)은 비어두 위치에서, (4ㄷ)은 문법 형태소에서 고모음화가 실현된 예이다. 단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고모음화 실현형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본 자료에서는 /ㄱ/ > /ㅡ/가 환경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실현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황 대화(2007: 43~44), 장 승익(2018: 35~36, 90~114)과 유사하다.¹⁴⁾

다음으로, /ㄱ/ > /ㅣ/이다. 이 유형의 고모음화는 음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ㄱ/ > /ㅡ/와 실현 환경이 유사하다. 곽충구(2003)는, 이 현상이 남부 방언에서는 장 음 및 그 이외의 환경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부 방언에서는 그 실현이 한정적임을 통해 /ㄱ/ > /ㅣ/가 남부 방언에서 북쪽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⁵⁾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ㄱ/ > /ㅣ/의 예는 다음과 같다.

(5)

- ㄱ. 니[四], 띠다(떼다) cf. 메다, 베다, 세다
- ㄴ. 글씨(글쎄), 미칠(며칠), 이기(이게), 이지(이제), 지기(지게)
- ㄷ. -기(-게), -니(-네)

(5ㄱ)은 어두 장음의 환경에서 /ㄱ/가 /ㅣ/로 바뀐 예이다. 일부 단어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모음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메다, 베다, 세다’와 같은 단어에서는 고모음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5ㄴ)은 어두 단음, 비어두 환경에서 고모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미칠’의 경우는 ‘며칠>메칠>미칠’과 같이 모음 축약 후 고모음화가 일어났다. (5ㄷ)은 어미 ‘-게’, 접미사 ‘-네’가 각각 ‘-기, -니’로 실현된 것인데, 출현 빈도는 낮은 편이다. 이처럼 본 자료에서 /ㄱ/ > /ㅣ/는 일부 단어에서 제한적

14) 완주 정농 마을 노년층 화자의 경우 /ㄱ/ > /ㅡ/가 여성 화자에게서 더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환경으로 보면 어휘 형태소의 비어두 위치에서 가장 높은 실현율을 보이고, 문법 형태소, 어휘 형태소의 어두 위치 순으로 나타났다(장 승익 2018: 113).

15) 이러한 경향은 서울말에서 어두 장음 이외의 환경에서 /ㄱ/ > /ㅣ/의 실현이 적게 나타난다는 강희숙(2005), 신 우봉(2016)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고모음화의 마지막 유형으로, /ㄴ/ > /ㄷ/를 확인한다. 이 현상은 중부 방언 전반에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며, 특히 문법 형태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김아름 2008: 44). 본 자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6)

- ㄱ. 이무(이모), 일곱(일곱), 뚜(또), 사춘(사춘)
- ㄴ. 바루(바로), 도루(도로), 제대루(제대로), 그래두(그래도)

(6)을 보면, 어휘 형태소에서 /ㄴ/가 /ㄷ/로 변환 예는 본 자료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6ㄴ)을 문법 형태소 ‘로, 도’와 관련있는 것으로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달리 문법 형태소의 경우에는 고모음화 실현형이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7)

- ㄱ. 두(도): 과일두(과줄+도), 개두, 나두, 두부두, 밥두, 벼두, 빵두, 사둔두(사둔+도), 사람두, 수세미두, 신경두, 아주마이두, 아직두, 언니두, 이것두, 장갑두, 자두(재+도), 전화두, 조각두, 저이두(저희+두), 지금두, 참깨두, 체니두(치녀+도), 풀두, 학교두, 황계두(황기+도), 후라이두(거짓말+도)
- ㄴ. 으로: 갈비루, 광산으루, 그쪽으루(그쪽+으로), 길루, 디루(데+로), 기름으루, 농장으루, 돈으루, 동상으루, 물으루(물+로), 손으루, 식기루, 옆으루, 중국으루, 집으루, 침으루(침+으로), 총으루, 혜산으루, 호미루
- ㄷ. 하고: 가지하구, 나하구, 남자하구, 노친하구(노인+하고), 둘하구, 사위하구, 아바이하구, 아즈씨하구, 엄마하구, 여자하구, 이무하구(이모+하구), 체니하구(치녀+하고), 하나하구, 헛가루하구(헛가루+하고), 호박하구

(8)

- ㄱ. -어두(-어도): 가두, 걸리두(걸리+-어두), 걸어두, 고생했어두, 나가두, 다두(당+-아도), 땡기두(다니+-어두), 돌아두, 들으와두, 때리두(때리+-어두), 뜯어두~뜯으도, 먹어두, 몰라두, 빌어두, 서두~스두(서+-어두), 설어두, 주두~줘두(주+-어두), 죽어두, 생각해두, 없어두, 해두
- ㄴ. -구(-고): 가르구(가자+고), 기르구, 놓구, 당구, 데리구, 돌리구, 뛰구, 뜨구, 맛구, 먹구, 보구, 살구, 숨구, 없구, 영구(영+-구), 입구, 잡구, 주구, 좇구(좇+-고), 타구, 피구(피+-고), 하구

3.2. 전설모음화

본 연구에서 전설모음화는 후설 평순 고모음 /ㅡ/가 /ㅅ, ㅆ, ㅈ, ㅊ, ㅌ/ 뒤에서 전설 평순 고모음 /ㅣ/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황해도 방언에서 전설모음화는 황해도 남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 점차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현 환경도 /ㅆ/에서 점차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김 영배(1981)는 전설모음화가 황해도 북부 지역(곡산, 수안, 서흥, 황주, 봉산, 재령, 안악, 은율)과 동부 산악 지대(신계)에서 실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황 대화(2007)의 어휘 색인에는 황해도 전역에서 ‘십관(습관), 시리지다(스리지다), 시산하다(스산하다), 씨레기(쓰레기), 씨다듬다(쓰다듬다), 징땡(증명), 질겁다(즐겁다)’ 등과 같은 전설모음화 실현형이 올라 있다. 그리고 한 영순(1967: 241)에는 이 방언의 전설모음화가 /ㅆ/ 뒤에서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황 대화(2007: 33-35)를 보면, 적으나마 /ㅈ, ㅊ, ㅌ/ 뒤에서 전설모음화가 일어나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에서 전설모음화로 보이는 예는 다음 네 건뿐이다.

(9)

- ㄱ. 썰다(쓸다): 거기따 강내이고 콩이고 다 썰이¹⁶⁾ 열구스는 물 갖다 부른 그 게 다 익는단 말야.
- ㄴ. 고실고실(고슬고슬): 강내가루로 고실고실하니 밥해 주곤 딱 요만짝씩 줘.
- ㄷ. 과질(과줄): 이거 말려서 튀기른 과질이 된단 말야.
- ㄹ. 감짓굴(감자굴): 그 산으루 올라가야 감짓굴 있는디.
- cf. 감즈(감자): 그 아바이 있어두 다 감즈 캐 가구 막 이른다.

전설모음화를 기대할 수 있는 ‘쓰대(用), 쓰리지다, 쯔’이나 ‘스다(서다), 먼즈(먼저), 즈기(지기)’와 같은 단어는 본 자료에서 전설모음화 비실현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영순(1967), 김 영배(1981)보다는 다소 확대된 것이나, 황 대화(2007)이나 장 승익(2018)보다는 활발하지 못한 결과이다.

3.3. 움라우트

황 대화(2007: 106~112)에 따르면 황해도 방언에서 움라우트는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실현 환경은 단어 내부로 한정된다. 그러나 김 영배(1981)이나 장 승익(2018: 39

16) ‘썰이’는 ‘쓸- + -이’에서 후행하는 어미 ‘-이’에 의해 움라우트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어미 ‘-어’가 ‘-이’로 나타난 것은 이곳 한 번뿐이고, 이 자료에서 움라우트가 형태소 내부에서만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1-ㄱ)을 전설모음화 실현형으로 처리하였다.

~41)에는 형태소 경계에서도 음라우트가 실현되는 예가 일부 제시되어 있다.¹⁷⁾

본 자료에서 음라우트는 형태소 내부나 파생어에서 일부 확인된다.

(10)

- ㄱ. 애기(아기), 보재기(보자기), 찡피(창피), 에미(어미), 눈구텅이(눈구덩이), 체니(처녀), 괴기(고기), 쥬일(중일), 찌기다(찌개다) cf. 보자기, 중일, 고기, 중일
- ㄴ. 채리다(차리다), 찌기다(찌개다)
- ㄷ. 짹히다(잡히다), 갱기다(감기다), 백이다(박히다), 썩이다(썩이다), 냉기다(냉기다), 맥이다(먹이다), 뱃기다(벗기다), 썩이다(섞이다), 켜이다(죽이다) cf. 썩이다, 죽이다

(10ㄱ)은 명사에서 나타나는 음라우트이다. (10ㄴ)은 동사에서 나타나는 음라우트이다. (10ㄷ)은 피·사동 접사에 의한 파생어에서의 음라우트이다. 이처럼 본 자료에서 음라우트는 형태소 내부나 파생어에서만 주의적으로 나타났다. 곡용의 환경에서 음라우트를 예상할 수 있는 ‘뱃이(밥+이), 사람이(사람+이)’ 등은 본 자료에서 모두 ‘뱃이, 사람이’와 같이 음라우트 비실현형으로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 내부에서 활발하게 실현된다고 한 황 대화(2007)와 유사하며, 일부 곡용, 활용에서의 음라우트 예를 제시한 김 영배(1981), 장 승익(2018)보다는 실현 환경이 축소된 것이다.

3.4. 모음조화

황해도 방언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에 관해서는 곽 충구(2001: 410), 최 소연(2018)에서 다루고 있다. 두 연구의 공통점은 1음절 어간의 경우, 어간말 모음이 /ㅏ, ㅑ, ㅓ/일 경우에 어미 ‘-어’가 결합하고, /ㅡ, ㅜ, ㅣ/일 경우에는 ‘-어’가 결합한다는 점이다. 이는 본 자료에서도 대체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11)

- ㄱ. 녹아서, 돈았으니겐, 뽀아서, 돌아, 꽃아(꽃다), 몰았단, 볍아, 쏘았대, 좇아, 좇았으니께니; 녹안, 돈안, 뽀안¹⁸⁾

17) 김 영배(1981)에는 ‘그런 베비 없다(그런 법이 없다)’, ‘뵈기 싫다(보기 싫다)’, ‘듣기 싫다(듣기 싫다)’와 같은 곡용, 활용에서의 음라우트 실현 예가 제시되어 있다. 장 승익(2018: 39~41)에는 ‘군햄이(군함이), 농깍이(농깍이), 중대쟁이(중대장이), 사람이(사람이), 동깍인디(동깍인디)’와 같은 곡용의 예가 있다.

18) 황해도 방언에서는 과거시제 관형사형 어미도 부사형 어미 ‘-어’와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이기에

- ㄴ. 갈아서, 감아, 갇아, 깎아, 갈았드래, 남아서, 낫아, 단아, 달아, 닳아, 담아, 막아, 닳아, 말았지, 맞아스, 받아, 밝아서, 밝아서, 빨아, 살았지, 삶아, 앓아, 앓았어, 알아, 잡아, 찾아, 팔아; 갈안, 남안, 달안, 담안, 많안, 맞안, 반안, 살안, 앓안, 잡안
- cf. 담어, 살어, 팔어

(12)

- ㄱ. 끓어, 늪어지고, 들어, 뜯어, 은었어(얼다), 읊어(없다); 들었
- ㄴ. 굶어, 꾸어, 두어, 묵어, 묵어, 묻어, 물어, 불어, 불어(벌어), 울어, 주어~줘, 주어(준다), 죽어, 좇어(준다), 쫓아, 풀어, 훑어
- ㄷ. 곁어, 꺾어, 넘어, 덜어, 덮어, 떨어, 먹어, 멀어, 벌어, 섞어, 설어(설다), 썰어, 얻어, 얼어, 엮어, 엮어, 적어, 절어, 젊어; 얻었
- ㄹ. 입었, 물리어, 밀어, 빌어, 싫어, 심어, 씻어(씻다), 읽어, 잇어, 잇어, 지어, 젖어, 찍어, 짚어; 입었, 지었

(11ㄱ)은 어간말 모음이 /ㄴ/, (11ㄴ)은 어간말 모음이 /ㄱ/인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어미 ‘-아’가 결합하고 있다. 다만 어간말 모음이 /ㄱ/인 경우에는 ‘담어, 살어, 팔어’와 같이 어미 ‘-어’가 결합하는 경우가 조금 나타난다. 이는 모음조화의 규칙성이 (11ㄴ)의 환경에서 좀 더 약화됨을 의미한다. (12)는 어간말 모음이 각각 /ㄷ/, /ㄴ/, /ㄹ/일 때 어미 ‘-어’가 결합하는 예이다.

다음으로 다음절 어간을 살펴본다. 곽 충구(2001: 410)에서는 ‘배우-, 바꾸-, 모르-’와 같은 개음절 어간은 ‘-아’가 결합하고, ‘가물-’의 경우에는 ‘-어’가 결합하기도 한다고 간략히 언급하였다. 최 소현(2018)에서는 다음절 어간에 대해 ‘어간말 모음이 /ㄷ/인 경우, /ㄴ/인 경우, ▮불규칙 용언의 경우’로 나누어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황해도 방언에서 다음절 어간의 모음조화 양상은, 어간말 모음이 /ㄷ/, /ㄴ/일 때는 선행 음절 모음에 따라 ‘-아/어’의 교체가 결정되고, ▮불규칙 용언은 음운론적 성격과 관계없이 ‘-아’가 결합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다음절 어간의 모음조화 실현양상을 최소연(2018)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3)

- ㄱ. 배와서, 채와, 감차, 말루아스는(말리다) cf. 감취
- ㄴ. 세워, 키웠단 cf. 허물아지른, 흥쿨아전(형클어지다)
- ㄷ. 만들어서, 뺏들아 cf. 만들어, 받들어,

같이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장 승익(2018: 157~176)을 참고할 수 있다.

- ㄹ. 버듬어(보듬다), 심들어 cf. 더듬아서, 시들아
- ㅁ. 도와, 부러워, 무서워, 누워, 추워

(13ㄱ,ㄴ)은 어간말 모음이 /ㄱ/, (13ㄷ,ㄹ)은 어간 말 모음이 /ㄴ/인 경우이다. 대체로 선행 어간의 양성, 음성 모음 여부에 따라 ‘-아/어’가 선택되지만 이에 위배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된다. (13ㅁ)은 비불규칙 용언의 경우인데, 선행 음절의 모음 성격에 따라 ‘-아/어’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최 소연(2018)과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이것은 평안도 방언에 속하는 철산 지역어의 모음조화 양상(정 의향 2008: 173)과 동일하다.¹⁹⁾

3.5. 구개음화²⁰⁾

황해도 방언에서는 ㄷ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는 확인되지만 ㄱ구개음화는 실현되지 않는다(한 영순 1967: 240). 일찍부터 ㄷ구개음화의 실현 여부는 평안도 방언과 황해도 방언을 가르는 음운 특징 중 하나였다(小倉進平 1944: 649-655). 황해도 방언의 ㄷ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국어의 일반적인 모습과 동일하며, 이는 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²¹⁾

황해도 방언의 ㅎ구개음화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영배(1981)에 따르면 황해도 중북부(신천, 재령, 황주, 봉산, 수안, 곡산)는 h-형이 우세하고, 그 외의 지역은 s-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²²⁾ 황 대화(2007: 141)에는 황해도 북부(황주, 연탄, 신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고유어나 한자어에 크게 관계 없이 ㅎ구개음화가 아주 규칙적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 ㅎ구개음화 실현의 지리적 분포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의 자료 제공인의 출신지인 ‘안악’의 경우 ㅎ구개음화 실현(s-형)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 ㅎ구개음화 실현형은 ‘심들다(힘들다)’뿐이다. ㅎ구개음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힘, 형제’ 등은 구개음화 미실현형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김 영배(1981)에서 언급한 ㅎ구개음화 미실현형을 젊은 층이 선호하고, ㅎ구개

19) (13ㅁ)은 중부 방언의 모음조화 양상과도 동일한 모습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 제공인이 중부 방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양상은 평안도 방언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20) 황해도 방언의 /ㅅ/이 치조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구개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이 현상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21) 황 대화(2007: 140)에서는 ‘다꾸’를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어형으로 소개한 바 있다. 본 자료에서도 ‘다꾸’(자꾸)가 네 차례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꾸’의 이전 시기 형태로 ‘다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22) 김 영배(1981)에서는 ㅎ구개음화 실현형을 s-형, 미실현형을 h-형으로 표시하였다.

음화에 대해 화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²³⁾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서 ㄱ구개음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ㄱ구개음화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길, 기름, 기별, 길다맏다(기다랗다), 겨우, 끼리’ 등은 구개음화 미실현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완주 정농 마을의 노년층 발화에서 ‘지운(기운), 지벌(기별), 질다(길다)’와 같은 ㄱ구개음화 실현형이 일부 확인된 것(장승익 2018: 41~42)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3.6. ㅇ탈락

현대 국어에서 /ㅎ/은 모음과 모음 사이, 공명음과 모음 사이의 환경에서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본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황해도 방언은 ‘어근+하다’의 환경에서 어근 말 종성이 폐쇄음인 경우에도 유기음화가 일어나는 대신 /ㅎ/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황 대화 2007: 135).²⁴⁾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완주 정농 마을 노년층 화자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장 승익 2018: 42-43). 본 자료에서도 위 연구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어근+하다’ 환경 이외에 ‘체언’이 조사 ‘하고’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ㅎ/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4)

- ㄱ. 낄쭈하네[낄쭈가네], 단속하네[단소가네], 방학했다개[방하깁따개], 사직하구[사지가구], 수확하문[수화가문], 시작하네[시자가네], 압착하네[압차가네], 합속해세[합쑈개세], 행복하지[행보가지]; 깨끗하드래[깨끄다드래], 따땃해[따따대], 못하구[모다구]; 밥해[마배], 줄읍하문[조르바문]
- ㄴ. 중국하구[중구가구], 호박하구[호바가구]; 장갑하구[장가바구]

4. 결론

지금까지 황해도 안악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구술 발화를 분석하여 음운론적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하였다.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3) 김 영배(1981)에서는, 노년층은 s-형을 선택하고, 젊은 층은 h-형을 선호하는 점, 일부 지역 자료 제공인들이 s-형은 교양 없는 사람들이 쓰고, h-형은 유식한 사람들이 쓴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황해도 방언의 구형은 s-형이고, 신형은 h-형이라고 보았다. 즉, 세대가 내려가고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h-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24) 황 대화(2007: 135)에는 행복하게[행보가게], 못해주다[모대주다], 복잡하게[복짜바게] 등이 제시되어 있다.

- 1) 본 연구의 자료에 나타나는 자음은 총 19개(/ㅂ/, /ㅅ/,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이다. 단 순 모음은 8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의 9모음에서 강 순경(1999)의 5모음으로 가는 중간 단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활음은 /j/, /w/ 2개가 확인되는데, 이중 /j/는 핵모음 뒤에 위치하여 하향 이중 모음을 형성하기도 한다.
- 2) /ㅏ/ > /ㅑ/ 고모음화는 어두/비어두, 장음/단음, 어휘/문법 형태소에서 두루 나타났다. /ㅑ/ > /ㅓ/는 일부 단어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ㅛ/ > /ㅜ/는 어휘 형태소에서 일부 나타나고, 문법 형태소에서는 압도적으로 확인되었다.
- 3) 전설모음화는 한 영순(1967)에 비해 실현 환경이 /ㅅ, ㅈ, ㅊ/로 넓어졌다. 그리고 김 영배(1981)에는 안악이 전설모음화 비실현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본 자료에는 전설모음화가 일부 확인되었다.
- 4) 움라우트는 형태소 내부와 파생어에서만 일부 확인되었다.
- 5) 모음조화는, 1음절 어간의 경우 곽 충구(2001), 최 소연(2018)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다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이들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상당 수 확인되었다. 그리고 ㅂ불규칙 용언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은 평안도 방언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 6) ㄷ구개음화는 국어의 일반적인 모습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ㅎ구개음화는 ‘심들다(힘들다)’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는 세대에 따른 차이, 화자의 언어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본 자료에서 ㄱ구개음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 7) ‘어근+하다’ 또는 ‘체언+하고(조사)’의 환경일 때 어근이나 체언의 음절 말 종성이 평폐쇄음인 경우에도 /ㅎ/이 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는 특징적인 음운 현상 일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서론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와의 대비 단계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존 연구와의 대비를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여 논의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강 순경. 1999. 「황해 방언의 모음체계」. 언어 24:3. 한국언어학회. 335~356쪽. [강 순경. 2001에 재수록]

- 강 순경. 2001. 『북한어 모음체계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 강 희숙. 2005. 「고모음화의 실현과 방언 분화—전남 방언과 서울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3.
- 고 동호·장 승익. 2018. 『(전라도 속의 작은 황해도) 완주 정농 마을의 언어와 문화』.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곽 충구. 1992. 「황해도 방언의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남북한의 방언연구. 경운출판사. 309-328쪽.
- 곽 충구. 1995. 「황해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 친족명칭의 지리적 분화와 그 역사성」.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09~332쪽.
- 곽 충구. 2001. 「황해도 방언」. 방언학사전. 태학사. 409~414쪽.
- 곽 충구. 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 김 성근. 2005. 『조선어 방언학』. 사회과학출판사.
- 김 아름. 2008. 「국어 고모음화 현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 영배. 1981. 「황해도 지역 방언 연구: 음운체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논문집 11.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36쪽. [김 영배. 1997에 재수록]
- 김 영배. 1997. 『(증보) 평안방언 연구』. 태학사.
- 김 정태. 2004. 「천안 방언 ‘어→으’ 모음상승에 대하여」. 한글 266.
- 방언연구회. 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백 두현. 1997. 「19세기 국어의 음운사적 고찰: 모음론」. 한국문화 20.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0.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신 우봉. 2016. 「20세기 전기 구어자료에 나타난 모음상승 연구」. 어문논집 76.
- 장 승익. 2018. 「황해도 방언의 변이 양상 연구: ‘전북 완주군 정농 마을’ 자료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 장 승익. 2019. 「황해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 93-118쪽.
- 정 원수. 2002. 「황해도 방언 어휘의 몇 가지 특성」. 인문학연구 29-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7-79쪽.
- 정 의향. 2008. 「서북방언의 어미 ‘-아/어(Y)’교체의 실현 양상에 대하여: 철산지역어 자료를 중심으로」. 방언학 7. 한국방언학회. 153~179쪽.
- 최 소연. 2018. 「황해도 안악 지역어의 모음조화 연구」. 어문연구 4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9-161쪽.
- 한 영순. 1967. 『조선어 방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황 대화. 2007. 『황해도 방언 연구』. 한국문화사.
- 小倉進平. 1930. 「咸鏡南道及び黃海道の方言」. 京城帝國大學教學術調査冊子 2. 京城帝大法文學部. [小倉進平. 1944에 재수록]
- 小倉進平. 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방언 분야/ 연구 발표

말뭉치 구축을 위한 북한어 구술 발화 조사와 전사의 몇 문제

백 은아 · 이 진병

전북대학교 강사

dmsdk100@gmail.com · yijinbyeong@gmail.com

1. 서론

본고는 북한어 구술 발화를 조사·전사하여서 말뭉치로 구축하고 이를 이후 단계의 말뭉치로 연계하고자 할 때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보자 섭외 → 구술 조사 → 전사’로 이어지는 북한어 구어 말뭉치 구축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온전한 우리말 말뭉치 구축을 위하여 북한어 연구는 이후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확대를 위하여 기초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공식적으로 구축된 북한어 구어 말뭉치에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와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말뭉치 구축 사업 결과물(원시 말뭉치 기준 906,176어절)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가 조선중앙텔레비죤, 목란비디오 등에서 내놓은 보도, 영화, 연속극 자료를 전사한 것이고, 이러한 준구어 자료가 북한어의 구어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구어라 할 수 있는 구술 자유 발화를 전사한 자료는 〈북한어 말뭉치 구축〉 사업에서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구축한 160,918어절에 불과하다. 나머지 745,258어절은 준구어에 해당하는데 이조차도 많지 않다.

북한 지역의 생생한 일상어를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대규모의 말뭉치 자료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금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남한의 연구자들이 북한의 현대 순구어를 수집하는 방법은 북한이탈주민¹⁾을 대상으로 구술 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이 유일하다.²⁾ 물론 특수한 상황 아래 놓인 화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본고는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2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장에서는 북한어 구술 자료의 전사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 지역의 구어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특히, 원시 말뭉치에서 형태 분석 말뭉치(또는 형태·의미 분석 말뭉치)로, 형태 분석 말뭉치에서 구문 분석 말뭉치로 연계되어야 하는 대규모의 말뭉치 구축을 추구한다 할 때, 즉 음운론과 문법론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대규모의 북한어 말뭉치를 목표로 한다 할 때, 이에 해당하는 구술 자료 수집 및 전사에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 연구는 북한어 구술 발화에 대해 여러 쟁점을 논의하고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대규모 북한어 구술 발화 말뭉치 구축을 위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보자의 섭외와 조사

2.1. 북한이탈주민 조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 체계

구술 조사는 제보자의 섭외가 선결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로 이루어질 전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선호되어 왔던 구술 조사의 방식은 주로 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본인이 조사한 음성 파일을 직접 전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 조사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전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어 구술 조사는 매우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큰 제약은 구술 조사의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제보자 섭외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보자 섭외의 문제는 구술 조사 당시에 조사에 응하는 제보자의 심리적 상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대규모로 구술 조사를 하고 이를 전사하여 말뭉치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게다가 북한어의 특징이 살아 있는 양질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술 조사 방식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기존

1)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해당 명칭의 사용 문제는 정 성훈(2017: 244)에 정리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남한에 들어와 거주하게 된 사람은 ‘전입자’라 칭하기도 한다.

2)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 이주민이나 실향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대부분 노년층이고 북한을 떠난 지 오래되어 이들에게 현대 북한 구어를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의 조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섭외 및 조사를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 쉽다.

(1) ㄱ. 제보자

① 남한어에 덜 동화된 사람으로 전입 후의 기간이 짧은 사람을 우선 섭외한다.

② 같은 분량이라면, 말뭉치의 균형성 또는 다양성을 위하여 되도록 적은 시간으로 다수의 사람을 조사한다.

ㄴ. 조사자: 전사에 참여할 전문가가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위 (1)의 설계는 효과적일 수 없다. 제보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보자일수록 경계심이 많다.³⁾ 또한 오히려, 남한 거주 기간이 짧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남한어의 발화 비율이 높기도 하다. 어휘 선택에 조심성이 많으며, 걱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말조심을 하면서 발화를 줄이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ㄱ①)는 제보자의 심리적 조건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1ㄱ②)의 문제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 명의 제보자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편이 유대 관계를 높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러운 발화를 이끌어 내기에도 좋다. 만약 (1ㄱ)의 조건만을 고려하여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준구어의 매체 자료로 말뭉치를 구축하는 편이 나올 수 있다. 북한어의 특징이 잘 수집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어를 수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자와의 유대 관계이다. 만약 (1ㄴ)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고 싶다면 해당 조사자이자 전사자가 전입자들 속에서 유대 관계를 오랫동안 형성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사자로서의 전문성, 조사자로서의 전문성, 전입자들과의 충분한 유대 관계를 모두 갖춘 전문가가 있어서 전사와 조사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드물다.

몇몇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설계는 다음과 같이 3인이 한 조가 되어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3) 이러한 경계심은 남한에 들어온 후 거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체계화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입국 후에 조사 과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의 교육 과정을 거친다. 남한 적응 교육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항은 신분증 내지 개인 정보의 관리이다. 구술 조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 정보가 적히는 동의서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동의서에 개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조차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2) 조사 참여자 체계

- ㄱ. 조사자: 훈련된 북한이탈주민
- ㄴ. 조사 관리자(전사자): 위 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문가
- ㄷ. 제보자: 위 ㄱ의 조사자에 의해 섭외된 자. 위 ㄱ과 유대 관계에 있거나 동질감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

위 (2)의 역할 체계는, 전입자들 사이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 및 교육하여 조사자로 삼고, 이 조사자가 조사와 함께 섭외까지 담당하는 체계이다. 이런 방식을 취할 때 구술 조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섭외의 어려움이 상당히 해결되면, 조사의 양과 질 또한 매우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⁴⁾ 북한이탈주민을 조사자로 활용할 경우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ㄱ. 섭외의 용이성

- ㄴ. 조사된 음성 파일의 순수성 제고
 - ① 북한어 화자의 비율이 100%가 됨
 - ② 북한어 발화 비율의 동반 상승효과
 - ③ 자연 발화상에서 구어 도출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을 조사자로 활용할 경우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후에 전사를 진행할 경우에 전사 용이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조사에 대한 사명감·주의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조사의 질이 낮아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전사자가 조사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지 않아도 익숙하지 않은 북한어를 전사하다 보니 전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전문 전사자(남한어 화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음소나 어휘 의미 등은 재차 확인해 가면서 조사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나중에 전사를 할 때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어 화자가 조사자로 임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확인 절차가 상당히 줄어들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조사자로 활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ㄴ)과 같은 설정을 꼭 병행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조사자와 전문 전사자가 조사할 때마다 만나서 소통하면서 조사의 질을 관리하고 상황을 파악하여서 단점을 상쇄하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북한어 구술 전사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제보자의 섭외 및 자연스러운 발화 유도를 음성 전사의 용이성보다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

4) 한 명의 북한이탈주민 조사자가 20명 가량의 전입자를 대상으로 70시간 이상을 녹음한 사례도 있다.

이탈주민을 조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음성 전사의 용이성은 전사자와 조사자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 가는 등으로 보완하도록 한다.

2.2. 제보자 선정

위의 조사자에 대한 설정은 북한어 제보자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조사자에 이어서 제보자의 특수성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보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4) 제보자 우선순위

ㄱ. 지역적 조건

- ① 북한 중에서도 되도록 남쪽의 방언 화자
- ② 국경 지역 중에서도 되도록 서쪽의 방언 화자
- ③ 직업, 결혼, 군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도 경계를 비교적 벗어나지 않고 살아온 화자

ㄴ. 심리적 조건

- ① 경계심이 적은 자(조사자와 유대 관계가 강한 사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 등)
- ② 북한 문화와 관련하여 보수적인 자

ㄷ. 언어적 조건

- ① 북한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족이 함께 전입한 경우 등)
- ② 남한 적응 기간이 짧은 자
- ③ 제3국을 거친 기간이 짧은 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지역이다. 지역어의 차이는 온전한 우리말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채워야 할 기본적인 다양성이다. (1ㄱ①)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황해 방언, 강원 방언 화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⁵⁾ 그리고 국경 지역 화자 중에서도 비교적 이탈자가 적은 서쪽 지역의 화자가 필요하다(1ㄱ②).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우선 사항은 심리적 조건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ㄴ①)이 가장 큰 진입 장벽이며, (1ㄴ②)의 보수성은 북한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적극적으로 발화하는가로 직결된다. 그 다음에야 (1ㄷ)과 같은 우선순위를 상정해 볼 수 있

5) 국내 연구자들의 북한 방언 조사는 주로 국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실향민이나 중국의 교포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비교적 함경도 특히 육진 방언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서남쪽 내륙 지방의 언어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 지역의 방언에 대한 현재와 변화 모습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곽 충구(2019)를 참고할 수 있다.

다. 그밖에도 문화어에의 노출이 적은 사람, 고연령층, 외국 문화에 덜 노출된 하위층 등의 일반적인 조건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보자의 선택은 제보자 섭외가 원활할 때의 가정이다. 제보자의 섭외 자체가 어려울 때는 위 (4)의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조사의 성사 여부에 먼저 치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조사자로 활용할 때 따라오는 추가적인 이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제보자를 선택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일 것이다.

2.3. 조사 방식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어 구어 말뭉치 구축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여건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큰 제약은 제보되는 발화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큰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순수한 북한어를 과연 얼마나 자연스럽게 발화해 줄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일단 제보자의 섭외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고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거칠 필요는 있다. 1회의 조사만으로는 자연스런 발화를 유도하기 힘들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있었던 당시의 기억을 환기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제보자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사의 횟수나 시간을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회 이상의 조사 결과를 평가하여서 양질의 북한어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양질의 북한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 특히 발화 스타일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담화 주제의 변화를 통해서 어휘의 차이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초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은 조사와 어미의 다양한 수집이다. 특히 종결 어미를 골고루 수집하기 위해서는 발화 스타일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고 영근(1993: 44)에서는 종결 어미를 “문장과 텍스트의 경계를 긋는 통사적 장치”라 하였으며, 윤 석민(2000: 16)에서는 종결 어미를 “통사적으로 문장을 종결시키면서 그것을 더 큰 단위인 텍스트와 관련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장 밖의 또 다른 요소들에 대한 맥락 정보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종결 어미가 자유발화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발화의 조건이 주어질 때라야 수집이 가능함을 짐작케 한다.

그밖에 녹음의 방식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제보자의 심리적 상태를 우선시하여 고려해야 하는 조사의 방식, 북한이탈주민을 조사자로 활용하는 조사의 방식 등을 선택한다면 전문 녹음기와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보다 녹음의 편이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형의 무선 이어폰 세트를 제보자와 조사자

가 귀에 장착하고 스테레오 방식을 통해 녹음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조사자와 제보자의 채널을 분리하여 녹음하는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전사를 할 때 유리할 수 있다. 녹음기는 요즘의 스마트폰을 활용해도 좋다. 기술의 발달로 양질의 녹음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과 소형 무선 이어폰 세트의 활용은 제보자의 거부감을 비교적 줄이면서도 양질의 녹음 파일을 수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요컨대, 녹음의 질보다는 편이성과 채널 분리의 이점을 먼저 고려하면서 녹음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전사 프로그램인 엘란(ELAN)을 사용하여 전사를 하게 되면 분리된 채널을 함께 또는 따로 청취를 하면서 별개의 층별로 구분하여 전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널을 분리하여 녹음하는 방식이 전사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도 바람직하다.

3. 구술 발화 전사의 몇 가지 문제

3.1. 전사 도구

〈2004~2013년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는 전사를 위한 도구로 Transcriber v.1.4.2를 사용하였다. 위 진(2015)에 따르면 Transcriber는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 처리가 가능하고, 한글 입력이 가능하며, 긴 음성 파일도 처리되며, 전사 결과가 XMF 형태로 저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위 진(2015)에서 밝힌 것처럼 동영상도 지원되지 않고 다른 음성 분석 도구와 통합이 어렵다. 특히, 다층적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었다.

세종계획의 〈현대국어 구어 전사 말뭉치〉는 전사 프로그램으로 엘란(ELAN)을 이용하고 있다. 안 의정(2018)에서 지적한 것처럼 엘란(ELAN)은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초기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음성 파일과 텍스트 파일의 동기화 작업이 이루어지며, 조사자와 제보자, 둘 이상의 제보자 간의 다층적 전사가 가능하다. 그리하여 대화 참여자 간에 말겹침이 나타나더라도 다른 층위에서 전사가 가능하고, 겹침과 같은 정보에 대해 타임라인을 기록할 수 있다.⁶⁾ 전사되는 정보 외의 헤더나 전사자 주석도 전사된 음성과 따로 또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는 전사된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큰 차이를 불러온다. 전사된 텍스트를 검색하면 연계된 음성과 겹쳐진 다른 발화나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전사 당시에 표시해야 할 정보의 양도 달리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6) 엘란을 통해 전사한 파일을 텍스트 자료로 내려받은 형식의 예시는 안 의정(2018)을 참고할 수 있다.

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묘한 음성적인 차이가 있을 때 이를 확인해야 하는 연구자는 한글로 전사된 결과보다는 음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미묘한 차이를 전사된 텍스트에 담아내기보다는 연구자가 음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해 주면 될 일이다. 이러한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음성 전사 또는 음소 전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형태 음소 전사의 필요성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음성 전사된 결과물에서 검색을 하여 음성을 확인하는 것보다 형태 음소 전사, 즉 이른바 철자법 전사를 해 둔 것이 나중에 활용 단계에서 검색하기에 더 익숙하다.

엘란(ELAN) 프로그램은 큰 용량의 동영상 전사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보도, 영화, 연속극 등의 준구어 말뭉치와의 연계를 위해서라면 구술 발화의 전사는 엘란(ELAN)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3.2. 전사의 몇 문제

1) 형태 음소 전사

강 현화·한 송화(2016)에서는 구어 전사를 “전사 층위(전사 수준)에 따라 철자법 전사, 한글 음소 전사, 음성 전사, 운율 전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중 구어 말뭉치를 한글로 전사하는 방식은 ‘철자법 전사’와 ‘한글 음소 전사’에 해당한다. 2004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는 ‘한글 음소 전사’를 기본으로 하되,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표준어 대역을 붙였다. 그중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⁷⁾ <권역별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사업의 전사 지침>(이하, ‘지역어 지침’)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예에서는 전사, 표준어 대역, 보충 설명을 모두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5) 창꼬슨 머거도 진달래는 몸 머거. {진달래는 먹어도 철쭉(이 지역에는 철쭉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함)은 못 먹어.}

이 진병·소 강춘(2016)에서는 북한어 구술 발화를 전사할 때, 지역어 조사 사업

7)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결과와 분석은 위 진(2015)를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전사 원칙을 몇 가지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조사된 모든 지역어는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전사한다.
- ② 구술 발화 자료는 질문지 질문 항목 번호에 대응시켜 문장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한다. 조사자의 발화 앞에는 @표, 제보자의 발화 앞에는 #표를 한다. 발화 문장이 끝나면 문장 부호를 넣고,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는다.

방식인 음소 전사와 표준어 대역의 이중 전사를 유용한 방식으로 보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한어를 일종의 방언으로 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지침이 단순하다는 점, 셋째 형태 분석 작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넷째 검색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병렬 말뭉치는 방언형을 정확히 전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또한 형태 분석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표준어 대역이 위 (5)와 같이 번역 수준에 이르면 그 의미가 없어진다. ‘창꼬슨’으로 음소 전사되는 것을 ‘창꽃은’이나 ‘창꽃은’과 같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진달래는’과 같이 대역을 해 놓으면, 음소 전사된 ‘창꼬슨’은 기존의 형태 분석기가 처리를 못하게 되고, 표준어 대역이 된 ‘진달래는’은 형태 분석은 되어도 그 결과가 북한어 말뭉치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기갑(2010)에서 지적된 것처럼 형태 전사를 하되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에만 표준어 대응형을 제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도 국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술 발화 전사는 형태 음소 전사로 진행하였다. 다만 표준어 대역을 하였고,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구술 발화를 수집할 때, 녹음의 질이 항상 최상의 상태인 것은 아니며 제보자의 발음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또 의미 파악을 위하여 전사 시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음소 전사를 할 때는 어절 이상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의 반영 여부가 고민이 된다. (6ㄱ)은 어절 경계를 넘어서는 음운 현상까지 전사에 반영한 것이고, (6ㄴ)은 어절 경계 안에서만 음운 현상을 반영한 전사이며, (6ㄷ)은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히는 형태 음소 전사를 한 것이다.

- (6) ㄱ. 근데 실찌 언니가 너네들 리버네 데류 까게따 이런 낙썸근 저너 업써따고.
 ㄴ. 근데 실찌 언니가 너네들 이버네 데류 가게따 이런 약썸근 저너 업써따고.
 ㄷ. 근데 실지 언니가 너네들 이번에 데류(데리고) 가쥔다 이런 약썸은 전혀 없었다고.〈함남〉
 ㄴ. 농장은 직장이라 할 때는 또 다룹습니다.〈량강〉

구어 자료의 형태 분석까지 염두에 둔다면 (2ㄱ)이나 (2ㄴ)보다는 조사와 어미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2")의 전사가 말뭉치 구축에 유용할 것이다. (2ㄴ)의 ‘다룹습니다’와 같이 어간과 어미의 경계를 구분지어 전사할 때 형태 분석이 쉽게 이루어진다. (6ㄱ)이나 (6ㄴ)과 같이 전사를 하게 되면 형태 분석의 기존의 방식 및 말뭉치로 학습을 한 형태소 분석기가 분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형태 분석 말뭉치나 구

문 분석 말뭉치의 연계가 어렵게 된다.

구어의 언어학적 주석과 대규모 말뭉치 구축에 초점을 두는 연구에서는 주로 철자법 전사를 제안한다(안 의정 1998, 전 영옥 2002 등). 기본적으로 철자법에 근거한 전사는 형태 분석이나 검색에 유리하다. 또 가독성이 높고, 지침에 의거하여 철저히 전사를 한다면 전사 오류율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방언 자료는 보도나 영화의 발화처럼 표준어를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철자법 전사가 쉽지 않다. 특히 북한어의 구술 발화는 보고되지 않은 어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철자법에 근거한 전사는 오히려 기본형 설정의 고민을 양산한다. 구술 발화 전사에 주로 이용되는 (7)의 「21세기 세종 계획 구어 말뭉치 전사 및 마크업 지침」(이하 ‘세종 지침’)은 북한 지역어의 구술 발화를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7) 세종 지침의 대원칙

발화 내용은 기본적으로 철자법 수준의 전사를 한다. 다만, 구어의 발음 특성, 개인의 발음 특성, 지역적인 특성 등에 의해 철자법대로 소리 나지 않는 발음(표준 발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예〉처럼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예〉 자 상담소에는 어떤 걸 기대하고 왔으까?)

북한어 구술 발화 말뭉치는 〈지역어 조사 사업: 국외 조사〉 전사 방식과 마찬가지로 형태 음소 전사⁸⁾를 해야 한다. 즉 음소 전사를 하되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주어야 한다. 형태소 경계가 드러나고 조사와 어미가 선행 요소와 경계가 뚜렷하여야 형태 주석 말뭉치 작업과 연계될 수 있다. 즉 형태소 분석이 쉽게 가능해야 형태 분석 말뭉치, 더 나아가 구문 분석 말뭉치까지 단계적인 구축이 가능하다.

다만 각 방언 및 구어를 전사할 때 그 여러 특징들을 생생하게 담아내면서도 정확하게 전사를 하려면, 그 지역의 방언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사에 대해서도 훈련이 이루어진 전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방언 자료나 구어 자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어휘나 언어적 특징을 발굴하는 것이다. 결국 그 지역의 방언에 대해 지식을 가진 전사자라고 해도 방언형을 모두 알 수는 없다는 점이 당연한 문제로 대두된다.⁹⁾ 예컨대 (8)과 (9)의 예에서 전사자는 밑줄 친 형태의 기본형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8) ‘철자법 전사’라는 말은 자칫 구어에서 나타나는 축약, 발화 실수, 말 더듬거림 등을 배제한 채, 정형화된 발화 자료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형태 전사’ 혹은 ‘형태 음소 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9) 〈지역어 조사 사업〉의 경우 지역어 조사자들은 모두 현지 방언을 토박이로 하는 국어학자들이었다(이 기갑 2010). 그리고 조사자가 전사까지 담당하여, 방언 어휘의 의미 파악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규모의 말뭉치 구축 사업에서는 조사자와 전사자가 항상 갈을 수는 없다. 전사자는 조사의 내부 상황이나 제보자의 정보 없이 전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8) ㄱ. 강원도인민병원 창립 일흔 둘 기념 보고회가 사 일에 진행됐습니다.〈2016.

9.5.조선중앙텔레비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예순여덟 둘 경축 재일본조선인총하단이
칠 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2016.09.08.조선중앙텔레비죤〉

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 다섯 뿔을 맞으며 공장 구내에 모자이크 영
상 작품을 정중히 모신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2016.09.08.조선중앙텔
레비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을 현지도하신 한 뿔
을 맞이한 이곳 공장에 일꾼들과 종업원들이〈2016.9.1.조선중앙텔레비죤〉

(9) 그니까는, 그래서, 이, 뭐냐면 추운 지방, 그까는 이 넙다는(넙다는) 뜻을 합해
가지고〈량강〉

(8ㄱ)의 예에서 보도 자료의 구어 자료를 전사한 전사자는 밑줄 친 어휘의 기본형
을 //뿔//이라고 여기고 전사를 하였다. 그러나 (8ㄴ)과 같이 다른 파일에서 [뿔썰]과
같은 곡용형을 확인하면서, 전사자는 기본형이 단독형이었던 //뿔//이 아니라 //뿔//
임을 깨닫게 되고 당황하게 된다. (9)에서 ‘넙다’의 표준발음은 [넙따]이지만, 모음으
로 시작하는 어미가 후행하지 않아, 기본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전사
자는 [넙따]로 전사를 하면서, 임시방편으로 ‘넙다’의 형태·의미에 대한 주석을 괄호
안에 넣었다. 이렇게 형태 음소 전사 시 전사자의 직관에 따른 전사 오류가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된다.¹⁰⁾

또 「지역어 지침: 국외 조사」와 같이 형태 음소 전사를 하되, 표준어 대역을 붙인
다면 전사자는 방언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준어 대역어를 찾아야 한다.
「지역어 지침」에 있는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
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는 문제는 결국 전사자마다
표준어 대역과 보충 설명을 다르게 기술할 가능성을 불러온다. 일관된 작업 진행을
위해서 결국 전사 지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작업의 균일성을 위해서는 전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북한어 구
술 발화의 전사 오류는 줄이고, 형태 주석 말뭉치 작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사전에
근거한 전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출판된 대규모 사전으로는 『조선말대사

10) 한정된 발화 자료를 가지고 방언형의 기본형을 설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
은 예에서 전사자는 형태소의 기본형을 설정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ㄱ. 한 이백 개르 내가 싣꾸 내려왔뻔어.〈량강〉

ㄴ. 척추르 서지 못해 가지구, 이케 네 발을 걸꾸 다니는 오빠가 있었어.〈량강〉

전』이 있지만,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문화어 중심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방언 어휘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사자가 북한 방언 어휘의 기본형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말샘』을 통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전사자는 형태 음소 전사를 하되, 형태소의 기본형은 사전의 등재어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전사해야 한다. 즉 표기 방식을 최대한 사전 중심으로 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자는 표준어 대역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다. 방언 어휘의 의미는 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방언 어휘의 전사가 비교적 균일해진다. 예컨대 영화 구술 자료인 (10)의 예에서 어미 ‘-외다’는, 김 성근(2005: 224-225)에 따르면 주로 황해도, 경기도 지방에서 쓰이고, ‘-웨다’는 서북 방언과 중부 방언에서 쓰인다. 전사자는 ‘-이외다’와 ‘-이웨다’ 중에서 전사를 혼동할 수 있다.¹¹⁾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우리말샘』에 등재된 ‘-이외다’로 표기한다면, 전사자 간의 표기 혼동을 피할 수 있다.

(10) ㄱ. 거시기, 난 전주북이라는 저 보통벌에 사는 농군이외다. <극화, 계월향3, 텔레비존극창작단>

ㄴ. 왜놈 새끼들이 아무리 개코처럼 벌름거리두 절대로 찾아내지 못할 ㄱ외다. 하하. <극화, 계월향11, 텔레비존극창작단>

연구자에 따라 방언 어미의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육진 방언 종결 어미의 경우 ‘-으꾸마/-스꾸마’의 경우, 남 명옥(2012)에서는 ‘-으꾸마/-스꾸마’로 괄 축구(2014)에서는 ‘-읍꾸마/-습꾸마’로 표기되어 있다. 약속된 표기 규약이 없는 방언 형태소의 경우 전사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스꾸마~-습꾸마’의 경우 『우리말샘』에 ‘-습니다’의 함북 방언으로 ‘-습꾸마’가 등재되어 있다. 이 경우 『우리말샘』에 등재된 표기 ‘-습꾸마’를 따를 수 있다.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는 다양한 이형태들의 목록을 구축해 나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셋째, 사전을 기반으로 전사가 이루어지면, 형태 분석 말뭉치 구축과의 연계가 용이해진다¹²⁾. 즉 사전에 등재된 방언 어휘는 사전의 기본형에 근거하여 전사를 하고, 미등재어에 대해서만 형태소 내부의 경우 음소 전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자주 발화되는 미등재어에 대해서는 사용자 사전에 추가 등록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11) 괄 축구(2019)에 따르면 20세기 전기 평안방언권의 일부 지역어의 모음체계에는 /니/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대 북부 방언에 대한 조사에서는 /니/는 언제나 ‘-니>ㄱ’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12) 안 의정(2019)에서는 한국어 구어 형태 분석 말뭉치 구축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유태거(UTagger)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형태 분석에 사용하는 유태거(UTagger)는 사용자가 사전을 추가하고 언제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방언 어휘나 구어 형태와 같이 사전에 미등재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있다. 『우리말샘』에 북한 지역어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은 사용자 사전을 구축하면서 작업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¹³⁾

2) 전사의 단계

전사 작업 시 전사자들의 ‘들림’은 개인차가 있다. 북한 구술 발화 자료는 ‘북한 지역어’와 ‘구술 발화’라는 자료의 특징상 전사자들의 전사가 쉽지 않다. 지역마다의 방언 차이는 모음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 곽 충구(2019)에 따르면 평안도 출신의 제보자는 /ɨ/와 /ɯ/가 잘 변별되지 않고, 어휘에 따라 /ɨ/에 가깝게 들리기도 하고, /ɯ/로 들리기도 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ɨ/와 /ɯ/는 원순성이 약한 [ɔ]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한다.¹⁴⁾ 다른 모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함북 방언의 제보자는 /ɨ/가 /ɯ/와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ɯ/와 /ʌ/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보인다. 제보자에 따라서 모음 체계가 많이 다른데, 이것은 북한을 떠난 시기나 제보자의 연령과도 관련되지만, 실제로 북한 지역에서 모음 체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의 예는 다양한 모음 변이가 나타나는 구술 발화 자료이다.

- (11) ㄱ. 거기다 그이까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구립도 구려서 대지(돼지)인 데게 다 막.〈량강〉
 ㄴ. 웁다. 그때두 바지두 있잖아, 그거 한 불(벌) 했어.〈량강〉
 ㄷ. 수물여섯 시간 동안 빠스를 타 가서 고달과 죽했는데 우리를 우자에 앉혔는데,〈함남〉

남한의 방언과 마찬가지로 현대 북한 방언의 모음 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세대 간의 차이가 크며 어휘에 따라서도 모음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¹⁵⁾ 이렇게 진행 중인 모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훈련된 전사자라고 할지라도 달리 들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지침을 세밀하게 세우고, 음성을 정밀하게 듣더라도 전사자마다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

13) 그러나 이 사전이 나중에 형태소 분석기의 학습 데이터로도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 사전의 구축을 병행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14) 곽 충구(2019)에서는 /ɛ/, /ɐ/의 전사가 혼동되어 나타나는 것은 전사자의 전사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보자가 변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15) 곽 충구(2019)에서는 현대 평안 방언의 모음 체계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보자의 연령과 같은 사회적 변인, 발화 스타일, 조사 시기, 조사 지점, 조음 음성학이나 실험 음성학 같은 연구 방법 상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예컨대 강 순경(2001)의 연구에서는 30~40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소 신애(2010)에서는 80~90대 미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ɯ/와 /ʌ/의 합류에 대해서, 또 /ɛ/와 /ɐ/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¹⁶⁾

균질적인 전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사의 단계를 이분화하여 ‘1차 전사’와 ‘2차 전사’로 나눌 수밖에 없다. 대규모 말뭉치 사업에서는 많은 전사 인원이 투입되는데, 이 전사 인원을 단계별로 적절히 배치하여 ‘1차 전사’가 완료된 후 2차 전사를 통하여 검수와 수정을 거쳐 자료의 균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2차 전사는 잘 훈련된 소수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2차 전사자는 1차 전사 결과물에서 드러나는 전사 오류나, 모음의 혼동 표기 등을 검수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일관되게 유지되려면 2차 전사는 방언과 구술 전사 각각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¹⁷⁾

3) 정보의 보충

형태 음소 전사를 하되 표준어 대역을 붙이지 않는 방식은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일부 형태의 경우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동음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괄호 안에 형태·의미에 대한 주석을 붙여 언어학적 정보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¹⁸⁾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고도로 훈련된 2차 전사자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방언 어휘의 의미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표준어 대역이 오히려 오역을 유발할 수도 있다.¹⁹⁾ 예를 들어 (12)의 구술 발화 자료에서 제보자와 조사자는 ‘걸개바지’를 ‘스타킹’의 의미로 간주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샘』에서는 ‘걸개바지’를 (13) 같은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16) 북한어 구술 발화에서는 방언뿐 아니라 구어의 특징도 뚜렷이 나타난다. 서 상규(2013)에서는 구어 변이 형태를 발음 편의 추구(언어 경제성)에 의한 변이형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 의한 변이형(표현성 강화)으로 갈라서 살펴보았다. 발음 편의 추구에 의한 변이형은 축약(내일→널, 넣었다→넋다), 탈락(그거→거), 교체(나오면→나오문)이 있고, 표현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에 의해 나타난 변이형으로는 된소리화(작다→ 짝다, 거꾸로→꺼꾸로), 첨가(다르다→달르다), 복합형(그러니까→그니까, 그까, 그렇죠→그렇죠, 그죠)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어 구술 말뭉치에서도 구어의 변이 형태는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17) <세종 지침>에서는 모음 단순화 현상에 의한 반모음의 탈락은 그 경향성을 인정하지만 전사에 반영하지는 않았다(봤거던→뵈거던, 놔→나, 관계→간계, 최근→채근, 되다→대다, 되게→대게, 뉘→머, 거예요→거에 등). 아래의 예에서처럼 북한의 방언에서는 /w/의 약화가 더 많은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어휘에서는 아주 약하게 실현된다.

ㄱ. 막 그, 티길 해서, 우리가 뽕티기다 딱 여서 이제 탁 티우게 되문 요만하던 콩이 있잖아, 이키 평 뽕어는 안 나는데. <량강>

ㄴ.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거기 가니까는 화장실이 다 문 잠갔더라. <량강>

ㄷ. 그다음 어떤 집들은 꿀을 잡아다 올린 적도 있었어. <량강>

18) <세종지침>에서는 1차 전사 작업에서 발음대로 적은 것 가운데, 철자법에 맞는 것을 함께 적어주지 않으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철자법 전사를 보충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ㄱ. 브릿지를 한 가닥을 딱 너(넣어) 줬어요.

19) 곽 충구(2019)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방언에 대한 ‘분포, 뜻풀이, 대응 표준어’ 등이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사전의 북부 방언 표제어에 대한 주석을 보완해야 하는데, 형태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의미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 (12) 제보자: 응, 응. 걸개바지, 여기가 스타킹인데,
 조사자: 야 오랜만에 듣는다.
 제보자: 응, 스타킹데, 그-, 나이론, 나이론이지. 나이론 두껍고, 여기선 얇
 은 것 아니고.
 조사자: 긴 스타킹!
 제보자: 응. 그담에, 응. 룡 스타킹 그기지, 뭐.

- (13) 걸개바지 「001」 「명사」 「북한어」 「고리바지」의 북한어.
 「002」 「명사」 「북한어」 뭇뻥을 서로 엇걸어서 입게 만든 작업복
 바지.

한정된 대화를 통해서도 구술 발화에 등장하는 ‘걸개바지’가 조사자가 이해한 ‘긴 스타킹’의 의미인지, 제보자가 ‘고리바지’가 떠오르지 않아 조사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전사자는 사전에 미등재된 방언형의 경우 의미 파악을 위해 괄호 안에 형태·의미에 대한 주석을 붙여 줄 수는 있지만, 의미 파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사자가 직접 해결을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절에 특정 표시를 달아서 표시를 해 두었다가 앞서 언급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조사자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밖에 형태 음소 전사는 음운 교체 정보를 누락한다는 단점이 있다. 아래의 (14ㄱ)의 제보자 발화에서는 [바티]의 형태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형태 음소 전사에서는 이러한 구개음화 현상의 미적용을 표기에 반영할 수 없다. (14ㄴ)에서 표준발음은 [돌배]인데, 제보자는 [돌뻘]라고 발음하였다. 그런데 형태 음소 전사에서는 이렇게 표준발음과 다른 사잇소리 현상을 표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발음 정보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 (14) ㄱ. 그런가 우리는 발이[바티] 많았어. <량강>
 ㄴ. 돌배[돌뻘] 맛있잖아. 그거 이게 독 속에다 여 가지고, 이걸 꺼내 먹었
 잮아. <량강>

구술 발화에서는 ‘이, 그, 저’와 같은 담화 표지가 빈번히 나타난다. 조사자는 제보자에게 되도록 고향 방언으로 구술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제보자는 발화 중간중간 방언 어휘가 생각나지 않아 주저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술조사에서는 담화 표지가 특히 더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 저, 음’와 같은 간투사, ‘그까, 그서, 긴데’와 같은 접속 부사, ‘무시기 머냐’, ‘저 있제’와

같은 부가어 등이 매우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물론, 문장 내에서 말 더듬거림, 반복 등의 현상이 흔히 나타난다.²⁰⁾ 이러한 담화 표지들을 그대로 전사에 반영하면 문장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지만, 구술 발화의 특성이므로 전사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²¹⁾ 아래 (15)의 예는 제보자의 발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담화 표지들이다. 이러한 담화 표지는 문장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구어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 (15) ㄱ. 감자녹마를 녹마를 툇 뽑구. 그다음, 그, 나머지 찌꺼기르, 찌꺼기르 그 마른 말라서, 말라서 그 가루 내서리, 가루 내서리 거기다가 무슨, 저, 조금, 뭐, 예, 난알을 강애, 이 강애를, 강냉이를 조금씩 여서 거 같이 전분 해서 그걸루 국수를 뽑는단 말임다.〈량강〉
- ㄴ. 뭐야, 그, 뭐, 저기, 저, 무시기야, 이 발을 묶는 거, 쥐찾길(쥐뿔) 있잖아.〈량강〉
- ㄷ. 아이, 쯤, 쯤 좀 더, 이게 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함남〉

또 구술발화의 특성상 제보자의 발화 실수가 많은데, 발화 실수는 전사자가 해당 지역의 방언형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16ㄱ)은 ‘폐니실린’, (16ㄴ)은 ‘아카시아’를 의미하는 듯 보이는데, 이러한 이형태가 방언형인지 발화 실수 인지는 한정된 발화로는 결정하기 어렵다.

- (16) ㄱ. 그래 폐니실하고 마이실린밖에 없지.〈량강〉
- ㄴ. 그렇게 해 가지고 아카르시아 머 향도 만들고 차도 만들어 먹고,〈량강〉

제보자는 발화 실수가 나타나면, 자기 수정을 통하여 바로 교정을 하는 편이다. 맥락상 굳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이 경우 전사자는 해당 어형에 대해 면밀히 주의를 해야 한다.²²⁾

20) 안 의정(2019)에서는 예를 들어 관형사에서 기원한 ‘이, 그, 저’의 경우 이들이 관형사로 쓰였는지 주저어로 쓰였는지는 운율에 의해서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사 시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그, 저’의 경우 관형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간투사로 쓰일 경우에는 해당 어형 뒤에 ‘;’를 기입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21) 전 영옥(2017)에 의하면 그동안 담화 표지로 연구된 언어 형식에는 감탄사(글썸, 아, 네, 저기 등), 감탄사/부사(그래, 왜, 참 등), 감탄사/대명사(거시기, 뭐, 어디 등), 부사(고마, 인자, 그냥 등), 용언(말이야, 뭐랄까, 있잖아 등), 구절(그래 가지고, 다름 아니라, 아니 근데 등) 등 매우 많다. 그 용어도 ‘담화 표지’, ‘담화표지어’, ‘간투사’, ‘화용표지’ 등 연구자에 따라 사용하는 바가 다르다. 본고에서는 용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담화 표지’로 이것들을 묶고자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북한어 구술 발화를 조사 및 전사하고 이것을 말뭉치로 구축하고자 할 때 대두되는 문제 및 고려 사항을 논의하였다. 온전한 우리말 구어 말뭉치를 구축하려면 북한 지역의 구어도 조사해야 하지만, 북한어는 남한의 연구자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보자로 선정하고 조사 및 전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을 조사자로 선정하면 제보자 섭외가 용이하고, 제보자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이끌어 내기 좋다. 본고에서는 잘 훈련된 북한이탈주민이 조사를 맡고 전사 전문가가 조사 관리 및 전사를 맡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제보자 섭외 문제가 용이해 진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제보자를 섭외하고 2회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여 양질의 북한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구술 발화를 전사할 때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먼저 전사의 도구로 엘란(ELAN)을 소개하였다. 전사는 형태 음소 전사로 진행하되, 전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제1차 전사가 끝난 후에 제2차 전사 단계에서 검수를 거치도록 하였다. 『우리말샘』의 등재 어휘는 사전의 표기를 따르며, 미등재 어휘는 필요한 경우 형태·의미 정보를 붙여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형태 음소 전사에서 누락할 수 있는 음운 교체 정보나 담화 표지도 모두 전사에 반영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북한어 구술 말뭉치 구축은 제보자 섭외 등의 문제가 있고, 북한 방언 구술 자료를 전사한다는 점에서 전사의 어려움도 있지만, 꼭 필요한 연구이기도 하다. 조사와 전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시 말뭉치에서 형태 분석 말뭉치(또는 형태·의미 분석 말뭉치)로, 형태 분석 말뭉치에서 구문 분석 말뭉치로 연계하여 대규모의 말뭉치 속에서 우리말의 온전한 모습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보고서〉

- 21세기 세종계획(2005), 「21세기 세종 계획 구어 말뭉치 전사 및 마크업 지침(2005.3. Ver.5.1)」, 『국어 특수자료 구축(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2005), 「21세기 세종 계획 구어 말뭉치 표기 지침(2005. 3 Ver.02)」, 『국어 특수자료 구축(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22) 안 의정(1998)에서는 새 어휘가 나타날 때마다 사용자 사전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방언 구술 발화의 경우, 발화 실수 혹은 개인어를 해당 지역의 방언형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2005),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지침」, 국립국어원 보고서.
박 기범 외(2018), 『2018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소 강춘 외(2015), 『2015년 균형말뭉치 설계, 구축(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소 강춘 외(2016), 『2016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소 강춘 외(2017), 『2017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이 래호 외(2019), 『2019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논문〉

- 강 순경(2001), 『북한어 모음체계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강 현화·한 송화(2016), 「한국어 학습자 구어 자료 전사에서의 쟁점과 구어 전사의 실제」, 『한국사전학』 27, 한국사전학회.
고 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곽 충구(2014), 「육진방언의 종결어미와 청자높임법: 중국 조선족자치주 육진방언을 중심으로」,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곽 충구(2019), 「북부 방언의 어제와 오늘」,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
김 성근(2005), 『조선어방언학』, 사회과학출판사.
남 명옥(2012),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종결어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 상규(2013), 「한국어의 구어와 말뭉치」, 『한국어 교육』 2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소 신애(2010), 「움라우트의 개재자음에 대한 재고찰: 중부 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안 의정(1998), 「한국어 입말뭉치 전사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 의정(2018), 「구어 전사 말뭉치 구축에 관한 현황과 쟁점」, 『언어와 문화』 14-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안 의정(2019), 「형태 분석 말뭉치 구축을 위한 한국어 구어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4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위 진(2015), 「지역어 조사 방법 및 결과 분석: 국립국어원 조사를 중심으로」,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윤 석민(2000),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이 기갑(2010), 「구술발화의 전사와 분석」, 『배달말』 47, 배달말학회.
이 진병·소 강춘(2016), 「북한 구어 말뭉치의 전사와 주석, 언어사실과 관점 3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전 영옥(2002), 「구어 원시 말뭉치 구축 방법」, 서 상규·구 현정 공편, 『한국어 구어 연구 (1): 구어 전사 말뭉치와 그 활용』, 한국문화사.
정 성훈(2017),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에 대한 기초 연구」, 『한글』 318, 한글학회.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방언 분야/ 연구 발표

카카오톡 대화방의 음운변이에 대한 연구

—대구 지역 화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대상으로—

홍 미주

경북대학교 강사
mibong78@hanmail.net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모바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 대화에서 음운변이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음운변이가 화용론적 기능을 함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구 지역 화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변이를 포착하고, 음운변이형이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고 공손 전략으로 기능하고 사용되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환경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과 인터넷 환경에서 의사소통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특히 카카오톡을 국민의 95% 이상이 사용하고 ‘전화해’ 대신 ‘카톡해’가 인사가 된 현재,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의 의사소통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¹⁾ 카카오톡 대화는 입말과 글말의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 구

1)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2019년 4분기 기준 월간 순이용자 수(MAU)는 4485만 명, 해외까지 더 하면 5149만 명이다. 하루 평균 송수신 메시지는 110억 건에 달한다. 카카오톡은 한국 모바일 메신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부동의 1위로 자리매김했다(한경비즈니스 제1270호, 20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50&aid=0000053164>).

어의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언어학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글말과 실제 화자의 입에서 발화되는 입말이었다. 통신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글말, 입말 자료가 언중이 생산하는 의사소통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던 글말과 입말의 비중이 줄어들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행위가 일반 언중의 의사소통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실제 언중이 사용하는 언어 자료인 통신언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²⁾ 따라서 이전에 연구 대상으로 한 입말과 글말 외에 카카오톡 대화에서 쓰이는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언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앱의 대화를 대상으로 언어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언중들의 언어 사용 양상과 기제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중이 모바일메신저앱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의 기능과 사용 기제에 대한 논의는 언중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³⁾

카카오톡 대화는 음운, 형태, 통사, 의미 층위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음운 차원에서 어떤 음운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 지역 화자들로 구성된 대화방 3개의 언어를 분석하여 어떤 음운변이가 관찰되는지, 음운변이 실현 양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음운변이 실현이 대화상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30-40대 대구 거주 여성으로 이루어진 3개의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를 대상으로 한다. 3개 대화방의 참여자 모두 대구 또는 경상도 지역에서 출생하여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 세 대화방 모두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과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하므로 화자들의 일상적인 구어적 표현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화자들의 의사소통이 통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그 이유를 이정복(2017)은 ‘언어의 범위를 기존의 입말과 글말의 좁은 테두리에 한정하는 생각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규범주의 시각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연구 관점도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된다(박 선우 외 2015:62).

3)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은 학문의 결과를 대중과 같이 공유하고, 학문적 성과가 언중의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카카오톡 대화방 관련 정보이다.

대화방	모임성격	친교기간	인원	연령대	성별	주제
A	친목	6년	11명	30-40대	여	일상
B	친목	24년	4명	40대	여	일상
C	친목	1년	2명	30-40대	여	일상

3. 카카오톡 대화의 음운변이 양상

음운 변이를 첨가, 탈락, 교체, 축약으로 유형별로 살펴본다. 해당되는 음운변이가 실현된 부분을 제시하되, 아래 예시들은 카카오톡 대화 그대로 제시한다. 해당 음운 변이형이 실현된 대화 맥락은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3.1. 첨가

1) 자음 첨가

(1) ㄱ

- ㄱ. 다들 보는 고양?
- ㄴ. 드림조건이얌~~
- ㄷ. 저장해놓을께염
- ㄹ. 저 왔어염~
- ㅁ. 걱정해줘서 고마워염 ㅎㅎ

(2) ㅇ

- ㄱ. 저언니... 살림꾼이얌
- ㄴ. 어깨마사지하고 있당 ㅎㅎ
- ㄷ. OO랑 OO이 갈 때 나도 데리고 가종~
- ㄹ. 언니 같이가장~~
- ㅁ. 월을 같이 보장

(3) ㄴ

- ㄱ. 주말 잘보내세욤ㅎ

위의 예는 어말에 비음 ㅁ, ㅇ, ㄴ이 첨가되는 예이다. 이 세 비음 중 가장 빈도 높게 관찰되는 비음은 ㅇ이고, ㄴ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ㅇ첨가와 비교하면 ㄴ첨가의 정도가 상당히 낮다. 어말에서 ㄴ 첨가는 세 대화방 중 한 대화방에서 한 사람의 발화에서만 관찰된다.

허 상희(2017)에서는 대학생 중 ‘ㅇ’ 첨가 현상은 여학생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상대방이 연인 관계일 때 ‘ㅇ’ 첨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학생보다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연인 관계에서는 남학생이 의도적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위해 여자친구의 말에 대응적으로 ‘ㅇ’을 첨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허 상희 2017: 184). 이때 ‘대화분위기’는 ‘친밀, 부드러움’이 될 텐데, 어말의 ㅇ 첨가가 친밀감,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최 명원 외(2012: 486)에서도 카카오톡 대화에서 ㅁ, ㅇ과 같은 첨사의 사용과 모음 교체 등이 빈번한데, 그 이유를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면대면 대화에서처럼 얼굴 표정이나 억양 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애교형 첨사나 모음 교체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강 현석·김 민지(2018: 24-25)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비음을 첨가 변이형을 강하게 선호하는데, 비음 첨가형이 여성 특유의 귀여움이나 애교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여성이 귀여움, 친밀감, 부드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비음을 첨가하는 이유는 비음이 가지고 있는 음성적 특징 때문이다. 비음은 공명음으로, 음성적으로 비공명음에 비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대화상 부드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어말에 비음을 첨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어말에 ㄴ, ㅁ, ㅇ 등의 비음을 첨가하는 것을 여성이 선호하고, 화자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어말에 비음을 첨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도 모두 여성들로 구성된 대화방으로, 여성이 선호하는 비음의 첨가 현상이 빈번히 나타난다.

(4) ㅂ

ㄱ. 넵

ㄴ. 후기 남길게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대화방의 대화에서는 어말에 ㅂ 첨가의 빈도가 높지는 않다. 이때 ㅂ은 단호함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알겠다’, ‘맞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네’에 ㅂ을 첨가하고, 후기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르게요’에 ㅂ을 첨가하고 있다.

(5) 스

- ㄱ. 고도의 기술이닷, 내꺼는 심지어 색깔도 핑쿠닷ㅋㅋ, 나도 고장나면 하나씩 바꿀테얏~, 3개짜리는 제법해웃.
- ㄴ. 오늘도힘내랏♡♡♡, 방학중에 함 더 모여랏!!!!, 방탄선물이닷~ 강제로 받아랏~~~얏
- OO이ㅋㅋ찾아랏ㅋ, 더 붙어랏♡, OO언니한테 배워랏~~
- ㄷ. 예구 아까워랏
- ㄹ. 상가 하나 사쟈!!!, 다들 청약합시닷~~~♡, 우리 다 함께 파이팅합시닷, 몇년 만 더 기다려보쟈!!ㅋ

ㄱ은 평서문, ㄴ은 명령문, ㄷ은 감탄문, ㄹ은 청유문에서 어말에 스이 첨가된 예들이다. 이때 첨가된 스은 강조와 공손의 의미를 표현한다. ㄱ은 평서문의 어말에 스이 첨가된 예로, ‘어려운 기술이 많이 필요함, 핑크임, 가전을 바꿀 것임, 할 수 있음’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스이 첨가되었다. ㄴ은 명령문의 경우로, 상대방에게 명령 및 요구를 단호하지만 친밀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스이 첨가된 것이다.

ㅂ과 스 모두 장애음이고, 어말의 종성에 위치하면 불파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기류가 입 속에서 막히게 되어 음상적으로 단호한 느낌을 주게 된다. 이런 느낌은 의미의 강조로 이어질 수 있다. 어말에 첨가되는 자음 ㅂ과 스 중 스 첨가가 훨씬 더 빈번하게 관찰된다.

(6) 르

- ㄱ. 사무실꺼 버틸려니...
- ㄴ. 애들 탄수랑 당즙 줄일려고노력중이에요^^;;
- ㄷ. 몰르겠네
- ㄹ. 기사불르려 관리실다녀왔당
- ㅁ. 피아노 드갈라는거 OO아 불르니까
- ㅂ. 내손으로 꼭 눌르고 붕대찾고 있으니
- ㅅ. 체중이 십킬로이상 차이날거라. 말르셨거든

ㄱ, ㄴ은 용언 어간에 어미 ‘-려고’가 결합할 때 르이 첨가된 예이다. ㄷ-ㅅ은 르 불규칙 용언 어간에 르이 첨가된 예이다. 이와 같이 르 첨가는 르 불규칙 용언과 연결어미 ‘-으려고’가 결합하는 환경에서 일어난다.

이런 환경에서의 르 첨가에 대해, 김 성옥(2015)은 르첨가형이 의도나 욕망을 보다 강조하여 드러내려는 것을 상위화용적으로 함축하다고 하였다. 르 불규칙 용언의

수의적 ㄹ첨가 현상을 다룬 이 재호(2015)에서는 동성과의 대화시보다 이성과의 대화시에 ㄹ첨가형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ㄹ첨가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화자가 일부러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대구 지역어를 대상으로 ㄹ첨가에 대해 논의한 배혜진(2017)에서는 아주 소수의 제보자만이 ㄹ첨가형과 비첨가형에 어감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어감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⁴⁾ 그래서 ㄹ첨가형이 특정 어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빈번히 실현되는 신방언으로 보았다.

일상 구어에서 실현되는 이와 같은 ㄹ첨가가 카카오톡 대화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ㄹ첨가라는 음운 변이를 통해, 친근감, 공손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2) 모음 첨가

(1) 으

- ㄱ. 실패 안할거 **같으네**
- ㄴ. 젤작은거 에스지**싶으다**
- ㄷ. 비시르다~~~, 고집 **싫으다** ㅋㅋ
- ㄹ. 힘안들고 **좋으다**~~~
- ㅁ. **젊으고**이뿐애

위의 예들은 용언 어간 말에 ㄱ가 첨가된 경우로, ‘같다, 싶다, 좋다, 싫다, 젊다’의 어간에 ㄱ가 첨가되었다. 백은아(2016)에서 논의한 바와 유사하게,⁵⁾ 카카오톡 대화에서 ㄱ첨가는 어간이 단음이고, 어간 말음이 유기음인 경우가 많고, ‘젊다’와 같이 자음군 말음이 비음일 경우는 단 1회만 나타나, 드물게 나타났다. 구어에서 이런 ㄱ첨가는 활용 시 어간의 말음이 교체되는 것을 저지하여, 어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구어에서 실현되는 발음을 반영하

4) 배혜진(2017)에서 어감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소수의 제보자는 첨가형인 ‘갈려고’는 공손하고 완곡한 거절의 어감이라면 비첨가형인 ‘가려고’는 형식적이고 어색해서 거절의 의지가 약해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ㄹ’ 첨가형을 사용함으로써 ‘공손, 완곡’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말투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ㄹ’ 첨가형이 특정한 어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첨가형, 비첨가형과 관계없이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일상적인’ 말투라고 보았다.

5) 백은아(2016)는 전북방언에서 어간말 으 삽입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어간이 단음일 경우 /ㅡ/ 삽입이 활발하다. 어간 말음 이 유기음과 경음일 때 /ㅡ/ 삽입이 아주 활발하고 평음 비음일 때는 삽입이 드물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어휘에 따라 /ㅡ/ 삽입 여부가 달라진다. 전북 방언에서는 많은 어휘들이 /ㅡ/가 삽입된 후 재구조화를 겪고 있는데 이런 재구조화는 진행 중에 있다. /ㅡ/ 삽입은 활용 시 어간의 말음이 교체되는 것을 저지하여, 어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으로써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ㅡ/ 삽입으로 인하여 용언 어간의 이행태 수가 줄어든다.

여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쓰이고 있다.

(2) 동일 모음 첨가

- ㄱ. 네에에~>_< ㅎㅎ
- ㄴ. 마라탕 먹고싶다아~~~~
- ㄷ. 이걸로 올해 생신상 꼬을!
- ㄹ. 내가 졌다고 꼬옥 강조해줘!!!

ㄱ은 ‘네’의 모음 ‘ㅐ’, ㄴ은 ‘다’의 모음 ‘ㅏ’, ㄷ은 ‘끝’의 모음 ‘ㅡ’, ㄹ은 ‘꼭’의 ‘ㅜ’ 등의 동일 모음을 첨가하여 모음의 길이를 연장하고 있다.

강 현석·김 민지(2017)는 여성이 ‘네에, 네앵’ 같은 모음 길이 연장 변이형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종결어미에서도 이러한 모음 길이 연장 변이형(‘다아아, 다양, 요오’)이 관찰된다고 하면서, 모음 길이 연장 변이형을 통해 길고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여성 특유의 억양(임 흥빈 1993)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종결어미에서 이러한 모음 길이 연장이 관찰되었다. ㄱ, ㄴ에서와 같이 모음 길이 연장 변이형을 통해 길고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여성 특유의 억양을 표현한다. 이런 여성 특유의 억양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ㄷ, ㄹ처럼 동일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올해 해야 하는 생신상 차리기가 끝났음’과 ‘자신이 준 것을 강조하기 바람’을 강조하고자 의도로 동일 모음이 첨가되었다.

3) 반모음 첨가

- (1) ㄱ. 역쉬 BTS 대박~, 감좌~~^^, 아니겠쥬?, 눈빛이 사좌있으심
- ㄴ. 동죽 왔당, 진짜 손재주있는분들 대단하다

ㄱ은 w가 첨가된 것이고, ㄴ은 j가 첨가된 것이다. w 첨가에 비해 j 첨가의 빈도가 낮다. w 첨가는 여러 단어에서 여러 번 관찰되지만 j첨가는 종결어미 ‘다’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런 반모음 첨가를 통한 모음의 변형은 의미를 강조하거나 재미를 주는 기능을 한다.

3.2. 탈락

(1) 자음 탈락

ㄱ. 자르께(자를게), 개안나(괜찮나), 강(그냥), 마이(많이), 섬(시험)

유성음 사이에서 ㄹ, ㄴ, ㄷ, ㅎ 등 자음이 탈락한 예이다.

(2) 모음 탈락

ㄱ. 침(처음)

ㄴ. 넘(너무)

ㄷ. 울(우리), 널(내일), 켈(제일), 몽실(미용실), 잼(재미)

위의 예는 ㅡ, ㅏ, ㅣ가 탈락된 예로, ㅣ가 탈락한 형태의 출현빈도가 높다. 모음 탈락은 모음을 탈락시켜 음절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다.

(3) 반모음 탈락

ㄱ. 개안나, 머야

w가 탈락된 예로, j가 탈락된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3.3. 교체

1) 자음 교체

(1) 경음화

① 어두경음화

ㄱ. 저런 행주 잘 안**땀**이는거 아니가?

ㄴ. 필터도**잘**라야되는구나

ㄷ. 미나리 남은거 **전**썩는데

ㄹ. 파김치도전 **따**듬기가 켈힘드네

ㅁ. 경비**쫄**인다고

ㅂ. 어깨 **뿌**사지는 줄 알았음

ㅅ. 폰으로 동영상 촬영편집 할러니 용량 **떨**려서 보니.

ㅇ. 스텝플러로 **찢**어서 마스크 쓰게했어~

ㅈ. 중국에서 옷오면 **꾸**겨진거 넣어서

ㅊ. **쥼**하게생겼더라

ㅋ. 전압이 **췌**서 그런지 차단기 내려가던데

- ㅌ. 성공하면 갈쳐줄게 **꽁짜**로
- ㅍ. **꺼꾸로**깎고좋다고누음
- ㅎ. 근데 벌써 녹아서 **꾸정물** 퍼내고있더라ㄱ

어두에서 평음이 경음으로 교체된 예들이다. 이런 어두경음화는 경상방언에서 빈도높게 실현되는 음운현상이다. 실제 구어에서 실현되는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였다. 실제 발음을 반영하기 위해 경음으로 표기한 것도 있고, 동작이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경음형을 표기하기도 한다.

② 어중경음화

- ㄱ. 할**꼬**얌, 있을**꺼**다, 알려줄**겔**
- ㄴ. 눈**감**꼬 협조안해주고
- ㄷ. **조명빨**좀 받았네ㄱ, 핑크물리는**사진빨**이다, **말빨**좋아서 카나 믿음이가고ㄱ
- ㄹ. 누구**꺼**지 몰라도, 난 니**꺼**가 더 맛나보인다~~, 내**꺼**보다 언니**꺼** 소리 훨 좋지싶다

ㄱ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의존명사가 결합할 때 의존명사의 두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로, 실제 구어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했거나, 맞춤법 관련 지식 부족에 기인한다. 이 유형의 어중경음화가 제일 빈번하게 관찰된다. 본고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자료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자립명사가 결합할 때는 경음화가 실현된 표기가 관찰되지 않았다. ㄴ은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의 예이다. ㄷ은 파생명사에서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경음화된 예이다. ㄹ은 의존명사 ‘것/거’ 앞에 소유자가 올 때 ㅅ이 개재되어 경음화된 예이다(내 ㅅ것, 누구 ㅅ것, 니(네) ㅅ것, 언니 ㅅ것). 이 환경에서는 항상 경음화된 표기만 나타나고, ‘내거, 니거, 누구거’라는 표기는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언니거’는 단 1회만 나타난다.

(2) 비음동화

- ㄱ. 감사함되~~♡

(3) 조음위치동화

- ㄱ. 동갑이라 좋아"" 친구해야지

비음동화와 조음위치동화형은 일상발음에서는 빈번하게 실현되지만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실제 발음이 반영되어 표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구개음화와 마찰음화 등도 실제 구어에서 빈번히 실현되는 음운현상인데도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4) 카카오톡 대화에서 실현되지 않는 음운변이

① 구개음화 미반영

- ㄱ. 채끝이랑
- ㄴ. 같이 가자
- ㄷ. 곰술이라해야하나요
- ㄹ. 팔은 사야지 ㅎㅎ
- ㅁ. 코로나의 끝은 어찌될지
- ㅂ. 비싼 밥술은 황동인가 먼가로

② 마찰음화 미반영

- ㄱ. 햇빛이 강해
- ㄴ. 눈빛이 사와있으심
- ㄷ. 선물도 더 빛을 발했다~
- ㄹ. 목젓이 이렇게생기면 음치입니다 ㅋㅋ

③ 유음화 미반영

- ㄱ. 옥상와서 줄넘기~~
- ㄴ. 신라탐들이랑 다른 느낌

④ 비음화 미반영

- ㄱ. 상류라서 돌이 매끈한거없다네~

⑤ ㄴ첨가 미반영

- ㄱ. 청약통장상관없대
- ㄴ. 나도 금요일은 일안가~
- ㄷ. 환을오르고

ㅌ체언이 주격조사 ‘이’나 보조사 ‘이나’, 지정사 ‘이다’가 연결될 때 ㅌ이 ㅌ으로 실현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①ㄱ-ㄷ의 예에서 보듯이 실제 구어에서 실현되는 구개음화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체언 어간의 형태를 밝혀 적고 있다. 전통적인 경상방언의 특징으로 알려진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들 구개음화는 경상방언 화자라도 젊은 세대에게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ㅌ체언이 조사 ‘은, 을, 으로, 에’ 등과 결합할 때 구개음화를 겪은 형태가 일상에서 널리 실현되는데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①ㄹ-ㅂ의 예에서 보듯이 그러한 형태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구개음화와 관련된 경우에는 체언 어간의 형태를 지켜 표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스, ㅌ, ㅍ’이 ‘ㅅ’으로 실현되는 마찰음화 현상은 일종의 약화 현상으로, 홍 미주(2011)에서 대구 지역어에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ㅅ’으로의 실현율이 증가하고, 여성이 개신자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구어에서 마찰음화형이 실현되는데도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구어의 마찰음화형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ㄴ 첨가는 복합어 내부 또는 구 등에서 선행요소의 말음이 자음이고 후행요소의 말음이 ‘이’나 ‘야, 여, 요, 유, 예’로 시작되는 자립형태소일 경우에 일어난다. 홍 미주(2011: 91)에 따르면, 대구 지역어에서 한자어와 고유명사에서의 ㄴ첨가율이 높고, ㄴ첨가형이 표준발음인 고유어합성어에서는 ㄴ첨가형과 비첨가형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 ㄴ삽입은 세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젊은 세대일수록 ㄴ첨가율이 낮아진다. 대구 지역에서 ‘금요일, 청낙, 환날’과 같이 ㄴ이 첨가된 발음이 실현되는 비율이 높는데 실제 구어에서의 발음과 달리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음 교체의 경우, 경음화를 제외하고는 실제 구어에서 실현되는 많은 음운변이형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경음화형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비음동화, 조음위치동화는 아주 소수의 예가, 구개음화, 마찰음화, 유음화, 비음화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경음화형 중 어두경음화형은 동작이나 정도를 강조하는 표현상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다른 음운변이보다 빈번히 관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카카오톡 대화의 언어가 발음대로 표기되는 경향도 있지만, 자음 교체의 경우 어간의 형태를 변형시켜 의미상 전달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간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모음 교체

(1) 오→우

- ㄱ. 다들 시간되면와서 체험하구가~~
- ㄴ. 자격증 따려구 공부해야 한다ㅏㅏ
- ㄷ. 후기에 소개들이 물총쏘고 싱싱하다더라구
- ㄹ. 나가는것도 귀찮아 하더라구요
- ㅁ. 갠톡으루 보내줘요
- ㅂ. 없엉 하나두
- ㅅ. 저두 주세요
- ㅇ. 그래두 자식들 많으니
- ㅈ. 근데후기가 별루없다

위의 예들은 ‘오’가 ‘우’로 실현되는 고모음화의 예이다. ㄱ-ㄴ은 어미 ‘-고’, ㄷ-ㄹ은

조사 ‘-고’, ㅁ-ㅅ은 조사 ‘-(으)로’, ‘-도’에서 오→우 교체가 반영된 표기이다. ㅁ-ㅅ은 모두 문법형태소에서 오→우 교체를 보여주는데, ㅇ-ㅅ과 같이 부사에서도 오→우 교체가 실현되어 표기되었다.

현재 대구 지역어에서는 문법형태소에서 ‘오’가 ‘우’로 실현되는 고모음화가 진행 중에 있다. 홍 미주(2011, 2013)와 배 혜진(2016)에 따르면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주로 문법형태소에서 ‘오’를 ‘우’로 실현하는 음운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홍 미주(2013)에서는 여성이 ‘우’를 여성정체성 표지로 인식하고, 대화 상황에서 부드럽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 아→어

- ㄱ. 폭대충알아야사는거**같**어~~
- ㄴ. 앙 머**리**아**파**~~~~
- ㄷ. 수선화 **맞**어
- ㄹ. **몰**러~~갑자기 무슨 바람인지

어미 아→어 교체의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카카오톡 대화에서 관찰되고 있다. ‘같아, 맞아, 아파, 몰라’와 같이 부사형 어미 ‘-아’가 결합하는 형태가 주로 쓰이고 부사형 어미 아→어 교체형은 출현빈도가 낮다. 홍 미주(2019)에 따르면, 대구 지역 화자들은 부사형 어미 ‘아’가 ‘어’로 교체된 형태가 더 친밀하고 부드럽고, 덜 단호한 느낌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에서 아→어 교체형이 대화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으→우

- ㄱ. **이**뿌다
- ㄴ. 이게 뭐라고 완전 **기**뿌네 ㅋㅋ
- ㄷ. **배**고**푸**쥬당
- ㄹ. **슬**푸당

순자음 다음의 평순모음 ㅡ가 원순모음 ㅜ로 실현되는 원순모음화로, 일상 구어에서 자주 실현되는 현상이다. ‘이뿌다, 기뿌다, 고평다, 슬푸다’에서 원순자음 아래 비원순모음 ㅡ가 원순모음 ㅜ로 교체된 것이다. 이는 원순성 자질을 공유하는 동화로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이다.

(4) ㅣ모음역행동화

- ㄱ. 애끼던 화병 깨먹고 하나 사야는데 ㅋ
- ㄴ. 우리 애기 낮잠 왜 못잤노?
- ㄷ. 꺾기있으면 끝이지~
- ㄹ. 와~~ 직인다 언냐
- ㅁ. 미역국은 저렇게한솔끼리야 맛나드라
- ㅂ. 일할때는 대충좀 믱이도
- ㅅ. 꿀뽕기시르네

ㄱ-ㄷ은 형태소 내부, ㄹ-ㅂ은 용언 어간에 사피동접미사가 결합하는 환경, ㅅ은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환경에서 1모음역행동화가 일어난 예이다. ㄹ은 죽이다→꺾이다→직이다와 같은 과정, ㅂ은 먹이다→멕이다→믹이다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5) 오→어

- ㄱ. 13번이여
- ㄴ. 좋은날 만나서 밥먹어여 우리

보조사 ‘-요’(jo)를 ‘여’(ja)로 표기한 예이다. 이 요→여의 교체는 대화방에서 3개에서 다 관찰되지 않고, C 대화방의 1인이 이와 같은 교체형을 빈번히 사용한다. 보조사 ‘요’가 ‘여’로 실현되는 것은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모바일 대화에서 특정 동기에서 실현되는 형태일 수도 있다.

(6) 어→오

- ㄱ. 맞오맞오
- ㄴ. 귀엽다
- ㄷ. 이건 모야?
- ㄹ. 혼자하기시로~~~

‘맞아’ 또는 ‘맞어’의 어미 모음 ㅏ 또는 ㅑ가 ㅑ로, ‘귀엽다’의 여(ja)가 요(jo)로, 뭐→머→모 과정을 거쳐 ㅑ가 ㅑ로, ‘싫어’의 ㅑ가 ㅑ로 교체된 예이다. ‘뭐→머→모’의 과정을 참고하여 ‘맞오’도 맞아→맞어→맞오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ㄴ을 제외하면 모두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에서 어→오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7) 어→아

- ㄱ. 쉽네 고마와♡

ㄴ. 찌고볶고맛나게잡좌♡, 다들잡사요♡♡

어미의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교체되는 것과 반대로 음성모음이 양성모음으로 교체되는 예이다. 위(wə)를 와(wa)로 표기하여 ə→a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ㄴ은 ‘잡사’는 ‘잡좌’에서 w가 탈락한 것이다.

(8) 반모음화

ㄱ. 섬

‘섬’은 ‘시험’에서 모음간 ㅎ이 탈락하고, $\text{ʃiəm} \rightarrow \text{ʃjəm}$ 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3.4. 축약

(1) 자음 축약

ㄱ. 생일추카추카♡♡♡♡

ㄴ. 가까운데도 조코~~

ㄷ. 그러지는 앓코, 얼마나오지도안코

ㄹ. 꽃가루 넘 싫타~~, 버튼 만지기도 싫터라~~

ㅁ. 뒤에 만타, 짐은 내가 많타~, 글밥많다

평장애음 ㄱ, ㄷ이 ㅎ과 결합하여 유기음 ㅋ, ㅌ로 실현되는 유기음화가 표기에 반영된 예이다. ‘만타’와 같이 발음대로 표기한 경우도 있고, ‘많다’와 같이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경우, ‘많타’는 어간은 표기법에 맞게 쓰면서도 일상 발음을 반영한 표기이다.

대화방 참여자 중 1인은 ‘많다, 만타, 많타’ 중 ‘많타’가 많음의 정도가 제일 강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많-’이라는 용언 어간이 그대로 표기되어 ‘많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면서 실제 발음인 ‘타’가 ‘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 진술은 카카오톡 대화와 면대면 대화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면대면 대화는 음성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행위이지만, 카카오톡 대화는 실제 발음을 반영하면서도 문자화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정보가 읽히고, 정보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의미 전달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가령, ‘많다’의 면대면 상황에서의 발음은 ‘만타’로, 화자도 ‘만타’로 말하고, 청자도 ‘만타’로 듣는다. 이와 달리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많타’로 표기되었을 때, ‘만’이 아닌

‘ 많 ’으로 표기되어 多의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되고, ‘ 다 ’가 아닌 ‘ 타 ’로 표기되어 실제 발음을 잘 반영하면서도 ㅌ이 동반하는 기식성(aspirated)으로 多의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2) 모음 축약

ㄱ. 집에오래된책 한카트버렸다

ㄴ. 목을 갖다봐도되나?

대구방언권에서 실현되는 모음 축약으로 ㅑ>ㅓ(jə>e)와 ㅕ>ㅗ(wə>o)가 주로 실현된다. ㄱ의 ‘버렸다’는 ‘버렸다>버렸다>버렸다’를 거친 것으로 모음축약 ㅑ>ㅓ와 고모음화 ㅓ>ㅗ가 함께 적용·실현되었다. ㄴ은 ‘봐두+어→봐뒤→봐도’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뒤’가 ‘도’로 축약된 것이다. ㄱ, ㄴ 둘 다 어미와 결합할 때 이러한 축약이 일어난다.

대구방언권에서 실현되는 이상의 두 가지 모음 축약은 ‘며칠>메칠’, ‘결혼>게론’, ‘뽕>꿍’과 같이 체언의 어두 위치에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런 환경의 축약은 노년층에서 실현되고, 젊은 세대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버렸다>버렸다>버렸다’, ‘봐뒤→봐도’와 같이 어미(비어두)에서는 모음 축약이 빈번히 일어난다. ㄱ과 ㄴ은 대구 지역의 구어에서 실현되는 실제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음운변이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운 \ 유형	첨가	탈락	교체	축약
자음	ㅁ, ㅇ, ㄴ ㅂ, ㅅ ㄹ	유성음간 자음	경음화 비음동화 연구개음화	유기음화
모음	으	으, 이, 우, 어	오→우 아→어 ㅣ 모음역행동화 아/어→오 오→어 어→아 반모음화	여→에 워→오
반모음	w, j	w		

위의 표를 보면, 자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은 첨가에서,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은 교체에서 빈도가 높고, 다양하게 실현된다.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제일 빈도가 높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모음 교체이다.

자음 첨가는 어말에 대화상의 효과를 위해 첨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용언 어간에 ㄹ이 첨가되기도 하였다. 모음 첨가는 용언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여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언 어간에 으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모음첨가는 발음의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반모음을 첨가하여 의미를 강조하거나 재미를 가미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실현되었다.

자음 탈락은 주로 발음의 경제성을 추구하여 유성음간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모음탈락은 해당 모음을 탈락시켜 음절 축약을 일으키는 유형의 탈락이 대부분이다. 반모음탈락도 발음의 경제성을 위한 것이다.

교체는 자음보다 모음에서 다양하게 관찰된다. 자음 교체는 경음화의 예가 많고, 그 중 어두경음화형이 많이 나타난다. 비음동화형과 연구개음화형도 나타나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모음 교체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대구 지역에서 진행중인 변화인 오→우, 아→어 교체가 나타나고, 어미의 모음을 교체하는 변이들이 다수 나타난다. 모음교체는 주로 어미, 조사와 같은 형식형태소에서 주로 일어난다.

축약으로는 평장애음이 ㅇ과 결합하여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교체가 주로 관찰된다. 모음은 비어두(어미)에서 여→에, 위→오 교체가 관찰된다.

카카오톡 대화가 실제 구어의 발음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발음을 반영하지 않고 어간의 형태를 밝혀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 진행중인 음운변화로 젊은 세대에게서 실현되는 마찰음화형의 경우, 실제 구어에서는 빈번히 실현되지만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마찰음화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자음관련 변이 중 어간의 형태가 변형되어 의미전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음운변이가 표기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음 관련 변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어두경음화의 경우, 평음을 경음으로 기존의 음운에 긴장성 자질만 첨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해도 의사전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의 강조, 의사의 단호함, 센 강도 등을 표현하는 대화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개음화형이나 마찰음화형이 실제 구어의 발음이라 하더라도 표기로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의미전달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가령 ‘같이’를 발음대로 ‘가치’라고 표기하면 ‘가치’(價値)와 의미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빛+이’의 경우에도, 실제 발음을 반영하여 마찰음화를 실현한 ‘비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비시’로 표기되지 않는다. 이 또한 일상 구어의 발음대로 실현했을 때 ‘빛+이’, ‘빛+이’, ‘빛+이’와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음교체의 경우는 그 실현양상이 다양하고 출현빈도도 높다.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형태소에서 모음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음운적 측면에서 경상도 방언의 음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변이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 빈도가 높지는 않다. 전통적인 경상도 방언의 특징으로 ㄱ, ㅎ 구개음화, 예>이 상승 현상, 전설모음화(ㅅ, ㅆ, ㅈ, ㅊ 뒤의 ㅡ → ㅣ), △>ㅅ, ㅍ>ㅂ 변화, 어두경음화, 어중 유기음화의 미실현, 모음축약, 화음탈락, ㄹ 모음역행동화, ㄴ 첨가 등을 들 수 있다(방언연구회 2001, 백 두현 2020 등). 이 중 예>이 상승 현상, ㄹ 모음역행동화, 모음축약 등이 소수의 예에서 실현되고, 어두경음화는 실현비율이 높다. 어두경음화형을 제외하면 경상방언의 음운 현상 및 특징들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어성을 높이고, 실제 대화에서의 생생함을 추구하거나 친밀하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할 때 모음과 관련된 음운변이들이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⁶⁾

이상에서 논의된 카카오톡 대화의 음운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실제 구어의 발음을 반영.
- 음운변이가 화용론적인 기능을 수행.
- 자음과 관련된 음운변이보다 모음과 관련된 음운변이가 우세.
- 모음과 관련된 음운변이는 대체로 조사, 어미와 같은 형식형태소에서 빈번.
- 실제 발음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용언 어간, 체언의 형태, 특히 어간의 자음을 바꾸는 변이는 잘 일어나지 않음.
- 이는 어간과 체언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하겠다는 의도임.
- 형식형태소에서 모음의 변이가 빈번한 것은 모음변이형을 대화상 공손전략으로 사용하기 때문.

4. 음운변이형의 화용론적 기능

최 전승(2018)은 음운변이 및 변화에 화용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해당 음운변이를

6) 카카오톡 대화에서 경상방언적 요소는 문법 형태에서 잘 관찰된다.

-구로(-게/-도록, 기분 좋구로~~♡)

설명어미 종결어미 -고/노(몇시고?, 점심 뭐먹노)

판정어미 종결어미 -가/나(언니들 상담하러 다 가나?, 이렇게 둘째매력이가?)

-(으)ㄹ라고(-(으)려고, 이제 갈라고)

추정 표현 -ㄴ 갑다(실패하셨는갑다)

-았/었+-는 구성(어제 먹었는 거) 등.

이 중 설명어미와 판정어미의 종결어미, 추정 표현 ‘-ㄴ 갑다’, 의도의 연결어미 ‘-(으)ㄹ라고’는 빈번히 실현된다. 이와 같이 형태·통사 차원에서는 경상방언적 요소가 많이 실현되지만, 방언 어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카카오톡에서 관찰되는 경상방언 어휘는 ‘정구지’(부추), ‘정구지집’, ‘정구지전’과 같은 구성에서만 소수로 나타난다.

해석하려고 한 논의로, 음운변이 및 변화가 의사소통상 정감 표출 기능을 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전승(2018)에 따르면, 음운변이가 일어언어변화의 요인을 화자 중심의 전략과 청자 중심의 전략으로 분류하게 된다. 전자는 의사소통상의 효율성(efficiency), 특히, 음성변화의 층위에서 발음 노력의 경제를 지향하는 다양한 유형의 결합적 변화에서 나온 동화, 약화(연음화) 그리고 탈락 현상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반면에, 청자 중심의 전략은 상대방에게 화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여 소정의 목적을 성취하거나, 상호 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풍부한 정감 표출(expressiveness)의 기능이라고 한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화 상대방을 설득하고, 친밀한 감정을 전달하고, 소속집단에 속해 있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공동의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감 표출적 표현을 일종의 대화 전략으로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최 전승 2018:71).

이런 관점에서 음운변이 및 변화에 화용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해당 음운변이를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최 전승(2004, 2018)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최 전승(2004)에서 움라우트 현상의 적절한 관찰과 이해를 위해 화용론적 접근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화용론적 접근을 위해, 주격조사 ‘이’가 연결될 때 체언의 모음에 나타나는 움라우트의 실현 또는 비실현의 현상을 일정한 텍스트 틀 안에서 관찰하고, 이 현상이 화자와 청자, 또는 청중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 또는 담화 속에서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살폈다. 그리고 움라우트의 실현이 화자의 일정한 대화 전략 또는 언어 외적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현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⁷⁾

그리고 최 전승(2018)에서는 ‘바래다, 모지래다’ 등의 ‘이’ 첨가 개신형들이 대화상 정감적 강화의 효과를 위해 실현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화자의 주관적인 강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 외에도 화자가 청자에게 주려는 의도된 효과(재미, 친밀감 형성, 동질감 표현)를 위해 이러한 개신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진수(2015: 183) 또한 ‘그리려고→그릴려고, 하려고→할려고, 역시→역쉬, 했어요→했어염’과 같은 음운첨가현상이 음운론적 해석으로는 음운 첨가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만, 화용론적으로 보면 의사전달의 확실성, 화자의 의지, 상대방의 의견이나 견해에 일상인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동조 등을 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탈락’ 보다 ‘첨가’가 많은 것을 볼 때, 이들은 화자의 감정 이입이나 의지의 정도 등을 표현하기 한 장치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김진수 2015, 김성옥 2015에서 재인용).

이러한 음운변이 및 변화를 화용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려는 시도는 해당 음운변이

7) 최 전승(2004)에서 화자들은 말이 사용되는 화용론적 맥락에 따라 규범형인 비움라우트형과 방언형인 움라우트형을 적절하게 교체시켜 구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고, 움라우트형은 [-위신 +친숙성 -격식성 +정체성]이라는 화용론적 또는 사회언어학적 속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에 대한 종전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음운 변이 및 변화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던 화용론적 측면에서 텍스트와 담화 중심, 그리고 맥락과 같은 기본 성분들을 고려한다면 화자가 어떻게 음운변이를 운용하는지, 대화에서 음운변이를 어떠한 대화 전략으로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는 구어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구어와는 달리 말의 피치나 억양 같은 초분절적 요소나 준언어학적 요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화자 간의 어감이나 말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화할 때 서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에서는 공손 전략이 특히 필요하며 이에 따라 문자 대화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전략이 사용된다(윤 상석 외 2014: 158). 문자만으로 이루어지는 무미건조한 대화에 보다 입체적인 감정과 공손성을 입히기 위한 나름의 다양한 의도와 전략이 적용되는 것이다(김 가연 2017: 61). 그러한 전략 중 음운적인 측면에서는 첨가나 모음의 변이 등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공손성을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공손함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음운변이형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대화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음운변이형이 대화에서 어떤 화용론적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대화1]

A: 10시부터 1시까지 시간되시는분들오셔서 축제즐기다가요

A: 이번에는 프리마켓도있음

B: 이번에는 나는 못갈것같네. TT 올애들좋아하는데 연휴라서 캠핑간다

B: 선착순캠핑장인데 혹시 자리없으면 다시 돌아오게 ㅋ

A: ㅋㅋ

A: 그래 상황열리면와~~~

C: 와~~우리도 시간되면 갈께

이번주 어버이날행사도 치뤄야되는데 언제할지 모르겠네~

A: 그랭~~다들 시간되면와서 **체험하구**가~~~

A는 기독교인으로, 비기독교인인 여러 사람에게 부담 없이 자신의 교회에 와서 체험하고 가라고 권하고 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강하게 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말에 ㅇ을 첨가하고, 어미 ‘-고’의 ‘오’를 ‘우’로 교체하여 부드럽우면서 강하지 않게 참여를 권하고 있다.

[대화2]

A: 집에 이책 있는 분? 몇권보고 세트살까 싶어서

A: OO이 읽힐 만한 괜찮은 고전 추천부탁해. ~~

B: 우리집엔 없어.

A: 이런 고전 시리즈 괜찮은 거 머 있으까?

C: 난 책알못

D: 나도 잘몰러~~ πππ

B: 나도 잘 몰러~~~~

책 추천을 부탁하자 자신도 잘 몰라 추천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 ‘몰러’라는 변이형을 사용하고 있다. ‘몰러’를 사용한 화자에게 ‘몰라’가 아닌 ‘몰러’를 쓴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대화방에서는 문자메시지로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몰라’라고 하면 너무 단정적이고 딱딱하게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몰러’라고 썼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어’형은 상위자에게는 쓰기 어렵고, 동년배나 어린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할 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홍 미주(2019)에서는 ‘아→어’ 교체형의 어감 차이에 대해 대구 지역 화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많은 화자들이 ‘아’보다 ‘어’로 발음할 때 부드럽게 들리고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상대방에게 명령이나 요구를 할 때 덜 강하게 들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덜 강하게 전달하는 느낌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화자들은 청자를 고려하여 아→어 교체라는 전략으로 대화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화3]

(방탄소년단의 그림을 사진으로 보내는 상황)

A: 방탄선물이닷~ 강제로 받아랏~~~압

B: 방탄 얼굴 이렇게 자세히 본거 찜이닷 ㅋㅋ

[대화4]

(아이들이 많은 사진에서 자신의 아이를 찾아보라는 상황)

A: OO이ㅋㅋ찾아랏ㅋ

[대화3]은 방탄소년단의 팬인 A가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보내며 선물이니 받으라고 말하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의 선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닷’과 같이 어

말에 ㅅ을 첨가하고, 받으라는 의미를 단호하게 전달하지만 명령이나 요구가 무례하고 강해 보이지 않도록, 친밀감을 주기 위해 어말에 ㅅ을 첨가하여 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B는 ‘첨이다’에 ㅅ을 첨가하여 방탄소년단의 얼굴을 자세하게 본 것이 처음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화4]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찾아보라는 요구를 무례하지 않게, 친밀감을 주면서 하기 위해 ㅅ이 첨가되었다. 위의 두 대화를 통해, ㅅ첨가는 강조, 공손의 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대화5]

A: OO언니실내화 새거였엉~~~~~?

나 완전득템했네

OO이 실내화 흰색털 있는거 원해서 문구정가니 다 핑크털이라서 어쩔수없이 핑크털 사줬었는데

오늘와서 보면. 좋아하겠다

잘신길게요~~^♡

B: 내가 줬다고 **ㅍㅍ** 강조해줘!!! ㅎㅎㅎ

[대화5]는 A는 B에게서 받은 아이 실내화가 ‘새 거’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 또는 ‘새 거’를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새거였엉’에서와 같이 어말에 ㅅ을 첨가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B는 ‘자신이 준 것을 강조하기 바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ㅍㅍ’에서 동일 모음 ㅍ를 첨가하였다.

최 명원 외(2012: 485-486)에서도 애교스럽고 부드러운 말투를 표현하기 위해 첨사(添辭) ‘ㅇ’, ‘ㅁ’을 덧붙이거나 기존 모음을 다른 모음으로 교체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된다. 일부 모음을 일부러 어그러뜨려서 부드럽고 애교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실제 발화와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 내는 ‘모음 변이’ 혹은 ‘모음 교체’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첨사와 모음 교체 등의 수단이 동원되는 이유를 카카오톡 대화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면대면 대화에서처럼 얼굴 표정이나 억양 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애교형 첨사나 모음 교체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문 금현(2017)은 공손성의 범주를 넓게 보아 친근함, 친절, 칭찬, 호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⁸⁾ 음운, 문법, 어휘, 화용의 언어 층위별로 나타나

8) 공손성 표현이란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존중과 겸손의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는 언어 표현으로 ‘공경’과 ‘겸손’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발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공손성의 범주를 넓게 보아 친근함, 친절, 칭찬, 호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문 금현 2017: 59).

는 특징을 살폈다. 음운적 측면에서 공손성은 음장이나 억양으로 실현된다고 하였고, 공손성 표현 중에서 사용빈도와 공손성 강도가 높은 것은 높임어휘와 여격조사 ‘께’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음장과 억양뿐만 아니라 특정 음운변이형을 발화하여 공손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실제 발화에서 실현되고, 위의 카카오톡 대화 사례를 통해서도 음운변이형이 공손성을 실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운변이형을 공손성을 표현하는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논의는 기존의 대화 전략을 다루는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공손성 실현 기제를 음운변이 차원에서도 다룰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공손 전략은 청자를 배려한 대화 전략으로, 최 전승(2018)은 이런 청자 중심의 전략이 상대방에게 화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여 소정의 목적을 성취하거나, 상호 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풍부한 정감 표출(expressiveness)의 기능이라고 한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화 상대방을 설득하고, 친밀한 감정을 전달하고, 소속집단에 속해 있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공동의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감 표출적 표현을 일종의 대화 전략으로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최 전승 2018: 71).

이상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변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부드럽게 전달하거나 또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준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면 대화 상황과 달리 카카오톡 대화는 오로지 문자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를 배려한 다양한 공손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음운적으로는 음운 변이형 사용을 통해 공손성을 표현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구 지역 화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변이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음운변이형이 화용론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대화에서 실현되는 공손 전략이 어휘나 문법 형태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음운변이형이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고 공손 전략으로 기능하고 사용되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음운변이를 음운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 화용적 기능이 있음을 논의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화자들의 의사소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화자들의 대화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카카오톡 대화 등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통신언어가 언어의 연구 대상으로 활

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 현석·김 민지(2017),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의 대화 자료에 나타난 ‘예’와 ‘네’의 변이 양상」, 사회언어학 25(3), 한국사회언어학회, 1~27.
- 강 현석·김 민지(2018), 「카카오톡 대화에서의 경어체 종결어미의 변이 양태에 대한 다중 변인분석 연구」, 사회언어학 26(1), 한국사회언어학회, 1-30.
- 김 가연(2017), 「모바일 메신저 대화 언어에 나타난 명사형 어미 ‘-(으)ㄴ’ 종결문의 사용 양상」, 텍스트언어학 4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57-84.
- 김 성옥(2016), 「수의적 첨가현상에 대한 상위화용론적 분석」, 언어와 문화 1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 진수(2015), 「시점으로서의 화용론과 화용 분석의 실제」, 2015년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국어학회, 177-192.
- 문 금현(2017), 「한국어 공손성 표현의 생성 유형별 특징 -공손성의 강도와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학 82, 국어학회.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배 혜진(2016), 「대구 지역의 ‘신방언’ 실현 양상 연구 -‘오→우’ 고모음화를 중심으로-」, 방언학 24, 한국방언학회.
- 배 혜진(2017), 「대구지역어의 ㄹ첨가 현상과 신방언으로서의 가능성」, 어문론총 74, 한국문언어학회, 45-75.
- 백 두현(2020), 『현장방언과 문헌방언 연구』, 역락.
- 백 은아(2016), 「전북방언의 /ㅡ/ 삽입과 어간 재구조화」, 방언학 23, 한국방언학회, 107-126.
- 윤 상석·김 정숙·이 동은(2014),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나타나는 공손 전략」, 이중언어학 56, 이중언어학회, 155-181.
- 이 재호(2015), 「현대국어 ㄹ 불규칙 용언의 수의적 ㄹ첨가 현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 정복(2017), 『사회적 소통망(SNS)의 언어문화 연구』, 소통.
- 임 흥빈(1993), 「국어의 여성어」, 안 병희 엮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 연구』, 819~829, 문학과 지성사.
- 최 전승(2004),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유추적 확대와 화용론」,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 최 전승(2018), 「현대국어 ‘바래’(望) 용언 부류들의 확산의 역사성과 공시적 언어규범」, 한국언어문학 107, 한국언어문학회, 19-82.
- 최 명원·김 선영·김 지혜·이 애경(2012), 「SNS 메신저 ‘카카오톡’ 언어현상 연구」, 텍스트언어학 3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469-495.
- 허 상희(2017),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카카오톡 사용양상 분석」, 한민족어문학 76권, 한

민족어문학회, 163-199.

홍 미주(2011), 「대구 지역어의 음운변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홍 미주(2013), 「변항 (오)의 변이형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방언학 18, 한국 방언학회, 325-367.

홍 미주(2019), 「대화 전략으로서의 음운변이형 실현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언어학회 학술 대회 자료집.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방언 분야/ 연구 발표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신 우봉

제주대학교 교수
foratog@jejunu.ac.kr

1. 서론

이 연구는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한 음성학 연구들의 현황을 살피고, 하위 주제에 따른 제주방언의 연구 흐름 분석을 통하여 추후 연구되어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 그리고 연구보고서에서 발표되었던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주목할 만한 결과와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실험음성학의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기술한 논문은 小幡重一, 豊島武彦(1932), 김 선기(1937)를 꼽을 수 있다. 최초의 한국어 음성학 연구인 小幡重一, 豊島武彦(1932)는 두 학자가 같은 해에 먼저 발표한 논문의 방식으로 조선어의 음성을 연구한 것이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음향음성학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조선어의 모음, 이중모음, 자음 각각의 웨이브폼과 모음, 이중모음의 스펙트럼, 포만트값을 제시하였다(서 승완, 2018: 8). 이후 연구들은 자연스럽게 표준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음성 실험 방법의 발달로 인하여 방언으로까지 연구 대상이 확장되었다. 초기의 제주방언 음성학 관련 연구들은 분절음 그 중에서도 모음에 집중

되어 이루어졌다. 다른 지역 방언에서는 소실된 ‘으’의 존재와 단모음 체계 그리고 ‘으’의 존재는 음성학 연구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주제였던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들은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그 연구 대상을 모음 체계의 변화와 운율단위까지 확장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제주방언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제주방언 연구들을 음운, 형태, 통사, 어휘, 정책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하위 주제별로 연구되어 온 논문들의 의의 및 한계를 통하여 제주방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였다(정 승철 2014, 송 상조 2014, 김 지홍 2014, 오 창명 2014, 문 순덕 2014). 이 중에서 정 승철(2014)에서는 ‘으’를 중심으로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를 기술하고 있다. ‘으’를 중심으로 정리한 이유는 음운론 연구들 중에서 ‘으’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제주방언 음운론 연구에서 ‘으’는 일정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일관된 연구사의 서술이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 승환(2018)에서는 음성학 방법론을 활용한 방언 연구들을, 모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연구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일부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들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두 연구는 ‘으’와 모음과 관련된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중모음과 자음 그리고 운율적 측면을 다룬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음성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주방언을 연구한 성과를 정리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제주방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과제를 모색해 볼 것이다.

2.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의 현황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연구물은 연구보고서 1편, 학위 논문 4편(석사학위논문 2편, 박사학위논문 2편), 학술지 논문 34편으로 총 39편이다. 이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 사이트에서 ‘제주방언’, ‘제주어’, ‘음성학’, ‘음성’, ‘Jeju dialect’, ‘Cheju dialect’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찾은 논문이다. 이 장에서는 3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별 연구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음향음성학적 연구 방법론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한 최초의 논문은 김 한곤(1980)이다. 이후 1980년대에 5편, 1990년대 3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으로 제주방언 음성학적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이다. 2000년 이후 2019년까지 31편의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들은 단모음 /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연스

럽게 모음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 후 자음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운율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연구 주제를 이와 같이 ‘모음 연구, 자음 연구, 운율 연구’로 분류해서 비교해 볼 때 모음 연구 19편, 자음 연구 5편, 운율 연구 15편이었다.

제주방언 모음의 음성학적 특징을 파악한 논문 19편은 단모음에 관한 연구 13편과 이중모음에 관한 연구 4편 그리고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모두 살펴본 논문 2편으로 파악되었다. 단모음에 관한 연구들은 /으/의 음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었으며, 이후 세대와 성별 그리고 지역적 요인과 같은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른 단모음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논문이 이어졌다. 이중모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는데 /으/의 음가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중모음 체계 및 변화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뒤를 이었다.

제주방언 자음의 음성학적인 특징을 파악한 논문은 5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5편 모두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나타난 것으로 Cho et al.(2000)에서 처음 제주방언 자음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서울방언의 자음과 비교한 연구와, 세대와 성별에 따른 제주방언 자음의 특징 변화에 대한 연구가 뒤를 이었다.

제주방언 운율에 대한 연구는 15편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이른 시기로 검색된 논문이 1999년 학술지 논문인 이 숙향의 “제주방언 억양패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정 승철의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제주방언 운율에 대한 논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연구 주제에 따라서는 운율 단위에 관한 연구 13편과 담화표지에 실현되는 운율적 특성을 살핀 연구 2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운율 단위에 관한 연구는 실험 자료에 따라 낭독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9편과 대화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4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3.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의 하위 주제별 현황 및 성과

3.1. 제주방언 모음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모음은 음향음성학적 기술을 활용하여 모음사각도와 같이 시각적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명시적인 기술이 가능하며 음성학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대개의 모음 관련 연구들은 제1포만트(F1)와 제2포만트(F2) 수치를 활용하여 모음 공간 안에서 모음들의 실현 양상 및 분포를 확인하였다.¹⁾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제주방언 모음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를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모음의 음향적 특성은 포만트(F1, F2, F3)와 내재적 길이(intrinsic duration), 강도 그리고 피치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3.1.1. 제주방언 단모음 실현 양상과 체계에 대한 연구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음운 /으/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제주방언 노년층에서 /으/를 음운으로 지닌 화자들의 경우 ‘말[馬];말[言], 술[膚];살[矢], ㅁ슴[材料];가슴[胸], ㄹ[邊];꽃[藪], 들[月];돌[石]’ 등과 같은 어휘들을 구분하여 발음하고 있다. 제주방언 /으/의 음가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으/의 음가를 [m](원순 후설 저모음) 또는 [ɰ](원순 후설 중저모음)으로 지지하는 견해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한곤(1980)에서는 80세 피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모음 실현 환경에서 단모음을 녹음하여, 각 모음들의 포만트 수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포만트 차트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으/를 /ㅏ/와 /ㅑ/와 뚜렷이 구분되는 음가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Kim(1980)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단모음들이 포만트 수치를 바탕으로 각 단모음들이 모음 공간에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으/가 모음공간에서 /ㅑ, ㅓ/보다 /ㅏ/에 가깝게 실현되는 것을 통해 /으/가 원순 후설 저모음([m])으로 실현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한 제주방언 /으/의 음가에 대한 견해를 실험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 종훈(2006)에서도 제주방언 노년층에서의 /으/의 경우, 모음 체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는 원칙인 전반적 대칭성(overall symmetry)이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제주방언 /으/는 원순 후설 저모음인 /v/로 해당한다고 분석해야만 세 가지 혀의 높이와 위치로 구성된 모음 체계가 균형이 잡힌다고 주장하였다.²⁾ 정 승철(2014: 55)에서는 서북방언의 음가를 고려한다면 제주방언의 /으/를 [m]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제주방언의 /으/가 [ɰ]에 해당한다면 서북방언의 ‘어[ɰ]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들과는 달리 제주방언 /으/의 음가가 원순 후설 중저모음[ɰ]이라고 보는 연구도 존재한다(현 우중 1985, 1988, 1992, 김 원보 2005). 현 우중(1985, 1988)에서는 /으/를 대상으로 카메라 입술 사진 촬영과 X선 촬영을 통해 조음적 특성을 살피고, 포만트를 측정하여 음향적 특성을 살폈다. 카메라 입술 사진을 통하여 개구도의 측면을, X선 촬영을 통해서 입술의 조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으/의 음가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포만트 결과를 통해 얻은 모음의 실현 양상을 Gleason의 포만트 도표와 비교하여 /으/를 [ɰ]에 근접한 소리라고 주장하였다.³⁾ 또한, 이러

2) 또한, 이 연구에서는 미국영어 /ɰ/의 포만트 값과 제주방언 /으/의 포만트 값이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3) 이 연구에서는 모음사각도에서 제주방언의 /으/가 [ɰ]의 위치와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영어와 불어 그리고 독일어의 [ɰ]의 실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 결과를 바탕으로 /으/가 [u]와의 유사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a]의 이차모음인 [u]로 보기보다는 기본모음인 [i]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들은 피험자가 필자 한 명이었지만 조음 음성학과 음향 음성학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으/의 음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현 우중(1992)에서는 피험자를 추가하고 연구 대상을 /으/뿐만 아니라 다른 단모음들로 확장하여 종합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앞선 연구와 /으/의 음가에 관하여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후설모음의 원순 관계를 살펴보면 [u]는 완전히 닫힌 원순, [o]는 닫힌 원순, [i]는 열린 원순, [e]는 완전히 열린 원순으로 구별되는 소리로 제주방언의 /으/는 완전히 열린 원순으로 보기에 어렵고 어느 정도 열린 원순이라는 사실을 새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주방언에서 /계/와 /해/를 대체로 구분하여 발음하고 있으며, 다른 세대 화자에 비해 젊은 피험자의 경우 두 모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바탕으로 /계/와 /해/가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 원보(2005-)에서는 제주방언의 노년층 화자가 발화한 /으/를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를 Ladefoged(1982)의 영어 모음 도표와 비교하여 /으/의 음가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으/와 후설 중모음과 저모음인 /ㅏ, ㅓ, ㅗ/의 포먼트 값과 비교하여 /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으/의 F1은 /ㅏ/보다는 낮지만 /ㅓ, ㅗ/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ㅏ/보다는 고모음이지만 /ㅓ, ㅗ/보다는 저모음이고, 음의 전후와 관련이 있는 F2는 /ㅏ/나 /ㅓ/보다는 낮고 /ㅗ/보다는 높아서 /ㅏ, ㅓ/보다는 후설 모음이지만 /ㅗ/보다는 전설 모음이라 하였다. 그리고 영어모음도표와 비교해서 /으/가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가 [u]보다는 [i]에 거의 유사하다고 하였다. 즉, 현 우중(1985, 1988, 1992)에서와 같이 /으/의 음가가 원순 후설 중저모음인 [o]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⁴⁾

2000년대 이후에는 세대, 성별 그리고 지역적 요인과 같은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른 제주방언 단모음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대별 변화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요인은 /계/와 /해/의 합류 그리고 /으/와 /ㅗ/의 합류에 대한 것이었다. 제주방언에서 /계/와 /해/의 합류가 /으/와 /ㅗ/의 합류에 앞선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즉, /계/와 /해/의 합류에 비해 /으/와 /ㅗ/의 합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음변화(sound change)로 보인다. /으/와 /ㅗ/의 합류가 본격적으로 보고된 것은 현 평효(1971)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세대에 따른 제주방언 단모음 체계의 변화 양상을 음성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 원보 2005-, 김 원보 2006, 고동호 2008, 신 우봉 2015-, 신 우봉 2016).

이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제주방언 20대 화자는 /으/를 발음하지 못하며, 제주

4)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원래 원순 후설 저모음([u])이었던 /으/가 모음 상승화를 겪어서 제주방언 노년층에서는 [i]음의 전단계인 [e]로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방언 70대 화자는 /으/를 발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방언 50대 화자의 경우, 신 우봉(2015ㄱ)에서는 성별에 따라 /으/의 발음 여부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50대 화자의 경우에는 남성은 8모음 체계 그리고 여성은 7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 세대 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는 달리 김원보(2006: 133)에서는 제주방언 50대 남녀 화자 모두 /으/를 발음하며, 이 모음이 모음 체계 내에서 변별적인 음소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성장 환경이나 단어에 따라서 /으/가 /ㅓ/로 실현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고 동호(2008)에서도 50대의 경우 /으/는 어두 음절에서 /ㅓ/로 바뀌는 중으로 화자에 따라서 실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김 원보(2006), 고 동호(2008)의 연구 결과와 신 우봉(2015ㄱ)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제주방언 /으/는 50대 화자 내에서 변화가 진행 중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정밀하게 /으/의 음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세대 안에서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즉, 정 승철(2014: 55)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주방언의 /으/가 보이는 음성학적·음운론적 실현 양상은 제보자의 연령을 ‘세대’(즉 20~30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또는 ‘5년’(적어도 10년) 단위로 하여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신 우봉(2016)에서는 제주방언 50대 화자를 초반과 후반(즉 5년 기준)으로 나누어서 /으/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제주방언 50대 남녀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음의 합류 양상(신 우봉, 2016: 17)

	/ㅐ/와 /ㅓ/의 합류	/으/와 /ㅓ/의 합류
50대 초반 여성	O	O
50대 후반 여성	O	X
50대 초반 남성	O	X
50대 후반 남성	X	X

<표 1>을 살펴보면 제주방언 단모음에서 50대의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모음의 실현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50대 화자 내에서 성별 및 연령층에 따라 변화의 정도성에 차이가 나타나며, 남성 화자에 비해 여성 화자의 경우에서 단모음의 변화가 먼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존하는 연구들에서는 산출 실험의 근거로 제주 방언 50대 화자들에게서 /으/가 사라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신 우봉(2016)에서는 산출 실험의 결과뿐만 아니라 지각 실험을 통해서 /으/가 제주 방언 50대 여성 초반 화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신 우봉(2015ㄱ)에서는 /ㅡ, ㅓ, ㅓ, ㅓ/도 세대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즉, 70대에서 50대를 거쳐 20대로 올수록 /ㅡ/는 전설 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며, /ㅓ/는 후설 저

모음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음변화 양상을 모음이 없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모음을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하는 ‘당김 연쇄(drag chain)’로 설명하였다. 제주방언 단모음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ɛ/와 /ɐ/의 합류로 인하여 모음 체계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ʉ/가 /ɛ/와 합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모음공간에서의 빈 공간이 형성되어 /ɪ/가 후설 저모음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또한, /ɛ/도 /ʉ/와 합류 이후에 모음공간에서 모음상승화를 보여서 /ɪ/가 중설 쪽으로 이동하고 그로 인하여 /ɛ/와 /ɪ/의 모음공간에서의 차이가 고저의 대립에서 전후의 대립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ɪ/가 중설 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조음영역이 겹칠 수 있는 /ɛ/가 좀 더 전설쪽으로 이동하였다고 보았다. 기존하는 세대별 차이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ʉ/의 변화와 /ɛ/와 /ɐ/의 합류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연구는 전체적인 제주방언 단모음의 변화를 파악한 사례라고 하겠다.

세대 차이 외에 제주도 내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Cho et al. 2001, 고 영림 2003, 신 우봉·신 지영 2012). Cho et al.(2001)에서는 제주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60, 70대 화자를 대상으로 모음의 음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ɛ/와 /ɐ/, /ʉ/와 /ɛ/의 합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합류 중에서 /ɛ/와 /ɐ/의 합류가 먼저 시작되었고⁵⁾, 뒤이어 /ʉ/와 /ɛ/의 합류도 나타나서 종래의 9모음 체계에서 7모음 체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방언이 지역적 공간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고 있으며, 음변화의 원인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한편, /ɛ/와 /ɐ/의 합류와 관련하여 Cho et al.(2001)에서는 /ɐ/가 /ɛ/ 쪽으로 이동하여 합류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신우봉(2015)에서는 세대별 변화 양상을 관찰한 결과 /ɛ/와 /ɐ/가 두 모음의 중간 지점으로 이동하고 조음영역이 점차 겹쳐져서 합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⁶⁾ 다시 말해, Cho et al.(2001)에서는 /ɛ/와 /ɐ/의 합류가 ‘이동에 의한 합류’라는 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신 우봉(2015)에서는 ‘이동에 의한 합류’ 이후에 ‘비슷한 것들의 합류’가 작용하여 두 모음의 합류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하였다.

고 영림(2003)에서는 제주방언 20대 52명의 화자들을 한라산을 기준으로 산남지역 화자와 산북지역 화자로 구분하여 모음들의 음향적 특성(모음의 길이, 포먼트 값)을 살피고 있었다. 기존하는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20대 화자들에게서 /ɛ/와 /ɐ/

5) 김 중훈(2006)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화자들 모두 /ɛ/와 /ɐ/를 F1의 차이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하여 도시에 살고 있는 제주방언 60대 화자들이 두 모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 Cho et al.(2001)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6) Labov(1994: 321)에 의하면 모음의 합류의 기제에는 ‘비슷한 것들의 합류(merger by approximation), 이동에 의한 합류(merger by transfer), 확장에 의한 합류(merger by expansion)’가 있다고 하였다.

의 합류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음의 평균길이는 여성화자일수록 그리고 산북화자일수록 길고, 남성화자이면서 산남화자일수록 짧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외부언어와의 접촉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화자일수록 모음의 평균길이가 짧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남성 화자는 여성 화자에 비해 언어생활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산남지역이 산북지역보다 외부언어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시화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방언 모음의 내재적 길이를 처음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지역적인 차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20대 화자들이 모두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가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후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에 따른 지역적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신 우봉·신 지영(2012)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방언 20, 70대 화자를 대상으로 지역적 차이에 따른 단모음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해안 지역에 사는 화자에 비해서 중산간 지역에 사는 화자들이 /ㄱ/와 /ㄴ/를 좀 더 확실히 구별하여 발음하며, 모음공간에서 /으/와 /ㅓ/의 거리가 더 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산간 마을에 비해 해안 마을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관찰된다고 해석하였다.

제주방언의 모음 체계를 포착하기 위해서 다른 방언과 비교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김 종훈(2006)에서는 서울방언과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를 서 미석(2011)에서는 대구방언과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를 비교하였다. 김 종훈(2006)에서는 제주방언 70, 80대 화자 8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방언 단모음 체계와 조성문(2003)에서 제시한 서울방언 단모음 체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방언 화자들의 세대가 70, 80대와 20대라는 차이가 있지만 각 세대가 전형적인 제주방언과 서울방언의 단모음 체계를 보여준다는 가정 하에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70, 80대 화자들이 /으/를 다른 모음과 구별하여 발음하고 있으며, /ㄱ/와 /ㄴ/도 구별하고 있으나, 서울방언 20대 화자들은 /ㄱ/와 /ㄴ/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여 두 모음의 변별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서 미석(2011)은 대구방언 화자와 제주방언 화자가 영어모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는데, 이를 위해 먼저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한국어 모음의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한국어 8개의 모음을 두 방언 화자 모두 유사한 조음 위치에서 발음하고 있는데 /ㅣ/와 /ㅓ/의 경우 미세한 차이가 관찰된다고 하였다. 즉, /ㅣ/의 경우 대구방언 화자가 제주방언 화자보다 더 /ㅓ/에 가깝게 발음하였으며, /ㅓ/의 경우 제주방언 화자가 대구방언 화자보다 전설화시켜 발음하고 있다고 하였다.

3.1.2. 제주방언 이중모음 실현 양상과 체계에 대한 연구

제주방언에는 13개의 이중모음(‘예, 애, 여, 야, 유, 요, 으, 위, 웨, 왜, 워, 와, 의’)이 있는바 ‘으답(여덟), 으름(여름)’ 등에서처럼 반모음 /j/와 /ɤ/가 연속적으로 발음되는 이중모음 /ɤ/가 단어의 첫 음절에 한하여 실현된다는 점에서 표준어와 차이를 보인다(정 승철, 2000:181-182). 제주방언 이중모음에 대한 최초의 음성학적 연구 김 한곤(1980)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ɤ/의 음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80세 피험자 1명이 발화한 음성을 분석하였으며, 단모음들의 포만트 값뿐만 아니라 이중모음들의 포만트 값도 검출하여 포만트 차트를 제시하였다. 이후 현 우중(1987)에서는 제주방언 이중모음 중에서 /ɤ/의 음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ㅏ/와 /ㅑ/, /ㅓ/와 /ㅕ/, /ㅗ/와 /ㅛ/ 그리고 /ㅜ/와 /ㅠ/의 F1과 F2 수치를 서로 비교하여 각각 유사하게 실현됨을 확인하고, 제주방언 /ɤ/가 /j+/ɤ/로 구성된 이중모음이라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ɤ/와 /ɤ/의 안정 구간에서 측정한 F1과 F2의 수치 차이가 다른 단모음과 이중모음들의 차이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ɤ/가 /ɤ/의 이중모음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제주방언 이중모음 체계 및 세대에 따른 이중모음의 변화양상을 살핀 연구들이 나타났다(김 원보 2005ㄷ, 김 원보 외 2007, 문 순덕 외 2015). 김 원보(2005ㄷ)에서는 70대 8명의 발화를 수집하여 제주방언의 이중모음을 분석하였는데, 제주방언 화자들이 /ㅓ, ㅕ/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으며, /ɤ/와 /ㅛ/를 구분하여 발음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ㅓ/는 의식적으로 발음하지 않는 한 거의 /ㅓ나 /ㅓ/의 단모음으로 발음하며, /ㅑ, ㅕ/의 구별도 상당히 둔화되어서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통합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 순덕 외(2015)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앞선 연구와 차이점은 이 연구에서는 /ɤ/를 /ㅑ, ㅛ/와 비교하였으며, /ㅓ, ㅑ, ㅕ/를 함께 살펴봤다는 점이다. /ɤ/와 /ㅑ/ 그리고 /ㅛ/의 포만트 값을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ɤ/는 /ㅛ/와는 안정구간에서는 구별되어 나타나지만 /ㅑ/와는 거의 유사한 포만트 궤적을 가지고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ㅓ, ㅑ, ㅕ/의 음성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이중모음이 거의 동일하게 실현된다고 하였다.⁷⁾ 이후 김 원보 외(2007)에서는 세대에 따른 제주방언 이중모음의 변화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70대의 이중모음 체계는 단모음 체계에서 구별되는 단모음의 이중모음들이 충실하게 구분되어서 12개의 이중모음이 실현되며⁸⁾,

7) 표준어나 다른 지역의 방언에서 /ㅓ나 /ㅑ/(쇠/牛, 쇠/鐵 등)로 실현되는 소리를 /ㅓ/로 쓰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제주방언 표기법에서는 이들이 /ㅑ/로 실현된다고 보고 /ㅑ/로 쓰도록 하고 있다.

8)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에 /ㅓ/는 /ㅓ/ 혹은 /ㅓ/로 발음되어서 노년층의 제주방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50대의 경우 70대의 이중모음 체계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이중모음들 사이의 구별은 70대만큼 뚜렷하지 않으며, 20대의 경우 /ㄹ/와 /ㄴ/와 /ㄹ/와 /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세대별 이중모음 실현 양상의 차이를 통해 단모음에서의 변화 양상이 이중모음으로까지 이어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2. 제주방언 자음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한국어 연구에서 음성학적 지식이 음운론 기술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한국어 폐쇄음의 삼지적 상관속에 대한 구별일 것이다. 세 가지 자음의 실현 양상을 음향음성학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발성 유형 자질의 설정을 시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이 봉원, 2007:115). 제주방언에서도 서울방언 자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향적 특성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관찰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Cho et al.(2000)은 제주방언 자음을 대상으로 음향음성학적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화자 8명을 대상으로 폐쇄음과 마찰음의 음향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폐쇄음의 VOT는 ‘경음<평음<격음’의 순으로 후행모음의 F0는 ‘경음<평음<격음’의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H1-H2도 평음을 경음과 격음과는 구분할 수 있는 음향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찰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음향적 단서들(마찰소음의 무게중심, 마찰음의 전체 길이(어두와 어중 위치에 따라), 후행모음의 F0가 /ㄴ/와 /ㄴ/를 변별해주는 단서로 작용함을 보였다. 이후 제주방언 자음의 음향적 특성들이 서울방언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Cho et al.(2002)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방언 화자 4명과 제주방언 화자 8명 총 12명을 대상으로 폐쇄음과 마찰음의 음향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방언 모두 폐쇄음의 삼지적 상관속이 VOT와 후행모음의 F0, H1-H2, H1-F2, 파열강도 등에 의해 동일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찰음 /ㄴ/와 /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음향적 특성들이 두 방언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폐쇄음 평음의 경우 VOT가 제주방언에 비해 서울방언에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언어학적 요인인 세대와 성별에 따른 제주방언 자음의 음향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뒤를 이었다(Han 2011, 김 원보·변 길자 2014, 신 우봉 2015). Han(2011)에서는 제주방언 30대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9) 어두 마찰음의 음향적 특성으로 마찰 소음의 무게 중심이 ‘평음<경음’으로 나타나며, 후행 모음의 F0가 ‘평음<경음’으로 나타나고, H1-H2와 H1-F2가 모두 ‘경음<평음’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제주방언 자음의 음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어두 폐쇄음 VOT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화자에게서 모두 길게 나타나며, 후행모음의 F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음위치에 따른 VOT는 ‘양순음<치경음<연구개음’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김 원보·변 길자(2014)에서는 어두 폐쇄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결과들이 적은 수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피험자를 확보하고 세대를 달리하여 제주방언 어두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대, 50대, 70대 화자 총 48명을 대상으로 어두 폐쇄음에서 나타나는 VOT와 후행모음의 F0 그리고 파열 강도(burst energy)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제주방언 50대와 70대는 평음, 경음, 격음의 구분을 위해 VOT를 주요 음향적 단서로, 파열 강도와 후행모음의 F0를 보조적인 음향적 단서로 사용하며, 20대는 VOT와 후행모음의 F0를 주요 음향적 단서로 사용하고 파열 강도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 우봉(2015ㄱ) 역시 세대에 따른 제주방언의 자음의 음향적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폐쇄음뿐만 아니라 마찰음과 파찰음의 음향적 특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폐쇄음의 경우에는 VOT와 후행모음의 F0가 70대에서 20대로 올수록 서울방언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¹⁰⁾, 이는 앞서 서울방언과 제주방언이 유사한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을 지니며, 20대로 올수록 그러한 점이 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였다. 마찰음의 경우에는 20대와 달리 50대, 70대 화자에게서는 전체길이에 의해 구분되며, 특히 70대 화자에게서는 후행모음의 F0에 의해서도 두 가지 발성 유형의 마찰음이 구분됨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단모음과 어두장개음의 음향적 특성이 50대를 전후로 다르게 실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전후의 세대인 40대와 6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보다 명확히 제주방언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3. 제주방언 운율에 대한 연구

제주방언 운율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운율 단위에서 나타나는 음성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었다(이 숙향 1999, 2012, 2014ㄱ, 2014ㄴ, 정 승철 1999, 박 순복 2005, 고 미숙 2005, 고 미숙 외 2007, 고 영림 2009ㄱ, 2009ㄴ, 강 석한 2011, 신 우봉 2015ㄴ, 2019ㄱ). 제주방언 운율 단위에 관한 연구 중 이 숙향(1999), 정 승철(1999)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주방언 억양의 실현 양상을 파악한 연구이다. 이전 시기까지의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가 분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연구들 이

10) 폐쇄음에서 평음의 VOT가 70대에서 20대로 올수록 길어지고 격음의 VOT는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변화 양상이 파찰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파찰음에서는 파찰음의 전체 길이에서 70대에서 20대로 올수록 평음은 길어지고 격음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에는 제주방언 운율 단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숙향(1999)에서는 K-ToBI 레이블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악센트구와 억양구를 살펴보았다면, 정 승철(1999)에서는 청각적인 인상¹¹⁾에 의존하여 음조군¹²⁾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용어와 연구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연구 모두 제주방언의 특유의 억양 패턴으로 ‘1-2(L-H)’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 승철(1999)에서는 2명의 발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절수의 관계와, 음조군에 실리는 음조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고저는 ‘2’, 저조는 ‘1’로 설정한 후, 음절수가 2음절이면 ‘1-2’, 3음절이면 ‘1-2-1’, 4음절 이상이면 ‘1-1-2-1n’의 음조형이 부여됨을 확인하였다. 박 순복(2005)는 정 승철(1999)와 마찬가지로 제주방언 음조군을 대상으로 하면서 세대에 따른 음조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다 많은 피험자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3음절을 제외하고 2음절과 4음절에서 자주 관찰되는 음조군의 유형이 앞선 연구와 상반됨을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원인으로 기존 연구가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음조군 분석에서 연구자의 청각적 인상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이 숙향(1999)에서는 2명의 고등학생 남성 제주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제주방언의 억양구와 악센트구¹³⁾에서 실현되는 성조 유형을 억양음운론에 근거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방언과는 달리 제주방언의 억양구에서는 다양한 굴곡 성조(contour tone)가 나타나며, 기본적인 악센트구의 억양패턴이, 첫 음절의 L 성조가 끝에서 둘째 음절까지 지속되다가 마지막 음절에 H가 실현되어 [L Ha]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주방언 억양구에서 나타나는 굴곡 성조의 실현 비율이 서울방언보다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연구 결과들과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연구들은 제주방언 강세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 숙향(2012, 2014-)에서는 제주방언의 기본적인 강세구의 억양패턴이 [L Ha] 외에도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에서 L과 H 중간 정도의 평평한 억양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술하기 위해 M을 설정하여 악센트구의 기본 패턴이 [L+M M+Ha]이 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숙향(2014-)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보였던 화자 간 차이와 실험 단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실험 단어와 피험자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강세구의 음절수를 1음절에서 8음절까지

11) 이 연구에서의 음조는 일정한 발화단위에 고저와 저조가 연속적으로 부여되는 소리의 높낮이다. 그리고 음조군은 음조형이 부여되는 발화의 단위로 휴지와 휴지 사이의 발화인, 기식군을 넘어서지 않는 단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이 숙향(1999)에서의 악센트구와 음조군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이 숙향(1999)에서는 서울방언과 동일하게 제주방언에서도 악센트구 초에 강자음(경음, 유기음, /h/, /s/)이 오면 H로 시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 승철(1999)에서는 음절 초성이 무엇이든지 ‘1-2’의 동일한 음조형을 보여준다는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였다.

13) 후속 연구에서는 ‘악센트구’ 대신 ‘강세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절하여 음절수에 따른 억양패턴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제주방언 강세구의 억양기 본패턴이 서울말과 동일한 [L+H L+Ha]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첫 음절이 강자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L로 시작하여 H로 끝나며, 4음절수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음조 +H나 L+ 또는 둘 모두가 실현되지 않으며, 5음절 이상이 되면 첫 두 개 음절에 L과 H가 실현되고 끝 두 개 음절에 나머지 L과 H가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선 연구들에서 제시한 [L+M M+Ha] 패턴의 경우 위의 기본억양패턴의 변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두 번째 실현되는 L+가 앞의 +H와 거의 같은 음높이로 실현될 수도 있다는 부차적인 규약을 설정한다면 [L+M M+Ha] 패턴으로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 미숙(2005)에서는 기존 이 숙향(1999)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70, 80대 제주방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억양구 경계성조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는 서울방언에서 나타나는 유형과 비슷하게 다양한 성조 유형이 실현되지만, 문장유형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경계성조 유형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제주방언 70, 80대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억양구 말장음화 현상은 서울방언보다 훨씬 더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고 미숙 외(2007)에서는 앞선 연구를 확장하여 제주방언만의 특유한 억양구 경계성조가 세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70, 80대 32명, 50대 32명, 20대 32명을 대상으로, 문장 유형별로 2문장씩을 선정하여 녹음을 실시하고 총 1,334개의 억양 곡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70대 제주방언 화자들은 50대와 20대에 비하여 훨씬 더 다양한 유형의 억양 패턴을 구사하고 있으며, 50대는 70대에 비하여 억양구의 경계 성조 유형이 서서히 줄어들며, 20대는 문장유형별 경계성조 유형이 서울방언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억양구 경계에서 실현되는 음절말 장음화 현상이 70대에서 20대에 이룰수록 짧게 실현되는 것을 토대로 제주방언 고유의 억양 특징이 빠른 속도로 변화 및 소멸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기존 제주방언 운율 연구들은 전반적인 악센트구와 억양구에 실린 억양 패턴이 서울방언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음절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낭독체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억양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화체 문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후속 연구들은 자료의 측면에서 낭독체보다 대화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영림 2009ㄱ, 2009ㄴ, 신 우봉 2015ㄴ, 2019). 고 영림(2009ㄱ)은 제주방언의 고유한 형태가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방언의 보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일동포 제주 출신 고령의 방언화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제주방언 억양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취하

던 억양음운론의 기술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한 제보자 내에서 반복적으로 실현되거나 여러 제보자 간에 공통되게 실현되는 억양 형태를 제주방언의 억양 패턴으로 간주하여 기술하였다. 그 결과, 제주방언 화자들이 발화한 억양이 ‘단순상승패턴, 강세상승패턴1, 강세상승패턴2, 단순하강패턴, 강세하강패턴1, 강세하강패턴2, 강세하강패턴3, 강세하강패턴4’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패턴이 제주에 거주하는 화자들에게서 관찰되는지를 후속 연구한 논문이 고 영림(2009ㄴ)이다. 여기서는 앞선 고 영림(2009ㄱ)에서 관찰되는 일정한 억양 패턴들이 제주에 거주하는 화자들에게서도 확인 가능하며, 따라서 ‘상승패턴, 강세상승패턴, 하강패턴, 강세하강패턴1, 강세하강패턴2, 강세하강패턴3’이 제주방언의 억양 체계를 대표한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주방언의 구어 담화를 특징짓는 억양의 중요한 형태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고 영림(2009ㄱ, 2009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억양 패턴이 표준어 혹은 다른 지역방언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파악해야 제주방언 화자들에게서 관찰되는 억양패턴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적어도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서울방언과 유사한 음운·음성적 특징을 보이는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억양 패턴을 조사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신 우봉(2015ㄴ)에서는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대화체 자료에서 실현되는 억양구 경계성조를 분석하고 서울방언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제주방언 어말어미 ‘-언/-안, -으멘’이 나타나는 평서문과 의문문의 억양구 경계성조를 분석하였는데, 서울방언 화자보다 제주방언 화자들이 억양구 경계성조의 유형 중에서 굴곡 억양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이 사라지고 있다고 알려진 20대 화자에게서 제주방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운율 특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설명의문문과 관정의문문이 ‘억양구 경계성조의 유형, 음운구 해지로 인한 음운구 형성 여부, 음높이 변화폭, 억양의 기율기값’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제주방언 낭독체 발화와 대화체 발화가 각각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두 가지 발화 스타일에 따른 제주방언의 운율적 특징을 비교한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 신 우봉(2019ㄱ)에서는 억양구 경계성조의 실현과 발화속도 그리고 기본 주파수의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두 가지 발화 형식에서 나타나는 운율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70대 화자 10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운율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낭독체보다 대화체에서 더 많은 유형의 경계성조가 나타났으며, 발화 속도가 빠르게 실현되고, 기본 주파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서는 20대 제주방언 화자에게서 평탄 억양보다 굴곡 억양의 실현이 많음을 확인하였는데, 70대 제주방언 화자에게서는 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계성조의 유형과 더불어 높은 비율의 굴곡 억양 실현이 제주방언의 운율적 특성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구어에서 운율 특성은 언어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고, 그러한 운율 특성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효율적으로 부호화되어 있다(신 지영 2014: 121). 구어 자료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담화표지는 발화에서 ‘억양, 길이, 휴지’ 등과 같은 여러 운율적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여 그 기능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로서 신 우봉(2015ㄷ, 2019ㄱ)은 각각 담화표지 ‘계메’와 ‘양’이 지니는 담화 기능과 운율적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폈다. 신 우봉(2015ㄷ)에서는 제주방언 자유발화 자료에서 실현되는 84개의 담화표지 ‘계메’를 분석하였는데, ‘계메’는 총 5개의 담화 기능(불분명한 태도, 완곡한 부정, 강조, 시간 벌기, 발언권 가져오기)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각각의 담화 기능을 변별할 수 있는 운율적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연구 모두 자료에서 관찰되는 담화 기능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더 많은 제주방언 자유발화 자료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4. 결론

방언은 음성언어(구어)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음성학과 방언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음성학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들은 인간이 발화한 음성자료라는 점에서 모든 음성학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의 출발점은 방언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한 음성학 연구들을 살펴보고, 하위 주제에 따른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는 초기에는 ‘ㄱ’를 중심으로 한 단모음 연구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음과 이중모음 그리고 운율에 대한 연구로 주제가 확장되었고, ‘세대, 성별, 지역적 요인’이라는 사회언어학적 요소들을 고려함에 따라 방언의 변화를 살펴본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그동안의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들의 동향 및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음성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실시간성과 상호교류성이며,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일상대화 자료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자료에는 화자의 발화와 그에 대응하는 청자의 응답이 담겨 있어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몇의 제주방언 운율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대화체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분절음 연구들은 낭독체 자료만으로 이

루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화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낭독체 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연구 결과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의 선택을 보다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세대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젊은층 화자의 경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노년층 화자의 경우는 아직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 우봉(2015: 139)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제주방언의 경우 습득한 시기(생물학적 나이)도 중요하지만,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환경(도시와 농촌)도 방언 보수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년층 제주방언 화자들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젊은층 화자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앞으로는 실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실험 연구 방법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는 것 또한 제주방언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말소리는 연속적인 신호이며 지각은 범주적이다. 어떠한 음소가 해당 화자의 머릿속에 존재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산출실험의 결과뿐만 아니라 지각실험을 통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즉, 제주방언 화자의 특정 세대가 /으/를 다른 모음과 구별하여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모음과 구별하여 듣는다면, 이 세대는 머릿속에 /으/의 범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으/ 변화의 중심에 놓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방언 모음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는 신우봉(2016)을 제외하고 모두 산출실험의 결과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모음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지각실험들이 보충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제주방언 이중모음에 대한 연구는 포만트의 평균값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왔다. 즉, 기존 연구들은 제주방언 이중모음의 음성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활음+단모음’의 구성에서 단모음의 안정구간을 측정하거나 전체모음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지점의 포만트를 측정하였으나 논의에서는 평균값만을 활용하였다. 보다 정밀하게 이중모음의 음성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활음의 지속시간과 포만트의 변화 그리고 포만트 궤적의 변화 등을 통한 조음점의 이동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지각실험은 모음뿐만 아니라 억양의 문법적인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제주방언 화자들이 어떠한 운율적 단서를 통해 문장 유형을 구분하는지에 대해 산출뿐만 아니라 지각의 측면에서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주방언 운율의 특성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누구나 활용 가능한 제주방언 음성자료의 구축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의 다양성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다양성과도 관련된 것이다. 현재 한정된 수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주방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규모 개방형 제주방언 음성자료가 있다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주방언을 대상

으로 활발히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¹⁴⁾

〈참고 문헌〉

- 고 동호(2014), 「제주방언 연구 개관」,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고 동호(2008), 「제주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학회, 55~74.
- 고 미숙(2005),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34, 언어과학회, 1~16.
- 고 미숙 외(2007), 「제주방언의 연령대별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42, 언어과학회, 27~43.
- 고 영립(2006), 「현대제주방언 단모음의 음향 음성학적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30, 한국언어문학회, 5~20.
- 고 영립(2009ㄱ), 「재일제주인 제주방언화자의 억양에 대한 연구: 오사카 지역의 고령화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3, 한국국어교육학회, 407~429.
- 고 영립(2009ㄴ), 「제주방언의 대화체 담화에 나타난 억양 연구」, 한국언어문화 40, 한국언어문화학회, 5~28.
- 곽 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59~91.
- 김 원보(2005ㄱ), 「제주방언 모음의 음향분석」, 언어학연구 10, 한국언어연구학회, 161~174.
- 김 원보(2005ㄴ), 「제주방언에서 /ㄹ/음의 음향분석」, 언어과학연구 33, 언어과학회, 23~36.
- 김 원보(2005ㄷ), 「제주방언 이중모음의 음향분석」, 음성과학 12(2), 한국음성학회, 29~41.
- 김 원보(2006),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 체계」,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125~136.
- 김 원보·변 길자·고 미숙(2007),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이중 모음의 음향 분석과 이중 모음 체계」, 음성과학 14, 한국음성과학회, 99~114.
- 김 원보·변 길자(2014),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20대/50대/70대) 어두 파열음의 VOT, F0 및 파열강도(burst energy) 변이양상」, 탐라문화 4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23~144.
- 김 종훈(2006), 「제주방언 단모음과 현대국어 단모음의 음향 분석 비교」, 언어연구 21, 한국현대언어학회, 261~274.
- 김 지홍(2014), 「제주방언 통사 연구에서의 현황과 과제」,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김 한곤(1980), 「제주방언 모음 체계의 음향분석」, 연암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289~297.
- 문 순덕(2014), 「제주방언 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문 순덕 외(2015), 『‘제주어 표기법’ 자모의 실제 발음과 음성 분석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14)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제주방언 자료로 『제주어 구술 채록 자료집』이 있지만, 이는 인터뷰 형식의 자료이기도 하며 음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주학연구센터.

- 박 순복(2005), 「제주방언의 낱말 악센트」, 말소리 55, 대한음성학회, 33~43.
- 서 미석(2011), 「한국어 화자의 한국어와 영어 모음 발화에 나타난 음향음성학적 특성: 대구방언과 제주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 상조(2014), 「제주방언 형태론에 관한 연구 논문 고찰」,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신 우봉(2015ㄱ), 「제주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 우봉(2015ㄴ), 「제주방언 평서문과 의문문에 나타나는 억양 연구: 어말어미 ‘-언/안, -으멘’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학회, 87~109.
- 신 우봉(2015ㄷ),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메’의 운율적 특성과 담화적 기능의 상관관계」, 어문연구 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43~166.
- 신 우봉(2016), 「제주방언 단모음의 산출과 지각 양상 연구: 50대 화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7, 민족어문학회, 147~176.
- 신 우봉(2019ㄱ), 「발화 형식에 따른 제주방언의 운율 연구」, 영주어문 41, 영주어문학회, 144~169.
- 신 우봉(2019ㄴ), 「제주방언 담화표지 ‘양’의 담화 기능과 운율적 특성」, 방언학 29, 한국방언학회, 175~200.
- 신 우봉·신 지영(2012), 「제주방언 단모음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 한국어학 56, 한국어학회, 63~90.
- 신 지영(2014), 「구어 연구와 운율: 소리를 담은 의미·통사론, 의미를 담은 음성학·음운론 연구를 위한 제언」,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어 의미학회, 119~139.
- 오 창명(2014), 「제주방언 어휘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이 봉원(2007), 「음성학에 기반을 둔 국어 음운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105~125.
- 이 숙향(1999), 「제주방언 억양패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음향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8-2, 369~372.
- 이 숙향(2012), 「제주방언의 강세구」, 2012 대한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37~342.
- 이 숙향(2014), 「제주어의 강세구와 계단식 음조」, 2014 한국음성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7~38.
- 이 숙향(2014), 「제주어 강세구의 억양」, 말소리와 음성과학 4, 한국음성학회, 117~123.
- 이 숙향(2016), 「제주어의 운율」,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39~48.
- 이 향원 외(2017), 「한국어 후설 고중모음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음성과학 9-2, 한국음성학회, 39~51.
- 정 승철(1999),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543~554.
- 정 승철(2000), 「제주방언의 음운론」, 탐라문화 2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79~189.
- 정 승철(2014),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 ‘으’ 관련 업적을 중심으로」,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현 우중(1985), 「제주방언 ‘ㆍ’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현 우중(1987), 「제주도 방언의 ‘으’ 음가 고찰」, 겨레어문학 12, 겨레어문학회, 465~478.

현 우중(1988), 「제주도 방언 ‘ㆍ’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탐라문화 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5~57.

현 우중(1992). 「제주방언 홀소리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현 평효(1971), 「제주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 97~107.

Cho, Taehong, Jun Suna-Ah, and Peter Ladefoged.(2000), An acoustic and Aerodynamic Study of Consonants in Cheju, Speech sciences 7, 109~140.

Cho, Taehong, Jun Suna-Ah, Jung Seung-Chul and Peter Ladefoged(2001), The Vowels of Cheju, 언어 26, 한국언어학회, 801~819.

Cho, Taehong, Jun Suna-Ah, and Peter Ladefoged.(2002), Acoustic and aerodynamic correlates of Korean stops and fricatives, Journal of Phonetics 30, 193~228.

Han, Kyung Im(2011), Acoustic Cues for the Korean Stop Consonants Produced by Jeju Speakers, 언어과학연구 57, 언어과학회, 247~260.

Kim, Han Kon(1980), An acoustic study of the Cheju dialect in Korean, 언어 5, 한국언어학회, 25~61.

Labov(1994),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I: internal factors, Blackwell Publishers: Cambridge, MA.

Ladefoged(1982), A course in phonetics: 2nd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Jovanovich.

지명 분야/ 연구 발표

**서부 경남 지역(산청, 진주, 사천)에서의 '산'을 가리키는
후부지명소 분포 / 박 용식**

**한국어 지명 탐구 방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 기반의 고유명 탐구 사례를 중심으로— / 서 형국**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명어의 의의 / 한 주희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지명 분야/ 연구 발표

서부 경남 지역(산청, 진주, 사천)에서의 ‘산’을 가리키는 후부지명소 분포

박 용식

경상대학교 교수
korean@gnu.ac.kr

1. 서론

같은 방언권인 인접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지명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다른 방언권을 새로 설정해야 할까? 산청-진주-사천은 서부 경남에서 남북으로 서로 이웃한 지역이다. 1914년 일제가 행정 구역을 개편하기 전에는 현재 사천 지역의 일부는 ‘진주’ 관할이기도 했다.



〈그림 1〉 경상남도 행정지도



〈그림 2〉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진주 강역(심 혜영 · 김 준영 2013:233)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는 남북으로 이어져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방언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 영송(1963), 김 영태((1975), 박 지홍(1983), 김 택구(1991), 최 명옥(1994), 박 정수(1999) 등에서 경남 방언구획을 논의하였지만 ‘산청, 진주, 사천’등은 경남 서부 방언권 분류한다¹⁾. 〈그림 2〉는 1914년 진주의 일부가 사천으로 이관됨을 보여준다.

아직 이 세 지역을 각각의 방언권으로 구분하는 연구는 없다. 진주가 오랫동안 산청과 사천의 물류와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 역시 따로 논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하지만 지명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같은 방언권으로 논의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명의 경우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행정지명인 아닌 자연지명은 소통되는 공간이 한 마을을 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지형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인식할 수가 있다.

이 글은 『한국지명총람』(‘총람’으로 줄임)의 자료를 중심으로 세 지역에서 ‘산’을 가리키는 지명의 분포를 통해 각 세 지역을 다른 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인접한 지역의 같은 방언권이라 하더라도 지명을 이름짓는 방식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표준’으로 줄임)과 ‘우리말샘’, 『경남방언사전』(‘방언’으로 줄임)에서 각 방언 형태들을 올림말로 올리고 풀이하는 것을 재검토함으로써 방언 자료로서의 지명의 위상을 논의해 볼 것이다.

〈총람〉에는 산청, 진주, 사천 지역에서 ‘산’으로 풀이해 놓은 올림말이 산청군 459, 진주시 274, 사천시 403 등 모두 1,126 용례가 있다. 한자어인 ‘산(山), 봉(峰)’이 각각 534, 159회로 월등히 많이 나타나지만 고유어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 지역 모두 나타나는 용례와 두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나누어 본다.

2. 세 지역 모두 나타남

가) 갯

‘갯’은 ‘산’을 가리키는 말로 지명에 널리 쓰고 있고 〈표준〉에도 ‘「명사」 산의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단속하는 땅이나 산. 나뭇갯과 풀갯이 있다.’로 풀이하고 있지만 〈방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 경남 방언구획의 연구 성과에 대한 논의는 최 명옥(2000: 157~161) 참조. 김 정대(2012)에서는 산청을 진주, 사천과 다른 경남서부북부 방언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청군]

양지동넛갯[신등면 양리], 수청 북쪽에 있는 산.

주동넛갯[신등면 모례리], 김가들갯[생비량면 제보리], 도란갯[신안면 갈전리], 대룽갯[신등면 양전리], 나무갯[차황면 양곡리], 옷갯[오부면 양촌리], 서원갯[신안면 청현리], 절갯[신등면 모례리], 큰갯[생비량면 도리], 큰갯[단성면 방목리], 큰갯[오부면 대현리], 큰갯[생초면 신연리], 새터갯[신안면 중촌리]

[진주시]

골갯[대곡면 가정리], 관방 북쪽에 있는 산.

성옥갯[금산면 장사리], 서원갯[금산면 가방리],

[사천시]

동네갯[향촌동], 하향 남쪽에 있는 산.

뒷갯[서포면 외구리], 등갯[사천읍 장전리], 밤갯[곤명면 송림리], 서지갯[곤명면 초량리], 햇갯[곤명면 초량리]

위 ‘갯’은 현재 중앙어로 인정받고 있지만 생산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산’을 가리키는 소중한 우리말이지만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다.

나) 골

‘골’은 중앙어에서 ‘곡(谷)’에 대응하지만 다음과 같이 ‘산’을 가리키기도 한다. ‘골’의 뜻이 넓어진 까닭이다.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산청군]

기아리밧골[생비량면 제보리], 상능 남쪽에 있는 산.

똥매밧골[생비량면 제보리], 주무짓골[생초면 구평리]

[진주시]

행갯골[사봉면 무촌리], 중촌 북쪽에 있는 산. 도푸골[명석면 왕지리], 왕지 북쪽에 있는 산.

[사천시]

불당골[정동면 감곡리], 감곡 남쪽에 있는 산. 너무골[서포면 다평리], 오박골[서포면 다평리], 오리밧골[곤양면 중항리], 지세밭골[실안동], 채봉골[용현면 신촌리], 황새골[곤양면 홍사리], 청석골[용현면 석계리], 안골[곤양면 환덕리], 피에골[정동면 감곡리], 은골[정동면 학촌리], 이인골[정동면 학촌리], 산제골[좌룡동], 절터골[서포면 비토리]

〈표준〉에서는 ‘골’을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으로만 풀이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산의 뜻으로도 쓰고 있다. ‘서라벌, 한밭’과 같이 ‘벌판’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기도 하고 도시 이름이 되기도 한다. ‘산’에 있는 특정 골의 이름이 그 골이 있는 산의 특정 지역이거나 산 전체의 이름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등

‘등’은 ‘산’의 뜻이 있지만 〈표준〉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말샘’에는 ‘[「명사」 「북한어」 ‘산등성이’의 북한어.]’로 풀이해 놓았다. 〈방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산청군]

큰개등[신등면 양전리, 모룡날 남쪽에 있는 산.

[진주시]

자래등[금산면 중천리, 청천 동북쪽에 있는 산.

깨구리등[이반성면 가산리], 정승매등[미천면 미곡리], 무등[내동면 내평리], 밤나뭇등[대곡면 대곡리], 반등[문산면 소문리], 대밭등[문산면 상문리], 북등[내동면 내평리], 너분등[일반성면 가선리], 배암등[대평면 내촌리], 고양이등[미천면 안간리]

[사천시]

소모뒷등[서포면 금진리], 소모 뒤에 있는 산.

곽가등[곤양면 홍사리], 갯등[축동면 구호리], 안개등[신수동], 무쇠방아계등[곤명면 조장리], 주계등[곤명면 조장리], 까마구등[사천읍 구암리], 까마귀등[곤명면 추천리], 호랑등[백천동], 청룡등[서동], 청룡등[곤양면 환덕리], 깨구리등[사천읍 장전리], 가마등[사천읍 금곡리], 까마등[동림동], 역마등[곤명면 신흥리], 가맛등[서포면 비토리], 골매등[죽림동], 가맷등[곤명면 초량리], 뚝매등[축동면 가산리], 뚝매등[용현면 신촌리], 뚝맷등[용현면 구월리], 독뒷등[사천읍 구암리], 다리비등[곤명면 초량리], 다리비등[곤명면 초량리], 왕새등[서포면 금진리], 감시등[곤명면 추천리], 쪽등[곤명면 추천리], 방아등[곤명면 조장리], 게안등[곤명면 봉계리], 소옥등[곤명면 연평리], 높은등[서포면 금진리], 사자등[곤명면 추천리], 사지등[곤양면 서정리], 진등[봉남동], 비짐등[와룡동]

사전에는 아직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산’을 가리키는 우리말로 ‘등’이 널리 쓰였음을 보여준다. 예전에는 한자어 ‘산’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다양했지만 한자어 ‘산(山), 봉(峰)’ 등이 나타나면서 ‘등’ 역시 ‘갯’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

라) 재

‘재’는 <표준>에 ‘「1」 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 ≒영. 「2」 높은 산의 마루를 이룬 곳.’으로 풀이하고 있지만 <방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산청군]

갯재[단성면 길리, 지릿골에 있는 산.

처낭재[신등면 평지리], 비득재[차황면 부리], 덧재[금서면 수철리], 덧재[단성면 길리], 땅재[오부면 내곡리], 뿔땅재[금서면 지막리], 너르재[차황면 상법리], 매봉재[시천면 중산리], 매봉재[금서면 오봉리], 새비재[차황면 장위리], 성재[차황면 양곡리], 달구실재[차황면 상중리], 작은재[시천면 원리], 용문음재[단성면 백운리], 큰재[시천면 원리], 큰재[시천면 내곡리], 한재[단성면 윤리]

[진주시]

새밋골재[대평면 하촌리], 새밋골에 있는 산.

방까재[사봉면 봉곡리], 단이재[미천면 안간리]

[사천시]

당재[서포면 다평리], 다매 서쪽에 있는 산.

녹두밭재[곤양면 서정리], 큰봉재[서포면 다평리], 봉오재[용현면 신복리], 범바우재[곤명면 신흥리], 큰재[곤명면 작팔리]

‘재’ 역시 ‘골’과 마찬가지로 뜻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만당, 먼당, 몬당, 먼당이, 먼댕이 몬댕이, 몬댕이

위 어형은 중앙어의 ‘산마루’에 해당한다. ‘진주, 사천’은 ‘먼당, 몬당’만 나타남에 비해 ‘산청’은 ‘만당, 먼당이, 먼댕이, 몬댕이, 몬댕이’ 등도 나타난다. 이 가운데 ‘먼당이, 먼댕이’ 등은 산청 가운데서도 금서면에 나타나고 있다.

[산청군]

새고개먼당[신안면 외송리], 뿔당골먼당[차황면 장박리], 성짓골먼당[금서면 지막리], 지편골먼당[생비량면 도전리], 둥글바구먼당[신등면 모례리], 딱밭먼당[산청읍 부리], 당산먼당[생비량면 제보리], 애기바우먼당[신등면 모례리], 가재먼당[금서면 방곡리], 배락재먼당[신안면 갈전리], 매봉재먼당[단성면 소남리], 송지먼당[생비량면 도전리], 진먼당[시천면 중산리], 당재먼당[산청읍 부리], 정추먼당[신등면 모례리], 울력복탕먼당[단성면 창촌리]

범난골먼당이[금서면 지막리], 벌씨바구먼당이[금서면 지막리], 공산먼당이[금서면 지막리], 큰골재먼당이[금서면 지막리], 뿔당재먼당이[금서면 지막리], 소쿠리재먼당이

[금서면 지막리]

범난골면당이[금서면 지막리], 공산면당이[금서면 지막리], 큰골재면당이[금서면 지막리], 뿔당재면당이[금서면 지막리]
가는골몬당[시천면 원리], 큰골몬당[신등면 가술리], 새실재몬당[신등면 양전리],
뱀거리몬당이[시천면 동당리], 동당리에 있는 산.
돌쟁산몬당이[단성면 백운리], 짐촌 동남쪽에 있는 산.
염새골만당[단성면 청계리], 염새골 위쪽에 있는 산.
머웃골만당[생비량면 도전리], 애기당만당[산청읍 부리], 재만당[산청읍 척지리]

[진주시]

투시골면당[대평면 대평리], 투시골 뒤에 있는 산.
깃대면당[미천면 반지리], 다랑면당[수곡면 대천리], 절산면당[금산면 갈전리], 새미실면당[문산면 삼곡리], 녹장면당[명석면 오미리], 서제면당[문산면 옥산리]
깃대몬당[사봉면 봉곡리], 기마봉 북쪽에 있는 산.

[사천시]

동아지면당[사봉면 봉곡리], 거곡 북동쪽에
뒷골면당[곤명면 조장리], 두릅밭골면당[사남면 화전리], 돌곳면당[곤명면 봉계리], 청널면당[서동], 여제단면당[곤양면 서정리], 깃대면당[곤명면 조장리], 황새동면당[사천읍 두량리], 북더리면당[서포면 구량리], 망면당[사남면 월성리], 동산면당[정동면 화암리], 살푸대이면당[축동면 구호리]
절터골몬당[서포면 금진리], 천길몬당[곤양면 홍사리], 다래몬당[신벽동], 천리몬당[곤양면 가화리]

‘면당’은 ‘우리말샘’에 ‘「명사」 「방언」 ‘산마루’의 방언(경남)’으로 풀이해 놓았으며 <방언>에도 ‘산면당, 면당, 면대이, 면데이’ 등을 아래와 같이 수록해 놓았다. 다만 ‘몬당, 면당이, 면당이 몬대이, 몬대이’ 등은 수록하지 않았다.

산면당[~] 명 산마루.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고성 사천 진주 통영 하동 함안 합천]
산면당[~]: [위 지역]
면당[~]: [산청 진주 하동 합천]
면대~이[~]: [진주 하동 함안]
면데이[~]: [거제 산청]
면당[~] 명 산마루. ≡ 산면당. [산청 진주 하동 합천]
면대~이[~] 명 산마루. ≡ 산면당. [진주 하동 함안]
면데이[~] 명 산마루. ≡ 산면당. [거제 산청]

〈표 1〉 〈경남방언사전〉 ‘산면당, 면당’

마) 몰랑, 멀리

‘멀리’는 부사 ‘멀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멀랑, 몰랑’은 같은 어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잠정적으로 중앙어의 ‘산마루’에 대응하는 지역어로 분류해 둔다. <방언>에는 ‘몰랑’을 ‘몰랑[ㄱ] 𪎐 산마루. 𪎐 산면당. [거제 남해 하동] [사전]’으로 수록해 놓았다.

[산청군]

마당멀리[차황면 범평리], 지픈골 남쪽에 있는 산.
여섯멀리[산청읍 범학리], 니이멀리[산청읍 범학리]
신들멀랑[금서면 지막리], 지막골 서남쪽에 있는 산.
까꾸리몰랑[금서면 화계리], 화계 남쪽에 있는 산.
황새몰랑[신등면 평지리], 무지몰랑[생초면 노은리], 정지몰랑[차황면 신기리], 서남몰랑
이[산청읍 척지리]

[진주시]

동멀리[미천면 오방리], 중촌 동쪽에 있는 산.
방갓멀랑[일반성면 남산리], 소야동 서쪽에 있는 산.
막재멀랑[금곡면 송곡리], 막중멀랑[금곡면 송곡리], 까치멀랑[수곡면 원내리]
재안땅몰랑[수곡면 효자리], 효자동 북쪽에 있는 산.
년재몰랑[일반성면 남산리]

[사천시]

간치멀리[사천시 신백동], 백동 마을 앞에 있는 산.
넬띠발등몰랑[와룡동], 와룡 동쪽에 있는 산,
선몰랑 [용현면 용티리], 개재 남쪽에 있는 산.

바) 매, 메, 뵤

‘매, 메, 뵤’ 등은 국어사에서 한때 ‘산’과 대응하는 고유어로 썼지만 지금은 ‘묘지’의 뜻으로만 쓰고 있다. 하지만 세 지역에서는 아래와 같이 ‘산’을 가리키는 ‘매, 메, 뵤’ 등이 나타난다.

[산청군]

아릿동매[차황면 상중리], 동매 아래쪽에 있는 산.
웃동매[차황면 상중리], 독매[생비랑면 도전리], 동매[단성면 자양리], 동매[생비랑면 가계리], 동매[차황면 상중리], 뒷매[금서면 평촌리], 뒷매[차황면 장위리], 뚝매[시천면

중산리], 뚝매[금서면 자혜리], 뚝매[금서면 주상리], 뚝매[산청읍 지리], 뚝매[삼장면 대포리], 뚝매[산청읍 내수리], 뚝매[산청읍 척지리], 뚝매[금서면 자혜리], 뚝매[차황면 실매리], 뚝매[금서면 특리], 뚝매[생비량면 도전리], 뚝매[신안면 외고리], 뚝매[신안면 갈전리], 봉매[차황면 상법리], 쪼앙매[산청읍 모고리], 중매[생초면 신연리],

[진주시]

뚝매[일반성면 가선리], 선동 남쪽에 있는 산.

독매[대곡면 덕곡리], 작은독매[대곡면 덕곡리], 큰독매[대곡면 덕곡리], 베루매[대평면 하촌리],

[사천시]

나불매[사남면 초전리], 초전 동북쪽에 있는 산.

숫매[동금동], 독뫼[용강동], 독뫼[궁지동], 독뫼[동림동], 각산독뫼[동동], 뚝뫼[곤명면 조장리], 순뫼[향촌동], 숫뫼[용강동],

〈표준〉과 ‘뫼, 뫼’를 각각 ‘뫼1 「명사」 사람의 무덤, 뫼 「명사」 ‘산’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로 풀이해 놓았고 〈방언〉에서는 ‘뫼 □ 뫼, 묘(墓). 사람의 무덤. [거제 거창 고성 마산 산청 진주 진해 창원 통영 하동 함양], ‘매 □ 명 뫼, 묘. ㅁ 뫼. [통영]’ 등으로 해 놓았지만 이 형태들이 [산]의 뜻이 있음은 밝혀 놓지 않았다.

3. 두 지역에만 나타나남

3.1. 산청 진주

가) 덩이, 땡이, 징이

‘덩이, 땡이, 징이’는 [산]의 뜻이 있는 ‘등’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의 ‘자래징이’는 ‘자래등’과 같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덩이’는 ‘등’이 ‘등’ 땡’으로의 ‘고모음화’로 된 다음에 ‘-이’가 덧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땡이’는 ‘덩이’가 된소리로 된 것이고 ‘징이’는 ‘덩이’ 징이’로 구개음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과 〈방언〉에 수록되지 않았다.

[산청군]

간치징이[생초면 갈전리], 갈전 서북쪽에 있는 산.

[진주시]

너분딩이[일반성면 개암리], 개암 북쪽에 있는 산. 넓은 덩이 있음.
고부장딩이[금곡면 송곡리], 넓더징이[대곡면 와룡리]. 자래징이[금산면 중천리]

그박에, 빼알, 뿔, 불
아래-산빼알[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산베리 아래에 있는 산.
노지-빼알[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나우설 서쪽에 있는 산.

굴뚝날뿔[진주시 금곡면 성산리], 성산리에 있는 산. 위에 굴이 있음.
사영불[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개덤불 남쪽에 있는 산.

3.2. 산청, 사천

가) 덩, 듸, 드미, 담

‘덩’은 <방언>에 ‘덩[] ≒바위로 된 벼랑. [울산 의령 진주 합천[구비]라 풀이한 대로 주로 바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산’의 뜻으로 쓰기도 한다.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ㄴ/와 /ㄹ/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덩, 듸, 드미’ 등은 같은 형태이거나 변이형일 수 있다. 다만 사천에서는 ‘담’이 나타나고 있다.

[산청군]

수리덩[단성면 청계리], 대안촌 동쪽에 있는 산.
중무드미[신등면 율현리], 율곡사 서쪽에 있는 산.
부웅드미[생초면 대포리], 흰디미[생초면 향양리]

[사천시]

장은듸[곤명면 연평리], 연향 북쪽에 있는 작은 산.
챙이듸[곤명면 조장리], 큰듸, [곤명면 연평리], 연향뒸[곤명면 연평리]
돈담[사천읍 용당리], 용당 동쪽에 있는 산. 부영담[서포면 비토리]

나) 설

‘설’은 어원이 알려지지 않은 말이다.

[산청군]

딩길설[차황면 신기리], 갈미바웃골 남쪽에 있는 산.
당그래설[오부면 양촌리], 들빼기 동쪽에 있는 산.

[사천시]

지내설[곤양면 중항리], 중항이 동쪽에 있는 산.

바늘설[용현면 구월리], 재비설[축동면 반룡리], 새설[곤명면 조장리], 봉애설[곤명면 송림리], 방울설[사남면 종천리], 연자설[사남면 우천리], 옥녀세죽설[사남면 화전리]

다) 념

‘념’은 ‘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산청군]

작은재념[시천면 외공리], 시밋골 서북쪽에 있는 산.

큰재념[시천면 외공리], 재념[시천면 외공리]

[사천시]

목념[서포면 자혜리], 구신머리 북쪽에 있는 산.

당산념[서포면 자혜리], 물맞는데 서쪽에 있는 산.

라) 그밖에도, 뽕이, 뽕이

뽕뽕이[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온정과 석계리 접경에 있는 산. 뽕바구가 있음.

늘뽕이[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방목동 서북쪽에 있는 넓고 편편한 산.

3.3. 진주 사천

가) 뽕덕

‘뽕덕’은 ‘버덩’에 대응하는 지역어인데 산을 가리키기도 한다.

[진주시]

가마뽕덕[금곡면 두문리], 거래 뒤쪽에 있는 산.

방아뽕덕[대평면 내촌리], 휴지뽕덕[대곡면 대곡리]

[사천시]

강수뽕덕[사남면 사촌리], 굴렛골 밑에 있는 산.

큰뽕덕[동림동], 헛뽕덕[축동면 길평리]

‘우리말샘’에는 ‘「명사」 「방언」 ‘버덩’의 방언(경남).’으로 풀이해 놓았고, 〈방언〉에는 ‘뻔덕[-] [땡] 버덩.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로만 되어 있고 [산]의 뜻은 소개하지 않았다.

4. 한 지역에서만 나타남

4.1. 산청

가) 까끔, 가끔, 가끔, 각끔

이 네 형태는 오르막을 ‘가풀막’에 해당하는 지역어 ‘까꾸막’의 변형이다.

동네까끔[산청읍 지리], 덧까끔[차황면 부리], 덧까끔[산청읍 지리], 정산까끔[차황면 양곡리], 창까끔[차황면 법평리], 창까끔[차황면 부리], 창까끔[차황면 실매리]
밋까끔[산청읍 병정리], 큰갓골 남쪽에 있는 산.
셋가끔[산청읍 부리], 큰각끔[산청읍 송정리]

산청 지역에서 ‘산’을 가리키는 ‘가끔, 가끔’은 〈방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방언〉에서의 ‘까꾸막’ 풀이이다.

까꾸막[-] 가풀막. 몹시 가파르게 비탈진 곳. [거제 고성 남해 통영 하동 합천]
*경남방언 ‘까꾸막’의 성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니, 서부 경남의 [-]과 동부 경남의 [-]이 그것이다. ‘까꾸막, 가풀막, 깔꾸막’ 등도 이와 같다.
까꾸막[-]: [위 지역]
가풀막[-]: [진주 합천]

‘가끔, 가끔’은 위 어형과 달리 ‘악’이 결합하지 않은 형태인 점이 특징이다.

나) 양지, 음달

각각 양지와 음지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주나 사천에 비해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햇볕이 드는 산과 그렇지 않은 산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평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골양지[금서면 방곡리], 시리봉 동북쪽 양지쪽에 있는 산.

독바구양지[삼장면 유평리], 딘양지[오부면 양촌리], 집똥양지[단성면 윤리], 옷나무양지
[단성면 방목리], 피발양지[금서면 지막리], 살때발양지[삼장면 대하리], 뗏발양지[단
성면 방목리], 띠발양지[단성면 백운리], 굴바우양지[단성면 윤리], 독바우양지[삼장
면 유평리], 말바우양지[금서면 지막리], 큰양지[시천면 원리]

꼬꼬랑음달[신동면 사정리], 진털배기 북쪽에 있는 산.
썰말음달[차황면 양곡리], 썰말음달[차황면 양곡리], 범바우음달[시천면 중산리], 작은음
달[단성면 백운리], 큰음달[시천면 신천리], 큰음달[단성면 백운리], 큰음달[시천면
중산리]

다) 그밖에 꼬지, 빼기

밀꼬지[단성면 사월리], → 강가매산.
팔백꼬지[시천면 반천리], 고운동 북쪽에 있는 산.

들빼기[오부면 양촌리], 노구자리 동쪽에 있는 산.

4.2. 진주

가) 뱅이, 빙이, 뽕이

이 세 어형은 ‘박이’의 변이형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박이>배기>
뱅이>뽕이/빙이’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추정이 정당하다면 아래 세 산의
뜻은 각각 ‘벼루, 노루, 돌’이 있는 산’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벨뱅이[대평면 하촌리], → 베투메.
노리빙이[금곡면 가봉리], 점지미 서북쪽에 있는 산.
돌뽕이[대평면 당촌리], 사평 북쪽에 있는 산.

4.3. 사천

사천에만 타나는 형태는 ‘살밍이, 끝, 널, 대목, 덩이, 멍이’ 등이 나타나지만 ‘끝’
을 뺀 나머지는 어원이 알려져 있지 않다.

살밍이
배곶살밍이[축동면 구호리], 고동살밍이 바깥쪽에 있는 산.

고동살밍이[축동면 구호리], 안살밍이[축동면 구호리]

끝

배나리끝[서포면 다평리], 신소 남쪽에 있는 산.

음터끝[서포면 비토리], 세곡 동쪽에 있는 산.

옛와갈끝[서포면 다평리], 흑동개 남쪽에 있는 산.

널

계톡널[서포면 비토리], 상촌 북쪽에 있는 산.

새미널[서포면 선전리], 어미산 동쪽에 있는 산.

대목, 덩이, 맥이

잔대목[실안동], 실안 북쪽에 있는 산,

비선덩이[정동면 장산리], 대산 북동쪽에 있는 산.

빨맥이[서포면 구랑리], 간넘 동쪽에 있는 산.

5. 결론

지역어 가운데 지명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말도 없을 것이지만 지명은 지역어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말을 다루지만 지명은 실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화석화된 형태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 형태를 바탕으로 방언권을 설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지명총람〉 수록의 지명이 1980년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40여 년 전에는 기억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했던 말임을 알 수 있다.

세 지역 모두 나타난 형태는 ‘갓, 골, 등, 재, 만당/면당/몬당/면당이/면당이/몬당이/몬덩이, 몰랑/멀리, 매/메/피’ 등이 있었고, ‘덩이/평이/징이, 빼알, 뿔/뿔’ 등은 산청과 진주에서만 나타나며, ‘덤/듬/드미/담, 설, 넘, 뱅이/뱅이’ 등은 산청과 사천, ‘뽕덕’은 진주와 사천에 나타남을 보았다. 그리고 ‘까꿈/가꿈/가꿈/깍꿈, 양지, 음달, 꼬지, 빼기, ‘뱅이/빙이/뽕이’, ‘살밍이, 끝, 널, 대목, 덩이, 맥이’ 등은 각각 산청, 진주, 사천에서만 나타남을 보았다.

방언권인 산청, 진주, 사천 지역에 나타나는 ‘산’을 가리키는 말들을 대상으로 각 형태의 후부지명소의 분포를 알아 보았다. 각 형태들은 세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역성을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 세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 형태들이 방언 사전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수록되지 않은 어형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올림말의 목록도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언 사전을 간행할 때 지명 가운데 후부지명소는 풀이에 반영을 해야 한다. 해당 지역 사람들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낱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분명하게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사)경남방언연구보존회(2017), 『경남방언 사전』, 경상남도.
김 영송(1963), 「제7집 제3장 학술 제4절 방언(음운)」, 경상남도지 중.
김 영태(1975), 「경상남도의 방언구획」, 경상남도방언연구(1), 진명문화사.
김 정대(2012), 「경남방언 구획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배달말51, 배달말학회. 45-90.
김 택구(1991), 「경상남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방 지홍(1983), 「경상도방언의 하위방언권 설정」, 인문론총(부산대) 24.
심 혜영·김 준형(2013), 「진주의 강역과 하부조직의 시기별 변화」, 『남명학연구』3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11-239.
이 익섭·전 광현·이 광호·이 병근·최 명옥(2008),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최 명옥(2000), 「경남방언의 분화론」, 배달말27, 배달말학회. 153~1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방언자료집Ⅷ 경상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글학회(1986),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한글학회(1998),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 한글학회.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지명 분야/ 연구 발표

한국어 지명 탐구 방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 공동체 기반의 고유명 탐구 사례를 중심으로 —

서 형국

전북대학교 교수
seohg@jbnu.ac.kr

1. 연구 목적 및 자료

이 발표는 지명 탐구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를 회고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지명 연구의 충위와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발전적으로 제안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명 연구가 인간의 사회문화적 공동체에서 자연에 적응하고 활동하는 비언어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언어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연구 대상에 적절한 탐구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점, 탐구 대상이 인간 언어로 표시되는 명명 과정과 언어화한 단위 표현으로서 지명을 기점으로 비언어적 요소에 접근하는 분석 과정을 구분하여 제시한 뒤에, 지명 연구와 관련되는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된다. 먼저 지명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점검함으로써 지명에 관여되는 충위를 분석적인 이해를 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지명 탐구에서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 충위를 몇 가지로 구분하게 될 것이다. 지명 탐구에서 구분하여야 하는 충위를 구분하면 각각의 충위가 서로 관여

하는 방식을 점검한다. 이러한 과정이 탐구되는 각각의 분야가 어떠한 지식을 요구하는지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점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명이 조사되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발전적 대안을 수립하려는 시도의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 점검하게 되는 자료는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본 발표의 초점도 언어학적 지명 연구에 있음은 물론이다. 본 발표가 지명 탐구 방법에 주목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 다룰 자료는 현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쓰였던 문헌 자료, 전자 자료도 필요할 때마다 같이 살피기로 한다.

본 발표의 주요 자료가 되는 지명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조사 개요

- ㄱ. 조사 사업: 무주의 옛 지명 조사에 따른 학술연구 용역
- ㄴ. 조사 지점: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무주읍, 적상면)
- ㄷ. 조사자: 서 형국(손 안나, 박 대선), (김 규남 외)
- ㄹ. 조사 일정: 2019년 8월~2020년 2월
- ㅁ. 발주 및 연구책임: 무주군 문화원, 김 규남(전북대학교)

본 발표의 중심 자료는 (1)의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주로 대상으로 한다. 특히 발표자가 조사한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의 가정리, 대유리의 지명을 중심 자료로 하고, 나머지 자료는 필요한 경우에 언급하기로 한다.¹⁾

2. 지명 형성의 요소

지명은 지리적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 집단이 대상으로 인식한 바를 언어화하여 통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명을 이와 같이 정의함으로써 우선 지명의 호명 대상이 되는 대상, 그 대상의 인간 인식, 언어화 표현(어휘 내용, 음성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소를 간략히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2) 지명 형성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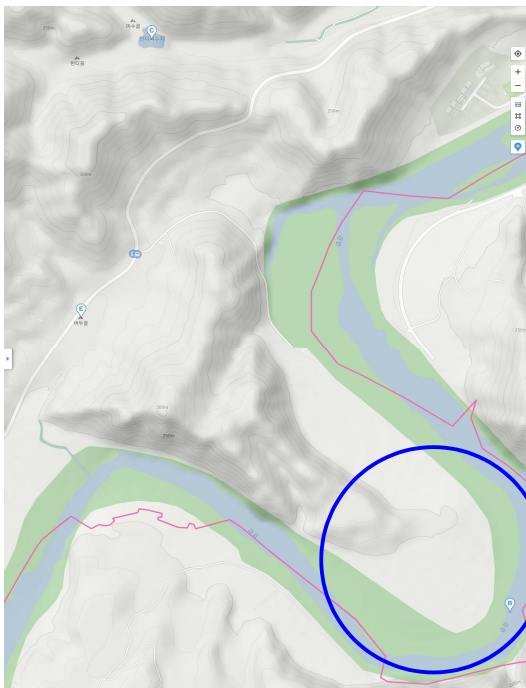
- ㄱ. 명명·호명 대상으로서 자연·인공물
- ㄴ. 지형 개념

1) 무주군 지명 조사 사업은 2019년부터 3개년 동안 진행된다. 1차년도 사업은 무주읍(김 규남), 적상면(백 은아, 장 승익, 이 은선), 부남면(서 형국, 손 안나, 박 대선)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부남면의 총 6개 리(里) 가운데 발표자가 조사한 가정리, 대유리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ㄷ. 지명 어휘
- ㄹ. 지명 음성형

잠정적으로, 지명은 (2)의 네 가지 구성 요소²⁾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첫째는 명명과 호명의 대상이 되는 자연물과 인공물이다. 지명은 자연히 호명하려고 하는 자연물·인공물을 원천으로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존재가 명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어 표현으로서 지명이 가리키고자 하는 동기화³⁾의 대상은 (2ㄴ)의 지형 개념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언어 표현으로서 지명은 표현 개념(2ㄷ)과 표현 형식(2ㄹ)을 갖추어야 한다. (2)로 구분되는 영역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봉길리’를 대상으로 2.1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1. 지명 형성 요소 구분



〈그림 1〉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봉길리

(2)에서 구분한 네 가지 층위는 연역적으로, 선형적으로 구분한 데 지나지 않아서 아직은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2)의 구성 요소가 실제 지형과 지명에서 별도로 구분되는 개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구분하여 인식함으로써 지명 탐구와 언어학적 설명에서 유의미한 효용이 있는지 다음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은 무주군 부남면 ‘봉길리’를 지도로 보인 것이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마을이 이 지역의 중심으로서 [운뎃그리]라고 하고 동그라미 바로 위에 작은 마을이 있어 [아랫뎃그리]라고 한

2) (2)의 각 요소는 지명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지명 탐구에서 구분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기존의 고유명 연구에서도 꾸준히 시도되어 온 것처럼 ‘명칭(name, toponym)’ 연구에서 구분되어 온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지명 탐구’에서 고려할 대상이라기보다 ‘지명’을 이해하고자 할 때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그 대상이 별개로 지명에 별개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여기서 ‘동기화(motivation)’는 언어 형태와 피지시체가 인과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음을 뜻한다. ‘유연성’, ‘배의성’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본 발표에서 구분하고자 하는 영역들을 서로 상이하게 관여하는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3.1에서 좀 더 서술.

다. 마을을 싸고 도는 금강은 왼쪽(서남)에서 오른쪽(동북)으로 흐르므로, ‘웃-, 아랫-’은 모두 물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명이 동기화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웃-’과 ‘아랫-’은 논외로 하고 [뽕그리] 부분만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⁴⁾

2.1.1. 명명·호명의 대상으로서 자연물⁵⁾

지명의 명명과 호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지명이 부여될 대상이 선정되어야 하며, 이름의 대상이 되는 영역과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그 영역 구분은 서북쪽으로 계곡에 인접하여 있는 산과 세 방향으로 난 금강, 그리고 금강 건너편의 상대적으로 높은 산봉우리로 구분된다. 즉 금강을 경계로 하여 강의 북쪽에 해당하는 영역 가운데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길게 이어진 지형과,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은 지형이 여기서 물리적 지형으로 하나의 단위와 같은 대상이 된다. 그것은, 세 방향으로 강이 흐르고, 나머지 한 방면인 서북쪽이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구역이다.

지명 부여 대상이 되는 구역은 길이 나 있는 계곡을 중심으로 동남쪽으로 금강에 둘러싸인 구역이다. 서북쪽의 시작은 남남서-북북동쪽으로 이어진 야트막한 산 능선이고, 동남쪽으로 길게 뻗은 지형 단위이다. 땅 모양으로는 강으로 세 방향이 둘러싸인 기다란 부분이다. 금강의 흐름은 서북쪽의 산날에 막혀 계곡을 따라 흘러가게 된 것인데, 금강의 흐름을 막는 서북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 부분은 [간날망]이라 한다.⁶⁾

2.1.2. 지형 개념

자연물로 존재하는 지리적·지형적 요소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인식됨으로써 지명이 부여되는 대상이 된다. 지리·지형 요소는 구역 확인(㉠)과 특징 포착(㉡)에 지리적 요소(㉢)와 생활 요인(㉣)을 중심으로 사용자인 주민들의 개입으로 개념이 형성된다.

4) 현장에서 두 마을(과 마을이 위치한 지역)을 구분하여 말할 때 [운뽕그리], [아랫뽕그리]로 호명하지만, 이 지역(과 두 마을)을 통틀어 말할 때는 [뽕그리]가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점도 아울러 참고가 된다.

5) <그림 1>의 부남면 대유리 봉길리(뽕그리)와 관련하여서 지명 부여 대상은 ‘자연물’로만 국한된다. 지명은 1차적으로 자연물이 대상이 되는데, 인공물도 지명 부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댐이나 터, 탑들이 인공물에 속하나 때로는 자연물과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이들이 인식되어 지명이 부여되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6) 간날망 서남쪽으로 금강의 흐름을 막아선 바위 부분을 [매사니바위]라고 한다. 이 지역의 ‘매사니’류 지명은 매사냥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매를 낚을 만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이 바위 역시 인가에서 멀지 않으면서 주변을 넓게 볼 수 있는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다. 또한 야트막한 산야가 널리 퍼져있지 않고 아래쪽으로 낭떠러지와 같은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매를 풀어 사냥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지형 요인을 갖추고 있다.

(3) 지형 파악의 요점

① 지리적 요소

㉠ 구역 확인 ㉡ 특징 포착

② 생활 요소

㉠ 구역 확인 ㉡ 특징 포착

① ㉠. 먼저, 〈그림 1〉의 ‘봉길리’는 인근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별도 구역으로 인정된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물을 하나의 구역으로 인식하게 되는 데는, (가)의 자연물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적 요인이 가장 기초적으로 작용한다. 봉길리는 ‘간날망’과 [매사니바우]가 서북쪽으로 높은 지대를 형성하고, 이 지역에 접근하는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하는 데서 별도 구역으로 인식될 자연적 원인이 마련된다. 따라서 간날망을 중심으로 하는 산등성이가 봉길리를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데 일종의 관문 역할도 하게 되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강북쪽에 형성된 공수말과 대티와 구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간날망을 봉우리로 하는 산세가 서북쪽의 강 윗부분과 지리적으로나 인식적으로 온전히 구분되는 영역이 형성하는 기초적 요인이 된다.

① ㉡. 봉길리를 주변 지역과 구분하는 핵심 요인은 인식의 주체인 사람들에게 이 구역이 별도 영역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판단의 주체인 주민들이 생활을 통해서 이 구역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 요인 가운데는 길을 포함하는 동선, 거주지, 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통과·지향하는 영역, 인근 지역과 상관되는 생활 방식이나 경로의 차이 등이 관여된다.

간날망의 북쪽으로 나 있는 계곡은 부남면 소재지에서 무주읍내로 가는 육로의 중요 통로이다. 부남면 소재지(대소리 소재) → 공수말 → 대티를 거치면 강을 건너 무주읍내로 가는 육로를 확보할 수 있으려니와, 공수말과 대티에서는 북쪽으로 금산 방향으로 가는 길을 만날 수 있다. 어느 편으로든 공수말 - 대티를 오가는 길에 ‘봉길리’ 지역으로 들어와야 할 까닭은 만들어지지 않는 셈이다. 즉 부남면 소재지로 향하든, 무주로 가든, 금산을 향하든 ‘봉길리’가 매우 가까이 있고 내려가기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러야 할 까닭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간날망 아래 구역을 별도 구역으로 인식하는 자연스러운 여건이 조성된다. 이는 자연적(물리적) 환경에 기초가 되기는 하여도 사람이 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서 오는 구역 구분이 본질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봉길리’ 구역에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은 첫째, 강을 건너는 방법, 둘째 간날망을 동북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방법, 셋째 봉우리 남쪽으로 강변을 따라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 세 영역은 각기 첫째 경로는 쉼다리를 놓아서 강을 건너 부남면 소재지를 향하는 길이고, 둘째 경로는 자동차가 다닐 정도의 큰 길을 닦아 공수말, 대티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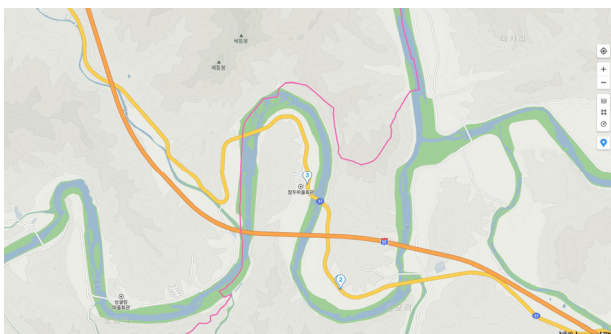
치는 길이며, 셋째 경로는 나머지 경로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임시로 다니는 산길로서 공수말을 거쳐 부남면 소재지를 향하는 길이다. 마을은 동남쪽 저지대 강변에 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북쪽에 소규모 마을이 딸려 있다. 이 구역의 농지는 동남쪽에 대부분이 조성되어 있다. 요컨대, 이동의 경로, 생계와 거주 주영역이 동남쪽 끝부분을 중심으로 한다.⁷⁾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은 북북동쪽에 조금 보이는 대티 마을,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라 서쪽에 형성된 공수말(유동)이다. 강 남쪽으로는 이 두 마을을 거치지 않고 갈 만한 다른 마을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봉길리’ 바깥에서 해야 할 생계 등의 업무 가운데 동남쪽으로 산을 가는 외에는 이 두 마을과 강을 따라 나가는 방법뿐이라고 할 수 있다. 봉길리와 관련된 사람들로서는 앞서의 세 경로가 이 구역을 다른 구역과 연결하는 경로가 된다. 또한 이 경로를 [뽕그리라고 하는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들 경로는 [뽕그리와 다른 구역이 구분되는 인식상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구역에서 [뽕그리로 들어오는 중심 지역은 [운뽕그리라고 하는 마을이 된다.

②①. ‘봉길리’는 삼면이 금강으로 둘러싸인 특징을 지닌다. 삼면을 금강이 에두르는 지형이 유일한 것도 아니고⁸⁾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이 인식되는 것은 유난히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특징 가운데 강물이 이 구역을 에두르고 있다는 지리적 특징이 이 구역을 인식하는 지리적 개념으로 추상된 것이다.⁹⁾

②②. 반면 물리적 자연물로서 지형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인간적 해석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그림 2〉는 ‘봉길리’의 바로 하류에 있는 부남면 굴암리와 무주읍 용포리의 지형이



〈그림 2〉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잠두마을

다. ‘봉길리’와 마찬가지로 금강이 에두르는 모양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구역의 경우에 중앙 위편의 봉우리가 ‘베틀’의 모양과 성격을 갖추는 것으로 인식하여 ‘베틀봉’이라는 이름이 붙고, 아래쪽의 용포리에는 ‘잠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7) 면 소재지는 지도 밖 서남쪽 강변 남쪽에 있다. 무주읍은 동북쪽으로 상당히 멀리 나가야 하고, 금산군은 북쪽으로 고개 너머에 있다.

8) 무주군에서 삼면을 금강이 에두르는 구역이 ‘봉길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남면 유평리, 대소리, 대유리, 굴암리, 무주읍 용포리, 대차리, 읍내리에 삼면이 강변인 지형이 존재한다. 아울러 다음의 〈그림 2〉도 참고.

9) 이 구역의 지명 ‘봉길리’ 등에 대해서는 다음 2.1.3, 2.1.4에서 설명한다.

잠두 마을의 경우 이곳이 자라의 머리 부분으로 ‘베짜기’와 무관하게 낮은 지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자라의 머리가 물에 잠긴 모양이라는 설과, 누에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설이 제보된다. 어느 이야기가 지명과 관련되는 것이든,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이 부분을 구역으로 이해하고 대상화하기 위하여 인간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¹⁰⁾

2.1.3. 지명 어휘

‘봉길리’ 구역은 서북쪽의 봉우리에서 동남쪽으로 길게 뻗은 직사각형 모양의 지형이 된다. 이 지형의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산봉우리로 이루어진다. 서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어 통행 수단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를 ‘낮은 지대’로 특정할 수도 있고, ‘긴 사각형’으로 특정할 수도 있으며, ‘삼면이 강’을 특징으로 잡을 수도 있다. 넓은 강변, 맑은 강물 등 주변 구역과 차별되게 특징을 잡을 특성은 많으나 이 구역은 ‘삼면이 강’임을 특징으로 삼았다.

‘삼면이 (금)강’임을 언어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지형 인식에 해당하는데, 이 인식은 특정한 방식의 어휘적 개념을 통하여 나타내게 된다. 행정 명칭인 ‘봉길리’나 [뽕그리]¹¹⁾는 음성상징어로서 ‘도는 모양’을 지명 표현 개념으로 상징하였다. 이 개념은 ‘뽕글’, ‘뽕글’, ‘뽕글’, ‘뽕글’ 등의 어휘로 선정된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명칭은 ‘뽕글’을 중심으로 하는 어휘들¹²⁾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³⁾

10) 고유명이 나타내는 개념과 그 언어적 표현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사상(mapping)되거나 투사(projection)된다는 입장에서는 자연물로서 지리적 대상을 개념화하는 단계도 전체에서 부분을 추출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다(이 동혁·이 종열 2007: 147-150). 그러나 이런 과정이 ‘은유’나 ‘환유’ 과정으로 환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1>의 지명 부여 방식에서 부분과 전체의 과정이 개입하는 데는 전체 영역에서 일부분이 초점이 되는 측면이 짙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부분과 전체로 불가능성의 한편으로 대상을 서술하는 (가정의) 항목들 가운데 하나의 서술(묘사)이 부각되어 개념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수희(1994: 16-19)에서는 지명이 부여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지시범위가 확장되는 사례를 ‘대전(大田), 한밭’과 ‘부산(釜山)’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림 1>의 지명과 경우가 다르지만, ‘좁은 의미’를 가진 지명, ‘넓은 의미’를 가진 지명으로 구분하고 있음이 참고된다. ‘부산’의 예는 여러 속성들을 가짐을 특징으로 든 것이므로 ‘영역’의 넓이와는 다른 것이다.

11) 후술하겠지만, [뽕그리] 외에도 여러 음상의 지명이 통용된다.

12) 공간적 인접성을 가지는 경우는 ‘~와 같은’을 삽입하여 유사한 설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데 반해, 개념적 유사성을 가지는 고유명은 ‘~와 같은’을 삽입하여 유사한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이 동혁·이 종열 2007: 149-150). <그림 1>의 지명에 [뽕글]류의 어휘를 선택한 원인은 금강이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있다는 점, ‘뽕글 휘감는 것과 같이’ 또는 ‘뽕글 돌듯이’처럼 속성도 공유하고 있다. 이 동혁·이 종열(2007: 155-156)에서도 살피고 있는 것처럼, 속성의 공유를 통해 은유를 설명하고, 공간 인접을 통해 환유를 설명한다는 입장에서 고유명의 인지적 작용 양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뽕그리’의 경우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본질상 속성을 중심으로 언어 표현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고유명이 비유적 사용에 의도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도 고유명 자체의 명칭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지 모른다.

13) 이때 선정된 어휘 개념은 형식까지를 어느 정도 결정한 것인지, 개념적으로만 정해지는 것인지는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기 어렵다. 여기서의 지형 인식이 ‘어휘’까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 어휘 개념과 어휘 형식(음성형, 형태)의 구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여기서 선정된 ‘뽕글, 뽕글, 뽕글, *뽕글’ 등에 대해서는 언어적으로 음성상징어, 고유어, ‘도는 모양’을 서술하는 어휘라는 점 등이 서술될 수 있다. ‘도는 모양’은 이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감거나 에두르는 모양’을 서술하는 성상(性狀)적 어휘임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뽕글’ 계열 어휘는 ‘웃는 모양’으로 규정되나, 이 구역을 나타내는 어휘가 ‘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임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¹⁴⁾

지명 표현에서 선택되는 어휘 개념은 고유어 어휘, 한자어 어휘처럼 어종에 따라 서로 선택이 가능하다. 부남면 대유리 대티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지역 개념을 나타내는 어종별 표현은 ‘깊은목골~심곡(深谷)’, ‘삼골~천곡(泉谷)’, ‘물푸리(재)~수청(洞, 水靑(洞))’, ‘아래수뜰~하수평(下水坪)’ 등이 병행하여 보고된다.

2.1.4. 지명 음성형

이 구역을 나타내는 실제 음성형은 [뽕그리], [뽕그리], [빙기리], [뽕길리]가 채록되었다. [운뽕그리]에서는 [뽕그리] 계열의 어형만 채집되었으나, 인접한 대티와 공수말(공순말)에서는 [뽕그리], [빙기리]가 채록되었고, 행정적으로는 ‘뽕길리’로 정착되어 있다. 즉 동시대, 동일 지역, (거의) 같은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인식하는 구역을 같은 어휘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서로 다른 음성형으로 사용하여 무리 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음성형을 사용하면서 같은 어휘 개념을, 같은 지리 인식 구역을 나타내고 있음은 물론이다.

역사적 탐구에서도 음성형은 나름의 시간 심층과 변화의 동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부남면 대유리 뽕길리 입구에 있는 둔치를 [지벌뜰]~

14) 〈표준국어대사전〉 등재어 가운데 이 지명과 가장 가까운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은 ‘뽕그르’이다. 그러나 그 뜻풀이는 이 지명과 관련해서도, 제시된 용례와 관련해서도 올바른 뜻풀이를 나타내었다고 하기 어렵다.

뽕그르 「부사」 몸이나 물건 따위가 넓게 한 바퀴만 도는 모양.

뽕그르 몸을 돌리다.

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뽕그르 돌아 그녀를 말없이 쳐다본다.

내 곁을 지나치며 노파는 한 번 뽕그르 돌아서는 것이었다.〈천승세, 황구의 비명〉

새끼가 끊어지고 기둥이 부러져 버린 천막은 왼쪽으로 뽕그르 몸을 틀면서 타오르는 무대의 불길 위에 주저앉았다.〈한수산, 부초〉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용례는 모두 넷인데, 뜻풀이는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뽕그르’와 대조하여 뜻풀이를 하다 보니 ‘한 바퀴를 넘지 않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한 바퀴만’ 도는 모양으로 뜻풀이함으로써 첫 번째 작성례를 제외하고는 문장에 쓰인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뜻풀이가 된다. 두 번째~네 번째 용례에서 360도를 회전하는 경우는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들 용례는 모두 ‘한 방향으로 (360도 이하로) 도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맥락에 부합한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의 ‘도는 모양’은 도는 대상이 중심이 되어 제자리에서 도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네 번째 인용례의 도는 모양은 제자리에서 도는 모습으로도, 무언가를 싸고 에둘러 도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쪽은 고정되어 있고 위쪽은 원 모양으로 돌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뽕길리’의 ‘도는 모양’은 감싸고 에둘러 도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도는 모양’의 서술에서는 부수적으로 설명되었다고 할 만한 용법이다. 한편 ‘뽕길리’의 금강이 감싸고 도는 정도는 360도 정도에 해당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 ‘뽕그르’의 사전 풀이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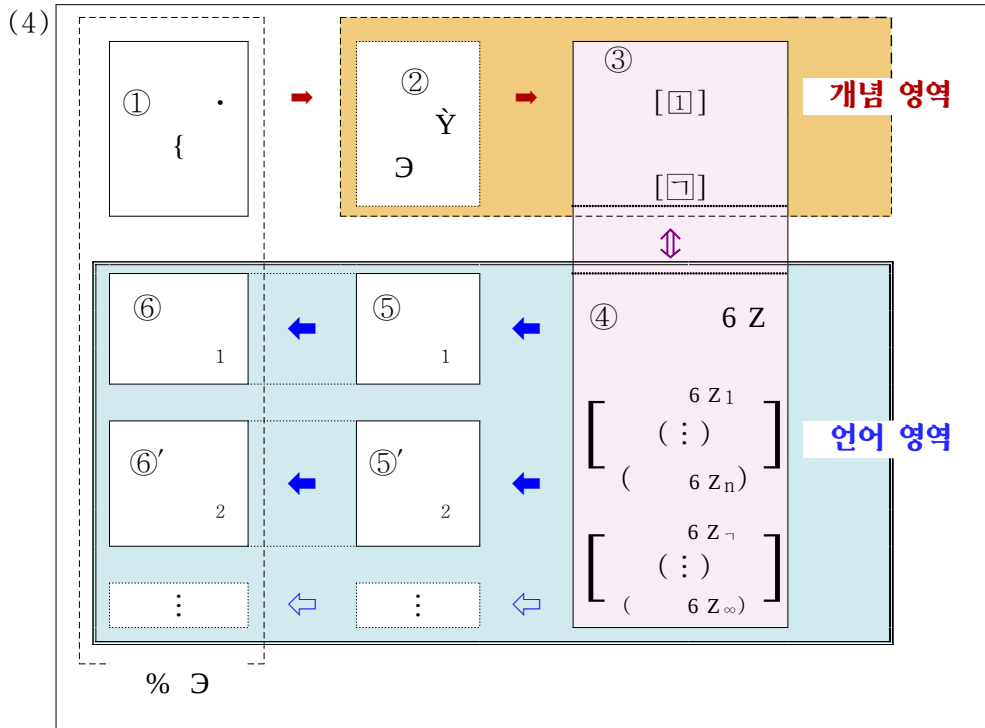
[재벌뜰]이라고 하는데, 이 지명은 이 둔치 북쪽으로 있는 벼랑인 [재벌]에 기인한다. ‘벌’의 어원 의식보다 ‘뜰’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벌’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변이형이다. 이처럼 활음이 비음성적 요인의 개입으로 탈락하는 사례는 ‘삼[泉]~삼’에서도 발견된다.¹⁵⁾ 요컨대 지명의 음성형은 지명 탐구와 조사에서 지형 개념이나 지명 어휘와 따로 탐구되어야 한다.

2.2. 형성 요소에 따른 지명 탐구

우리는 앞서 지명을 형성하는 데 간여되는 요소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를 꾀하였다. 앞서 든 지명 형성 요소를 다시 가져오고(2), 네 요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논점별로 정리한다. 다만 논의를 선명하게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논의의 결과로 구분하게 될 지명의 형성 요소를 (4)로 제시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2) 지명 형성의 요소

- ㄱ. 명명·호명 대상으로서 자연·인공물
- ㄴ. 지형 개념
- ㄷ. 지명 어휘
- ㄹ. 지명 음성형



15) 부남면 가당리 하평당 마을에서 대유리 대티 마을로 넘어가는 재의 마지막 골짜기는 [막삼뜰]이지만 막다른 곳에 있는 ‘삼(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의 ‘막삼뜰’이 온당한 지명으로 보고된다.

2.2.1. 지각 대상과 인식 대상

지각(知覺, perception) 대상인 자연물·인공물, 그리고 표현 음성형은, 인식(認識, cognition) 대상인 개념적 대상과 유형·특징 개념과 구분된다.¹⁶⁾

오감을 통하여 직접 접하는 대상은 명명·호명의 대상이 되는 자연물·인공물(4 ①)이고, 지명형으로 만들어진 표현의 표현 음성형(4 ⑥, ⑥', ...)이다.¹⁷⁾ 자연물·인공물은 지리적 대상으로서 시각을 중심으로 지각되며, 음성 실현형은 청각을 중심으로 지각된다. ① 자연물·인공물과 ⑥ 표현 음성형은 서로 직접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기 어렵다. 둘 모두 지각의 대상이지만 음성 실현형은 지명형을 추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지명이 가리키는 대상을 추적할 수 있게 되며, 자연물·인공물은 영역과 특징이 인지되어야 지명과 연계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3)에서 제시된 지리적 인식과 생활 인식을 통하여 자연물·인공물 ①을 인식한 대상 ②가 형성된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물인 지리적 대상으로부터 영역을 인식하는 것이 바탕이 된다. '방길리~뽕그리'가 별도의 영역이 되는 것은 지리적 요인만이 아니라 생활 요인도 개입함은 앞서도 살펴보았다.¹⁸⁾ 이 과정에서 유형과 특징이 인식됨으로써 언어 영역에서 다루게 될 대상이 수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지된 대상은 영역, 유형, 특징 등으로 인식된다. 명명은 이 영역을 가리키기 위하여 유형과 특징을 언어 표현으로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뽕그리'는 <그림 1>의 해당 영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서, 강물이 뽕글 돌아 둘러싸고 있는 특징을 지닌 구역을 나타낸다. 지명이라는 기호가 지시(reference)를 적절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인식을 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표면 음성형을 듣고 인식 영역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연물·인공물을 올바르게 해석해 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¹⁹⁾

②의 '인식된 대상'은 ③ '특징'과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는 것이 유익하다. ②는 ③을 파악하는 바탕이 될 수도 있고, ①에 대한 인지 과정과 ③을 파악한 결과가 종합

16) 언어 영역에 속하는 어휘 의미적 개념과 형태 단위를 인식 영역에 포함되는지 발표자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언어학적 지명 연구의 입장에서 영역과 특징을 가지는 인식 대상을 언어적 대상과 구분함으로써 연구의 대상이 구분된다는 데서 인지 영역의 대상과 언어 영역 부분을 구분하여 다루기로 한다.

17) '(4 ①)'은 (4)에서 제시한 ① 자연·인공물을 가리키고, '(4 ⑥, ⑥', ...)'은 (4)의 ⑥ 표현 음성형, ⑥' 표현 음성형₂ 등을 가리킨다. 아래에서는 (4)를 제외하고 '①', '②', ..., '⑥'처럼 가리키기로 한다. 또한 '⑤'와 '⑥'의 경우 여럿임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⑤', ... 등을 생략하고 '⑤', '⑥'으로만 나타내기로 한다.

18) 지각 대상이 되는 자연물이 지명이 붙는 대상이 될 때, 영역 인식과 유형·특징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서술은 지명 연구에서도 종종 서술되어 왔다. 지명은 "지역 화자들이 거주나 이동에 있어서 구역 변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역을 소재로 한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성 희제 2006: 130)는 서술이 대표적이다.

19) 우리는 고유명의 경우에 대상을 직접 가리킨다는 입장에 함께하지 않고, 지명이라는 '기호'가 지시(refer to)하는 것은 결국 인식된 대상을 매개로 하여야 함을 주장한 셈이 된다. 전통적 기호학에서 지시물(referent) ①을 지시(refer to)하는 것은 개념(concept) ②~③이었음이 상기된다.

되어 형성될 수도 있다. 다만 언어학적 입장에서 ③의 ‘특성 파악’은 언어적 개념을 통해서 지정되고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2.2.2와 2.2.3에서 더 서술함).²⁰⁾

2.2.2. 언어 영역과 개념 영역

그렇다면 지명 표현 어휘는 지명이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인가? 인식된 대상과 이를 개념화하고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어휘(의미) 개념,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형식 단위로 지명은 구성된다.

(가) 지형 개념: 개념적 대상

지형 개념은 자연물·인공물을 지각한 뒤 이를 특정한 단위로 인식하고 그 특징을 인식한 결과로서 개념적 대상을 말한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지리 요소로서 자연물이나 인공물은 영역이 구분되기 어려우나 인식 대상이 됨으로써 일정한 영역을 가지는 대상이 된다. 인접한 영역과 구분하고 하나의 영역이라고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인식 대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를 ②인식된 대상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인식된 대상이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접한 영역과 구분됨으로써²¹⁾ 그 대상 영역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서술(묘사)된다. 혹은 그 대상이 가지는 일정한 속성에 의하여 인접한 영역과 구분되는 하나의 영역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²²⁾

(5) ㄱ. 지명은 환경지각의 결과로서 장소(토지)가 갖는 특성과 인간의 역사, 문화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김 연옥 1986: 259)

ㄴ. 지명의 최우선적인 기능은 일정한 대상에 공간적 형상과 윤곽을 부여하여 이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김 순배·류 제현 2008: 600)

20) ②와 ③이 서로 어떤 관계이고, 이들이 선후 관계에 있는지, 상하 관계에 있는지는 본 발표에서는 분명히 할 여력을 갖지 못한다. 앞으로 논의를 더할 분야로 보인다.

21) 지명이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현장 조사에서나 직관적으로 부정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명 연구에서나 지명 기록에서 ‘영역’ 정보가 반영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 지명을 총괄하는 자리(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지명은 위치로 표시될 뿐 영역으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김 중혁 2006). 김 중혁(2006: 56)에서는 이를 ‘선 양태’(계곡 이름)와 ‘면 양태’(‘설악산국립공원’)로 확장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2) 지명이 부여되는 대상이 구역으로 나뉜 하나의 존재임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지명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던 바이다. 이를 테면 “처음부터 하나로 창조된 지구 위에서 우리 인간이 생활하면서 필요에 따라 소유의 선을 긋고 그 나누어진 구역 안의 땅에 붙인 이름이 곧 지명이다(밑줄은 발표자가 그음, 도 수희 1994: 3)”과 같은 인식이 그것이다.

(5ㄱ)의 ‘환경 지각’이나 (5ㄴ)의 ‘형상과 윤곽을 부여’하는 방식을 개념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상 구역을 외부와 구분하면서 내부적으로 응집된 속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단위로 인식된 구역은 외부의 구역과 차별성을 가지며 구역 내부는 같은 구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공통점이 드러난다. ‘뽕그리’는 인접한 ‘대티’나 ‘공수말’, 강 건너의 ‘인구지’와 구별·차별되게 인식되며, ‘매산이바우’, ‘재별’은 구역의 경계에 있으면서도 ‘뽕그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영역 인식은 지리 요소를 인식하는 유형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하나의 응집된 속성을 지니는 대상으로 지리 요소가 파악되는 과정은 역시 언어 기호화 과정에도 반영되는데, 이런 유형화 결과는 주로 ‘후부 요소’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지명 후부 요소가 이와 같은 유형을 언어 기호화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후부 요소가 표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거나 생략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²³⁾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 인식(ㄱ)은 도 수희(1994: 18)의 ‘부산(釜山)’에 대한 인식을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²⁴⁾

- (6) ㄱ. 한국에서 둘째가는 도시이다.
- ㄴ. 인구가 500만 명이나 된다.
- ㄷ. 가옥의 수, 문화 시설의 정도, 교육 기관, ...
- ㄹ. 한반도 최남단의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다.
- ㅁ. 특산물이 무엇무엇이다.
- ⋮

(6)의 특징 인식이 모두 개념어(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6ㄱ) 정도는 ‘제2’와 같이 개념어로 쓸 수 있을지 모르나 나머지는 단일한 어휘적 개념으로 직접 맞세우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동일 地名이라 할지라도 문필가가 표현하는 지명의 의미, 민속학자가 해석하는 지명의 의미, 지리학자가 부여하는 지명의 의미, 역사가가 찾아내는 지명의 의미 등은 그 기술의 결과가 상당히 다를 것”(도 수희 1994: 19)이면, 언어 사실에 부합하는 ④~⑥의 관계를 기타 ③과 엄밀히 구분하는

23) 지명 후부 요소의 유형 분류 문제는 지명을 체계화하는 ‘의미적’ 방법론으로 주목되어 왔다(이 돈주 1971, 이 철수 1982, 박 병철 2017: 45-46). 이 돈주(1971)의 체계화 방법은 ②의 인식 대상 유형에 대한 분류이고, 이 철수(1982)의 체계화 방법은 ⑤의 분류 방식에 해당한다. 이들이 서로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의 체계화 방법을 모두 ‘의미’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명형이 속하는 개념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은 명명 과정(onomasiological)과 전수·유통 과정에서 표현형을 통하여 대상을 유형으로 이해하는 과정(semasiological) 과정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고 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제기된다고 본다. 이 철수(1982)의 체계화 방법이 개념으로 분류하고 인식하는 공동체의 문화적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24) 도 수희(1994)에서는 이를 ‘의미’로 총괄하였다.

것이 지명을 분과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다.

대상 구역의 내적 공통점을 개념화하는 데 유형 개념이 동원되었다면, 대상 구역이 외부와 구별되게 차별성을 개념화하는 데는 특징 개념이 동원된다. 이 특징 개념은 한 구역에 매우 많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²⁵⁾ 그러나 지역사회의 공준을 받은 특징만이 명명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공준은 꼭 하나의 특징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구역이 여러 지명을 갖는 까닭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²⁶⁾

구역 개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되어 인식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후부 요소로 구현되는 ‘보통명사화’와 전부 요소가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고유명사화’(도 수희 1994: 9-10)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된 개념적 대상은 특성을 언어 표현으로 드러냄으로써 고유명(지명)으로 차별적으로 명명되며, 지역사회에서 공준을 받아 전수의 대상이 된다. 해당 구역의 유형을 보통명사로 표현함으로써 해당 구역이 지니는 유형을 드러냄으로써 이해와 지시를 도울 수 있다. 지명을 가지는 대상은 일정한 유형에 속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된 구역이고, ① 자연·인공물은 개념적으로 구분된 인식 대상의 매개를 받아서 지명과 연결되는 것이다.²⁷⁾ ③은 ②를 기술(묘사)하는 구체적 방안에 해당한다.

지리 요소에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은 ②를 지향하겠지만, 언어 기호화는 ③을 근간으로 한다. 지형의 어떤 점을 언어 기호로 표현할 것인지는 ②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③으로 포착된 특성을 의미(sense)로 한다. 요컨대 ③은 인식된 대상의 속성을 특징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지명 표현의 sense_i가 정해지는 과정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가 특징은 개념이 되는데 이를 ‘개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③은 영역으로 이해한 대상을 큰 전체의 부분이라고 인식²⁹⁾하기도 하고, 부분

25) 김 진식(1998: 41-42)에서는 ‘땅이 가지고 있는 자체 내의 상황이나 조건이 명명 기반이 되’는 내부 준거(‘검은바위’)와 ‘땅의 외적 상황이나 조건이 명명 기반이 되’는 외부준거(‘독수리바위’)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유사한 시도는 임 영희(1977)에서도 형상이 닮은 사물(A), 특징적 물건이나 그 특징(B), 특징적 상태(C), 고사·일화·전설(D), 소유·기타(E)로 나누어 시도한 바가 있고, 김 성렬(1999)에서도 (1)지리, (2)형상, (3)유물·유적, (4)동물, (5)식물, (6)광물질, (7)관념, (8)전설, (9)사람, (10)땅의 성질, (11)물, (12)풍수지리로 나누어 분류를 시도하였다. 김 진식(1998)의 명시적 서술을 통해 이러한 구분이 개념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식(대상화, 대상 추출)과 특성화가 핵심 요인이 아닌 언어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음이 명시된 셈이다. 이러한 유형은 언어학의 의미론에서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6) 한 구역에 여러 지명이 있는 까닭이 구역의 특성이 여럿으로 부여되는 데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명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 지명을 두고도 또 다른 지명이 지역사회의 공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기로 한다. 역사적 과정에서, 그리고 언어 요인에 의하여 생기는 한 구역에 여러 지명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하여는 박 병철(1996)과 김 정태(2014L)이 특히 참조된다.

27) ②와 ③의 순서는 확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① 자연·인공물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그 특징에 따라 영역을 인식하게 되는 순서(③ > ②)도 불가능하지 않고 배제되기 어렵다. ②와 ③의 순서를 확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② ↔ ③처럼 나타내는 게 적절할지도 모른다. 본 발표에서는 2.1의 ‘방길리(뽕그리)’ 지명 형성 과정을 감안하여 ② → ③의 순서를 기본으로 제시하지만, 이 순서는 경우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으리라 판단한다.

28) “지명은 언어적, 문화적, 지리적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종합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김 순배·류 제현 2008)고 할 때 ‘내포’되는 것은 ②③의 개념 차원과 ④⑤⑥의 언어 차원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

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인식³⁰⁾하기도 한다. ‘소곰 묻은 날망, 말 잡아먹은 잔등, 원때’와 같은 지명은 각 부분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을 지명으로 둔 경우에 해당한다.

명명과 사용 과정에서 공간은 ‘일정한 경계와 영역을 갖는 공간’으로 형상화될 것(김 순배·류 제현 2008: 601)이 전제된다. 이때 공간은 단순히 ‘자연 세계의 물리적 존재’로만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이 공간을 사회적 활동과 거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관계 안에 대상화된다. 인간은 공간을 자신의 인식 세계에서 형상화하는 주체적 존재이며 지명은 그런 인식 과정을 전제로 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나) 언어 영역

언어 영역은 어휘적(혹은 문법적) 의미와 형태 구조, 음성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가리킨다. 이 영역은 ②와 ③으로 이루어지는 개념 영역과 구분되는 영역으로 지명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이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미묘한 영역 구분은 ③과 ④가 구분되는지, 구분된다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지명을 표현하는 개념 요소는 개념 영역의 것이 직접 소용되는지 어휘적 개념이 소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언어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사고 언어’가 개입하는 것이다. ③에서 파악된 유형과 특성은 언어 개념으로 구성된다. 개념과 기호의 형식과 의미는 동일하거나 유사함에 근거를 두어 사용된다. 본 발표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특히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해보기로 한다. 첫째는 언어 영역의 기호와 인식 영역의 개념이 동일성,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음’의 속성이다. 우리는 이를 동기화(motivation)라고 하기로 한다. 본 발표의 이해로는 ③과 ④의 연계를 동기화라고 하기로 한다.³¹⁾ 둘째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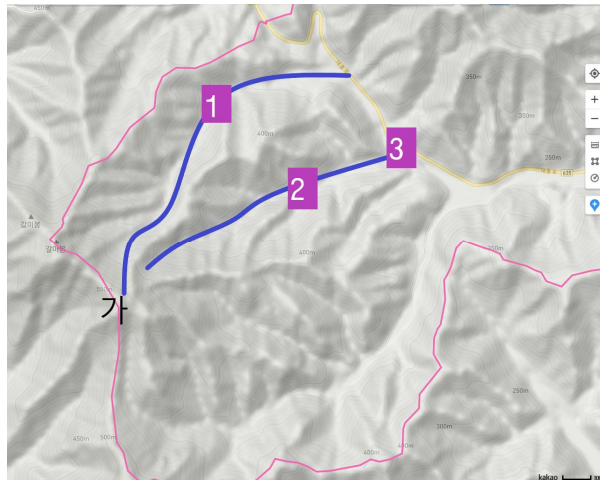
며, ‘지명’은 종합적 현상이라기보다 협동적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본 발표의 입장이 다. 이런 차원에서 ②③의 개념 차원에서 지명이라는 언어 현상에 반영되는 공동체의 생활 양식이나 대상 인식의 방법(의식)이 찾아지는 것이다. ‘음양론의 세계관’(김 연옥 1986), ‘남자 중(비구)과 여자 중(비구니)’의 차별적 의식(김 준영 1998), 풍수지리 등이 개입되는 것은 ②③의 영역에서지 언어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때 ‘언어 영역’이라 함은 의미론의 영역에서 다루는 ‘어휘 의미’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음양론’, ‘성별적 인식’, ‘풍수지리’가 어휘론, 의미론의 대상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만 비구를 ‘중’이라 하고 ‘승’이라 하지 않으며, 비구니를 ‘승’이라 하고 ‘중’이라 하지 않는 일은 언어 표현과 관련되므로 당연히 어휘론의 대상이 된다.

29) ‘베틀봉’, ‘잠두’가 이에 해당한다. 이 두 지명은 각 구역이 다른 전체 안에서 ‘베틀 부분’으로 해석되고, ‘누에의 머리’(혹은 ‘물에 잠긴 자라 머리’)로 이해함으로써 붙여진 지명이다. 각기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무주읍 용포리에 소재한다. ‘베틀봉’과 ‘잠두’의 명명 과정은 ‘속성’으로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과정이 상상적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비유(은유, 환유)와 같은 과정과 달리 설명될 필요가 있다.

30) ‘막삼골’, ‘뽕그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 두 지명은 ‘막삼’이 있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강물이 휘도는 부분이 있는 구역’을 가리킨다. ‘막삼골’은 부분-전체의 관계를 바탕으로 명명되었으나, ‘뽕그리’는 부분이 지나는 속성을 전체에 대한 고유명으로 명명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 동혁·이 중열 2007: 152-156).

31) 본 발표에서는 형태 구조와 의미 구조의 동형성/유사성을 가리키는 ‘투명성’은 ‘언어 영역’이 ‘개념 영역’을 반영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동기화’가 ③과 ④의 연계를 가리키는지 ③

구조와 의미의 연계가 사용자에게 드러나는 정도를 가리키는 속성이다. 우리는 이를 투명성(transparency)라고 하기로 한다. 본 발표의 이해로는 ④와 ⑤의 연계를 투명성이라 하기로 한다. 셋째는 기호의 외형과 개념이 서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속성이다. 우리는 이를 도상성(iconicity)이라 하기로 한다. 본 발표의 이해로는 ③과 ⑥의 동형성을 도상성으로 가리킨다.³²⁾



〈그림 3〉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허궁달, 증골

〈그림 3〉을 예로 들어 이 세 속성을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그림으로 보인 지역은 대유리의 서북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635번 지방도를 따라 북쪽으로 재를 넘어가면 충청남도 금산군이다. 그림 왼편의 ‘가’는 허궁달의 가장 안쪽 봉우리인 ‘갈미봉’이다. 지도에서 보이는 ‘허궁달’, ‘증골’은 그 끝에서 갈미봉에 도달한다. 그림의 ①은 ‘큰 증골’이고 ②는 ‘작은 증골’이다. ‘증골’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큰 증골’을 가리키지 않고 ‘작은 증골’을 가리킨다. 동쪽에서 중앙부를 향하다가 북쪽으로 길이 나 있는데, 이 길 외에는 외부로 통하는 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큰 증골’(①)은 갈미봉(가)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깊은 골짜기이고, ‘작은 증골’(②)은 상대적으로 ‘갈미봉’까지 거리가 짧다. 이들이 같은 ‘증골’이라는 같은 골짜기 이름을 갖는 것은 이 지역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대유리 공수말(유동) 사람들에게 이 둘을 구분하는 큰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아래쪽 허궁달은 현재도 농토와 거주민이 있고, 개발도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증골, 작은 증골과 다르다.³³⁾

과 ⑤의 연계를 가리키는지는 본 발표는 아직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언어 기호가 개념 영역의 원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③과 ⑤의 관계로 드러내 두고자 한다.

32) 이 세 개념의 연계를 상당히 여러 논의에서 ‘연계성’이라는 용어로 가리켜왔다. 이 연계성은 공시적 지명 연구에서도 사용되었고,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사용되었다. 통시적으로는 ⑤가 서로 다른 공시태에서 상이하게 나타날 때 이들을 연결해 주는 개념으로도 사용된 점이 ‘동기화’, ‘투명성’, ‘도상성’과 다른 점이다.

큰 증골과 작은 증골은 이 지명을 활용하는 지역사회(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허궁 달과 달리 하나의 영역으로 이해된다는 점에 의해 ‘증골’이라는 명명을 공유한다. 큰 증골이 작은 증골보다 깊은 골짜기라는 점이 ‘큰’과 ‘작은’으로 대조된다. ‘증골’이라는 명칭을 공유하게 된 사유는 언어적인 데 있지 않다. 이 두 골짜기가 입구가 ③으로 같았을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①의 입구에 있는 인가 자리인 큰 목사리에 의해서 영역은 구분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같은 명칭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인식의 동질성’ 때문인 것, 즉 지명이 인식을 동기화하고 있는 것이다.³⁴⁾

골짜기의 ‘깊이’ 혹은 ‘길이’는 ‘큰’과 ‘작은’으로 언어화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깊이’나 ‘길이’가 ‘크기’로 대응되는 일정한 사고의 평행성이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사고 과정 역시 개념 영역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증골’을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 ‘크’와 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 ‘작’으로 표현하는 것은 ‘깊-, 길-’과 ‘얕-, 짧-’³⁵⁾ 어휘와 직관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대응한다. 이는 어휘 의미에서도, 즉 언어 영역의 형식과 의미 대응에서도 ‘큰 증골’과 ‘작은 증골’이 대상의 규모(깊이, 길이, 크기)를 직관에 맞게 대응시킨다. 이는 언어 형식이 언어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갖는다(김 정남 2007).

‘큰 증골’, ‘작은 증골’에 사용된 ‘큰’과 ‘작은’은 본디 깊이나 길이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언어 표현이지만, ‘큰’과 ‘작은’은 어휘로서 갖는 다른 의미(sense)를 가지게 된다. 사용된 지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큰 증골’이 ‘작은 증골’보다 더 넓을 수도, 골짜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큰 증골이 골짜기의 폭도 좁고 농토도 적으며 골짜기 수도 적다. 실제 활용도 현재 농토가 남아 있는 골짜기는 작은 증골 이어서 ‘증골’이라고만 하면 작은 증골을 가리킨다. 이는 ‘큰’과 ‘작은’이 언어 영역에서 선택된 어휘로 인해 갖게 되는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³⁶⁾

지명 연구에서 ‘지명이 가리키는 내용’을 찾는 일은 동기화를 추적하는 작업이다. “우리 조상의 사고방식과 생활풍습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김 성렬 1999)와 같은

33) 큰 증골에 예전에 사람이 살았음은 강길신(76세) 제보자의 직접 경험이 증언되었다. 현재 큰 증골과 작은 증골에는 인가의 흔적도 존재하지 않지만 큰 증골의 입구인 ‘큰목사리’에는 집터 자리 부근에 대밭이 있어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34) ⑥으로부터 ③, 나아가 ①에까지 이르는 지명 해석에는 어느 정도 논리의 순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①로부터 ⑥에까지 이르는 명명 과정을 감안하면 ②③의 개념 영역과 ④⑤⑥의 언어 영역이 순환론에 빠지지 않으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5) 이들 표현은 이 지역에서라면 ‘깊-, 길-’과 ‘얕-~아얕-, 짧-~아짧-’으로 구현될 것이다. 가정의 영역이기도 하려니와 논의와 직접 관련을 가지지 않으므로 규범어로 제시한다.

36) 기호 형식 ⑤가 ④와 잘못 연결되는 일을 ‘민간어원’이라고 한다. 민간어원은 기호의 형식과 내용(의미) 간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형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형식의 변화를 겪은 민간어원을 실질적 민간어원, 형식의 변화를 겪지는 않은 민간어원을 잠재적 민간어원이라고 한다(김 현권·목 정수 역 1992, 황 경자 1994).

판단은 인식 영역에 반영되는 개념적 이해를 추적하여 얻을 수 있는 판단이지, 어휘 의미에서 얻어질 정보라고 하기 어렵다. 기존에는 이를 ‘유연성(有緣性)’으로 다루어 왔으나 언어학의 연구 대상과 인식 개념을 다루는 분과 학문, 특히 자연 세계의 자연물·인공물과 그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분과 학문은 집중하여야 하는 바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³⁷⁾

2.2.3. 형태 요소와 의미 요소

지명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형태 요소와 의미 요소는 모두 언어 영역에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의미 요소는 의미론과 어휘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④로 요약된다. 형태 요소는 형태소의 선택과 형태 구조를 포괄하여 형태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⑤와 음성학과 음운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표현 음성형 ⑥을 포괄한다.

앞서 살펴본 〈그림 1〉의 ‘뽕그리~방길리’는 단일한 의미 ④에 대하여 [뽕그리], [봉그리], [빙기리]처럼 ⑥을 자음이나 모음을 고정하지 않고(혹은 못하고) 사용하는 사례였다. 이런 표현 음성형을 지각하고 형태 구조로 ‘뽕글이’나 ‘뽕그리’를 추정하기도 하고, ‘봉길리’와 같은 형태 표현을 정착시키기도 하였다.

동일한 하나의 지리 요소에 대하여 여러 이름이 있는 현상을 ‘복수 지명’(박 병철 1996, 김 정태 2014ㄴ)이라고 한다. 복수 지명에 대한 논의는 어휘론적으로도 한자어와 고유어를 대상으로 점검되기도 하고, 발생 원인을 특정하여 사회 문화적 요인을 추적하거나 언어적 요인을 찾기도 하였다. 하나의 어휘적 개념이 둘 이상의 동의적 형태로 실현되는 현상은 ‘동의 중복 현상’으로 다루어졌다(조 항범 2006).

3. 지명 탐구의 몇 문제

이 장에서는 지명을 연구하는 데서 제기되어 왔거나 탐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37) “지명(地名)의 유연성(有緣性)이란 지명이 발생한 근거가 되는 특정한 사실과 현상이 지명에 함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언어(기호)의 형식(기표)과 내용(의)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이다.”(김 순배·류 제헌 2008: 614-615 미주 5)의 ‘유연성’ 정의는 본 발표의 동기화를 뜻한다. ‘깊은 증골, 진 증골’ 대신 ‘큰 증골’이 선택된 현상은 언어 영역에서 다룰 일이고 자의성(arbitrariness)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현상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런 현상이 ⑤와 ④ 사이에서 벌어지는 언어학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언어학적 지명 연구가 지리학·역사학의 참여가 필연적인 것은 ‘사용’되는 기호로서 지명은 ②③④의 관계가 암시적·함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언어 기호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은 ⑥-④의 관련성을 언어학적으로 투명성 여부로 다루기로 한다. 형식과 내용의 관련이 자연물·인공물①에 내재된 속성 때문이라면 이때의 관련성은 ③과의 관련성(동기화)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풍수지리와 관련한 지명(‘잠두’, ‘베들봉’)은 ③의 인식 개념과 ④의 어휘 의미(개념)이 지명 해석의 요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3.1. 고유명으로서 지명은 의미를 가지는가?

고유명에 의미가 있는지는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다. ‘뽕그리’가 ‘뽕글 휘돈다’, 곧 ‘뽕글 휘도는 곳’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명칭이므로 해당 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게 유의미 가설의 입장이다. 한편, ‘뽕그리’가 ‘뽕글 휘돈다’는 의미를 가지는 까닭에 해당 구역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라면 ‘방길리’로 정착돼 있는 행정명은 ‘방길’이 무슨 뜻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뜻이어야 할 것이고, ‘뽕그리, 봉그리, 빙기리, 방길리’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명칭이어야 같은 곳을 나타낼 것이라는 게 무의미 가설의 입장이 될 것이다.

지명 사용과 탐구가 모두 음성형(⑥)과 물리적 자연물·인공물(①)을 지각하여 집적함으로써 개념과 어휘를 추적하는 과정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지명의 음성형(형식)과 물리적 자연물·인공물은 서로 직접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지명형을 언어 형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음성형이 지형 개념을 이원적으로 결부하여 갖지도 못한다. 음성형은 의미적 대상으로서 어휘(④)를 나타내는 것이지, 물리적 자연물·인공물(①)의 인식 개념(②③)을 직접 나타낸다고도 할 수 없다.

고유명으로서 지명은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물리적 자연물·인공물(①)과는 간접적 관계만을 갖는다. 지명에 사용된 어휘가 나타내는 것도 물리적 자연물·인공물(①)을 인식한 개념(②③)일 뿐이다.³⁸⁾ 지명이 생산되는 과정(명명)에서는 ①~⑥의 전 과정이 상관성을 가지고 동기화(motivation)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지명이 생산되는 과정보다는 유포되어 통용되는 사용 과정 중이고, 탐구의 대상으로서 채집되는 지명이란 대개 사용되는 지명뿐이므로, 기호(④⑤⑥)가 지칭 대상에 대한 개념(②③)과 동기화가 되어 있을 필연성은 가지지 못한다.³⁹⁾

지명은 고유명 중에서도 이름을 갖게 되는 대상으로서 물리적 자연물·인공물(①)을 꾸준히 면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연물·인공물에 대한 명명적 관점과 유사한 직관적 개념화(②③)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고유명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지명은 공시적으로도 지명 표현이 지리적 자연물·인공물과 그 개념화된 내용, 그 개념을 언어화한 어휘적 개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38) 고유명이 사물을 지시(refer to)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지시한다는 논의는 무의미설의 주장으로서 명칭의 외연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런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Port-Royal이라고 하는데, 『Grammaire』(II, 3), 『Logique』(I, 6)에서 고유명은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며, 이 개념이 하나인 대상을 나타낸다(represent)고 설명하였다. 이후 존 스튜어트 밀은 ‘다트머스(the city of Dartmouth)’를 예로 들어 도시의 변화와 행정 구역의 변화로 지명이 본래 가리켰던 의미 요소가 변질됨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무리 없이 사용됨을 들어 지명이 외연과 연결될 뿐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39) 고유명의 무의미 가설을 우리는 이 ‘동기화’가 필연적이지 않은 속성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점검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공시적으로 계속해서 반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명 가운데 공시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시성은 인명과 같은 다른 고유명에서도 확인되는 일이며, 오히려 명명 대상이 되는 자연물·인공물(①)과 이를 인식한 개념(②③)의 관계, 그리고 개념을 언어화한 어휘 개념(④)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찰될 수 있어서라기보다 이들의 관계가 동기화되는지 모색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⁴⁰⁾

지명이 지리 요소로서 자연물(인공물)을 기술해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표현 어휘가 지명 인식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해 주느냐에 요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명이 도상성을 보인다면 그것은 지명 표현 어휘가 지리 요소로서 자연물(인공물)에 대해서 갖는 게 아니라 그 자연물을 인식한 개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⁴¹⁾

이런 의미에서 대상을 반드시 지명하도록 확정적인 기술(definite description)⁴²⁾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지리 요소 인식 개념과 표현 어휘의 도상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확정적 지시는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지명이 대상을 틀림없이 엄밀하게 지시하게 되는 것(rigid designation)은 사용의 문제로 이해할 문제로 보아야 한다.

3.2. 지명은 명명되는가?: 명명과 사용

지명은 명명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고유명으로서 일정한 지역 공동체에서 공준이 되어 사용된다. 그런데 사용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지명은 명명 과정을 동일하게 밟아야 하는 게 아니며 따라서 명명 과정에서 구축되었거나 참조된 정보가 확정적으로 개입하지도 않는다.⁴³⁾

지명의 형성 과정은 지명 형성 요소가 물리적 자연물·인공물 > 지형 인식 > 지

40) 지명은 지리적 자연물·인공물을 직접 면식(direct acquaintance)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시(refer to)한다는 점은 어느 고유명과 같다. 그러나 직접 지시로 대상을 묘사하느냐보다 그 인식 개념과 표현 어휘의 관계를 살펴야 하는 것이 지명 탐구에서 살펴야 할 문제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본다.

41) 지명 표현 어휘 ‘뽕굴’이 나타내는 게 ‘일정 구역의 지리적 자연물’이 아니라 ‘개념’ 단위로 분할된 ‘구역’이고 그 구역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파악된 개념’인지는 결국 표현 어휘의 의미로부터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의 순환성을 가진다. 그러나 적어도 본 발표에서 확인하는 지명의 표현 어휘와 그 어휘로 나타내는 대상의 관계는 ‘어휘 (개념/의미)’와 ‘지리 요소를 인식한 개념’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42) 존 설(1969: 162~174)와 크립키(1972)에서 최대 유의미 가설을 바탕으로 고유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서도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추정하 바 있다.

43) “명사가, 한번 적용되면, 사고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된다.”(존 스튜어트 밀, A System of Logic. 5 쪽, 김 요한 2004에서 재인용)는 언명은 고유명도 지시(designation)만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지명은 고유명으로서 명명 과정을 거쳐 생겨나므로 ‘지시’만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을 통해 습득된 지명은 ⑥을 재현함으로써 ①을 지시하는 기능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호의 사용 목적이 완수된다. 따라서 기호가 지시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명명 과정을 제외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명 어휘 > 표현 음성형의 순서로 구현된다. 지명은 인간이 대상을 접하기 전부터 존재하므로 (27)이 어느 것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명은 이 물리적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인식한 대로 범위와 개념을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나타낼 어휘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음성형이 확인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지명이 형성되는 명명 과정이다.

그러나 지명은 명명 과정보다는 통용(사용) 과정을 통하여 습득하고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명은 명명의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며 따라서 대개는 명명의 사연이나 근거도 확인하기 어렵다. 지명이 통용되고 사용되는 맥락은 ①의 물리적 자연물·인공물과, ⑥ 음성형을 오감으로 접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②③ 지형 인식과 ④⑤의 지명 표현을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명칭으로서 지명을 이해하게 된다.⁴⁴⁾

국어학과 같은 지명 연구 방법은 ⑥을 바탕으로 ⑤를 추출하고, 지명과 관련하여 수집한 ③④와 ② 정보를 통해 ①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대체로 사용 과정과 유사한 연구 방법이다. 이는 지명(toponym)에 담긴 정보를 해석하는 지명 해석을 담당하는 지명학(toponymy)이라고 할 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명명의 과정을 통해서 지명을 이해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은 ②③을 인식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개념이 언어화하는 데 어떤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살핀다. 대개 지리학이나 민속학, 역사학에서 지명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지명 해석론과 함께 ②③을 사실적 정보로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의 연구는 명명의 과정을 짚어나간다는 점에서 명명학(onomastics)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3.3. 지명은 언어학의 대상인가?: 언어학적 연구 방법과 비언어학적 협제

지명이 언어학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함께 있어왔다. Harweg (1992)과 같은 논의가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견해에 속하지만, 대개는 Gary-Prieur(1994: 247), Langendonck(2007)처럼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본다. 다만 지명학은 명명학인 onomastics로서 일반 언어학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야라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Nicolaisen 1995, Šrámek 1991).

본 발표에서는 지명학적 연구 방법과 명명학적 연구 방법에 모두 언어학적 연구가

44) 지명의 통용에서 ①의 물리적 자연물·인공물을 ⑥의 음성형과 연결짓는 것만으로 일상의 필수적 사용에는 무리가 없다. 이는 사람을 만나 그 이름을 듣고 부르면서도 그 이름이 어떤 뜻의 어떤 어휘로 된 것인지, 심지어 이름을 어떻게 글씨로 쓰는지를 알지 못해도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

개입하는 게 가능하지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지명 연구는 기호로 소통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그 첫째는 형태 단위로서 지명(⑤, ⑥)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표현이 나타내는 바(③, ④)를 추적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연구 방법이다. 이 연구 방법은 명칭을 확인하고 이를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기호로서 언어에서 추적되는 언어학적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기호로서 지명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 지명학(Toponymy)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는 명칭론(onomastics)의 하위 분야가 된다.

두 번째 연구 방법은 지리 개념이 언어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지명 연구 방법이다. 이는 고유명이 부여되는 특수성을 중심으로 명명학의 하위 연구 분야가 된다. 이 분야는 명명론(命名論)에서 연구한다고 이해한다.

논리적으로는 ‘명명론’의 입장에서라야 명칭과 개념의 ‘유연성’⁴⁵⁾이 정당하게 판단된다. 명칭론에서는 사용자들이 경험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유연성을 증언하더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인 사고일 뿐, 두 방법론이 실제로 구분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명론적 고유명 연구와 해석론적 고유명 연구는 입장을 구분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두고 지명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언어학에서 집중하여야 할 지명 구성 요소로 ⑥표현 음성형, ⑤형태 정보, ④어휘 개념(의미)를 들었다. 지명이 주로 집중하게 되는 분야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②인식된 대상, ③유형·특징 인식이나 ①자연·인공물이 지명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①~⑥의 전 과정이 연구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언어학에서 다루게 되는 지명 연구 분야는 ④~⑥의 속성과 상관관계를 다루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지명 연구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주목하여야 할 구성 요소와 관계는 ①~③에 있음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3.4. 지명은 누구의 언어 의식을 반영하는가?: 공동체 기반의 지명 연구

언어학적 지명 연구가 진행된다면 지명은 어떤 언어 능력과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인가?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지명 분류 방식으로 ‘대지명,

45) 지명과 지리적 대상의 유연성 연구는 지명의 어휘적 연구나 의미 연구에서 주목한다(박 병철 2017: 45-47). 그러나 대개의 어휘 연구나 의미 연구에서 ‘유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찾기가 어려운 대신 어휘와 지리 요소를 연결짓는 연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조 성욱 2015), 이 부분의 연구는 명명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즉 언어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 개념 영역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하는 분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는 지리 요소와 언어 요소를 연결짓는 연구 분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크게는 명명론의 연구 분야로 치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중지명), 소지명'과 같은 분류 체계가 존재한다.⁴⁶⁾ 대지명은 통합 한국어(dia-Korean) 전체에서 유통되는 지명에 대응한다거나 소지명은 지역 공동체를 배경으로 사용된다거나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분류나 유형화가 어떻게 지명이 통용되고 알려지는 범위가 지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⁴⁷⁾

지명이 통용되고 알려지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면 지명의 언어학적 탐구도 그와 같은 범위를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다. 지명에 사용되는 언어 요소들도 따라서 지역 사회(공동체)의 언어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통합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 정보를 지명 연구를 통하여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지만(박병철 2017: 47), 이는 체계적인 언어 정보로서 지역사회의 지명 연구가 완수된 뒤에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지명어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지리적 한계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따라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명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발표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언어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으면 이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⁴⁸⁾

지명 연구의 성과가 사용되는 지역사회의 일반성을 벗어나게 정리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지명은 지역사회에서 소통될 수 있는 것이라야 의미가 있고, 지명 해석에서도 여러 정보가 지역사회의 언어 현상에 간섭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석의 가능성을 위해서도 소통의 요건을 위해서도 지명 연구가 방언 연구와 나란히 진행되는 연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명 정리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보이는 '지명 사전'과 같은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명의 표준화'(김기혁 2019: 106)로 제안되는 것이 자료의 수합 그 이후의 일이라는 하지만 소지명의 경우와 대지명의 경우에 어떤 원칙으로 '대표 지명'을 상정할 수 있을지는 언어학적 소명이 필요할 것이다. 지명의 언어 정보를 표제로 하는 사전에서도 지명은 '지역 정보'를 한정적으로 가지고, 해당 지역이 사용의 본질을 담보하는 정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⁴⁹⁾

46) 이런 분류 방식은 이를 테면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ms/nmfpcInfo/nmfpcBeffat.do>)의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과 같은 분류 방식과 유사할 것이지만, 그 명확한 구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소지명'은 김 준영(1998)의 용어이다.

47) 김 연옥(1986)은 현지 조사가 표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지도(1:50,000)에 기록된 지명을 조사한 문헌 연구이다. 그러나 이렇게 조사된 지명을 대상으로 지역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구름[雲]'계 지명을 제외하면 지역적 분포가 눈에 띄게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개념 영역의 지명 분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48)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명어 대조 연구는 대조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지역사회(공동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유의미하게 설정됨으로써 연구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즉 대조의 변인이 비언어적 요인(①②③)이면 지명어 대조이기는 하나 연구의 성과는 비언어적 요인을 해명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대조의 변인이 언어적 요인(④⑤⑥)이면 대조 연구의 성과는 언어적 요인을 해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9) 이런 점에서 “표준화와 다양성”은 사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형식과 지방의 지역성(locality)이 함께 담겨야 함을 의미한다.”(김 기혁 2019: 141)는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명 연구가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음 두 가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을 짚어두고자 한다. 그 하나는 소통의 영역에 걸맞은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현장 조사에서는 발표문에 제시한 1:200 정도의 지도가 현장 체보자들의 지명 분간에 필요한 가장 큰 지도였다. 이보다 더 축소 한 지도로는 현장 조사가 어려웠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지명을 유통하는 현장성이 이런 크기를 배경으로 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인구 변동(demography)도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다.



〈그림 4〉 무주군과 부남면의 인구 변동

〈그림 4〉는 무주군과 부남면의 인구 총조사 결과를 보인 것이다. “지방과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인해 마을과 함께 지명의 소멸이 진행 중에 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지명도 없어지기 때문이다.”(김 기혁 2019 : 140)는 우려는 현지 조사에서 공동체의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9년 현재 90대에게 소지명 단위가 실 천적 경험의 장소라면 80대에게는 관찰적 경험의 장소에 불과하며 70대에게는 전언 의 현장성이 구체적 장소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체보의 최소 요건을 갖추고 있다. 60 대 이하에게는 풍문으로 들은 지명이 장소와 부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 태이다. 이들이 생활 공간으로 현장을 누렸던 시기를 감안하면 지명이 체득되는 시 기가 30대를 넘어서는 시기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5. 지명은 문헌학적 연구의 대상인가? : 지명어의 자료

실현하기 어렵기는 하나 지명 자료는 현장 조사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찍이 김 영태(1983)에서부터 지명 연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김 종혁(2006),

김 순배(2011)처럼 비언어학적 연구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데 주목하는 것은 특히 ①~③의 정보를 종합하기 위한 탐구 태도라고 판단된다. 언어학적 입장에서 김 영태(1983) 이후로도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대표적으로 성 희제 2006), 그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김 정태 2014ㄱ, Taylor 2016).

국어 연구에서도 지명이 국어사와 같은 역사적 언어 정보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도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조사된 지명 자료보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명이 더 많았던 2019년 발표자의 경험이 무주군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명 정보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라야 지형과 생활 등의 여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지명의 유래에 대한 체보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점도 지나칠 수 없는 장점이라고 판단된다.

4. 요약 및 남은 문제

(생략)

〈참고 문헌〉

- 김 규남 외(2020), 2019년도 무주의 옛 지명 조사에 따른 학술 연구 용역 제1차 결과 보고서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원고.
- 김 기혁(2019), ‘한국의 지명사전 편찬 동향과 지향점’, 『민족문화연구』 8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03~145쪽.
- 김 성렬(1999), ‘지명어의 유연성 연구’, 『국어교육』 100. 249~277쪽.
- 김 순배·류 제현(2008),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43-4. 599~619쪽.
- 김 양진(2014), ‘지명 연구의 어휘사적 의의’, 『지명학』 21. 79~121쪽.
- 김 연옥(1986),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4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 259~290쪽.
- 김 정남(2007), ‘의미 투명성과 관련한 국어의 제 현상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2. 1~23쪽.
- 김 정태(2014ㄱ), ‘지명어의 연구방법론 서설’, 『충청문화연구』 12. 33~48쪽.
- 김 정태(2014ㄴ), ‘복수지명에 대하여’, 『어문학』 125. 27~47쪽.

- 김 종혁(2006), '한국 지명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분석과 발전 방향', 『한국지도학회지』 6:1, 47~59쪽.
- 김 준영(1998), '한국 소지명의 어원', 『지명학』 1, 13~34쪽.
- 도 수희(1994), '지명 연구의 새로운 인식', 『새국어생활』 4:1, 3~27쪽.
- 박 병철(2017), '조사자료 지명을 대상으로 한 언어학적 연구 성과와 과제', 『지명학』 27, 35~86쪽.
- 성 회제(2006), '지명어의 구성', 『지명학』 12, 129~156쪽.
- 이 돈주(1971), '지명어의 소재와 그 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지명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한글학회.
- 이 동혁 · 이 종열(2007), '고유명사의 비유적 의미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3, 133~159쪽.
- 이 용주(1976), '한국지명의 의미론적 유연성에 관한 연구', 『사대논총』 14.
- 이 용주(1977), '충청북도 소재 하천명에 대하여', 『국어교육』 30
- 이 찬규(2008), '의미 형성의 기반이 되는 유연성 원리로서의 배의성', 『한국어학』 38, 269~206쪽.
- 이 철수(1982), '지명언어학연구서설(I): 지명언어학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6~65쪽.
- 임 영희(1977), 한국자연지명의 의미론적 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의 자연 지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 황 경자(1994), '쏘쉬르의 CLG에 나타난 상징적 유연성(有緣性)', 『한국문화연구원논총』 64.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55~238쪽.
- Harweg, Roland. 1992. Are there, from a Semantic Point of View, Proper Names Based on Mass-Names?, In Maxim I. Stamenov ed. Current Advances in Semantic Theor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pp. 445~454.
- Langendonck, Willy Van. 2007. Theory and Typology of Proper Name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Taylor, Simon. 2016. Methodologies in Place-name Research. In Carole Hough ed. The Oxford Handbook of Names and Nam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 69~86.
- Willems, Klaas. 2000. Form, meaning, and reference in natural language: A Phenomenological account of proper names. Onoma 35, 85~119.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지명 분야/ 연구 발표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명어의 의의*

한 주희

충남대학교 강사
wsks1@hanmail.net

1. 서론

국어의 단어형성 체계는 분석과 형성의 관점으로 나뉜다. 단어의 내적구조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과 파생으로 이분하는 것이 분석이고, 국어 자료의 검토를 통해 단어형성의 절차적 과정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형성이다. 분석을 중시하는 분야는 주로 구조주의 문법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현배(1937)의 전통문법과 소쉬르의 구조주의 문법의 맥락을 따르고 있다.

형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생성문법과 인지문법의 영향 아래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화자의 능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단어의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의 형성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형성의 관점에서 국어의 단어형성 체계는 합성과 파생의 이분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합성과 파생은 단어의 내적 구조에 따른 단어 분류법의 결과물을 반영한 용어

* 이 발표문은 세종 국어학 학술대회를 기념하여 지명어를 일반언어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다. 특히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지명어를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출자의 기존 연구를 재편집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다. 여기에서의 합성은 이미 존재하는 단어나 어근을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고, 파생은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와 합성어가 하고, 이들의 상위개념으로서 복합어가 있다.

지명어 역시 일반 언어학의 단어 형성 범주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이다. 지명어의 형태는 단일어와 복합어¹⁾로 나눌 수 있다. 복합어로서의 지명어는 단어 형성 기제와 결과로서의 의미 합성성 여부를 연구하는 데 의미있는 자료가 된다. 나아가 지명어는 합성과 파생의 과정과 달리 통사적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 통사적 구조가 단어가 되는 예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명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거론되고, 기억에 오랫동안 남기 위하여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물론 한자어로 이자 지명화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전래지명 속에는 우리말의 단어형성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이한 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언어학의 설명적 타당성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통사적 구성을 나타내는 지명어의 형성과정과 작용 기제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한국지명 연구의 시초는 일본인 학자에서 비롯되었다. 新村出(1916)을 비롯한 金澤庄三郎(1910, 1912), 白鳥庫吉(1895-96, 1905-06), 內藤湖南(1907), 前間恭作(1925), 三品彰英(1935) 등이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1-4)의 고지명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국어학적 논증이라기 보다는 직관에 의지한 측면이 많다.²⁾ 일찍이 최 현배(1966)는 『한국지명총람』 1(서문)에서 “지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보다 일찍이 이 회승(1932:46-49)에서 강조한 “지명 연구의 필요성”도 있다. 이후, 지명어 연구는 주로 음운론적 측면과 형태론적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지명어의 형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부와 후부의 명칭과 형태소 분석, 후부 지명소의 의미 관한 것이었다. 한국 지명은 [전부+후부]의 구성을 갖는데, 이 전부와 후부에 오는 형태들에 대하여 ‘요소’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신 경순 1975, 이 철수 1982, 강 병륜 1990ㄷ, 심 여택 1972), ‘형태소’라는 말을 붙이거나(김 형주 1981) 지명형태소의 준말로써 ‘지명소’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였다(도 수희 1997, 1999ㄱ).

그런데 일반 언어와 달리 지명어는 주로 복합어 즉 합성이나 파생에 의한 형태를

1) 합성이 아니라 복합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어나 어근이 아닌 다른 범주 예컨대, 종결어미, 어간 등이 결합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2) 강 병륜(1998:219, 2007:91)에서 “地名語 研究는 1932년 李熙昇(1932:47-49)이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50여년을 거치는 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와 같이 주장하였다.

보이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단일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도 존재한다고 하나 무표지(∅) 후부 지명소를 고려한다면 지명어의 단일어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일찍이 신 경순(1977)은 지명을 구성하고 있는 지명 내부의 각 형태소를 분석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입장에서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돈주(1965)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던 단일어로 된 지명어의 예를 7개 들었고, 파생어에서 ‘접사+어근’의 내부구조를 갖고 있는 지명의 예를 6개 든 후 그 용례가 많지 않다고 하였으며, ‘접사+어근+접사’로 된 지명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합성어에서 ‘접사+복합명사’의 지명 예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음은 일반 언어와 다른 특징이라 하였다.

그러나 성 희제(2006, 2007)는 지명의 후부지명소 목록 설정에 무표지 후부지명소-∅를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날근이’[마을]이란 지명이 있을 때 ‘-이’를 후부로 보지 않는다면 ‘날근이’ 전체가 전부가 되어 후부가 비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후부는 그냥 빈 것이 아니라 무표지 후부지명소가 잠재해서 후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김 정태(2006, 2007)로 이어져 무표지 후부지명소 설정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충남 지명 중 바위를 지칭하는 지명을 대상으로 하여 후부지명소 ‘바위’는 형태에 있어서 ‘바위~바우~배~바’ 형과 무표지 형 ‘-∅’ 등의 교체형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의미론적인 동기에 따라서는 ‘돌~독~臺~여~嶼’ 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지명어의 형태에 대한 연구는 명칭, 의미 그리고 분석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다. 지명어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단어임을 고려한다면, 형성의 관점에서 지명어를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지명어는 형성의 과정에서도 작용기제와 의미 합성성 여부, 통사적 구성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에서 가치가 있다.

3. 단어 형성 기제와 의미 합성성

3.1. 유추와 규칙

단어 형성의 기제로 대표되는 개념으로는 ‘유추’와 ‘규칙’이 있다. ‘규칙’을 단어형성의 주요 기제로 보면서 ‘유추’를 일부 인정하는 견해로는 송 철의(1989/1992), 시 정곤(1994, 1999), 김 창섭(1994/1996) 황 화상(2010) 등이 있고, ‘유추’를 단어 형성의 주요 기제로 보면서 ‘규칙’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채 현식(1994, 1999, 2000), 구 본관(1998), 송 원용(1998, 2002), 최 형용(2003¹, 2003²), 이 광호(2005) 등이 있다.

물론 단어는 전통적으로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단어 형성의 공식성, 단어 형성 규칙의 심리적 실재성, 단어의 과생성 등과 관련한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추(analogy)로 단어 형성을 설명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단어 형성의 심리적 과정, 단어형성과 문장형성의 과정의 차이, 단어형성의 공식성과 통시성 등을 연구하는 일로 이어졌다.

유추는 계열관계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유사한 형태의 단어 형성의 기제로서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사모(노 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구성 요소의 머리글자를 따서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식은 유사한 형태의 단어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유사하다는 것이다. ‘박사모(박 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영사모(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따사모(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등은 최초의 단어로 볼 수 있는 ‘노사모’에서 의미와 형태를 유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황 화상2010:64).

그러나 모든 단어가 유추에 의해서만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어를 만드는 화자의 심리적 과정은 단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 화상(2010)에 따르면 ‘보리빵’은 ‘단 팔로 만든 빵을 단팔빵이라고 하니 보리빵으로 하자’라는 심리적 기제가 반드시 작동하여 ‘보리빵’이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단어는 그것을 만든 주체가 존재하고 명명의 필요성을 느껴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만든다. 즉 처음 ‘보리빵’을 만든 주체의 심리적 기제가 ‘단팔로 만든 빵을 단팔빵이라고 하니 보리빵으로 하자’가 아니다. ‘보리로 만든 빵이므로 보리빵으로 하자’일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계열관계 기반인 ‘유추’가 아니라 통합관계 기반인 ‘규칙’ 기제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단어의 형성은 유추 혹은 규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단어 형성 연구는 그것을 만든 주체의 심리적 과정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추에 기반한 단어형성을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규칙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규칙과 유추는 단어형성의 주요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명어 형성에서는 어떠한 기제가 작용하는 것인가? 대상물을 지시하고 기억하기 위한 인간의 인지 활동은 명사와 동사라는 두 품사 범주를 탄생시켰고, 시간과 공간의 범주 속에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의 지시 명칭이 지명인 것이다. 지명은 고유명사로서 우리말의 모습이 잘 녹아있고, 그것을 만든 최초의 주체가 단일 화자였다고 할지라도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우리말 화자들의 단어 형성에 관한 원시적 심리 기제를 잘 드러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 ㄱ. 갯바위~입암(충북 괴산군 소수면)-부락 뒷산에 갯처럼 생긴 갯바위가 있음.
- ㄴ. 갯바위~입암(경기 양주시 남면)-이 바위는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갯을 쓴 것 같다

고 하여 갯바위라 부름.

- ㄷ. 방갯산(경남 의령군 화정면)-산의 형세가 머리에 쓰는 상주용 갯을 닮은 데서 유래.
- ㄹ. 갯바위(충남 공주시 우성면)-갯을 쓴 모양의 바위가 있는 데서 유래.
- ㅁ. 갯바위~갯방우~관암(전남 영광군 백수읍)-신라 경순왕 시대에 건립한 석불 위에 갯이 씌워져 있는데서 유래.

위의 예를 보면 전국적으로 산발되어 ‘갯바위’가 지명으로 존재한다. 충북에서부터 경기도, 경남, 전남에 이르기까지 동일 형태로 비슷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 단어 형성의 기제를 규칙으로 보느냐 유추로 보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2)

- ㄱ. 이 마을은 갯 모양의 바위가 있으니 ‘갯바위’로 하자.
- ㄴ. 다른 지역에서 갯 모양의 바위가 있는 곳은 ‘갯바위’라고 하니 우리도 ‘갯바위’로 하자.

(2ㄱ)의 심리적 과정을 거쳐 ‘갯바위’를 만들었다면 ‘규칙’의 기제가 작용한 것이고, (2ㄴ)의 심리적 과정을 거쳤다면 ‘유추’의 기제가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명을 보고 유추하였다기보다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다른 단어를 보고 유추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갯골’이라든지 ‘갯등’과 같은 단어에서 말이다.

3.2. 의미 합성성

합성성의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ality)는 문장이나 구의 의미를 결정하는 합성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것을 주장한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프레게(Frege)의 원리라고도 한다. 프레게(Frege)는 분석 철학자이자 논리학자로서 합성성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3) 어떤 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성분들의 의미의 함수이고 그 구성성분들이 결합되는 의미의 방식이다³⁾

합성성의 원리는 두 집합 간의 함수관계로서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과 일대일 또는 일대다로 대응되는 관계이며 이는 통사구조의 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합성

3) 양 정석(2013:02)에서 재인용.

성의 원리를 표방하는 현대 의미 이론으로 형식 의미론과 개념 의미론이 있다.⁴⁾ 단어 혹은 문장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

ㄱ. 복합 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요소의 의미와 표현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⁵⁾

(The meaning of a complex expression is determined by the meaning of its constituents and by its structure)

ㄴ. 문법적으로 복합적인 형태의 의미는 그것의 문법적 구성요소들이 지닌 의미들의 합성적 함수이다.(Cruse 2000:67)

합성성은 수학적 방법을 연상하는 단순한 원리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현상에서는 합성성의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중의적 표현과 관용적 표현처럼 문장에서 통사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생성하거나, 부분의 합만으로는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 관용표현이 해당한다.

(5)

ㄱ. 영화가 새 영화를 시작했다..

ㄴ. 영화 배우인 영화가 새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

ㄴ'. 영화 제작자인 영화가 새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5ㄱ)은 맥락에 따라 (5ㄴ, ㄴ')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들의 통사구조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발화 상황이나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단어에서도 그 구성 요소의 합만으로는 그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6)처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6)의 호박 마차는 (6ㄴ) 외에도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요정이 호박에 마술을 부려서 만든 마차로도 해석 가능하다.

(6)

ㄱ. 호박마차

ㄴ. 호박같이 생긴 마차, 호박을 실은 마차, 호박이 그려진 마차, 호박으로 만든 마차
등등

4) 본고에서는 형식의미론과 개념의미론의 기본 원리 및 방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형식의미론은 '강한 합성성'을 제킨도프(R.Jackendoff)로 대표되는 개념의미론에서는 '약한 합성성'을 지향한다.

5) Szabó(2000:475)를 인용한 김 윤신(2013:02)에서 재인용.

관용 표현에서는 합성성의 원리가 더욱 애매해진다. (7)의 ‘미역국을 먹다’와 ‘손이 필요하다’는 맥락상 ‘시험에 떨어지다’와 ‘도움이 필요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7)

ㄱ.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다.

ㄴ. 잔치에는 손이 필요하다.

단어는 문장의 구성요소가 되어 문장의 의미를 결정한다. 단어가 복합어인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단어가 구성요소가 되는 문장 즉 복합 표현의 의미는 이를 구성하는 하위 단위에 근거해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다. 합성성의 예외로 보이는 언어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단어 혹은 문장의 의미는 그 구성요소에 근거해야 하나 맥락에 따라 추가되는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복합어의 의미가 비합성적임을 강조한다.

(8)

ㄱ. 단어에서의 의미 합성성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복합어를 형성하는 요소의 의미가 형성된 단어의 의미에 일정한 역할을 함에는 틀림이 없다.(황 화상2001:148)

ㄴ. ‘N-N’ 합성어 형성규칙의 경우 구성요소들의 의미만으로 규칙의 출력형의 의미가 합성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채 현식 2013:314)

이러한 현상은 지명어에도 나타난다. 동일한 형태의 지명어이거나 다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추가되는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 후부 지명소는 대개 마을의 의미를 가지는 ‘개, -고개, -골, -곶, -기, -달, -뜸, -마루, -말, -미, -바위, -부리, -불, -터’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그 형태와 의미가 다양한 전부 지명소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9)의 전부 지명소 ‘갯’의 의미가 ‘갯갯, 가장자리’ 등으로 좁혀진다고 할지라도 ‘갯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혹은 ‘갯 모양의 지형지물이 있는’ 이든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등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다. 물론 지명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전승되어온 고유어이므로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할지라도 그 유래가 의미가 되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복합어로서의 지명어의 의미는 형태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어 내적인 추론, 즉 추가된 의미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표 1〉 ‘갯’으로 시작하는 형태의 지명어의 의미

지명	분류	유래	위치
갯등	등	지형이 갯처럼 생겼다 함	경남 하동 청암 위태
갯등	등	새질내기 서쪽 가에 있는 등성이	경남 울주 상북 양등
갯뜸	마을	부서 가장 끝이 되는 마을	전북 부안 주산 동정
갯바구지	마을	바구지 서북쪽 가에 있는 마을	경북 문경 농암 사현
갯바래~입춘	마을	뒷산 모양이 샛갯같다 함	전북 남원 이백 과립
갯바산~입암산	산	상봉에 바위가 갯 모양임	충남 아산 인주 공세
갯박등~입전	마을	마을 앞 개울가에 갯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전북 고창 신림 신평
갯방두	마을	방두리 서남쪽 가에 있는 마을	전남 해남 현산 구산
갯방들	마을	갯을 만들었다 함	전남 이리 남중
갯밭등	등	용동에 사는 갯을 만드는 사람의 밭이 있었음	경남 고성 거류 신용

한편 추가된 해석의 의미를 동일 형태의 다른 지명에도 적용하여 원래 가진 지명의 의미가 훼손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팻거리’라는 지명은 ‘팥을 파는 거리’처럼 잘못 해석될 수도 있고, ‘술골’은 ‘소나무가 많은 마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지역의 밖에 형성된 마을’과 ‘좁은 모양의 마을’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실제로 도 수희(2009)는 충남 계룡시에 소재한 지명 ‘신도안(新都內)’과 ‘팻거리(豆磨)’의 어원을 추적한 논문으로서 이 두 지명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선후 질서로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문헌의 고증을 통해 ‘신도안’의 지역이 설정되고 ‘신도안’ 지명이 생성된 이후에 그 지역의 밖에 형성된 마을이란 데에서 ‘팻거리’가 유래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술’의 의미는 ‘소나무(松)’가 아니라 ‘좁다’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일반 언어학에서 단어의 의미 합성성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복합어를 형성하는 요소의 의미가 형성된 단어의 의미에 일정한 역할을 함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기술은 지명어에도 적용이 된다. 나아가 잘못 적용된 의미는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기도 한다는 것은 지명어가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전해온 지명에는 우리말 고유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명어에는 형태적 구성만이 아니라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것도 존재한다. 어느 면에서는 일반 단어에 비해 지명어의 범위 안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한주희(2016:25)에 따르면 〈지명총람〉, 〈지명유래집〉, 〈땅이름큰사전〉에 약 500여 개가 통사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는 다루

기 어려운 것들이다. 통사론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 구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지명어에 나타나는 통사적 구성 유형에 대해 이들의 형성 기제와 의미 합성성의 특징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4.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

단어의 형성방법은 합성이나 파생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명사의 합성과정은 명사, 관형사, 부사, 용언 어간, 용언의 활용형에 명사나 부사가 결합하는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뗏다방, 묻지마폭행’처럼 종결어미가 결합된 문장 단위에 명사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단어의 형성이 파생과 합성의 이분법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근 혹은 용언의 어간, 어간의 활용형이 되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이 결합한 형태에서도 단어의 형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명어 역시 이러한 예를 보이고 있다. ‘되받들, 가운데짚은골, 오지똥갈긴여, 물건네’ 등처럼 용언의 어간이나 활용형이 결합하여 지명어를 형성한 경우가 그것이다. 즉, 합성과 파생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지명어가 형성되는데 졸저(2016)에서는 이를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로 규정하고⁶⁾ 3분 체계로 지명어 형성 유형을 분석하였다. 합성과 파생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특이성을 보이는 통사적 구성만을 제시한다..

4.1. 전부 요소가 용언의 어간형인 경우

본고에서 예를 들고 있는 자료는 〈지명총람〉, 〈지명유래집〉, 〈땅이름큰사전〉에서 추출한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지명어로서 약 500여 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전부요소가 용언의 어간형으로 확인되는 지명어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용례는 중세국어에서 합성어 형성과정에서 생산적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명어의 이러한 구성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 용언 어간만이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 보다 생산적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지명어에 보이는 용례는 합성 명사의 경우까지를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주므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9)는 단일 용언 어간이 전부 요

6)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마음대로, 진실로’처럼 조사나 어미가 결합한 구성이 단어로 발전된 것 등을 설명하기 위해 박 진호(1994)는 ‘어휘화’라고 하였고, 김 창섭(1996)은 ‘구의 통사적 단어화’라 하였으며, 최 형용(2003)은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라고 하였다.

소로 오고 후부 요소가 결합한 용례를 보이는 지명어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으로 ‘떨-, 쪼-, 빠-, 울-, 넘-’이 확인된다.

(9)

- ㄱ. 떨배미-머지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경북 농암 선곡>
- ㄴ. 쪼소- 폭포 물 떨어지는 모양이 마치 방아를 쪼는 것과 같은 연못. <강원 인제 상남 김부>
- ㄷ. 빠섬-‘빠앗다’에서 유래. <충남 보령시 효자도리>
- ㄹ. 울바위-옛날 전염병이 창궐하여 한 집안에서 아홉 명이 죽어 장사를 치르고 오다가 서러워 바위에서 울었다는 유래. <충남 아산시 창암리>
- ㅁ. 넘골-배암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경남 밀양 송진리>
- ㅂ. 맞바위- 바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데서 유래. <충북 청주 용암동>

(10)은 ‘옴푹 패다, 닭이 울다, 솥을 굽다, 산을 넘다, 독을 넘다, 노루가 빠지다’의 문장에서 조사가 생략되고 다시 후부요소가 결합하여 지명어가 형성된 예로서 후부요소가 명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 통사적 구성이나 ‘패-, 울-, 굽-, 넘-, 빠지-’처럼 용언 어간만이 나타나고 있다.

(10)

- ㄱ. 옴패골-독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경북 영덕 축산 칠성>
- ㄴ. 닭울고개-닭이 울었다는 유래< 경북 예천 생천리>
- ㄷ. 솥굿새미- 솥을 구운 데서 유래<경남 밀양 감울리>
- ㄹ. 산넘안-가레리의 골짜기< 경남 밀양 가레리>
- ㅁ. 독넘고개-태봉에서 중산으로 넘어가는 고개<경남 밀양 삼대리>
- ㅂ. 노리빠지강정-노루가 빠져 죽은 개<경남 통영 추봉리>

4.2. 전부 요소가 용언의 활용형인 경우

용언의 활용형 중에서 단연코 많이 보이는 것은 관형사형이다. 절이나 구 구성에 관형사형이 결합하여 전부 요소가 되고 다시 후부요소인 명사가 결합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11)

- ㄱ. 머리언진바위- 머리를 얹은 것처럼 생긴 바위. <경남 산청 생초>

- ㄴ. 먼드래-멀리서 와서 농사를 짓는 들. <충북 중원 금가 원포>
- ㄷ. 불타진골짜- 불에 탄 골짜기. <전남 곡성 남양>
- ㄹ. 삭은다리-영평천에 있는 다리. <경기 포천 영중 영송>
- ㅁ. 소엿진바우-소가 엿어진 모양의 바위. <전남 진도 임회 백동>
- ㅂ. 물없는골-물이 드문 골짜기. <전북 순창 동계 내령>
- ㅅ. 막을모시-약 300년 전 복씨가 마을 앞에 큰 못을 파고 독을 막은 데서 유래. <충남 서산 신봉>
- ㅇ. 널블보-북쪽에 있는 보. <경남 합천 장대>

(11)의 용례가 보여주듯이 지명어가 통사적 구성으로 확장될 경우에 대부분은 절이나 구 혹은 단일한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다. 보통 ‘-(으)ㄴ, 는’의 형태를 보이나 일부에서는 (4ㅅ, ㅇ)처럼 ‘-(으)ㄹ’의 형태도 눈에 띈다. <지명총람>, <지명유래집>, <땅이름 큰사전>에서 약 500여 개의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지명어를 추출하여 확인한 결과 관형사형을 보이는 경우가 430여 개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명사형을 보이는 지명어의 예를 알아보자. 명사형 어미 ‘-(으)ㅁ, -기’의 형태가 용언 어간에 결합한 후 다시 후부요소와 결합하여 지명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다. (12)의 ‘떨어지기바위’나 ‘흘림골’은 ‘떨어지-, 흘러-’에 형태상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것이나 ‘흘림골’은 (12ㄴ)처럼 ‘흘린’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부분 관형사형의 형태를 보이다가 명사형의 형태로 전승되어 남아있는 것일 수 있다. 명사형은 관형사형 달리 500여 개의 자료 중에서 2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

- ㄱ. 흘림골-뒤의 절벽에서 물이 흘러내림. <충남 논산 두마 남선>
- ㄴ. 흘린논- 폭 빠져 있음. <전남 구례 광의 대산>
- ㄷ. 떨어지기바위-바위 두 개가 포개어져 떨어질 듯함. <경기 여주 주록>
- ㄹ. 어지럼굼탕이-벼락이 쳐서 어리럽다 함. <경남 창녕 유리>

지명어의 후부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재, 말, 고개, 바위, 다리, 이’등이 나타나지 않고, 의존명사인 ‘데’가 결합한 형태가 그대로 지명어가 된 경우이다. 이때 ‘데’는 ‘산, 들, 바위, 물, 골’등 다양한 의미를 보인다.

(13)

- ㄱ. 산태떨어진데. <전남 신안 가거도>

- ㄴ. 기픈데-. 〈경기 여주 광대〉
- ㄷ. 물내리쥬데-위의 벼랑에서 물이 떨어지는 바위. 〈경남 남해 선구〉
- ㄹ. 물맞는데- 구신머리 북쪽의 산. 〈경남 사천 자혜리〉
- ㅁ. 거는데- 건조한 들. 〈경기 용인 원산 죽릉〉
- ㅂ. 수랑빠진데-수렁이 많았음. 〈전남 신안 우이도〉
- ㅅ. 춘녀빠진데-춘녀가 빠져 죽은 등. 〈전남 신안 우이도〉
- ㅇ. 날쟁이새끼친데-. 〈전남 신안 재원〉
- ㅈ. 개가망치찍어묵은데-. 〈전남 신안 가거도〉

(13)을 보면 원시언어의 모습 그대로 지명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디언의 명명법에서 특정인의 행동과 성격적 특징을 반영하여 ‘늑대와 춤을, 주먹 쥔고 일어서’처럼 이름을 만드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인 전남 신안군 일대에 이러한 지명어가 보이는 것은 원시언어에서 단어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데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어의 형성이 문장 단위의 통사구조에서 형태론적 기제인 생략, 첨가, 대치, 교체, 삭감 등의 과정을 거쳐 단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단어의 형성은 공시성의 전제 아래 통시성을 함의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결어미가 결합하거나 연결어미가 결합하여 전부요소가 된 경우에는 ‘갈까말까골, 집너머, 물건너’ 등이 있었고, 조사가 결합한 형태로는 ‘집아페, 태밑에’처럼 부사격 조사 ‘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똥똥바구, 꼬덕바우’처럼 의태 부사가 그대로 전부요소가 된 것도 있었다. 또는 ‘낮은미륵’처럼 관형사구가 그대로 지명어가 되는 예도 확인할 수 있었다.

(14)

- ㄱ. 얹은미륵-길가에 얹은 미륵. 〈충북 영동 지봉〉
- ㄴ. 집너머-. 〈경기 김포 통진 가현〉
- ㄷ. 물건너-. 〈경북 봉화 화천〉
- ㄹ. 집아페-. 〈전남 화순 도암〉
- ㅁ. 태밑에골-. 〈경남 함양 상남〉
- ㅂ. 갈까말까골-어느 중이 여자를 탐하여 갈까말까 한 곳. 〈경남 함양 원산〉
- ㅅ. 똥똥바구-똥똥한 사람의 배 모양 바위. 〈경남 산천 방곡리〉
- ㅇ. 꼬덕바우- 바람이 불면 꼬덕거린다는 데서 유래. 〈충북 청주 용암동〉

4.3. 통사적 구성 지명어의 형성 기제와 의미 합성성

강 병륜(1990, 1994)에 따르면 충북 지방 지명어의 구조는 178개로 형태소의 수에 따라 나누면 한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M]형부터 여덟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M1+...+M8]까지(M1+...+M7은 나타나지 않음) 7개 유형으로 분류되고, 형태소의 일차적 결합에 따라 다시 하위분류하면 [M1+...+M3] 형이 2개 유형, [M1+...+M4] 형이 3개 유형, [M1+...+M5]형이 4개 유형, [M1+...+M6]형이 5개 유형, [M1+...+M8]형이 1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적게는 하나에서부터 많게는 8개까지의 형태소로 구성된 것이니 일반 단어에 비해 지명어의 구성은 특이하다고 할 만하다. 특히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지명어들까지 보이고 있다.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지명어는⁷⁾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형태론 차원의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구성들이다. 통사론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 구성이기 때문이다. 통사적 구성이긴 하나 의미의 합성성 즉 문장 의미로 설명 가능하지도 않다. 각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이 지명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로서 지역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서 관용 표현이 있다.

관용 표현 ‘미역국을 먹다’와 ‘김치국을 먹다’ 혹은 ‘국수를 먹다’는 각 성분의 의미 합으로 문장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고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를 합성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관용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관용 표현은 통사적 변형 절차를 겪어도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지명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5)

ㄱ. 영화가 맛있게 미역국을 먹었다.

ㄴ. 영화 엄마가 영화에게 바라는 건 그 남자를 만나 맛있게 국수를 먹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화 엄마가 먹은 것은 김치국이였다.

(15)의 ‘미역국을 먹다’ 와 ‘국수를 먹다’ 그리고 ‘김치국을 먹다(마시다)’라는 관용 표현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거나 분열문과 같은 통사적 변형을 거쳐도 그 관용적 의미가 어느 정도는 살아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는 어떤 통사론적 절차도 겪을 수 없고, 처음의 완전한 형식을 유지해야만 처음의 그

7)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에 관한 논의는 한 주희(2016:132-135)에서 약 500여개를 제시하였다. <지명총람>, <지명유래집>, <땅이름큰사전>에서 추출하여 그 구성을 확인한 결과 용언의 관형사형이 전부 지명소인 경우가 430여 개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용언의 어간, 연결어미형, 종결형까지를 포함하여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예는 이를 참조하길 바란다.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 이 제약은 관용표현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16)

- ㄱ. 술죽은장날(경남 산청 중산)-술이 많음.
- ㄴ. 수랑빠진데(전남 신안 우이도)-수렁이 많음.
- ㄷ. 소잡아먹은소(경기 여주 주록)-이곳에서 소를 잡아 먹었음.
- ㄹ. 늑수영감울고나온개(전남 신안 홍도)-지형이 좁고 곳곳에 바위굴이 뚫려 있는데 겁 많은 늑수영감이 들어갔다가 울면서 겨우 나왔다 함.
- ㅁ. 산태떨어진데. <전남 신안 가거도>
- ㅂ. 기픈데. <경기 여주 광대>
- ㅅ. 물내리쨌데-위의 벼랑에서 물이 떨어지는 바위. <경남 남해 선구>
- ㅇ. 물맞는데- 구신머리 북쪽의 산. <경남 사천 자혜리>
- ㅈ. 거는데- 건조한 들. <경기 용인 원산 죽룡>
- ㅊ. 수랑빠진데-수렁이 많았음. <전남 신안 우이도>
- ㅋ. 춘녀빠진데-춘녀가 빠져 죽은 등. <전남 신안 우이도>
- ㅌ. 날쟁이새끼친데. <전남 신안 재원>
- ㅍ. 개가망치찍어묵은데. <전남 신안 가거도>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의 경우 분열문 형성이나 도치, 대용화, 수식 등이 자유로운 반면 (16)의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원래의 고유 의미를 상실하고 지시 대상과 거리가 멀어진다. 통사적 변형 절차를 거친 (17)의 예들은 (16)의 지명어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ㄱ)에서 (ㄹ)까지는 각각 부사 수식, 대용화, 분열문의 통사적 변형을 거친 것들이다. 이후의 예들 역시 동일한 적용이다.

(17)

- ㄱ. 술이 아주 죽은 장날.
- ㄴ. 수랑 빠진 거기.
- ㄷ. 소를 잡아먹은 곳은 소이다.
- ㄹ. 늑수영감이 울고 나온 곳은 개다.
- ㅁ. 산태 떨어진 거기.
- ㅂ. 아주 기픈 거기.
- ㅅ. 물 빨리 내리쨌 곳이다.
- ㅇ. 물 맞는 곳이다.
- ㅈ. 거는 거기.

- ㄷ. 수렁에 깊이 빠진 데.
- ㄸ. 춘녀 빠진 거기.
- ㄹ. 날쟁이 새끼 많이 친 곳.
- ㅁ. 개가 망치 찍어 묵은 거기.

결과적으로 (16)의 지명어들은 통사적 구성이나 관용 표현과도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들은 관용표현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의 단위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통사적 구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형태론적 구성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형성 기제는 단어형성 기제의 하위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한 주희(2016:132)이 제시한 용언의 어간형이 결합한 특이한 형태의 통사적 구성을 나타내는 지명어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들 역시 통사적 변형 절차를 거친다면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므로 하나의 단어로 보아야 한다.

(18)

- ㄱ. 멀배미-머지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경북 농암 선곡>
- ㄴ. 찢소- 폭포 물 떨어지는 모양이 마치 방아를 찢는 것과 같은 데서 유래. <강원 인제 상남 김부>
- ㄷ. 빼섬-‘빼앗다’에서 유래. <충남 보령시 효자도리>
- ㄹ. 울바위-옛날 전염병이 창궐하여 한 집안에서 아홉 명이 죽어 장사를 치고 오다가 서러워 바위에서 울었다는 유래. <충남 아산시 창암리>
- ㅁ. 넘골-배암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경남 밀양 송진리>
- ㅂ. 맞바위- 바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데서 유래. <충북 청주 용암동>

그런데 형태론적 구성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해도 이들의 단어 형성 기제는 규칙과 유추가 아니라 다른 범주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단어라는 전통 문법의 관점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단어의 개념을 확장해 접근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단위 즉 어휘화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박진호(1994), 송원용(2002)에서 다룬 통사 원자, 규약화, 원자화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

- ㄱ. 어휘화란 어휘부 밖에 존재했던 요소가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이다. 어휘화는 원

자화와 규약화가 있다. 원자화는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는 현상이고, 규약화는 어휘부에서 공시적으로 만들어진 임시어가 화자의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이다.(박 진호 1994)

- ㄴ. 어휘화란 어휘부 밖에 존재했던 요소가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이다. 어휘화는 원자화와 규약화로 나뉜다. 원자화란 실제로 가능한 통사론적 구성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어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이다. 규약화란 통사론적 구성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고유명사나 자연종명이 의미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어휘부에 직접 등재되는 현상이다.(송 원용 2002)

단어의 목록이 들어있는 어휘부에는 형태론적 단어 형성 규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합성성의 원리에 의해 해석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등재될 수 있다. 즉 단순히 통사 성분의 결합만으로 지시 가능하거나 형성 규칙을 도출할 수도 없고, 또 유추의 기제를 적용할 수도 없다.

(19)의 기술에 따르면 통사적 구성을 형태론적 구성으로 어휘화하여 어휘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가능하다. 어휘화에는 (19ㄱ)처럼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는 원자화, 어휘부에서 공시적으로 만들어진 임시어가 등재되는 규약화로 나누어진다. 그렇다면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는 원자화인가? 아니면 규약화인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19ㄴ)을 살펴보면 ‘원자화란 실제로 가능한 통사론적 구성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어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이고, ‘규약화란 통사론적 구성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고유명사나 자연종명이 의미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어휘부에 직접 등재’되는 것이다. 고유명사나 자연종명은 특수한 목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지명어도 고유명사로서 자연종명과 같은 범주의 고유명사로서 한 개체 혹은 한 단위를 특별히 지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명사이다.

(20)

- ㄱ. 보통명사: 일정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
- ㄴ. 고유명사: 동일 속성을 가진 여러 대상 중에 한 개체 혹은 한 단위를 다른 것들과 특별히 구별해 지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명사.⁸⁾

(21)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형성된 자연종명이나 상품명으로 통사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8) 이 정택(2001)의 고유명사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이 홍식(2016:323)에서 재인용함.

(21)

- ㄱ. 너도밤나무, 작은주걱참나무노린재,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등.
- ㄴ. 은행잎 먹여 키운 닭이 낳은 알, 햇살담은 조림간장, 곱네치킨, 구어숯불갈비 등.

상업적 명명어와 관련한 연구에서 송 정근(2008:17)은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명명어들이 어휘부에 등재되는 것은 기존의 통사론적 구성이 어휘부에 등재되는 것과 다른 기제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존의 통사론적 구성이 어휘부에 등재되는 것은 화자들 사이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어 자연스럽게 어휘부에 등재된다면 이들은 그 형성 시기부터 의미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휘부에 바로 등재된 것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 형성 기제를 종합해 본다면, 애초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었으며 하나의 단어 자격으로 어휘화되었다. 어휘화의 과정은 재분석을 거친 규약화이다. 이들은 형태론적 단어 형성 범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통사론적 변형 과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미 합성성의 원리와의 거리가 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형태적 구성의 지명어는 단일어로서 규칙과 유추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만, 통사적 구성의 지명어는 ‘규약화에 의한 어휘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생략)

〈참고 문헌〉

- 강 병륜(1994a), “지명어의 어구성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고유지명을 중심으로-”, 『웅진어문학』 2, 웅진어문학회.
- 김 윤신(2013), 생성 어휘부 이론과 합성성 기제, 『한국어 의미학』 41, 한국어학회, 41~25.
- 김 정태(1996), “전래지명어와 방언의 상관성 고찰(1)”, 『한국언어문학』 37, 한국언어문학회.
- 김 정태(1997), “전래지명어와 방언의 상관성 고찰(2)”, 『어문연구』 9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 정태(2006a), “바위(岩) 소재 지명어의 명명 근거와 전부지명소(1)”, 『지명학』 12, 한국지명학회, 33~66.
- 김 정태(2006b), “마을(洞, 村)을 지시하는 전래지명어의 한자어화에 대하여: 천안 지역의 지명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3(3),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29~46.

- 김 정태(2007), “‘바위(岩)’ 소재 지명어의 명명 근거와 전부지명소(2)”, 『지명학』 13, 한국지명학회, 85~111.
- 도 수희(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 도 수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명 제정에 관한 제 문제”, 『지명학』 12, 한국지명학회, 69~89.
- 도 수희(2008), “마을 이름으로 본 대전 지역의 고유어”, 『대전문화』 17, 335~359.
- 도 수희(2009), “‘신도안(新都內)과 ‘팥거리’(豆磨)에 대하여”, 『지명학』 15, 한국지명학회, 89~107.
- 박 진호(1994),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 희제(2006a), “대전 서남부 지명어의 음운과 형태 연구”, 『어문연구』 52, 어문연구학회, 5~28.
- 성 희제(2006b), “지명어의 구성”, 『지명학』 12, 한국지명학회, 129~156.
- 성 희제(2007a), “전래지명어에 나타난 지명접미사 ‘-이’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63, 29~51.
- 성 희제(2007b), “무표지 후부지명소 〇에 대하여”, 『어문연구』 55, 5~30.
- 성 희제(2008), “후부지명소의 분포를 통한 지명어의 지역적 특성 연구”, 『어문연구』 58, 77~113.
- 성 희제(2010a), “지명어에 나타난 경음화 양상 고찰”,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 성 희제(2010b), “전래지명어의 후부지명소 설정 문제에 대하여”, 『지명학』 16, 한국지명학회.
- 송 정근(2008), “상업적 명명어의 단어 유형 체계 설정을 위하여”, 『우리말글』 42, 우리말글학회, 89~114.
- 송 원용(2002), “문장형 고유명의 형태론”,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277~294.
- 신 경순(1975), “소지명어의 명명 유연성의 유형에 관한 연구-제천군 지명을 대상으로-”, 『청주교대논문집』 12, 청주교대.
- 양 정석(2013), “개념의미론과 합성성”, 『한국어 의미학』 40, 한국언어학회, 1~41.
- 이 홍식(2016), “고유명사의 의미와 지시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0, 한국학중앙연구원, 307~334.
- 이 희승(1932), “地名 研究의 必要性”, 한글1-2, 한글학회, 46~48.
- 조 강봉(2008), “울릉도·독도의 지명 연구”, 『지명학』 14, 한국지명학회, 211~252.
- 정 한테로(2014), “단어 형성과 의미 합성성”,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언어학회, 263~289.
- 최 현배(1966), 『한국지명총람』 1(서울편), 한글학회.
- 한 주희(2016),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 『지명학』 24, 지명학회.
- 한 주희(2017), “지명어 형성기제와 의미 합성성”, 『지명학』 26, 지명학회.
- 황 화상(2010),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58, 국어학회, 61~285.
- 白鳥庫吉(1895-96), 「朝鮮古代地名考」, 史學雜誌 제6편 제10·11호, 제7편 제1호.
- 白鳥庫吉(1905-06), 「朝鮮城邑呼稱忽原義就」, 史學雜誌 제16편 제11호, 제17편 제1-3호.
- 金澤庄三郎(1910), 『日韓兩國語同系論』. 三省堂.

- 金澤庄三郎(1912), 「日鮮古代地名の研究」, 月刊 2-2. 朝鮮總督府.
- 內藤湖南(1907), 「日本滿洲交通略說上」, 叡山講演集.
- 前間恭作(1925), 「三韓古地名考補正」, 史學雜誌 第36篇 第7號.
- 新村出(1916), 「國語及び朝鮮語の數詞について」, 藝文 7-2~4. 東方言語誌 叢考, 言葉の歴史
等所收.
- 三品彰英(1935), 「久麻那利考(上·下)」, 青丘學叢, 19~20.
- Nida, E. A.(1949), Morphology, Michigan.
- Szabo, Z. G.(2000), Compositionality as supervenience, Linguistics and Philosophy 23,
475~505.

일반/ 연구 발표

동춘당 송준길가 인간의 부사 연구 / 이 금영

역대 문법 교과서의 ‘-음, -기’ 명사화

—명사형 어미와 명사절/체언절을 중심으로— / 김 건희

불필요한 외국어 줄이기 방안을 위한 고유어 연구 / 곽 은희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일반/ 연구 발표

동춘당 송준길가 인간의 부사 연구

이 금영

충남대학교 교수
kumyounglee@cnu.ac.kr

1. 서론

본 연구는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에 나타나는 부사 중 주로 현대 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부사를 중심으로 근대 국어 부사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통시적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송준길가 소장 한글 간찰 건수는 모두 427건으로, 지금까지 주해 작업이 이루어진 간찰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한 성첩본 『先世言牘』40건과 낱장 편지 96건 도합 136건에 불과하다.¹⁾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아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송준길가의 미주해본 한글 간찰 291건 중 247편에 해당된다.²⁾ 이들 간찰은 대략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일상 언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에 나타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 국어학적 고찰은 미주해본뿐 아니라 이미 주

1) 송준길가 소장 한글 편지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문 희순(2017) 참조.

2) 이 247편은 충남대학교에서 구성한 한글간찰 판독 모임인 ‘언독회’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차 판독을 마치고 이차 판독을 진행한 자료들에 해당한다. 언독회의 주축인 김 경순, 문 희순, 김 정태 선생님을 비롯한 언독회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문장에 판독과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둔다.

해 작업이 이루어진 간찰을 포함하여 김주필(2011), 김진수(2013), 김성옥(2017), 김성옥·김정태(2015), 박부자(2014) 등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표 1〉 연구 대상 한글 간찰 목록³⁾

번호	발신자(인물 정보, 생몰년, 발신일)	MF 번호
1	송병하(1646~1697)	1075-7, 1078
2	안정나씨(송병하 부인, 1647~1737)	1079-80
3	송병하 딸(조준명 부인, 1677~?)	1054, 1056-9, 1060-1
4	여흥민씨(송익흠 부인, 1709~1770)	1092-3, 1101
5	함양여씨(송기연 부인, 1725~1776)	878-80, 882-5, 887-92, 894, 896-7, 900-2, 904, 906-19, 1099-1100
6	송기연(1727~1749)	1081-3, 1096, 1106
7	송요화의 손녀(이득 부인, 1743?)	1085
8	청송심씨(송계래 부인, 1747~1814)	923, 927-8, 931, 1094
9	송계래(1748~1799)	908, 920
10	송규희(송계래 아들, 1769~1819)	992-3
11	청풍김씨(송규희 부인, 1769~1823)	924, 934, 936-958, 961-90, 994-1000, 1002-3, 1011
12	연안이씨(송영로 부인, 1804~1860)	1007-10, 1012-35
13	양주조씨(송교순 이모, 18~?)	1065-6, 1130, 1137, 1142, 1144-5, 1151, 1173, 1182, 1198-9, 1204, 1206
14	송종렬의 딸(1840~1889) 또는 송중휘의 딸(1842~1918)	1117
15	송종오의 딸(김홍규 부인, ?)	1164, 1202
16	송종오의 딸(김규명 부인, 1858~1944)	1063, 1127, 1146-50, 1152-6, 1158, 1167-9, 1172, 1175-81, 1186, 1188-9, 1191, 1205, 1207-9
17	청풍김씨(송도순(1858~?) 부인, ?)	1123, 1125-6
18	송도순의 딸(권은상 부인, ?)	1189-90, 1193
19	송내빈(1890~1957)의 장모 권(權)씨	1139
20	송교순의 딸(윤전 부인, 1894~?)	1124, 1140-1, 1194-6, 1200
21	송교순의 딸 중 윤전 부인(1894~?) 또는 이우영 부인(1900~1985)	1140
22	박씨(대고모, 계사 삼월 십삼일)	1070
23	미상(표종숙, 갑오 이월 초오야)	1071
24	미상(장모, 을축 윤월 십삼일)	888, 886
25	미상(종자부, 임신 첫달 스무이레날)	1104
26	미상(손부, 계유 원월 초이튿날)	1103
27	미상(손부, 계유 십월 초 나흔날)	1086
28	미상(종자부, 임오 구월 스무이튿날)	1102
29	미상(숙모, 병술 삼월 초일)	1098
30	미상(언니, 을미 삼월 회일)	1064
31	정낭선(?, 무술 윤삼월 십일일)	1192
32	미상(이모, 경술 구월 십팔일)	1066
33	미상	991, 1001, 1067-8, 1084, 1087-8, 1105, 1171, 1203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들 간찰에 나타나는 부사 중에 현대 국어의 부사와 형태 또는 통사,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사,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와 소 강춘 외(2001)의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SynKDP), 『필사본 고어대사전』, 『교학 고어사전』, 『이조어사전』,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17세기 국어사전』 등을 검토하여 동춘당 송준길가 미주해본 언간에 나타나는 부사가 그 외의 문헌 자료에서 통시적으로 사용된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형태적 차이를 나타내는 부사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사⁴⁾는 크게 접미사 결합형 부사와 어근형 부사로 나뉜다. 전자는 대응하는 현대 국어 부사와 달리 용언이나 부사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가 부사로 사용된 경우이고, 후자는 그 반대로 접미사가 탈락된 어근형이 부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2.1. 접미사 결합형 부사

- (1) ㄱ. 요스이 도히 인논가(MF 1084) / 조심하여 도히 디내고(MF 914)
 ㄴ. 도려님괴셔도 마다 하 므이 알스오시니(MF 962) / 제 안히를 므이
 무던이 녀이니(MF 1094) / 낙상을 호오셔 마이 고싱히시다 호오니
 (MF 1158)
 ㄴ'. 甚痛 므이 알타<몽어유해補 23b> / 甚狼 므이우<한불자전 228>
 ㄴ''. 므이 두 소노로 그 입을 마가(緊用兩掩手其口)<구급간이방언해 1:62b>
 / 緊므이 밀 긴<신증유합(중간본)下43a>
- (2) ㄱ. 아바님겨옵서 느리 미령호오심 외와 듯줍기(MF 1194)
 ㄴ. 십여소솔이 살난호나 막이 싱각호면 넉 일신 외로우니(MF 1182)
- (3) ㄱ. 오라비도 느리 여귀 잇스니 든든호나<송병필가-71> / 예는 상후 느루

3) <표 1>의 발신자에 대한 인물정보 및 생몰 연대는 대부분 문 희순(2017)에서 참조한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부사라는 점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중요한 고찰 대상이 아니므로 수신자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였다. 1-21번까지는 발신자나 수신자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모든 편지 안에 발신일이 정확히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발신자의 생몰연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편지 22-32번까지는 편지에 제시된 수신자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인물 정보와 함께 발신일을 함께 제시하였다. 33번의 경우는 발·수신자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지만, 발신일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편지들이다.

4) 부사 ‘구곰’과 ‘마치/맞치’는 현대 국어의 ‘가끔’과 ‘마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음운론적 차이나 표기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사들은 제외하였다.

미령호오시니<명성어필-1>

- ㄴ. 슈덩이 오슬 뵈□□□□ 뵈다가 뵈 막 어드니<순천김씨 153:16>
- ㄴ'. 潑養 막오 길으다<방언유석 西2a> / 존흠으로 막고 불라 췌나모 장작 불에 검게 슬아 ㄹ라 땡ㄹ라<언해두창집요 上:9a>
- ㄴ". 亂扯 마구 드릭다<역어유해보 54b> / 모든 형벌을 마구 부리더니 과 만호여<태상감응편도설언해 2:15a> / 막우접이 難捧者<국한회어 106> / 淸濁을 갈희라 다나 쓰나 막우 걸너줍거니<가곡원류 457>

위의 예는 고유어 어근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후행하는 서술어나 부사어를 수식해 주는 부사의 예이다. (1ㄱ)의 ‘도히(<똥+ -이>)’는 현대 국어로는 ‘ 좋게’와 같은 ‘-게’형 부사어로 해석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현대 국어 이전 시기의 ‘-이’계 부사들이 현대 국어에 와서 ‘-게’형으로 대체된 예들이 상당수 확인된다.⁵⁾ (1ㄴ)의 ‘막이/마이’는 18~19세기 자료인데, (1ㄴ’, 1ㄴ”)를 통해 ‘땡-’에 +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가 결합한 ‘땡이, 땡우(<매우>)’와 동일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에 직접 대응되는 형태인 ‘땡우’가 18세기부터 활발히 사용되면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2)는 (1)과는 달리 현대 국어에서 부사 파생 접미사 ‘-이/히’가 탈락된 ‘늘, 막’의 형태로 부사 기능을 하는 예이다. ‘느리’는 (3ㄱ)과 같이 다른 문헌 자료에서는 ‘느루’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3ㄴ)의 ‘막이’는 20세기 초반의 자료로 다른 문헌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3ㄴ)과 같이 ‘막’이 16세기부터 확인되고, (3ㄴ’, 1ㄴ”)와 같은 ‘막 + -오/우(부사 파생 접미사)’의 예를 고려해 보면 ‘막 + -이’의 부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ㄱ. 구관 횡츠 불경이 출힌 죄로 다스리고<MF 927>

- ㄴ. 그 스이 도희 업서 글월도 못 브쳐스오니 죽히 불촉히 녀여 계시읍
<MF 998>
- ㄷ. 자근 손으 흘연 디단이 알하 일망이나 소요이 디니<MF 1020>
- ㄹ. 나도 미간 부은 것 히포 되고 근일 점으이 부어 밤틀만 호니<MF 1151>

5) 현대 국어 이전 시기에 부사의 지위를 가졌던 것들이 현대 국어에 와서 ‘-게’ 활용형으로 대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예를 들어 고 정의(1985)는 기원적으로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 때는 ‘-이’를 사용하고 동사를 부사로 만들 때는 ‘-게’를 사용하다가 동사를 부사로 만드는 ‘-게’형에 유추되어 ‘-이’형이 ‘-게’형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았고, 김 종록(1989)는 원래 ‘-이’가 파생과 굴절을 모두 담당하였으나 그 기능 부담량이 과중하여 파생의 기능은 ‘-게’에게 넘겨 주고 굴절의 기능만을 떠맡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 동석(2015:115)는 중세 국어의 ‘-이’ 결합형의 상당수가 현대 국어에 와서 어미 ‘-게’ 결합형으로 실현되고 중세 국어 및 현대 국어에서 지속적으로 어미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가 존재했으므로 ‘-이’의 본질적인 속성은 부사 파생 접미사가 아닌 부사형 어미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단 부사어에 결합된 ‘-이’가 파생 접미사인지는 아니면 어미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피하고 파생 접미사로 다루기로 한다.

- ㄹ. 우리 충열히 이셔도 숙식의 간언을 용납디 아니 호오시니(MF 923)
- (5) ㄱ. 그리 몬호여도 브경이 수이 허소티 아니케 보내라(순천김씨 49:14) /
우리 님군이 혹싱 등이 군명을 불경이 호야(독천 2:12)
- ㄴ. 낭죽의 형실을 불측이 너기고(낙선사 164) / 또흔 독부를 불측히 너겨
잡아 드려 죽이라 호더라(님장군전 21b) / 불측이(不測)(한불자전 347)
- ㄷ. 원쉬 숨군의게 전녕호여 소요이 말느 호고(장죽방전 중 15b) / 각 아
문 궁방들의 빅성의게 소요히 구는 일을 일절히 엄히 막게 홈이오(경
기윤 3a)
- ㄷ. 흐르난 일월이 궁턴디통(窮天之痛)이 점점이 더으니 엇디 초상의 감^호
리오(완월회맹연 13:37a) / 오직 악함과 거긔 선희는 자가 점점이 더
욱 악^호나(예수성교전서, 디모데후서 3:13절)

(4)는 한자어 ‘불경(不敬), 불측(不測), 소요(騷擾), 점점(漸漸), 충열(忠烈)’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히’가 결합된 부사로 파악되는데 모두 현대 국어에서 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⁶⁾ (4ㄱ)의 ‘불경이(不敬히)’는 (5ㄱ)과 같이 ‘브경 이’ 형태와 함께 대략 16, 17세기 자료에서만 소수 확인되며, (4ㄴ, ㄷ)의 ‘불측히’와 ‘소요이’는 (5ㄴ, ㄷ)과 같이 18~19세기 자료에서만 소수 확인된다. (4ㄷ)의 ‘점 ㅿ 이’ 도 (5ㄷ)과 같은 18세기 이후의 문헌 자료에서 ‘점점이’ 형태가 소수 확인되지만, (4 ㄹ)의 ‘충열히’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⁷⁾

2.2. 어근형 부사

1) 접미사 ‘-이/히’ 탈락형 부사

- (6) ㄱ. 놋 혈기도 나날 나아셔(MF 1100)
- ㄴ. 어마님겨오셔 대단 편치 못^호옵셔(MF 958) / 일전 화괴로 딘단 편치
못^호오시다는 일은 좀 나으시니(MF 1139)

6)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을 비롯하여 『우리말 큰사전』, 『조선말 대사전』 등에서도 표제어 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7) 『필사본 고어대사전』이나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등 일부 사전에서는 ‘불경이/브경이/브경 히’, ‘소요히’가 제시되어 있지만, ‘불측이/불측히/불측히’, ‘점점이’, ‘충열히’ 등의 부사는 모든 사전 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형용사 ‘불측하다’와 부사 ‘점점’만 일부 사전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필 사본 고어대사전』에는 ‘점점이’가 수록되어 있지만 이는 ‘點點이’로 그 의미가 다르다. ‘충열히’의 경우는 혹 ‘충열(層列)히’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한자어는 문헌 자료에서 찾 아볼 수 없으며, ‘충렬(忠烈)’의 의미로 보이는 아래와 같은 자료는 찾아볼 수 있는바 그 부사형의 사용도 가능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통의를 아를다이 너겨~ 그 통열을 괴록호니라(오윤행 충65a)
부인이 불승이통호나 분이 통열호므로(양현문4 18:253)

- ㄷ. 관가로 편지 즈나 브치면 얼년 올 것 아닌디<MF 1013>
- ㄷ. 다시 편지 쓸 식도 업스와 툼 쓰너라고<MF 1171>
- (7) ㄱ. 世間 슬흔 믋스미 나날 더으거시닐<석상 3:22a> / 世上 人事는 나날 달나 가느니<가곡원류 240>
- ㄴ. 부인과 아즈의 말을 조츠 디단 요란히미 업고<완월회맹연 37:34a> / 건어와 전이 디단 군식히와<송화선장기 庚戌 八月十二日>
- ㄴ'. 비치 도흐면 대단히 방해로운 일이 업느니라<두창경 53b> / 어마님겨 오서 오늘 삼일지 하 대단이 알즈오시니<MF 977> / 제가 홀연 디단이 슈일 알하<MF 1099>
- ㄷ. 포숨으로 어련 잘 조쳐히시라 히디<순원어필 2-04>
- ㄷ'. 苟 얼혀니 구<유합초 下61a> / 네 똬을 얼현이 덩히라<양현문6 19:124>
- ㄷ. 조고만 불상을 툼툼 안쳐시디 탑 빛과 불상이 다 금빛치러라<무오연행록 5:63a>
- ㄷ'. 툼툼이 안자서 한숨지며 설워흔닷 말 이시면<서궁일기 51b> / 적진 둥의 밤이면 히히고 낮이면 숨어 툼툼이 가디<병자록 61>

(6)은 고유어 부사 ‘나날이, 대단히, 어련히, 툼툼이’에서 접미사 ‘-이/히’가 생략된 형태로 부사 기능을 하는 예이다. (6ㄱ)의 ‘나날’ 형태는 (7ㄱ) 등의 자료를 통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꾸준히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ㄴ)의 ‘대단/디단’은 18세기 이후의 자료인데, (7ㄴ)과 같이 말뭉치 자료와 『필사본 고어대사전』에서도 18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쓰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⁸⁾ (7ㄴ)와 같은 ‘-이/히’ 결합형은 17세기부터 확인되는데, (6ㄴ)과 (7ㄴ)의 ‘대단’과 ‘대단이’는 동일한 발신자인 청풍김씨 편지에 나타난 예로 ‘-이/히’ 결합형과 탈락형이 수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사 ‘어련히’의 고어형인 ‘얼혀니/얼현이’ 등은 (7ㄷ)와 같이 16세기부터 19세기 자료까지 확인되는 데 반해, (6ㄷ)의 ‘얼년’ 형태는 19세기 자료로 (7ㄷ)과 같은 다른 19세기 자료에서만 확인된다. 그리고 부사 ‘툼툼이’의 경우는 (7ㄷ)와 같이 17세기부터 확인되지만, (6ㄷ)의 ‘툼툼’ 형태와 함께 말뭉치 외의 사전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말뭉치 자료에서 확인되는 ‘툼툼’ 형태는 (7ㄷ)과 같이 ‘툼이 난 곳마다’의 의미를 갖는 예만 확인된다.

8) 『필사본 고어 대사전』에서는 ‘디단’을 부사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에서는 ‘-이/히’ 결합형인 ‘대단이/디단이/디단디단이, 대단히’만을 부사로 제시하고, ‘대단/디단, 대단대단’ 형태는 형용사 ‘대단히다’의 활용형 전체를 ‘대단’만으로 줄여 대신한 한글편지 특유의 생략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용례에 따라서는 ‘대단히’의 부사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음을 밝혔는데, 이는 후술할 ‘급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6ㄴ)과 같이 ‘히다’의 생략형으로 볼 수 없는 예들은 그 자체로 부사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 (8) ㄱ. 큰 일이 날 듯 호오니 각별 분부^호시면 조캐습<MF 992>
 ㄴ. 덕으신 것 즈세 보되<MF 1075> / 즈시 몰라 ㅁ음이 아프라<MF 1079>
 / 네 편지 쑤이니 어딤 즈시 알겠느냐<MF 1010>
 ㄷ. 너도 지극 통박^호기 늬의 업슬 듯 엇지 못^호겟다<MF 1014>
 ㄹ. 아모조록 약을 ^호여 보게 글 보내라 ^호기<MF 1094> / 오늘 사름을
글 보내오디<MF 924>
 ㄹ. 손자가 석 달 만의 간신 스라 나고<MF 1142> / 간신 틈타 등하의 슈
 즈 그리오니<MF 1148>
 ㄹ. 환두썩를 썩여 간신이 도로 드러맞기 그만두니<MF 1173>
- (9) ㄱ. 特 각별 특<유합초 下61b> / 산업을 도라보지 안는 자는 디방관이 각
별 금단^호야<1901 제국신문 302>
 ㄴ. 그 날급 어딘 겨지비 즈세 보아<몽산육 39b> / 슈부^ㅁ 즈세 본즉 제
 <퇴별가(완판본) 8a> / 지난 일을 즈시 고^호며<월왕전(경판63장본) 중17a>
 ㄷ. 흔 누느로 흔 굶기 가미 지극 어려브니<석상 21:40a> / 쇼도의셔 힝네
 를 지극 공경^호오셔<한중록 206>
 ㄹ. 우리 던의셔는 글글 제던의 음식을 다 장만^호엿더니<서궁일기 5a> /
 그러나 글글 ^호오라면 금명 쏘 인편 잇스오니샤<추사-9>
 ㄹ. 지 홀노 이셔 글을 쓰다가 신을 보고 구기여 손의 쥐을 즈음의 간신
 두 즈를 보오되<천의소감언해 4:3b> / 이곳은 중노의셔 비 맞는 초심
 일 간신 도입^호여 보온즉<송병필가-7>

(8)의 예들은 현대 국어에서 각각 ‘각별(各別)히, 자세(仔細)히, 지극(至極)히, 급급(急急)히, 간신(艱辛)히’와 같이 한자어에 부사 파생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는 예들이다. 이 중 ‘각별, 즈세, 지극’은 (9ㄱ-ㄷ)과 같이 중세국어 시기부터 19세기 말 전후까지 사용된 예가 보이며, ‘-이/히’ 결합형 역시 중세국어에서부터 확인된다. 그러나 ‘급급’과 ‘간신’은 (9ㄹ, ㄹ)과 같이 각각 17세기와 18세기 이후의 자료에서부터 보이며, ‘-이/히’ 결합형 역시 17세기 이후부터 확인된다. (8ㄹ, ㄹ)의 ‘간신, 간신이’는 동일한 발신자인 양주조씨의 편지에 나타난 예로, 이 역시 ‘-이/히’ 결합형과 탈락형이 수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조사 및 어근 일부 탈락형 부사

- (10) ㄱ. 현경은 의외 와셔<MF 1188> / 의외 게 하인 오논디<MF 1008>
 ㄱ. 의외로 아히들 형테가 오고<MF 1066> / 기령셔는 의외에 욱을 보오

시니<MF 1106>

- ㄴ. 운우심신에도 썩 썩 치면<MF 1117> / 썩 굼 복녀 간절호으며<MF 1148>

(11) ㄱ. 이곳으로 지나더니 의외 눈을 만나 강상의 형선키 어려온지라<낙진오 81>

- ㄱ'. 싱치 목의 슈슈 씨 드렸거늘 의외로 시므니 무성이 되니라<서궁일기 70a> / 천만 의외에 금개 오나날 대되 뵈오셔<현풍광씨 115-3>

- ㄴ. 혹 알흐락 말락 때때 놓고 나흘 닛샌만의나<두창경 21b>

- ㄴ'. 소합원 아홉 환을 혼 병 술에 돕가 때때로 머그면<벽온신 13a> / 썩 썩에 방편을 흥흥며 종종흔 음공을 지어<남궁계 6b>

(10)의 ‘의외(意外)’와 ‘때때/썩썩’는 현대 국어에서는 ‘의외로’와 ‘때때로’에 대응되는 부사들이다. 이는 (10-ㄱ')와 (11)과 같은 예로 보아 조사 ‘-로’나 ‘-에/에’가 탈락된 부사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⁹⁾ 그러나 (11-ㄱ, ㄴ)과 같이 근대 국어 문헌 자료에서는 조사가 결합된 형태보다는 탈락된 형태의 예가 더 빈번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부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12) ㄱ. 총^{ᄃᆞ} 흥와 잠 알외오며<MF 1081> / 근보 가읍기 잠 덕습^{ᄃᆞ}이다<MF 928>

- ㄴ. 무슨 증정이온잇가 잠 답^{ᄃᆞ} 흥실라 일컷즈오며<MF 1123>

(13) ㄱ. 현령 신단 저동 뉴대화 와 약쥬 잠 잡습다<병자기 316> / 님형 잠 덕 으며<김성일가 158>

- ㄱ'. 더 如來^{ᄃᆞ} 일후를 잠 잠 싱각흥면<석상 9:12b> / 아ᄃᆞ라흔 동 몰라 잠 잠 덕되<순천김씨 72:12> /

- ㄱ". 혹 잠 나 잇던 집의 도라가<명의회 상13a> / 빅성들이 잠 구급 흥 다가 츠질 슈가 업셔셔<1898 매일신문 4>

- ㄴ. 녕감 참제흥시니 정녕이 잠 든든흥오시라<병자기 290> / 장스날이 잠 다드라 오읍시니 잠 새로이 망극흥읍시라<MF 1078>

- ㄴ'. 客裡의셔 병이 나읍더면 厥父母妻子들이 오 넘너흥리<인어대방 4:7a> / 인근 읍으로 오 든 흥오시리잇가<MF 1063>

(12)의 ‘잠’은 (13-ㄱ)과 같이 17세기 자료에서부터 확인되는데, (17-ㄱ', ㄱ")과 같은 ‘잠잠(暫間)’ 또는 ‘잠시(暫時)’의 후행 어근이 생략된 예로 추정된다. ‘잠잠/잠간’ 등

9) 『조선시대 한글판지 어휘사전』에서도 ‘때때’와 ‘의외’를 각각 명사와 부사로 제시하고 있으며, 『필사본 고어 대사전』과 『교학 고어사전』, 『이조어사전』에서는 ‘때때/때때’를 부사로만 제시하고 있다.

의 형태는 15세기부터 보이나, ‘잠시/잠시’ 형태는 17세기부터 확인된다. (12ㄴ)의 ‘죽’은 말뭉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필사본 고어 대사전』과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자료에서만 확인되는데 모두 19세기 이후의 자료이다. 이는 (13ㄴ)과 같은 ‘죽히’형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접미사 ‘-이/히’ 탈락형으로 볼 수 있지만, (13ㄴ)의 예를 보면 ‘오죽’의 줄임말로도 볼 수 있다.

3. 통사 및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부사

이 장에서는 현대 국어 부사와 통사 또는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사의 예를 고찰하기로 한다.

(14) ㄱ. 식은 별고 업스오느 존당의셔 장시 미령호오시니<MF 1087> / 저도 습열노 장시 종괴로 지닌니 탓잡다<MF 1017>

ㄱ'. 참 운슈인지 텃시인지 스쥬인지 팔죽인지 장시 이러케 다토타다 다틀 건덕이도 업셔지면 뒤일은 누가 텃벌을 입을는지<1902 제국신문 1209>

(15) ㄱ. 쥬야 울고 지닌오시니<MF 1205> / 쥬야 탄식이요 쥬야 눈물이로다<MF 1173> / 녀너 쥬야 노히지 아니흔다<MF 1023>

ㄱ'. 쥬야로 녀너 무궁호오되<MF 1061> / 네 동셔의 유두 헤여져 쥬야의 괴로이 지닌니<MF 1009>

ㄴ. 어마님겨옵셔 달 미양호오시고<MF 956> / 어마님겨오셔는 잘 불평 둥 지닌옵시니<MF 1054>

(14ㄱ)의 ‘장시’는 현대 국어에서는 ‘오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장시(長時)’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기서는 부사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과 『필사본 고어 대사전』에 제시된 예를 제외하고, 말뭉치 자료에서는 (14ㄱ)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들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자료로 파악된다. 인간 자료에서는 (15ㄱ)처럼 명사 어휘가 조사가 생략된 채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4ㄱ)을 조사 생략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장시에’ 등과 같은 조사 결합형 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15ㄴ)과 같은 부사 ‘당/장(長)’¹⁰⁾의 예를 고려하면 ‘장시’를 부사로 파악함이 좋을 듯하다.¹¹⁾

10) 부사 ‘당/장(長)’은 현대 국어에서 ‘늘, 언제나’의 의미를 갖는 방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장시’에서 ‘시’가 탈락된 것으로 보면 ‘잠’과 같은 어근 탈락형 부사로 볼 수 있다.

11) 『필사본 고어 대사전』에서는 ‘장시/장시’를 부사로 제시하였는데,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에서는 ‘장시’는 부사로, ‘장시’는 명사로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예는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의 예이다.

- (16) ㄱ. 도로혀 붓글업스오며 다시나 탈이 업습는가(MF 992)
 ㄱ' 더위에 상혀 그리흔 듯 민망민망 다시나 관겨치 아니오면 죽혀오
 리마는<김성일가 21>
 ㄴ. 불셔나 전언을 하여 불 일이나 적보 업서 이 썩썩지 물어 낫시니(MF
 1014)
 ㄴ'. 나도 불셔나 글월이나 덕스올 거시오디<숙휘 30> / 뉴더기는 네 불셔
 도 아니주는가 너전마는<순천김씨 67:6>
- (17) ㄱ. 혼인은 ~ 관계 업다 하고 마이 되기를 조이는 모양이오며(MF 1180)
 ㄱ'. 니랄 서 흠을 민이 복가<구황촬요(윤석창본) 6b> / 그 소를 ㄱ득이
 녀혀 민이 슬마 기름 무쳐<음식디미방 2b>
 ㄴ. 유도나 녀혀 소식 듯기 천만 브란다(MF 1023) / 시술이 무양흔가
 시부니 천만 다형이나(MF 1063)
 ㄴ'. 너비 육안의 어린 무를 제도코라 천만 브라로라<초발심 81a> / 흥치
 쾌활하여 천만 환희하디<낙천등운 3:25b> / 당신 겨오셔는 천만 불형
 하야<한중록 286> / 이곳은 천만 싱각 밧 동심의 흠음 와스오니<김성
 일가 18>

(16)의 예는 부사 ‘다시, 불셔(>벌써)’에 보조사 ‘-나, -도’가 결합되어 사용된 예들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데 (16ㄱ', ㄴ)와 같이 다른 문헌 자료에서도 소수 확인된다. (17)의 부사 ‘마이, 천만’은 현대 국어 부사 ‘매우, 천만’에 대응되는데 후행하는 서술어와의 결합에서 현대 국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17ㄱ)의 ‘마이’는 동사 앞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합 현상은 (17ㄱ')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매우’는 대부분 형용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 그 쓰임이 이전 시대보다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만’도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다행이다, 뜻밖이다’와 같은 서술어와 결합하고, ‘브라다, 환희하디, 불형하디’ 등과 같은 다양한 서술어와 결합하는 예는 잘 나타나지 않는 등 그 쓰임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8) ㄱ. 맞치 씨 할 것만 두어시니 브디 마지 못홀 형세면 꾸어 두 섬이나 두
 어 게 괴별대로 하게 석비더려 니르고 가고져 하니 엇더하온고(MF
 1075)
 ㄱ'. 부체는 게셔도 요절이 뜰 거시니 브디 보내라<선찰 9:26> / 방사듀 불

향니 침페하신 연고이온 듯 장시 일갓삽고<순명효황후-02, 1897년경>
 이러들 하여 장시 경업시 지내고<안동권씨-1. 1830년>

근 관디는 브디 허리라 호오니<이동표가 7>

ㄱ. 대으더려 브디 허소히 말나 호고<MF 1075> / 브디 수이 보내오시게
호읍쇼셔<MF 994>

ㄴ. 신부가 엇더호며 디관절 신부 어마니가 엇더호냐<MF 1178> / 즈하로
변통할슈 업스올 썬더려 디관절 곡जू가 절통호와 관쳐분을 지다리옵나
니다<MF 1192>

ㄴ'. 대관절 그동안 무슴 벼슬이나 호여 계시오<약산동디 82> / 대관절 그
사름의 일우은 스업에 잇도라<1898 제국신문 827>

(18ㄱ)의 ‘브디’는 현대 국어 ‘부디’에 대응하는 문장 부사인데, 현대 국어에서 ‘부디’는 주로 (18ㄱ)와 같이 남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는 표현의 서술어와 호응한다. 그런데 (18ㄱ)의 ‘부디’는 그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18ㄱ)에서도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부디’가 의문형 서술어나 소망이나 의지 등을 나타내는 평서형과 호응하는 용례는 현대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18ㄴ)의 ‘디관절’은 현대 국어 부사 ‘대관절(大關節)’에 대응하는 것으로 다른 사전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말뭉치 자료에서도 (18ㄴ)와 같이 19세기 자료에서만 확인된다.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의문을 나타내는 표현과 호응하는데 위에서는 평서형이나 감탄형과 호응하는 예도 보인다.

(19) ㄱ. 그디지 말슴을 호오시오니<MF 1200>

ㄴ. 내가 치위논 별노 타노디 엇디 디디느냐<MF 1027>

ㄷ. 아프도로나 그나 밋쳐 어더 보내고져 호읍디<MF 1077> / 명지 속옷
미쳐 못 누벼 지엇거든<MF 1009>

ㄹ. 조보로 올일 츠마 탓급다<MF 1098> / 종시 일반니시라니 츠마 답호
오이다<MF 1123> / 고기가 츠마 먹고 시브다 호며<MF 994> / 너가
당 성치 못호니 츠마 괴롭다<MF1030> / 오는 듯 마는 듯 츠마 못
넋고<MF 1018>

(20) ㄱ. 부인이 두곳겨 저 곳튼 즈와 부를 그디지 잔학딘고<완월회맹연 165:
30b>

ㄴ. 우리 별로 살 貨物을 의논호디 엇더호노<노결언 하19a>

ㄷ. 서울 길히논 이 편지를 이제 엇지 미쳐 보내올소<선세언독 39>

ㄹ. 엇데 츠마 眷屬이 다시 業을 더으거노<월석 21:106a>

(19)에 제시된 ‘그디지, 별노, 밋쳐/미쳐, 츠마’는 현대 국어의 ‘그다지, 별로, 미쳐, 차마’에 대응하는 부사이다. 이들 부사는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부정을 뜻하는 말과

호응하여 쓰이는데 (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긍정 표현과도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들 부사가 다른 문헌 자료에서 긍정 표현과 결합하는 예는 (20)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¹²⁾ 이와 같이 중세나 근대 국어에서 긍정 및 부정 표현에 함께 쓰이던 부사들이 현대 국어에서는 부정 표현에서만 쓰이게 되는 부사들이 많은데 그러한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1) ㄱ. 지각업는 물숨으로 세월이 어서 가오면 하루 밧비 가읍서 모다 뵈오련
 므는(MF 1124) / 이전의 알외읍던 말숨 즈세 밧비 회보흐 읍쇼셔(MF 1078)

ㄴ. 흥츠의 옷 보 가지고 사름 밧비 가읍고<송준길가 79>

ㄷ. 내 곶오디 관겨치 아니니 밧비 니르라<을병연행록 2:53>

(21)의 ‘밧비’는 현대 국어 ‘바빠’에 대응되는 부사인데, 그 의미는 현대 국어보다 확장되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21ㄴ)은 현대 국어의 ‘바빠’와 같이 “서둘러서, 겨를이 없이, 몹시 급하게”와 같은 의미를 갖지만 (21ㄱ)은 ‘바빠’보다는 ‘빨리’에 더 가깝다. 이러한 의미의 ‘밧비’는 (21ㄷ)과 같이 다른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22) ㄱ. 일기 사오납스온디 아마도 내내 기후 쾌차호오심 브라운느이다(MF 878) / 아마도 춘한의 기후 안녕호오신 문안 쉬이 듯줍기를 축턴흐 읍느이다(MF 1003)

ㄴ. 아마도 더러 주리끼오실가 무안흐 념녀 적디 아니흐 읍고(MF 923)

ㄷ. 아마도 조심하여 편히 겨소<현풍곽씨 4> / 아마도 피와 평안히 디내기를 브라노라<선세언적 11>

현대 국어의 ‘아마도’는 주로 추측의 표현과 호응하여 미루어 짐작하거나 개연성이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22ㄴ)은 이러한 현대 국어의 뜻을 갖는 ‘아마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22ㄱ)은 각각 ‘아무쪼록’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의 ‘아마도’는 (22ㄷ)과 같이 다른 문헌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박부자(2014: 58)에 따르면 ‘아무쪼록’의 의미를 갖는 ‘아마도’는 17~18세기에 쓰이다가¹³⁾ 경쟁관계에 있던 ‘아모도

12) 『필사본 고어 대사전』과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에서는 ‘별노/별로, 츠마/차마’와는 다르게 ‘그다지/그디지/그더지’와 ‘미쳐/미처/밋쳐/밋체’가 부정 표현과 사용된 예들만 제시되어 있다.

13) 박 부자(2014:57-8)에 의하면 ‘아무쪼록’의 의미를 갖는 ‘아마도’는 17세기에 비해 18세기에는 그 출현 횟수가 매우 떨어지고 19세기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22ㄱ)의 두 번째 ‘아마도’는 청풍김씨가 시아버지인 송 계래(1748~1799)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예로 18세기 후반에 사용된 예로 볼 수 있으며, 청풍김씨의 생몰연대를 고려해 보면 19세기 초반까지도 ‘아마

록, 아므려나'류의 어휘에 의해 그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 (23) ㄱ. 참빛과 미선은 즈세 밧즈와<MF 967> / 제물도 즈시 밧즈와스오며
 <MF 889>
 ㄴ. 답장 즈세 못흐읍늬<MF 1075> / 은눌 원이 왓기 즈시 듯고<MF 927>
 ㄷ. 겨틀 노흐로 빼여 봉흐여 가니 즈세 츠려 바드쇼셔<순천김씨 64:10>
 / 네 모로미 닉이 헤아리고 즈세 싱각흐여 니르라<완월회맹연 96:26a>

(23)의 '즈세/즈시'는 현대 국어 '자세히'에 대응하는 부사이다. 그런데 (23ㄱ)은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히'의 의미보다는 '잘'의 의미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후자의 의미의 예는 (23ㄷ)과 같이 다른 문헌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용례가 많은 편은 아니다. 임 유종(1998:165-166)에서는 현대 국어와 다르게 개화기 국어 자료에서 '즈세히/즈세히'가 '생각하다, 헤아리다, 짐작하다'와 같은 심리 동사들과 어울려 쓰였음을 지적하였는데¹⁴⁾ 이러한 결합 관계를 보이는 예들은 대체로 '잘'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4. 기타 소멸되거나 특이한 부사

이 장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소멸되어 없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사들과 기존 사전에서 미상으로 처리한 부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 (24) ㄱ. 문안 모룩와 답ᄃᆞᆫ 호오며 고죽히 고적 심난호오시며<MF 1094>
 ㄴ. 衆生들히 믋스물 오을와 혼 고대 고즈기 머거<월석 8:5b> / 영감겨오
 서 고죽히 기드리읍시다<김성일가 57> / 닉 뜻 곳트셔 망극 둥 고
죽히 세손을 보호호라 호시는 정성만 겨시니<한중록 268>
 ㄷ. 니집을 고죽ᄃᆞᆫ 이 기드리다가 아니 오니<선세언독 23>

(24)의 '고죽히/고즈기/고죽히'는 '아주 지극히, 극진히'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현대 국어 사전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사이다. (24ㄴ)과 같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소수이지만 그 예가 확인되고, (24ㄷ)과 같은 어근이 반복된 부사 '고죽ᄃᆞᆫ'의 예도 확인된다.

도'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4) 현대 국어에서 '자세히'가 '짐작하다'와 어울려 쓰이지는 못하지만, '생각하다, 헤아리다'와는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통사상의 차이가 있는 부사로 다루지는 않았다.

- (25) ㄱ. 어느덧 한아바님 소귀스 맛죽오시니 고³이 망극³ 유한지통 오죽 호오
시러(MF 1193)
- ㄴ. 쓸 죽식 호나 못 두고 친정의 와 그리 되니 고고히 썩가 녹을 듯<송병
필가 60>
- ㄷ. 思郎 思郎 고고이 밋친 思郎 윈 바다를 두로 덮는 그물긋치 밋친 思郎
<악학습령 948>
- ㄹ. 넷 설음과 식 슬프미 일시의 병발호여 고고이 호모지성(呼母之聲)이 이
이 절절절호여<윤하정삼문취록 85:37a> / 모든 죽식들로 호여곰 날로
고고히 울어<선조행장 106> / 고고히 간청하니<설당산 46>

(25ㄱ)의 ‘고고이’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에서는 (25ㄴ)의 ‘고고히’를 미상으로 처리하면서 ‘고고’의 한자 어원을 ‘孤苦’로 보면 “외롭고 가난하게”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25ㄷ)과 같은 예를 고려해 보면, ‘고고이’를 ‘고’(웃고름이나 노끈 따위의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한 가닥을 고리처럼 맨 것)의 중복 형태로 보아 ‘고마다’로 “빠 마디마디마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5ㄹ)의 예를 고려해 보면 “크게 소리 내어 우는 모양”을 나타내는 ‘고고(呱呱)히’로 해석해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26) ㄱ. 장이나 이득이 복가 가야 호올디 기름이 하 귀호오니(MF 928)
- ㄴ. 혹시 서울 인편의 갈딕 슈건 이득이 스셔 주시옵<김성일가 50>
- ㄷ. 바람에 아름답거리는 저편 버덩의 파란 뱃이플 이득히 바라보았다.<충각
과 맹꽂이 15>
- ㄹ. 바쁜 일정 때문에 부족했던 저녁 식사를 모처럼 이드거니 먹었다.<표준
국어 대사전>

(26ㄱ)의 ‘이득이’는 (26ㄴ) 이외의 다른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용례이다. (26ㄴ)에 대하여『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에서는 미상의 단어로 처리하였는데, (26ㄷ)과 같은 20세기 초 자료에 ‘이득히’의 예가 보인다. 그런데 이 ‘이득이/이득히’는 문맥의미상 ‘넉넉하게’의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26ㄷ)과 같은 ‘이드거니’와 관련이 있는 부사로 추정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충분한 분량으로 만족스러운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로 설명하고 있으며, 『조선말 대사전』에서도 “좀 오래면서 넉넉하게”의 뜻을 지니는 부사로 제시하고 있다.¹⁵⁾

15) ‘이드거니’의 어원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살펴보면 ‘우두커니’와 같은 형성 과정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우둑(<우둑>ㅎ- + -거니)’에서 ‘우두커니, 우두거니’ 등의 형태가 형

- (27) ㄱ. 여기다이 녀녀와 고단호오시기 오죽호오시라<MF 998>
 ㄴ. 심선과 황육이 비스듬기로 낡 너둔 오룩이 더 드읍고<MF 1002>
 ㄷ. 나는 정초부터 이월 초순까지 풍증으로 욕스욕스이 지내고<MF 1098>
 ㄷ'. 쇼제 누월(累月)을 셔증(暑症)으로 미류하여 욕스호니 가중이 우려하고
 민민호더니<완월회맹연 180:4a> / 욕사욕사 欲死欲死<국한회어 224>
 ㄷ". 저는 기간 풍단 대통호와 근 일삭이나 욕스호읍다 이제야 면스 계유
 호와습늑이다<봉서 5> / 나는 욕스욕스 이변 악정은 일필노 엇지 형
 언호리<송병필가 53> / 저는 기간 경향으로 분류히 단니읍노라 빅병
 겸발 욕스욕스호읍다 계유일간이야 괴동호와습늑이다<봉서 4>

(27ㄱ)의 ‘여기다이’는 접미사 ‘-다이’가 결합하여 ‘여기처럼’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27ㄴ)의 ‘오룩이’는 ‘오롯이’와 같은 부사로 파악된다. 그러나 말뭉치 자료나 다른 사전 자료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7ㄷ)의 ‘욕스욕스이’도 부사형은 확인되지 않으며, 말뭉치 자료에서는 (27ㄷ)와 같은 형용사나 어근형 예만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에서도 (27ㄷ")의 예만 확인할 수 있는데 ‘욕사(欲死)하다’를 “죽을 뻔하다”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 국어 사전에서는 이러한 어휘를 찾아볼 수 없으나, 한자어 의미를 고려한다면, (27ㄷ)의 ‘욕스욕스이’는 “죽을 지경으로 힘들게”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28) ㄱ. 요스이는 낫스오니 가지록 깃브와 호읍늑이다<MF 961>
 ㄴ. 그딴도록 신고하여 그만치나 길러서<MF 1079>
 ㄷ. 집안 대되 오쇼들썩지 연고 업시 디내읍고<MF 998>
 (29) ㄱ. 네뵈 가지록 공경 네딴호더라<완월회맹연 137:11a> / 가디록 더욱 심
 하여 귀를 들며<선조행장 85> / 나의 팔지 가지록 사오나와<현수문전
 (경판65장본) 상6b>
 ㄴ. 찰방이 그대도록 귀코 빈슨 일가<순천김씨 4:6> / 그대도록 니흠도 업
 고 해흠도 업다(無甚利害)<어록해(초) 28b> / 말숨을 그딴도록 쉽스리
 호리오<구운몽筆 3:24a>
 ㄷ. 오쇼들히 밤마다 먹는 딥과 쿵이 대되 언머만 천이 드는고<변노 上

성된 것처럼 ‘이득호- + -거니’의 형태에서 ‘이드거니’가 발전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득이/이득히’는 ‘이득호-’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히’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陡 우득홀 두 <유합초 下56a>, 峙 우득홀 티<신유합, 下59a>
- ② 이 말을 드르시고 후회막급 홀 말 업서 우두견이 안자더니<유충열完 86 하2a>
- ③ 귀가 막혀 붓을 들어 옥슈를 발발 썰며 우두커니 다짐장을 구버보니<약산동덕 44>
- ④ 준당 죽핏 초췌처럼 아리목의 우두견이 안져 생각호니<계우사 484>
- ⑤ 나는 우두허니 冊床 머리에 안져서 冊張만 뒤적뒤적 하다가<빈처 167>

11b) / 중싱들이 대되 은덕을 입을가 하더니<구운몽筆 1:12b> / 예는 되되 일양 지니며<정보연간독 19a> / 나는 당추와 되도 일안히시니 <송병필가 25>

(28)의 ‘가지록, 그되도록, 대되’는 각각 ‘갈수록, 그토록, 모두/통틀어’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어휘로 파악된다. ‘가지록/가지록/가디록’은 (29ㄱ)과 같이 18세기 자료에서부터 확인되며, ‘그되도록/그대도록/그되도록’과 ‘대되/되되/되도’는 (29ㄴ, ㄷ)과 같이 중세 국어 자료에서부터 19세기까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0) ㄱ. 편지 즈루히여라<MF 919> / 문안은 즈로 듯좁고<MF 1033>
 ㄴ. 현마 학원을 못 고칠 거시 아니오<MF 1094> /준 팔십이 도여스니 현마 금년이야 아니 죽으라<MF 1173>
 ㄷ. 너의 선친 일을 생각히여 혈마 범연이 보아쥬라마는<MF 1071>
- (31) ㄱ. 부테 즈로 니르샤도 從히습디 아니히더니<석상 6:10b> / 나는 자로 來往히기로<화음계몽언해 상7b> / 녀자의 얼굴이 鮮明히 보이지 안코 輪廊의 曲線이 자로 變한다<青春 128>
 ㄴ. 현마 七寶로 꾸며도 도타 호리잇가<월곡 44a> / 닌들 현마 분슈 업스라<남원고사 10b>
 ㄷ. 너희 둥의 혈마 다 어버이 처즈 업슨 사름일다<선조국문교서> / 혈마 오늘 내로 어셔라 십혔다<운수조혼날 141>

(30ㄱ)의 ‘즈로(자로)’는 ‘자주’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31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사용된 예가 확인된다. 이는 15세기부터 함께 사용된 ‘즈조(자주)’로 인해 19세기 이후로 소멸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0ㄴ, ㄷ)의 ‘현마, 혈마’는 ‘설마’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주로 의문형과 호응하여 나타난다. ‘현마’와 ‘혈마’는 각각 15, 16세기부터 확인되는데, ‘혈마’는 ‘현마’에 비해 그 사용 예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20세기 초까지 사용된 예가 확인된다.¹⁶⁾

5.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동춘당 송준길가 미주해본 연간 247편에 나타나는 부사 중 주로 현대

16) 다른 사전에는 ‘자로, 현마, 혈마’가 표제어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자로’와 ‘혈마(설마)’의 방언’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

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부사를 중심으로 근대 국어 부사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통시적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현대 국어의 부사와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사로는 ‘도히, 막이’, ‘느리, 막이’, ‘불측히, 점점이, 충열히’ 등처럼 용언 어간이나 부사, 그리고 한자어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와 ‘나날, 대단/되단, 얼년, 틈틈’, ‘각별, 즈세/즈시, 급급, 간신’과 같은 접미사 탈락형 부사, 그리고 ‘의외, 썩썩’와 ‘잠, 즉’과 같은 조사 및 어근 일부 탈락형 부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사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사로는 ‘장시’처럼 현대 국어의 명사에 대응하는 어휘가 부사로 사용된 예와 ‘다시나, 불셔나’와 같은 보조사 통합형, 그리고 ‘마이, 천만’이나 ‘브디, 딴관절’과 같이 후행 서술어나 서법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부사와 ‘그딴지, 별노, 밋처, 츠마’와 같이 긍정 표현과 결합할 수 있는 부사의 예들을 고찰하였다.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사로 ‘뱃비, 아마도, 즈세/즈시’가 파악되었고, 그밖에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사로 ‘고죽히, 고고이, 이득이, 여기다이, 오록이, 욱스욱스이, 가지록, 그딴도록, 대되, 즈루/즈로, 현마, 혈마’의 예들을 고찰하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동춘당 송준길가 미주해본 인간의 부사 중에서는 ‘막이, 여기다이, 오록이, 충열히, 틈틈’과 같이 다른 문헌 자료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급급, 딴관절, 불측히, 점점이’처럼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등과 같은 사전류에서는 부사 표제어로 제시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 가치를 일부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현대 국어와 통사적 차이를 보이는 부사나 현대 국어에서는 소멸된 부사들의 소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고찰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이는 추후 송준길가 전체 언간에 나타나는 부사를 종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고 정의(1985), 「중세국어 부사의 통사 특징(I)」, 울산어문논집 2,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9.
- 김 성옥(2017), 「18~19세기 한글간찰의 표기법적 고찰: 동춘당 송준길가(家)의 미주해 한글간찰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91, 어문연구학회, 27~55.
- 김 성옥·김 정태(2015), 「동춘당 송준길家 한글간찰의 표기법 특징」, 어문연구 84, 어문연구학회, 5~30.
- 김 종록(1989), 「부사형 접사 ‘-이’와 ‘-게’의 통시적 교체」, 국어교육연구 21, 국어교육학회, 115~149.
- 김 주필(2011), 「송준길가 한글편지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양상과 특징: 발신자의 ‘세대」,

- ‘성’, ‘수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학 61, 국어학회, 61~93.
- 김 진수(2013), 「동춘당 송준길 가문 세전 인간의 국어학적 고찰」, 대전문화 22호, 대전광역시, 287~302.
- 남 광우(2014),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 문 회순(2017), 「17~19세기 동춘당 송준길 후손가 소장 한글편지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 장서각 37, 한국학중앙연구원, 245~285.
- 박 부자(2014), 「언간자료의 어휘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국어사연구 18, 45~78.
-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2010), 『필사본 고어 대사전』, 학고방.
- 유 창돈(1985), 『이조어 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 동석(2015), 「중세국어 부사 파생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국어사연구 21, 95~153.
- 임 유중(1998), 「개화기 국어 부사에 관한 연구—〈개화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 한민족문화학회, 143~176.
- 사회과학언어연구소(1990), 『조선말 대사전』, 동광출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 태학사.
-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홍 윤표 외(1995), 『17세기 국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황 문환 외(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역락.
-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SynKDP 1.5), 소 강춘 외 2인, 2001.
-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DVD. 2011. 12. 수정판, 국립국어원.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일반/ 연구 발표

역대 문법 교과서의 ‘-음, -기’ 명사화 — 명사형 어미와 명사절/체언절을 중심으로 —

김 건희

서원대학교 교수

kenee@seowon.ac.kr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역대 문법 교과서¹⁾ '명사형 어미와 명사절/체언절'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 언어유형론적 관점의 형태, 통사적 명사화 논의를 토대로 국어 ‘-음, -기’ 명사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사화에 대해 특히 역대 문법 교과서를 토대로 살펴보는 이유는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음, -기’ 명사화소에 대해 (1)과 같은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며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1) ㄱ. 명사화소가 용언에 관여하는지, 절 전체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구분

ㄴ. 명사화소에 후행하는 격조사가 용언에만 걸리는지, 아니면 절 전체에 걸리

1) 본고의 ‘역대 문법 교과서’는 현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 지침이 되는 고등학교 문법(2002)을 참조 기준으로 1963년 학교 문법 통일안이 공포된 이후, 1968년부터 1996년까지 발행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말한다.

는지 여부.

ㄷ. 명사화소의 기본 성격을 어미로 보는 경우.

ㄹ. 명사화소의 기본 성격을 접사로 보는 경우.

먼저 (1ㄱ)과 (1ㄴ)에서 나타나는 역대 문법 교과서 관점은 명사화 대상이 특정 동사와 관련된 어휘 단위인지 아니면 절 단위인지를 구분하며 형태, 통사적 측면에서 명사화를 구분한 국외의 논의(Givón(1990), Comrie(2007), Noonan(1985/2007), Dixon(2010))와 관련된다. 반면에 (1ㄷ)과 (1ㄹ)에서 나타나는 관점은 (1ㄱ), (1ㄴ)과 달리 어휘적 명사화, 절 명사화 구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절 형성 명사화소는 명사형 어미²⁾, 명사 형성 명사화소는 명사 파생 접사로 보지만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명사 형성 명사화소를 접사가 아닌 명사형 어미로 보기도 하고 나아가 절 형성 명사화소인 명사형 어미를 접사로도 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어미 체계’, ‘절 분류’는 학교 문법, 소위 규범 문법 및 규범 문법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수용되었다. 현재 국어 문법 체계를 세운 이론 문법가들이 집필한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1)과 같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미와 절에 관해 역대 문법 교과서 기술만큼 진지하고 자세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³⁾ 특히 본 발표에서는 ‘명사화’ 관련된 요소들을 새롭게 고찰할 수 있는 역대 문법 교과서만의 특징적인 관점에 주목하여 살펴보겠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Givón(1990), Comrie(2007), Noonan(1985/2007), Dixon(2010)의 명사화 논의를 토대로 범언어적인 관점에서 형태, 통사적 명사화 개요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명사화소 ‘-음, -기’의 기본 성격, 명사와 명사형의 구분 및 명사화소와 결합하는 격조사의 범위를 다룬 역대 문법 교과서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4장에서는 역대 문법 교과서의 명사형 어미 및 그 상위 범주에 대한 기술과 기술 관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절 명사화와 관련된 ‘동명사, 명사절, 체언절, 문장의 체언화’ 기술 내용을 살펴보겠다.

2) 명사절은 ‘-음, -기’ 등의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는 명사화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영근·구 본관 2018:329) 절이 명사화되어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쓰이게 되면 그 절을 명사절이라고 부른다.(구 본관 외 2015:260)

3) 현재 국어학 연구에서는 ‘-음, -기’ 명사절의 경우, ‘관형사절+것’ 구문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로 ‘관형사절+것’ 구문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명사절의 범위를 ‘-음, -기’ 이외의 다양한 종결 형태로 확장하여 다루며 ‘-음, -기’ 자체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음, -기’ 명사화소의 기본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특히 이러한 명사화소로 형성되는 명사절 예시가 많이 제시된다. 물론 이러한 ‘-음, -기’ 명사절이 현재 직관으로 보면 어색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일종의 공식화된 말뭉치 자료로써 역대 문법 교과서 명사절 예문을 활용하겠다.

2. 명사화에 대한 범언어적인 관점: 어휘적 명사화와 대비되는 절 명사화

Comrie(2007:334)에서는 ‘명사화’를 어떤 대상을 명사로 만드는 것‘turning something into a noun’으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누었다.

(2) Comrie(2007)의 명사화

(i) 동사나 형용사에서 명사를 만드는 부류

ㄱ. 행위/상태 명사화(Action/State nominalization)

(ii) 술어나 명제에서 명사구를 만드는 부류

ㄴ. 행위 명사류⁴⁾(Action nominal)

ㄷ. 파생 명사가 없는 명사화(Nominalizations with no lexically derived noun)
= 절 명사화(Clausal nominalization)

특히 Comrie(2007:376)에서는 동일하게 술어나 명제에서 명사구를 만드는 부류지만 행위 명사류(action nominal)는 핵이 어휘로 파생된 명사(lexically derived noun)인 반면에 이러한 파생 명사가 없는 명사화(no lexically derived noun)는 절 전체가 명사화되어 언어마다 다양한 명사적 구조를 갖으며 절 명사화(clausal nominalization)로 명명한다고 하였다. 절 명사화의 동사는 비록 ‘시제, 상’과 같은 표지가 결여되었더라도, ‘인칭, 수’ 측면에서 명사적 특성보다는 동사적 특성을 갖는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Comrie(2007:377)에서는 Lakhota어의 절 명사화는 문장 전체(절)에 첨사(article)를 부착하는 것이 동반된다고 하였다. 명사화된 절에 나타나는 동사는 명사와 같은 특징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어떤 변화 없이 정형적인 문장에 첨사만 부착하여 명사화가 되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Dixon(2010:36-38)에서는 충분한 보절 구조가 없는 언어에서 보절 전략의 하나로 명사화 전략(Nominalization strategy)을 쓴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명사화 전략으로 단순히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류(deverbal nominalization, refusal/playing)나 ‘동사-목적어’ 명사류(nominalization of verb-plus-object, wife-bashing)가 아닌 절 전체가 명사화되는 경우를 제시한다.(a full clause can be nominalized). 특히 Dixon(2010)에서는 대표적인 절 명사화 유형으로 Genetti(2010)에서 다룬 Tibeto-

4) 일찍이 범언어적으로 절 명사화보다 행위 명사류(action nominal)가 더 주목을 받았는데 Comrie(1985/2007)에서는 행위 명사류(action nominal)는 문장(동사)과 같은 성격을 가지거나 명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두 성격의 조합으로 많은 언어에서 다양한 유형의 행위 명사류(action nominal)가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많은 언어에서 행위 명사류(action nominal)은 동사적 성격보다는 명사적 성격이 더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2) Comrie(1985/2007)의 명사화 분류에서 제시한 것처럼 행위 명사류와 절 명사화가 구별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Burman어족의 언어를 제시하는데 동일한 저서에서 Genetti(2010)는 보어절의 한 유형으로 절 명사화(clausal nominalization)를 제시하였다. Genetti(2010:140)에서는 Dolakha Newar어가 Tibeto-Burman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명사화 특성이 다른 언어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파생 명사를 생성하는 파생적 과정이 아니라, 흔히 ‘동사성 명사화’라고 명명되는 전체 절을 범위로 하는 명사화가 이루어진다고 제시한다.

Givón(1990:498)에서도 절 명사화(Clausal nominalization) 명사화 과정은 시제, 상, 양태 표시의 소실, 격 표시 변형과 같은 구조적 조정이 동반된다고 설명한다. 곧 절 명사화는 동사로부터 명사가 파생되는 과정(the derivation of a noun from a verb)이 아니고 명사화된 단위가 전체 절(entire clause)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명사화는 아니라고 제시한다. 특히 명사화된 절에 있는 동사는 동사적 속성을 유지하며 그 논항과 부가어가 일반 문장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Noonan(1985/2007:118)에서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류나 ‘동사-목적어’ 구성의 ‘어휘적 명사화’와 절 전체가 명사화되는 ‘절 명사화’를 구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외의 일련의 논의들은 명사화 대상이 절 단위(명제)인지 특정 동사와 관련된 어휘 단위인지를 구분하며 형태, 통사적 측면에서 분류했다. 어휘적 명사화와 대비되는 범언어적인 ‘절 명사화’의 형태, 통사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제, 상’ 표시가 결여되기도 하지만 ‘인칭, 수’와 같은 동사성 범주가 표시되며 일반 문장과 같은 성격을 보인다. 둘째 논항과 부가어의 격 표시가 변화하지 않고 첨사만 부착되기도 한다.

논항과 부가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절 명사화는 국어 명사절 형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국어 용언 어간에는 어미가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장성분으로 쓰인다.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제시하며, 특히 용언은 다른 문장성분 기능을 가지면서도 서술어의 기능을 겸하는 부류라는 견해가 제시된다. 서술어의 기능을 겸한다는 것은 위 Comrie(2007), Givón(1990)과 같이 서술어 용언의 논항과 부가어가 일반 문장처럼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대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밑줄 친 부분과 같다.

밥 먹기가 싫다.

밥 먹기를 싫어한다.

‘먹다’는 꼴바꿈을 하더라도 그 서술어적인 성격을 잃지 않는다. 이를테면, ‘밥 먹기(가), 밥 먹기(를)’에서 ‘먹기’는 각각 주어와 목적어의 구실을 하고 있으나, ‘밥’이란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그것이 서술어의 성격을 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먹기’는 주어이기 전에 서술어의 기능을 갖는다. (허 웅, 1968: 24)

명사형은 명사형 어미 ‘-음, -기’로 이루어지고 명사로 완전 전성된 파생어와는 달라서, 임시 전환형이라고 할 만한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임시 전환한 명사형은 본질적으로 용언의 구실을 지키고 있으면서, 다만 명사처럼 쓰일 뿐이다. 여러 조사가 쓰일 수 있고 여느 용언과 같이 부사 수식을 받는다.

(김 민수 · 이 기문, 1968: 63-64)

명사형 어미 결합은 명사와 같이 쓰이어 격 조사도 취할 수 있게 해 주나, 앞에 오는 말들과의 관계로 보면 서술어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완진 · 이 병근, 1979: 54)

앞서 Comrie(2007)의 분류를 비롯한 일반적인 논의에 의하면, 파생 접사는 어휘적 명사화, 명사형 어미는 절 명사화와 관련된다. 어휘적 명사화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류(deverbal nominalization)를 의미하며 접사 결합으로 형성되는 명사를 말하지만 일부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파생명사를 형성하는 ‘-음, -기’도 기본적으로 명사형 어미로 본다.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명사형 어미와 그 상위 범주에 대한 설명에서 명사화 관점이 명확히 제시되므로 명사형 어미와 그 상위 범주에 대한 설명도 살펴 보면서 역대 문법 교과서들의 명사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3. 명사화소의 기본 성격과 명사, 명사형의 구분

3.1. 명사화소의 기본 성격: 어미와 접사 경계

일반적으로 명사를 만들 때는 접미사가 결합되고, 동사의 명사형을 만들 때는 어미가 결합된다.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설명이 제시된다.

동사 또는 형용사에서 명사를 만들 때에도 여러 접미사가 어간에 붙는다. 이를 전성명사라 한다.

먹다-먹이, 보다-보기, 싸다-쌈

문장에서 동사가 명사의 구실로 쓰일 때, 어간에 어미 ‘-음, -기’가 붙어서 명사형을 만든다.

누가 공부함을 그르다 하랴? 그 학생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다.

(이 승녕 1968:104, 134)

그러나 이 명권 · 이 길록(1968), 허 웅(1968)에서는 명사를 만드는 명사화소도 모

두 명사형 어미로 제시하고 있다.

명사형 어미가 붙어 명사로 굳어진 것과 동사의 명사형이 있다.

(이 명권 · 이 길록 1968:117)

빠른 걸음-비록 명사형 어미 ‘-음’이 씌었지만 완전히 명사로 전성된다.

(허 웅 1968:72)

이처럼 명사화소를 기본적으로 명사형 어미로 보는 관점은 양 주동 · 유 목상(1968), 이 희승(1968)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양 주동 · 유 목상(1968)에서는 말미에 전성명사의 ‘음’은 접미사로 구분한다.

명사로 전성시키는 ‘-음, -기’는 본래 어미이기 때문에 그 쓰임이 꼭 광범위하여 용언의 어간에는 물론, 서술격 조사 ‘이다’의 ‘아’에도 붙는다. 다음 (가), (나)를 비교해 보자.

(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빠른 걸음으로 가거라.

(나) 빨리 떠남이 좋지 않을까? 일찍 끝냄이 상책이다.

위의 (가) 등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으며 뒤에 조사를 취하였으므로 전성명사다. 그러나 (나)의 그것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았으므로 전성명사가 아니고 용언의 명사형이다. 곧 명사적 용법이다. (가)는 접미사, (나)는 어미이다.

(양 주동 · 유 목상 1968:101)

용언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체언[형식상으로만]으로 바뀔 경우에는, 그 용언 위에도 관형어가 쓰이는 일이 있다.

자릿자릿한 아픔이 나의 마음을 괴롭힌다.

영원한 삶은 기대할 수 없다.

(이희승 1968:142)

특히 이 희승(1968)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명사 ‘아픔, 삶’도 명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형식상으로만 체언으로 바뀐다고 보며 여전히 용언의 명사형으로 보는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사 또는 형용사에서 명사를 만들 때에도 파생 접사로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명사형 어미로 기술하는 교과서들도 있다(이 명권 · 이 길록 1968, 허 웅 1968, 양 주동 · 유 목상 1968, 이 희승 1968).

다음으로 문장의 체언화를 제시한 김 완진 · 이 병근(1968)에서도 명사형 어미와 명사파생 접미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문장의 체언화를 위하여 그 문장의 서술어를 동명사로 만들 때 서술어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를 결합한다. 명사형 어미는 명사 파생에도 쓰일 수 있다.

(김 완진·이 병근 1968:81)

‘문장의 체언화’라는 명시적인 용어로 절 명사화를 표방한 김 완진·이 병근(1968)에서는 ‘체언화’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접사’로 제시하고 있다. 한 품사에서 다른 품사를 만드는 ‘파생 접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접사’로 보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Comrie(2007:377)에서 제시한 Lakhota어 명사화와 같다. 곧 Lakhota어의 명사화된 절에 나타나는 동사는 명사와 같은 특징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어떤 변화 없이 정형적인 문장 전체에 첨사(article)만 부착하여 명사화가 되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법적 형태소인 첨사는 명사 파생의 접사와 구별되는 ‘절 명사화’ 표지이다.

허 웅(1979:54)에서는 기본적으로 격 조사가 구나 절의 문장성분을 규정한다고 제시한다. 명사화소가 결합된 단위가 문장성분으로 문장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격조사가 결합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가 구나 절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예가 많은데 이 경우의 조사가 격 조사이면, 그 앞의 구나 절을 일정한 문장 성분으로 규정한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이다.

운이고 무어고가 있소?

그들은 이내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는가를 알 수 있었다.

(허 웅 1979:54)

무엇보다 허 웅(1968, 1979)에서는 용언의 명사형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단위가 주격의 자리에 온다고 제시한다. 필자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격조사가 용언에만 의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앞의 말 전체 곧 문장에 의지한다고 제시하는데 명사화소에 후행하는 격조사가 절 단위의 격을 결정하는, ‘절 명사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용언의 종지법, 접속법의 주어

용언이 주어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명사형을 취해야 하는 것인데, 접속법이나 종지법으로도 주어 노릇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 경우에 주의할 일은 주격 조사는 반드시 용언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나 절 전체에 의지하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피로해서만-이’의 ‘이’ 주격조사는 용언에만 의지해 있으나 ‘무슨 댓가나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의 ‘가’는 앞의 말 전체에 의지해 있고 ‘과연....있을까-가’의 ‘가’도 역시 그러

하다.

그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피로해서만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 일을 보아 드리는 것은 무슨 댓가나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연 배를 타 낼 수 있을까가 걱정이다.

(허 용 1979:75)

이번 장에서는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 명사화소 ‘-음, -기’를 어떤 범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부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음, -기’가 결합하여 굳어진 명사가 되더라도 파생 접사로 보지 않고 명사형 어미로 보았다. 또한 일부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문장의 체언화로 문장 전체에 접사가 결합되었다고 보는 등 ‘-음, -기’의 범주를 접사로 규정하면서도 절 명사화소로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명사를 형성하는 ‘-음, -기’를 파생 접사로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명사형 어미로 보는 것에 대해 명사화 관점에서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4장에서 이러한 명사형 어미의 정의와 그 상위범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3.2. 동일한 명사화소 ‘-음, -기’로 형성되는 명사와 명사형의 구분

Comrie(1985/2007), Givón(1990)에서는 명사화된 단위의 동사적 성격으로는 부사(부사어) 수식을 받으며 동사성 범주(verb-internal categories(시제tense, 상aspect, 태voice, 타동성transitivity, 부정negation))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었고 명사적 성격으로는 속격(genitive) 구성을 이루며 형용사(관형어) 수식을 받으며 명사성 범주(noun-internal categories(격case, 복수number, 지시사definiteness))가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했다.⁵⁾ 이러한 범언어적인 논의에서도 명사와 명사형의 구분, 곧 명사성과 동사성을 구분하는 지표로 각각 관형어와 부사어 수식을 받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구분은 현대 국어 문법 내용에서도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⁶⁾ 역대 문법 교과서, 이 명권이 길록(1968), 허용(1968)에서도 명사형 어미가 붙어 명사로 굳어진 명사와 동사의 명사형을 각각 관형어와 부사어 수식 여부로 구별한다.

5) 특히 국어학 논의에서는 속격 구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형태, 통사적 특징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6) 현대 국어 기본적인 문법에서도 동일한 ‘-음, -기’ 명사화소로 이루어지는 명사와 명사형 구별에 대해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용언의 명사형’과 같은 구별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관형어, 부사어 수식을 모두 받는 예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음, -기’ 명사와 명사형의 경우, ‘명사’와 관련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동음 형태로 그 구별이 쉽지 않다.

여행의 목적은 단순한 구경하기가 아니다.

여행의 목적은 단순히 구경하기가 아니다.

잘 배움은 학생의 의무이다.

아이들의 배움은 부모의 의무이다.

음식을 많이 먹음은 위장에 해롭다. 제1명사형

혼자 하기가 힘이 든다. 제2명사형

위의 밑줄 친 ‘-음, -기’ 등의 어미는 동사로 하여금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게 한다. 이들을 명사형 어미라 한다. 명사형 어미가 붙어 명사로 굳어진 것과 동사의 명사형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그는 모범적인 읽기를 했다. 명사

그는 빨리 읽기를 하지 못한다. 동사의 명사형

꾸미는 말이 앞에 오면 명사이고, 한정하는 말이 앞에 오면 동사다.

(이 명권 · 이 길록 1968:117)

‘걸음’과 같은 말은 동사의 명사형으로도 되고, 아주 명사로 전성된 파생어가 되기도 한다.

해가 저 가니 빨리 걸음이 좋겠소.

에 있어서, ‘걸음’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꾸미는 말은 부사어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빠른 걸음

에 있어서는, 비록 명사형 어미 ‘-음’이 씌었지만 완전히 명사로 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꾸밀 때는, 체언을 한정하는 것과 같이 관형어가 쓰인다.

(허 웅 1968:72)

다만 이 명권 · 이 길록(1968), 허웅(1968)에서는 필자가 밑줄 친 것처럼 명사형 어미를 명사를 만드는 명사화소로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명사화소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제시하였다.

이 응백 · 안 병희(1979), 양 주동 · 유 목상(1968)에서도 명사는 관형어, 명사형은 부사어 수식을 받는 것으로 구별한다.

일부의 어미들은 그 동사로 하여금 앞의 말에 대하여는 서술의 기능을 가지면서, 뒤에 오는 말에 대하여는 명사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어미를 명사형 어미라 하고 명사형 어미에는 동작을 관념적으로 가리키는 정법 어미 ‘음’, 진행하는 뜻으로 가리키는 미정법 어미 ‘기’가 있다.

‘얼음’ 등과 같은 형태는 서술의 기능이 없고 사물의 개념만을 나타내므로 명사형이 아니다. 완전히 명사로 바뀐 단어들로서 그 앞에는 관형어가 쓰인다.

두꺼운 얼음, 큰 웃음, 당신의 집, 아름다운 꿈

(이 응백 · 안 병희 1979:31-32)

(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빠른 걸음으로 가거라.

(나) 빨리 떠남이 좋지 않을까? 일찍 끝냄이 상책이다.

위의 (가) 등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으며 뒤에 조사를 취하였으므로 전성명사다.

그러나 (나)의 그것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았으므로 전성명사가 아니고 용언의 명사형이다.

(양 주동 · 유 목상 1968:101)

그러나 현대 국어 문법에서도 제시되는 이러한 일반적인 구별법보다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부사어 수식 하나만 구별 기준으로 제시한 논의도 많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이 희승(1968), 김 민수 · 이 기문(1968)에서는 용언으로 된 주어, 곧 용언의 명사형을 수식하는 것이 부사어라고 자세히 제시한다.

용언이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ㅁ’이나 ‘음’ 또는 ‘기’를 붙여
서, 그 용언을 명사와 같은 성질로 바꾼 다음에, 다시 주격조사나 특수조사를 붙인다.

배움이 많다.

밝음이 어둠보다 좋다.

정성 있음이 일에 나타난다.

누워서 떡 먹기도 어렵다.

부사어는 서술어의 뜻을 제한하는 데 많이 쓰이지만, 용언으로 된 주어나 관형어나 또는 부사어의 뜻을 제한하는 데도 쓰이는 일이 있다. 부사어는 용언의 뜻을 밝히어 제한하는 말이므로, 주어든지 서술어든지 관형어든지 또는 부사어든지 그것이 용언으로 되었으면, 그 위에 부사어가 쓰일 수 있다.

(이희승 1968:141-142)

용언은 명사형 어미 ‘-음, -기’가 어미 ‘다’를 대신해서 이어받음으로써 광범위하게 명사형으로 된다. 이 명사형 끝에는 여느 체언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조사가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앞에 없힐 수 있는 것은 여느 용언과 같이 부사들이다. 이를 떼면,

벽계수야, 쉬 감을 자랑 마라.

열심히 공부하기가 우리의 소원이다.

명사형 어미 ‘-음, -기’로 이루어지고 명사로 완전 전성된 파생어와는 달라서, 임시 전환형이라고 할 만한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임시 전환한 명사형은 본질적으로 용언의 구실을 지키고 있으면서, 다만 명사처럼 쓰일 뿐이다.

(김 민수 · 이 기문 1968:63-64)

이 인모(1968:105)에서는 전성어미(용언의 명사형)과 전성품사를 표로 구별하고 있

는데 명사형만 부사 수식이 가능하다는 구별법을 제시한다. 특히 이 인모(1968)에서는 접사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일반적인 파생명사와 구별하기 위해 전성품사라는 용어를 쓴다. 앞서 이 송녕(1968), 양 주동·유 목상(1968)에서도 ‘전성명사’를 제시하였고 강 복수·유 창균(1968), 김 민수(1968), 이 을환(1968), 이 길록·이 철수(1979)에서도 ‘전성명사’로 제시한다. 물론 ‘전성’⁷⁾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론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전성명사’의 경우, 일반 ‘명사형 전성 어미’의 ‘전성’을 사용하여 교과서 저자들이 완전한 ‘명사’가 아닌, ‘명사’와 ‘명사형’의 중간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음, -기’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도, 파생명사가 아닌 전성명사로 다루며 ‘명사형 전성 어미(용언의 명사형)’와의 연계성을 제시한 것이다.

전성어미	전성품사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명사, 관형사, 부사
1. 기능, 의의, 형태상으로 보아서는 아직 완전히 다른 품사처럼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임시로 그와 비슷하게 쓰여지게 됐을 따름으로 어디까지나 그 품사는 용언이다. 2. 어간과 어미로도 가를 수 있다. 3. 앞에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4. 앞에 그것을 꾸미는 부사를 두어도 그 문장이 성립한다.	1. 기능, 의의, 형태상으로 보아서 이미 완전히 다른 품사로 바뀌어져 버리었다. 2. 어간과 어미로 가를 수는 없고 어근과 접미사로 가를 수 있을 따름이다. 3.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4. 앞에 그것을 꾸미는 부사를 두면, 그 문장이 이상하게 된다.

김 민수(1979)에서도 명사와 명사형의 구분을 부사어 수식 가능 여부로만 제시하고 있다.

명사와 명사형-여느 명사와 용언의 명사형과의 구별은 부사가 없히고 안 없히는 검증으로 쉽게 판단된다. 그런데, 이 파생 명사와 명사형의 구별도 이 검증으로 식별하지만, 때로는 아리송할 경우가 있다.

(1)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 (명사)

(2) 물이 얹으로, 얼음이 된다. (명사형)

등은 형태로 구별되나,

(1) 모양이 많이 다름. 빨리 달리기다. (명사형)

(2) 많은 다름이 있다. 무슨 달리기냐? (명사)

등의 예는 그렇지도 않다. 그러나 이 경우 같은 형태로서 용법에 따라 구별된다.

7) ‘전성’은 범언어적으로 형태 변화 없이 한 품사가 다른 품사로 쓰인다는 개념이지만 국어학 전통의 ‘전성 어미’의 경우, 그 외연이 다르다.

전성 명사와 명사형을 식별하려면 부사를 엮어본다. 명사형은 부사가 두루 잘 엮히기 때문이다. (김 민수 1979:85)

용언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쓰여도 여전히 용언의 서술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관형어 수식까지 제시하기보다는 부사어 수식 여부만 제시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명사인 경우는 부사어 수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이 희승(1969) 예문에서도 부사어 수식을 받으면 비문법적이거나 다른 수식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은 명확하다.

*자릿자릿하게 아픔이 나의 마음을 괴롭힌다.

*영원히 삶은 기대할 수 없다.

(이 희승 1968:142)

특히 이러한 부사어 수식은 용언의 서술성을 유지하여 서술어 용언의 논항과 부가어가 일반 문장처럼 유지되는, Comrie(2007), Givón(1990)에서 제시하는 절 명사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4. 명사형 어미와 그 상위 범주에 대한 기술 및 관점

4.1. 명사형 어미와 그 상위 범주에 대한 기술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품사론의 ‘활용’ 부분에서 ‘전성어미’, ‘자격법’ 등과 같은 상위 범주가 설정되며 그 하위 부류로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등이 제시된다. 이러한 상위 범주에 대한 정의가 명사화와 관련된 관점을 제시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명사형 어미에 대한 상위범주는 (3)과 같이 제시되고 (4)와 같이 그 정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3) 명사형 어미에 대한 상위범주

강 복수·유 창균(1968): 전용어미

강 윤호(1968): 전성법

이 을환(1968): 자격법

이 은정(1968): 자격법

이 인모(1968): 전성어미

이 희승(1968): 전성어미

최 현배(1968): 자격법(감목법)

김 완진·이 병근(1979): 자격형

이 길록·이 철수(1979): 전성법

허 웅(1968,1979): 두 기능법(서술어 이외의 다른 기능을 하게 함)

고등학교 문법(1985, 1991, 1996): 전성어미

(4) 명사형 어미와 상위범주에 대한 기술

ㄱ. 강 복수·유 창균(1968:40): 전용어미

동사를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로 ‘-기’는 명사처럼 쓰이게 하고, ‘-는’은 관형사처럼 쓰이게 하고 ‘-지’는 주로 다음에 오는 용언을 꾸미어서 부사처럼 쓰이게 한다.

ㄴ. 강 윤호(1968:56): 전성법

어간에 붙어 어간의 자격을 바꾸게 하는 어미로 명사형<명사의 자격으로 쓰임>, 관형사형<관형사의 자격으로>, 부사형<부사의 자격으로>이 있다.

ㄷ. 이 을환(1968:84-85): 자격법

동사의 어간에 전성어미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는 형식으로서 명사형<동사가 명사의 자격으로 쓰이는 형식>, 관형사형<동사가 문장 안의 다른 체언 앞에서 관형사와 같이 쓰이는 형식>, 부사형<동사가 다른 용언 앞에서 부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형식>이 있다.

ㄹ. 이 은정(1968:103): 자격법

본디 서술의 직능을 지닌 용언이, 그 자격을 바꾸어서 다른 품사의 구실로 쓰이는 법이다.

명사형<앞엣말에 대해서는 동사나 형용사 구실을 하면서, 뒤엣말에 대해서는 명사 구실을 하는 꼴>, 관형사형<앞엣말에 대해서는 동사나 형용사 구실을 하면서, 뒤엣말에 대해서는 관형사 구실을 하는 꼴>, 부사형<앞엣말에 대해서는 동사나 형용사 구실을 하면서, 뒤엣말에 대해서는 부사 구실을 하는 꼴>이 있다.

ㅁ. 이 인모(1968:80): 전성어미

용언이면서 임시로 명사나 관형사 또는 부사와 같이 전성하여 쓰이게 하는 어미이다.

ㅂ. 이 희승(1968:53): 전성어미

어떤 용언에 붙어서 그 용언을 명사와 같은 성질로 만드는 어미를 명사형 어미라 일컫는다.

명사와 마찬가지로의 성질을 가졌으며 이와 같은 말을 동명사(gerund)라 일컫어서, 문법에서 흔히 명사와 같이 처리한다. 그러나 완전한 명사는 아니다.

ㅅ. 최 현배(1968:30): 자격법(감목법)

‘잡아, 잡는, 잡기’와 같이 문장의 서술어가 되어서 마치지 아니하고, 동시에 그 자격(감목)을 바꿔서 다른 품사(씨)처럼 되는 법으로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이 있다. 명사형(이름꼴)은 동사(움직씨)가 일변에는 동사(움직씨)의 노릇을 하면서, 다른 일변에는 명사(이름씨)의 감목을 가지는 형(꼴)이다. -(으)ㄴ (첫째 이름꼴), -기(둘째 이름꼴)

ㅇ. 김 완진·이 병근(1979:53): 자격형

동사로 하여금 명사나 관형사나 부사와 같은 자격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주는 어미로서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의 세 가지가 있다.

ㅈ. 이 길록·이 철수(1979:121): 전성법

동사로 하여금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로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어미가 있다.

ㅊ. 허 웅(1979:73): 두 기능법

서술어 이외의 다른 성분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활용형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일정한 성분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먹은(밥)’은 관형어의 자격을 가진다. 다른 하나는 꼭 체언처럼 여러 가지 성분을 두루 맡게 되는 것이니, ‘먹기, 아름다움’이 그것이다.

ㅊ. 고등학교 문법(1985:34, 1991:36): 전성어미

한 문장의 성격을 임시로 바꾸어 전성형이 되게 하는 어미 명사형 어미 ‘-기, ㄴ’은 한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준다.

ㅊ. 고등학교 문법(1996:49): 전성어미

어말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우리는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위 문장에서 ‘-은, -기’가 쓰인 ‘추운’과 ‘지나가기’는 각각 관형어와 목적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술하는 기능과 더불어 또 다른 기능을 하도록 하는 어미를 전성어미라 한다.

4.2. 명사형 어미와 그 상위범주 기술에서 제시하는 명사화

앞 장에서 살펴본 역대 문법 교과서의 명사형 어미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이 네 부류로 나뉜다.

(5)

ㄱ. 강 복수·유 창균(1968), 강 윤호(1968), 이 을환(1968), 이 길록·이 철수(1979)

동사(용언)를 명사처럼 쓰이게 하거나 명사의 자격으로 쓰이게 하는 어미.

ㄴ. 이 인모(1968), 이 희승(1968)

용언이면서 임시로 명사와 같이 쓰이거나 명사와 같은 성질(동명사)로 만드는 어미.

ㄷ. 이 은정(1968), 최 현배(1968), 허 웅(1979), 고등학교 문법(1996)

다른 품사의 구실로 쓰이더라도 앞엣말에 대해서는 용언 구실을 하면서 뒤엣말에 대해서 다른 품사의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ㄹ. 고등학교 문법(1985, 1991), 김 완진·이 병근(1979:53)

명사형 어미 '-음, -기'는 한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주며 한 문장의 성격을 임시로 바꾸어 전성형이 되게 하는 어미.

명사형 어미에 대한 설명에서는 동사를 명사의 자격으로 쓰이게 하거나(5ㄱ), 임시로 명사와 같이 쓰이거나(5ㄴ) 명사로 쓰이더라도 용언 구실을 한다고 하거나(5ㄷ) 아예 문장을 명사로 만든다고(5ㄹ) 제시한다. 특히 이렇게 명사형 어미에 대해 공통적인 정의 및 설명을 제시한 교과서들은 (6)처럼 절 설정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단, 이 은정(1968), 이 희승(1968)에서는 절 분류가 본래 제시되지 않았다.

(6)

ㄱ. 문장성분으로 절을 설정한 부류

강 복수·유 창균(1968), 강 윤호(1968), 이 을환(1968), 이 길록·이 철수(1979)

ㄴ. 체언절이나 동명사를 설정한 부류

이 인모(1968)-체언절, 이 희승(1968)-동명사(절 없음)

ㄷ. 체언절이나 명사절을 설정한 부류

이 은정(1968)-체언절, 최 현배(1968)-체언절, 허 웅(1979)-체언절, 고등학교 문법(1996)-명사절

ㄹ. 문장의 체언화를 제시한 분류

고등학교 문법(1985, 1991)-문장의 체언화(명사절), 김 완진·이 병근(1979:53)-문장의 체언화(동명사)

먼저 (5,6ㄱ) 교과서들에서는 ‘동사, 형용사의 직능’ 단원에서 명사형 어미가 어간에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보어, 독립어 등으로 쓰인다고 제시하며 무엇보다 명사절이나 체언절을 설정하지 않는다.⁸⁾ 다만 '-음, -기'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주어절,

8) 단, 이 을환(1968)에서는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 외에 명사절도 설정한다.

명사절: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절로서 그 절의 서술어가 명사형으로 된 절

우리는 꽃이 피기를 기다렸다.

교통난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목적어절, 보어절로 쓰이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명사절이나 체언절 대신 문장 성분으로서의 절 기능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5,6ㄱ)을 제외한 다른 교과서에서는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을 제시하지 않고, 명사절 또는 체언절을 설정하여 절이 명사, 체언처럼 쓰인다고 제시하며 ‘동명사’(이 희승 1968:53), 김 완진·이 병근 1979:119)) 혹은 ‘문장의 체언화’(김 완진·이 병근 1979:53), 고등학교 문법 1985)라는 개념어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5,6ㄱ)을 제외하고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동명사, 명사절, 체언절, 문장의 체언화’라는 문법 범주 및 개념어가 제시되어 절 전체가 명사화되는 관점이 드러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절 전체가 명사화되는 관점의 개념어 ‘동명사, 명사절, 체언절, 문장의 체언화’를 제시한 교과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4.3. 절 명사화: 동명사, 명사절, 체언절, 문장의 체언화

4.3.1. 동명사

이 희승(1968)에서는 명사형 어미를 용언을 명사와 같은 성질로 만드는 것으로 제시하며 용언에 ‘-음, -기’가 결합된 것을 동명사(gerund)로 일컫는다. 덧붙여 문법에서 흔히 동명사를 명사와 같이 처리하나 완전한 명사는 아니라고 제시한다. 나아가 김 완진·이 병근(1979)에서는 ‘문장의 체언화’란 용어로 절 명사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절 명사화에 관여하는 동사의 명사형을 동명사로 제시한다.

‘용언 어간+ㅁ’ 또는 ‘용언 어간+기’를 흔히 동명사라 부르는데 이 문장의 체언화에서 볼 때 그 체언화의 접미사인 ‘-음, -기’는 단순히 용언 어간에 결합되는 것이 아니고 문장 전체에 결합된다. 즉 동명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여전히 지니는 것이다.

(김 완진·이 병근 1979:119)

동명사(gerund)는 주로 영어학 등에서 쓰는 용어로 ‘동사+ing’로 대표되며 명사적, 동사적 특징을 모두 보인다. 다만 동명사는 시제를 표시하지 않으며 시제와 무관한 것이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희승(1968), 김 완진·이 병근(1979)에서 제시하는 국어 동명사의 경우 이러한 특징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국외의 동명사와 국어 용언의 명사형은 다른 점도 있지만 용언의 명사형을 ‘동명사’로 명명한 것 자체는 용언의 명사형에 대한 특수한 성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명사’로 명명한 교과서에서는 서술어가 동명사인 문장에서 ‘문장의 체언화’가 나타난다고 명시한다.

4.3.2. 명사절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0-1970년대 검인정 시기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명사절이 설정되지 않고 주로 문장성분에 따라 절을 설정하여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이 설정된다. 명사절은 고등학교 문법(1985)(심의본)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고등학교 문법(1985)을 위시하여 현재 문법 교과서까지 모두 명사절로 제시된다. 이러한 명사절과 관련된 명사형 어미의 설명은 '한 문장의 자격을 임시로 바꾸어 주는 기능'으로 순전히 문장 차원의 절 명사화가 제시된다. 곧 명사절을 제시한 교과서의 명사형 어미 기술에서도 절 명사화가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절 명사화 관점에서 '명사형 어미, 명사절'이 제시된 경우 '관형사절+것' 구문과의 교체 여부가 제시된다. 문장성분에 따라 절이 설정된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에서는 '관형사절+것' 구문과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되지 않았지만 명사절이 제시되면서 문장 전체에 대한 명사화 관점을 보이는 교과서에서만 '관형사절+것' 구문과의 교체 여부가 제시된다.

한 문장이 명사절이 되어서 전체 문장의 한 성분이 되는데, '음' 명사절은 대부분 '것' 명사절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철수가 축구에 소질이 있음이 밝혀졌다. -> 소질이 있는 것

나는 그가 이름난 음악가임을 어제서야 알았다. -> 그가 이름난 음악가인 것

(고등학교 문법 1985:143)(심의본)

한 문장의 성격을 임시로 바꾸어 전성형이 되게 하는 어미를 전성어미라 하고 이를 다시 구별하여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라 한다. 명사형 어미 ‘-(으)ㄴ’으로 된 명사절은 대부분 ‘-는(ㄴ) 것’ 명사절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는 관형사형 어미 ‘-는/-ㄴ’과 의 존명사 ‘것’이 어울려 이루어진 명사절이다.

철수가 축구에 소질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그가 이름난 음악가인 것을 어제서야 알았다.

(고등학교 문법 1991:170)

명사절을 안은 문장

인호가 축구에 소질이 있음이 학교에 알려졌다.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음’에 의한 명사절은 다음과 같이 관형절과 의존명사로 된 ‘는/은 것’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인호가 축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이 학교에 알려졌다.

나래는 인호가 축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고등학교 문법 1996:76)

‘관형사절+것’ 구문은 ‘-음, -기’ 명사절보다 더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많이 논의되며 소위 ‘것’ 명사절로 일반 명사절에 편입되는 추세이다(문 숙영 2017, 유 현경 2018 참조). 명제 전체 의미를 대상화하며 ‘것’ 자체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어 ‘명사화소’로 문법화가 진행되는 이러한 ‘관형사절+것’ 구문의 경우, 관계절이 선행하여 명사적 성격을 보이고 격조사와 결합하여 전형적인 술어의 논항 자리에 나타나 절 명사화의 대표적인 부류로 볼 수 있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관형사절+것’ 구문을 명사화된 절(nominalized clause)로 명명하며 다룬다(Kim 2009, Shim & Ishane 2017, Bogal-Allbritten & Moulton 2018 등 참조).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이 아닌 이러한 명사절에서 ‘것’ 구문과의 교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절 명사화 관점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과 같이 문장성분에 대응되는 절을 설정한 교과서들의(4-7) 명사형 어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동사를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강 복수·유 창균 1968), 어간의 자격을 바꾸게 하는 어미(강 윤호 1968), 동사의 어간에 전성어미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는 형식(이 을환 1968), 동사로 하여금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이 길록·이 철수 1979)’와 같이 ‘어휘적 명사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 ‘절 명사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러한 ‘어휘적 명사화’ 관점은 일부 교과서에서 명사 파생에 쓰이는 ‘-음, -기’ 명사화소도 기본적으로 명사형 어미로 보는 것과 관련된다.

이처럼 역대 문법 교과서 ‘명사형 어미’ 기술은 동사에서 다른 품사를 만드는 ‘어휘적 명사화’ 관점과 ‘절 명사화’ 관점으로 나뉘지며 이러한 관점은 절 설정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 ‘명사절’, 그리고 다음 장에서 살펴봤지만, ‘체언절’을 설정한 경우에만 ‘관형사절+것’ 구문과의 교체를 제시하고 의문문도 체언절에 포함하며 ‘절 명사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명사형 어미	
어휘적 명사화	절 명사화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 ‘관형사절+것’ 구문과의 교체 없음	명사절, 체언절 ‘관형사절+것’ 구문과의 교체 있음 의문문도 체언절에 포함함

4.3.3. 체언절 및 문장의 체언화

먼저 1960년대 교과서, 이 인모(1968), 허 웅(1968, 1979), 최 현배(1968)에서 체언절을 설정한다. 이러한 체언절의 경우, 한 품사, 곧 체언처럼 쓰이는 절로 제시되어 절 명사화를 보여준다. 체언절에서도 ‘관형사절+것’ 구문과의 교체 여부가 허 웅(1968, 1979), 고등학교 문법(1985)(연구서)에서 제시된다. 다만 이 응백·안 병희(1979)에서는 ‘관형사절+것’ 구문은 체언절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고 ‘의문문 구성’은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한 품사와 같은 다름을 받아 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어울리고 있으므로 이를 통틀어 성분절이라 이른다.

체언절: 그가 성공함은 노력의 결과이다. (이 인모 1968:143)

체언절-체언처럼 쓰이는 절

맛이 달기가 꿀과 같다.

나는 비가 음을 좋아하오. (최 현배 1968:129)

체언절: 주어(및 다른 성분)가 용언의 명사형에 수반되어 만들어진다.

얼굴이 희기, 보기 싫기.(주어+명사형)

내가 빨리 걸음.(주어+부사어+명사형)

용언의 명사형 이외에도 체언절을 만들 수 있는 말에 불완전명사가 있다.

내가 거기에 간 것.-체언절 (허 웅 1968:116)

한 문장이 명사형 어미에 의하거나 또는 의문법 어미를 가진 그대로 체언의 구실을 하는 절을 체언절이라고 한다. 체언절은 체언과 마찬가지로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큰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로 쓰인다.

나는 해가 솟아오름을 보았다.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의문법 어미로 끝난 문장, 곧 의문문 그대로 체언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주어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부사어

(이 응백·안 병희 1979:116)

‘체언절’ 대신 현재 문법 교과서까지 ‘명사절’이 쓰이는데, 고등학교 문법(1985)(연

구서)에서 마지막으로 ‘체언절’ 내용이 제시된다. 역시 ‘관형사절+것’ 구문도 체언절로 제시된다.

주어는 체언, 체언구, 체언절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체언구나 체언절이 주어로 쓰이면 주어가 대단히 복잡해질 수 있다.

나를 어려서부터 가장 아껴 주시던 김 선생께서 이번에 지방도시로 전근을 하셨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운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고등학교 문법 1985:93)(연구서)

다음으로 ‘문장의 체언화’ 개념을 제시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체언절을 제시한 논의인 고등학교 문법(1985)(연구서)에서 ‘문장의 체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장의 체언화는 문장에 ‘-것, -ㅁ(음), -기’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문법 1985:157)(연구서)

김 완진·이 병근(1979)에서도 ‘문장의 체언화’라는 제목으로 체언화의 접사가 문장 전체에 결합된다고 제시하며 절 명사화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문장의 체언화

하나의 문장 전체를 체언화시켜 이것을 확대된 문장의 한 성분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을 문장의 체언화라 한다. 하나의 문장을 체언화시키려면 그 문장의 서술어를 체언형(또는 명사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체언형을 만드는 접미사는 ‘음, 기’가 있다. 대체로 동사의 경우, ‘음’은 용언의 개념이 정하여진 경우에 쓰이고, ‘기’는 막연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쓰인다.

문장의 체언화는 복문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 확대된 문장의 한 성분이 되면서도 그것은 또 주부와 서술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명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지니는 것이다.

그는 정직하다 → 그가 정직함을 누가 모르랴.

그는 정직하였다. → 그가 정직하였음이 밝혀졌다.

(김 완진·이 병근 1979:119)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용언의 명사형을 동명사로 제시하기도 하며 ‘명사절, 체언절’과 같은 절 단위 명사화 범주를 제시하고 ‘문장의 체언

화’라는 설명을 제시한다. 이러한 절 명사화 관점에서 명사절, 체언절을 설정한 경우에만 ‘관형사절+것’ 구문과의 교체를 제시하며 나아가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의문문도 체언절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관형사절+것’ 구문과 의문문도 ‘명사절, 체언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떤 표지의 절이 와도 그 성격은 명사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절 명사화 관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5. 결론

본 발표에서는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 명사 형성 명사화소도 접사가 아닌 명사형 어미로 보고 절 형성 명사화소도 명사형 어미가 아닌 접사로 보기도 하는 것에 대해 명사화소의 기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범언어적인 형태, 통사적 명사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어미의 경우, 단어 이상의 단위와 결합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명사형 어미의 경우 명사파생 접미사와 동음 형태이며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음, -기’가 결합하여 명사가 되더라도 ‘-음, -기’를 파생 접사로 보지 않고 명사형 어미로 보았다. 이러한 어휘적 명사화 관점, 곧 동사나 형용사에서 명사를 만드는 형태론적 명사화는 명사형 어미 기술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역대 문법 교과서 명사형 어미의 기술에서는 ‘어휘적 명사화’ 관점도 나타나지만 ‘절 명사화’ 관점이 두드러진다. 기본적으로 용언의 명사형이 서술성을 유지하여 부사어 수식 등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것은 절 명사화 관점을 나타낸다. 무엇보다 명사절, 체언절과 같은 절 단위 명사화 범주를 제시하고 ‘문장의 체언화’라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 명사화 관점에서 명사절, 체언절을 설정한 교과서에서는 어휘적 명사화 관점의 명사형 어미 기술을 제시하며 문장성분에 대응되는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 등을 설정한 교과서와는 달리, ‘관형사절+것’ 구문과의 교체를 제시하며 나아가 의문형 어미로 종결되는 의문문도 체언절에 포함시키며 절 명사화 관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어미’ 일반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었고 그만큼 견고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명사파생 접사’와 동음 형태인 ‘명사형 어미’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화’라는 관점에서 ‘명사형 어미’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지만 연구사적 고찰을 토대로 문제의식만 드러낸 예비적, 기술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명사형 어미와 접사’ 및 ‘전성’의 본질에 대해 좀 더 설명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 복수·유 창균. 1968. 문법. (대계 II 1부 54책 143)
강 윤호. 1968. 정수 문법. (대계 II 1부 54책 144)
양 주동·유 목상. 1968. 새 문법. (대계 II 1부 54책 145)
이 명권·이 길록. 1968. 문법. (대계 II 1부 55책 146)
이 승녕. 1968. 국어문법. (대계 II 1부 56책 147)
이 을환. 1968. 최신 문법. (대계 II 1부 56책 148)
이 은정. 1968. 우리 문법. (대계 II 1부 57책 149)
이 인모. 1968. 새 문법. (대계 II 1부 57책 150)
이 회승. 1968. 새 문법. (대계 II 1부 58책 151)
정 인승. 1968. 표준 문법. (대계 II 1부 58책 152)
최 현배. 1968. 새로운 말본. (대계 II 1부 59책 153)
허 응. 1968. 표준 문법. (대계 II 1부 59책 154)
김 민수·이 기문. 1968. 표준 문법. (대계 II 1부 59책 155)
김 완진·이 병근. 1979. 문법. (대계 II 1부 60책 156, 157)
김 민수. 1979. 문법. (대계 II 1부 61책 158, 159)
이 길록·이 철수. 1979. 문법. (대계 II 1부 62책 160, 161)
허 응. 1979. 문법. (대계 II 1부 63책 162, 163)
이 응백·안 병희. 1979. 문법. (대계 II 1부 64책 164, 16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편). 1985. 고등학교 문법. (대계 II 1부 66책 168, 16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편). 1991. 고등학교 문법. (대계 II 1부 67책 170, 17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편). 1996. 고등학교 문법. (대계 II 1부 68책 17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편). 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권 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김 진희(2018), 역대 문법 교과서의 ‘구와 절’ 기술-문장 분류와 관련된 논점을 중심으로-,
한글 79, 595-627.
문 숙영(2017),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것' 명사절, 국어학 84, 33-88.
유 현경(2018), 한국어 명사절의 범위에 대한 연구, 한글 79-1, 한글학회, 37-66.
허 응(1983), 국어학, 샘문화사.
- Bogal-Allbritten, Elizabeth & Keir Moulton.(2018), Nominalized clauses and reference to
propositional content. Proceedings of Sinn und Bedeutung 21 (1), 215-232.
Comrie, B.(2011), Action nominals between verbs and nouns, Rivista di Linguistica 23.1
(2011), pp. 7-20.
Comrie, Bernard and Sandra A. Thompson(1985) 'Lexical Nominalization'. In: Timothy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III: Grammatical

-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9-398.
- Dik, Simon C.(1997), The Theory of Functional Grammar. Part I:The Structure of the Clause, Berlin and New York, NY: Mouton de Gruyter.
- Dixon, R. M. W.(2010), Complementation, In Dixon & Aikhenvald (eds.), Complement clauses and complementation strategi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48.
- Genetti, C.(2010), Complement Clause Types and Complementation Strategy in Dolakha Newar, In Dixon & Aikhenvald (eds.), Complement clauses and complementation strategi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37-158.
- Givón, T.(1990)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II. Amsterdam: Benjamins.
- Kim, Min-Joo.(2009) E-type anaphora and three types of kes-construction in Korea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7:345-377.
- Noonan, M.(1985), Complementation, In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omplex constructions, Volume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140.
- Shim, Ji Y. & Tabea Ihsane(2017), A New Outlook of Complementizers. Languages 2.3:17.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방언과 지명

2020년 5월 8일(금)

□ 일반/ 연구 발표

불필요한 외국어 줄이기 방안을 위한 고유어 연구

곽 은희

한남대학교 초빙교수
earnhee@hanmail.net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현 사회에서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현상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외국어에 대한 대립적 요소로서 고유어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사회의 수용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그 가능성을 탐색한 것이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건축물 명명이 불필요한 외국어로 사용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200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별한 사회적 변화 조짐이 없이 지속되고 확장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건축물의 한글 명칭을 영어로 법적으로 바꾸는 사례도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의적인 창씨개명으로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언어는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그 필요가 즉시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으로나, 언어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한 선택으로나, 또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을 사용하는 언중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언어

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먼저 불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에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지속되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인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청자와 화자가 상호 소통하고 있다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모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외국어를 쓰는 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세계화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부정적 관점은, 교육적 특권층으로서 과시하려는 심리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위 계층이 대부분 외국어 교육을 받은 환경이고, 불필요한데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교육적 특혜에 대해 과시하려는 심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시적 심리에 대해 풍자하고 회화하기도 한다. 외국어 사용과 고유어 사용을 애국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국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순간적인 정보전달 기능만 있고, 말로 정착될 경우 현재와 다음 세대에 언어 사용에서 사회적 혼란이 예측되므로 고유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고유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 정서를 표현하고, 말 속에 문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서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에도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채 영희(2003)는 우리말 교육에서 고유어와 방언의 교육적 보존을 검토하며 고유어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성 환갑(2014)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조화를 논증하며 고유어를 언급하였다. 이 두 논문의 목적은 본 논의에서 주장하는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의 대안으로 고유어를 확산하자는 주장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고유어의 가치가 드러난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로 언어적 자원으로서 고유어가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의와 고유어에 대한 논점이 유사한 연구로 홍 윤기·서 회정(2010)은 그동안 한자어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고유어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국어교육에서 고유어가 지니는 독특한 특징을 찾아내어 그 교육적 가치에 관해 논의했다. 고유어가 지니는 독특한 특징을 찾아내고,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인 것처럼 외국어, 특히 영어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고유어 교육은 학교 교육 외에서도 내국인에게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고유어 활용 명명의 측면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관점으로 김 정태(2011)는 인명 명명으로 고유어 활용에서 명명의 특성을 상세히 규명했다. 이 연구는 본 논의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로서 매우 큰 기초가 되었다.

2.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의 사회적 배경

2.1. 문제 양상

외국어 사용의 사회적 양상을 보면, 전문용어로서 아직 우리말로 변환할 수 있는 명칭이 없을 때 외국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말이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중에서도 언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공공 건축물 이름짓기이다. 건축물명은 고정된 명칭이 변동되는 경우가 드물고, 언중의 생활에서 자의적인 사용이 아니어도 늘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이 정해지면 부적절한 명칭이라 하여도 언어생활의 일부로 수용된다.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부적절하다고 인식되면 그 언어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건축물명의 경우에는 부적절하다고 인식해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묵인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과 같은 공적 명칭은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의 결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된다.

그런데 언중은 어떤 방식으로 불필요한 외국어를 건축물명으로 수용하는 것인가. 건축물명은 보편적으로 공공 건축물로 교명이나 아파트명이 있다. 특정한 공공 단체나 이익 집단에서 이름을 짓고 언중은 그것을 수용하여 사용하게 된다. 주거 건축물 명명은 대부분 건축물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 이름짓기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브랜드 이름 짓기는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등 제반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최근에 외국어를 사용한 건축물 명명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관점에서 드러나는 부적절한 현상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정 경일(2007)은 브랜드 네이밍에 관해 상품이 유통되는 사회적 특성과 사회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보고,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등 계통적 분류와 이에 따른 제반 양상을 점검하였다. 이는 상품이라는 경제적 필요에 따른 브랜드 이름짓기의 현재적 양상을 고찰한 것으로, 건축물(아파트)을 상품으로 볼 때, 언중이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와 외래어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언중이 불필요한 외국어를 교명이나 주거지명에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는 이유가 자본주의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동요되는 특성이 있음을 관찰하고 그 불필요성의 인식을 위해 고유어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 동요의 특성은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함으로 자본주의 경제 관점과 더불어 지적 과시를 의식하는 교육적 특권층을 추구하는 계층이동의 인식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2.2. 불필요한 외국어 수용 원인

연구의 시급성은 불필요한 외국어가 우리말로 정착될 수 있다는 매우 부정적인 가능성이다. 말은 언중이 사용하면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조건으로 성립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외국어를 언중이 두루 쓰다 보면 마침내 우리 말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이 문제는 다음 세대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며, 다음 세대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무의식중에 우리 말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어 연구로 어원을 찾다 보면,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한 결과라는 잘못된 차용의 예로 나타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시대 언중의 정상적인 문화 반영으로 생성된 언어가 아니고,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라는 잘못된 근거에 의한 언어 형성은, 비정상적인 언어 형성으로, 언어문화 오류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우리 언어로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 언어 변천 과정에서 발음의 오류로 지명이 변화되거나 단어가 변화된 어원연구 사례가 흔히 있으나, 그 기본 어원이 우리의 문화 속에 생성된 언어인 것과 불필요하게 사용된 외국어 차용으로 이루어진 언어 생성 오류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모어 화자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와 같은 언어 행위를 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어는 정보전달의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소통의 상황에서 외국어는 분명히 의사전달, 정보전달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능은 그 순간의 지시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그 단어 자체는 모국어와 다르게 표의문자로서 기능할 것이다. 에스페란토어처럼 언어가 단편적인 기능만을 할 때, 언어의 본질적인 가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전달 수단으로 폄하되어 사용될 수 있다.

3. 고유어 활용의 의미와 기능

3.1. 모어로서의 의미

문화적 측면에서 언어의 또 다른 가치는 무엇일까? 언어는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서, 정신 문화적 의미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단편적인 정보전달과 문화로서 언어의 기능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은 단순히 사실을 전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능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어의 특성과 제 2언어라 하여도 외국어의 특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소통 관계에서 말이 갖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동일 문화권에서 가장 긴밀한 접촉어인 말로서 갖게 되는 상호 간의 관계 형성은 즉각적인 소통의 기능으로서 외국어와는 다르다.

고유어의 정의는 “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

어진 말. 국어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따위가 있다. 늑토박이말 · 토착어.이다. 그리고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국어의 많은 고유어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에서 고유어가 사라진 이유를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고유어가 사라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또 영어나 다른 외국어가 들어오면서 현재 사용하는 언어가 사라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도 고등 교육 학습자들이 언어 사용에서 명사보다 Noun을 더 잘 이해한다든지, 클럽을 동호회보다 더 쉽게 인식한다든지 하면서 우리말이 사라지고 외래어로 표현하는 현상이 빈번하다.

3.2. 대립어로서의 기능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줄이기 방안에서 고유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어 사용 선호에 대한 언중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적 기능이다. 둘째는 화자와 청자가 갖는 새로운 이미지가 융합되어 형성된, 새로운 언어로서의 기능이다. 먼저 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할 때, 그 상황이 지속되는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점이 필요한데, 고유어으로써 적절한 언어 사용의 그 균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언중이 몰입하는 외국어 사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적 대상으로서 고유어를 제시할 수 있다.

고유어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언어이다. 현실어와 다르게 고어 고유어를 사용할 때, 이전에 사용되던 고유어가 생소하거나 현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생소한 고유어는 새로운 언어를 추구하여 지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언중의 지적 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언중이 사용하는 표면적으로 보기에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 기저에 언중의 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 불필요성을 상쇄할 만한 내면적 필요는 외국어라는 생소함을 수용하는 지적 만족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특별히 가장 일상적임 기본적인 사용 도구로서 언어의 새로움은 언중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교육적 만족감을 얻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언중이 갖고 있는, 외국어라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고유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에게 상용되는 고유어는 이미 새로운 단어로서 관심도가 낮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고유어는 학습해야 할 정도로 익숙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고어 고유어의 뜻을 잘 모르고 있어 외국어를 학습하듯이 학습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영어 교육에 대한 몰입 정책으로 언중의 관심이 외국어 사용에 집중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 유행되었다면, 고유어 교육에 대

한 특별한 정책으로 향후 예상되는 언어생활의 위험 상황을 일부분이나마 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유어 교육은 국어 교육과 교양 교육 정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유어 교육의 용이성은 오히려 “한글한자문화”의 ‘고유어로 알기 쉬운 한자어’로써 한자를 교육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와 다르게 고유어가 이전에는 언중에게 매우 기초적인 언어로서 사용되었다는 근거이다. 고유어가 언어생활의 현재적 감각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목적이 고유어 교육이 아니어도 고유어로서 영어를 교육하는 방법 등도 사회의 관심을 활용한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유어 확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초등 교육과 시대성을 반영한 간접적 매체 교육 방안일 것이다. 기초 학교 교육과 시대적 교육 방안인 매체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은 고유어의 확산과 외국어 사용 유행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불필요한 외국어에 대한 인식 전환

4.1. 외국어 사용 축소

우리말 사용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우려는 2000년 초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필요에 따라 외국어가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속되는 것은 언어생활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말은 언중이 사용하여 두루 쓰이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외국어가 두루 쓰이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마침내 말로 고착된다. 이 문제는 다음 세대의 언어생활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다음 세대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우리 말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언중이 사용하는 말의 어원을 연구할 때 대부분 불필요하게 사용된 외국어라는 점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 확산되는 것이 중대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 건축물의 외형은 이미 서구화되었는데 건축물 이름도 서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언중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계층을 교육적 특권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적 특권은 사회의 경제적 특권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오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교육적 상위계층의 경제적 상위계층이 되고, 전체 경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계층이동을 하고자 하여 외국어를 선호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어 건축물 이름을 외국어로 바꾸는 민사사건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역으로 고유어를 건축물 이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신도시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건축물명을 고유어로 짓도록 하기도 한다. 마을 이름을 고유어로 사용

한 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자치단체로 이름을 공식 사용한 것이다. 세종시는 가락 마을, 가재 마을, 샛골 마을 호려울 마을, 수루배 마을, 글미 마을 등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름을 민 마루 초등학교, 고운 초등학교, 으뜸 초등학교 등 한글 이름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고유어의 뜻을 언중이 알기 어렵고,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건축물 이름(주거) 대부분이 외국어이다.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고유어를 사용한다 하여도 건축물이 100년 이상을 담보하고 언중의 말이 후대로 지속된다면, 건축물명으로 지어진 고유어 사용과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수정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4.2. 고유어 사용 확대

언중이 고유어에 관심을 갖고, 익숙하지 않은 고유어를 새말로 인식하는 것은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대립요소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고유어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홍 윤기·서 희정(2010)은 고유어 용언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고유어의 위상과 등급화를 고찰했다.

고유어를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에 대립 되는 언어대상으로 삼고자 할 때, 고유어는 그 뜻을 모르고 사전적 언어로서 사용하지 않아서 말보다 문자적 또는 의미적 소용성으로 존재할 때, 새말로서 인식되는 긍정성을 갖는다. 불필요한 외국어가 언중에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표현이라는 점에서 새로움에 대한 욕구와 언어 사용의 욕구로서 필요하다면, 고유어를 새말로 인식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장에서 언급한 건축물명을 고유어로 짓는 구체적인 방안은 가장 현실적인 고유어 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 건축물의 고유어를 활용한 고명명은 고유어 인명의 명명과 유사하다. 이것에 관해 김 정태(2011)는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단어로서의 이름이 명명자에 의해 명명되는 과정과 결과에서의 특징을 규명했다. 그리고 고유어 인명의 음운적 특징으로 ‘조음’의 수월성과 형태상의 특징으로 줄임법을 사용하고 굴절형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어휘 선택을 고어와 옛날의 음차표기에 대응하는 것, 비규범적이고 비통사적인 특성을 상세히 규명하였다. 이 논의를 활용하여 본 논의(2.1.)에서 제기한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현재의 건축물 명명에 적용하면, 건축물 고유어 명명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줄이기 위하여 고유어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불필요성의 의미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언중의 내면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 불필요한 외국어가 말로 정착되고, 다음 세대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고유어는 모어로서 언어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고유어는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지속을 지체시키는 대립적 대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구체적으로 건축물 명명에 고유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언중의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점검과 새롭게 고유어를 수용함으로 외국어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지적 전환 기능을 할 수 있다.

고유어에 대한 다양한 언어학적 지식이 사회에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언어생활에 불균형을 이룰 정도의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유어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내국인 교육 방안은 이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김 윤학(1987). 「한자말을 토박이말로 맞췄기는 데에 따르는 문제와 그 해결책」,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51~63쪽.
- 김 정태(2011). 「고유어 인명의 명명 특징」, 인문학연구 85,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7~111쪽.
- 성 환갑(1987). 「고유어의 한자어화 과정」,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40~50쪽.
- 성 환갑(2010). 「고유어와 한자어의 조화」, 어문연구 38(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65쪽.
- 시 정곤·정 주리·장 영준·박 영준·최 경봉(2003). 『한국어가 사라진다면』, 한겨레출판.
- 정 경일(2007). 「국어학: 브랜드네임의 유형별 고찰—“쌀”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9, 139~163쪽.
- 채 영희(2003). 「생태학적 언어관에 의한 국어 어휘 교육」,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365~388쪽.
- 한자교육자료(2014). 「고유어로 알기 쉬운 한자어(5)」, 한글한자문화 183,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78~79쪽.
- 홍 윤기·서 희정(2010). 「한국어교육에서 고유어의 위상과 등급화—고유어 용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2, 한국어교육학회, 351~384쪽.

623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 발표 자료집

2020년 5월 4일 박음

2020년 5월 8일 펴냄

엮고 펴낸 이: **한글학회**
회장 권 재일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이 책은 팔지 않음 *
